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심사평가보고서

2004.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목 차

## I. 일반 현황 (1)

1. 문예진흥기금 운용 (2)
2. 문예진흥기금 모금 및 적립·운용 (4)
3. 이사회 운영 (7)
4.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 (8)
5. 지원시설 운영 (19)

## II.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43)

### 1. 지원목표(성과목표)별 종합평가 (44)

- 가. 지원목표(성과목표)와 해당 단위사업 (44)
- 나. 지원목표(성과목표)별 계량적 평가 현황 및 결과 (45)
  - 1) 성과목표별 지원대상현황 (45)
  - 2) 성과목표별 평가현황 (45)
  - 3) 성과목표별 평가결과 (46)
- 다.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종합 (46)
- 라.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56)

### 2. 단위사업별 종합평가 (62)

- 가. 지원목표별 단위사업명 (62)
- 나. 단위사업별 평가 결과 종합 (62)
  - 1) 단위사업별 지원대상현황 (62)
  - 2) 단위사업별 평가현황 (63)
  - 3) 단위사업별 평가결과 (63)
  - 4) 단위사업별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 (64)

### 3. 분야별 종합평가 (142)

- 가. 분야별 지원 대상현황 (142)
- 나. 분야별 평가현황 (142)
- 다. 분야별 평가결과 (142)
- 라. 분야별 평가위원 총평 (143)

### Ⅲ. 경영개선 평가 (161)

- 1.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평가 결과 (162)
- 2. 2003년도 경영혁신 과제별 연간 추진실적 (167)

### Ⅳ. 평가제도운영 평가 (170)

- 1.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사평가 추진체계 (171)
- 2.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심사평가 추진방안 (172)
- 3.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심사평가 추진 (175)
- 4.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표 (176)
- 5. 심사평가 대상사업 현황 분석(176)
- 6. 평가결과 반영 실적 (178)
- 7.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 평가 (180)

#### (붙임자료)

- 1.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층평가 결과 (185)
- 2. “서울공연예술제” 심층평가 결과 (202)
- 3. 서면평가, 현장평가, 국민모니터링 평가 양식 각 1부 (209)
- 4.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및 기부자 현황 (216)
- 5.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세출 집행실적 종합 및 세부추진실적 (223)

## I . 일반 현황

## I . 일반 현황

### 1. 문예진흥기금 운용

가. 수입·지출 현황

1)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3 계획	2003 실적	실적/계획
1. 건물대여료	498,000	541,935	108.8%
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462,000	182,774	39.6%
3. 기타재산수입	23,816,000	26,379,932	110.8%
4. 법정부담금	61,435,000	54,209,593	88.2%
5. 민간출연금	700,000	207,339	29.6%
6. 기타경상이전수입	700,000	370,158	52.9%
7. 입장료수입	6,435,000	6,345,528	98.6%
8. 기타잡수입	29,000	31,038	107.0%
9. 고정자산매각익	75,000	0	0.0%
10. 관유물매각대	50,000	0	0.0%
11. 용자원금회수	3,179,000	1,536,000	48.3%
<b>합 계</b>	<b>97,379,000</b>	<b>89,804,297</b>	<b>92.2%</b>

2)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3 계획	2003 실적	실적/계획
1. 문화예술진흥	21,659,985	21,231,635	98.0%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0,733,155	10,482,167	97.7%
-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10,926,830	10,749,468	98.4%
2. 문화예술교류및보존지원	6,507,169	6,246,861	96.0%
-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	2,012,389	1,824,825	90.7%
- 예술의 보존과 계승 지원	4,494,780	4,422,036	98.4%
3. 기금관리비	10,228,315	9,072,213	88.7%
- 기금관리비	10,228,315	9,072,213	88.7%
4. 사업운영비	8,793,859	7,238,378	82.3%
-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	4,231,065	3,367,989	79.6%
- 문예시설운영	4,562,794	3,870,389	85.0%
5. 여유자금운용	50,189,672	25,537,000	50.9%
- 통화금융기관 예치	50,189,672	25,537,000	50.9%
<b>합 계</b>	<b>97,379,000</b>	<b>69,326,087</b>	<b>71.2%</b>

나. 수입·지출 현황 분석

1) 수입 현황 분석

2003년도 수입은 목표액 97,379백만원의 92.2%인 89,804백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각 수입항목별 수입유형을 살펴보면, 건물대여료의 경우, 시설별로 일정한 대관일정에 따라 목

표액의 108.8%로 초과 달성하였다.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및 기타재산수입은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의 운용결과이다. 우리원 자산 운용은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처 등 효과적인 자금운영 결과에 따라 이자수입이 110.8%로 초과 달성되었다. 이자수입의 경우, 2002년에 이어 지속적인 금리하락 추세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부동산투자신탁, 주식형투자일임, 파생상품활용 등 다양한 자산배분에 의해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상의 당초 목표 5.60%을 상회하는 6.02%의 수익률을 냄으로써 목표액 대비 22억원을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경우, 2003.12.31일부로 모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모금대상처의 비협조가 예상되어 모금독려와 철저한 미납금 관리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2003년도 모금조성실적은 53,565백만원으로, 2002년에 달성된 모금실적 48,434백만원에 비해 5,131백만원이 초과 달성되었다. 그러나 2003년도 목표모금액 61,435백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목표액을 과다 책정한 데에 원인이 있다. 즉 2001년도 모금실적 38,293백만원과 2002년도 모금실적 48,434백만원의 증가율(약27%)을 2003년도 예산 편성 시 적용 하므로써 목표액이 과다 편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약 51억원을 더 모금하여 역대 최고의 모금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영화상영관 연도별 모금 및 입장객 현황

(단위 : 백만 원, 천 명)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모금액	14,414	15,071	15,961	17,946	21,433	29,544	39,411	43,571
입장객	42,268	47,524	50,170	54,721	61,690	70,049	92,300	102,039

입장료 수입은 목표액 6,435백만원 중 6,345백만원의 실적으로 목표대비 98.61%을 달성하였다. 이는 뉴서울골프장 운영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문예진흥기금이 목표액인 5,649백만원을 조성하였기에 당초 목표액을 거의 달성할 수 있었다.

기부금 수입의 경우, 기업면담 등 기부금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하락, 기부문화에 대한 여건부족 등으로 그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2004년부터는 실명제 기부금, 기업 메세나 활동 협력 등을 중심으로 기부금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2) 지출 현황 분석

2003년도 세출은 목표액 97,379백만원의 71.2%인 69,326백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금관리비는 88.7%의 실적으로 인건비 지급총액 기준으로 기본급의 1%을 남기려고 노력하였고, 사업운영비는 82.3%로 4관의 시설관리 및 기금사업비로 지출된 비용이다. 문예진흥기금의 진흥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사업은 예산대비 98.0%로 거의 집행하였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2%로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 문화예술교류 및 보존지원사업인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 과 예술의 보존과 계승지원 사업도 예산대비 96.0%로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사업포기 등으로 4%의 잔액이 발생되었다. 예산 대비 전년 진흥사업 집행에 비해 15%이상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 거의 100% 집행하는데 노력하였다.

## 2. 문예진흥기금 모금 및 적립·운용

### 가. 문예진흥기금 모금관리

#### 1) 모금 개요

○모금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 모금대상 시설 : 전국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 1,049개소
  - 공연장 : 927개소(영화관 630, 기타 공연장 297)
  - 박물관(33), 미술관(11), 국가지정문화재(78) 등

- 모금을
  - 1,001원~3,000원까지 : 입장요금의 2.0%
  - 3,001원 이상(영화관) : 입장요금의 6.5%
  - 3,001원 이상(기타 공연장) : 입장요금의 6.0%
  -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는 단계별 적용

2) 모금관리 추진 실적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단기적으로 상습 미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독려 출장제도를 운영하는 등 모금 미납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모금독려출장 및 법적조치 등은 모금 회수액의 증가뿐 아니라 2003년말로 폐지된 모금제도에 대한 대상처들의 안일한 모금관련업무를 사전 방지하는 사전고지와 계도를 통한 회수효과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2000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극전용소극장(객석 200석 미만)에 대한 모금면제 혜택에 이어 2001년도부터는 영화관 소극장(단일관)에 대한 모금면제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공간(체육시설, 임시공연장, 야외시설 등)에서의 공연에 대한 모금면제를 시행하는 등 모금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100대 미만의 자동차극장에 대해서도 모금면제를 시행하였다.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4.01.0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모금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이를 공지하였으며 기존 미납문제 처리는 현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외에도 상습 및 고액미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회수노력에 전력할 예정이다.

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및 기금운용

1)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73-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국 고	447	300	300	200	0	0	0	0	0	0	0	1,247
공 익 자 금	600	0	50	0	0	0	20	30	0	0	0	700
올림피아드기금	100	0	0	0	0	0	0	0	0	0	0	100
자 체 적 립	528	65	30	106	123	76	306	452	271	356	698	3,011
<b>합 계</b>	<b>1,675</b>	<b>365</b>	<b>380</b>	<b>306</b>	<b>123</b>	<b>76</b>	<b>326</b>	<b>482</b>	<b>271</b>	<b>356</b>	<b>698</b>	<b>5,058</b>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집행 잔액 458억원 및 매월 20억씩 240억원을 조성하여 연간 총 698억원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12월말 현재 누계로는 총 5,058억원이 조성되었다.

2003년도 여유자금으로 책정된 502 억 원 중 년 중 기 적립액 2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은 년 말에 적립할 예정이었으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되고 문예진흥기금의 추가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적립을 유보하였다.

2) 문예진흥기금 운용 현황

○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예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비 고
		금액	예탁비중	금액	예탁비중	
제1금융권	정기예금,채권	290,883	66.71%	320,177	63.30%	
제2금융권	채권형	130,174	29.85%	170,647	33.73%	
	주식형	15,000	3.44%	15,000	2.97%	
계		436,057	100.00%	505,824	100.00%	

○기금운용 실적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운용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정시점에서 주식형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였으나, 2003년도 기금운용은 『2003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시행하여 주식형 등 수익성 상품보다는 안전성이 다소 높은 채권형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였다.

전년 대비 지속적인 수신금리의 하락, 지속되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 제한적인 기금운용 여건 하에서 운용효율성 제고와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다양한 투자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상반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틈새상품으로 주가지수 및 환율연동 파생상품, 우량은행을 통한 고금리 부동산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성 제고와 아울러 포트폴리오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2003년도 기금운영 실적 세부내역은 <표 I-1, I-2, I-3>과 같다.

<표 I-1> 2003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운용수익)

구 분	금 액	수익률	비 고
목표금액	243억 원	5.60%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상 목표금액
금 액	265억 원	6.02%	+0.42% 초과 달성

※ 목표금액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본운용계획서』의 세입 목표 준용

<표 I-2> 2003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신규투자상품 운용 실적)

구 분		투자일	만기일	금 액	비 고
상 품	회사명				
부동산신탁	하나은행등	2003.5	2005.7	160억 원	
주식형투자일임	한가람자문	2003.2	2004.2	50억 원	
해외투자펀드	씨티은행	2003.1	2004.1	20억 원	
주식연동파생상품	LG증권등	2003.1	2006.1	118억 원	
환율연동파생상품	국민은행	2003.5	2008.7	81억 원	

<표 I-3> 2003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기금자산 배분 실적)

구 분	배분 기준	실 적	비 고
금융권예탁	60% 이상	52.57%	
채권투자	30% 미만	44.46%	
주식형투자	10% 미만	2.97%	

※ 배분기준은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자산배분기준임.

2003년도 1/4분기 기금운용자문회의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형 배당형 투자에 대한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계획 대비 채권형 투자를 확대하였다.

○기금운용 제도 개선

2001년말 구성된 기금운용자문회의의 구성원을 운용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획예산처의 2002년도 기금평가 결과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 위원을 교체하여 거시경제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2002년 기금평가단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자 기금운용 관련 지침을 (2003.1월)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계량지표의 활용) 개정
- 제2금융권 선정기준 개정 (수익성지표 신설)

아울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위험관리의 아웃소싱을 확대, 지속하였고, 위험관리의 계량화를 위해 VAR지표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다. 문예진흥기금 재원 전망

2003년 말 로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모금세입 감소로 인한 문예진흥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이에 2003년도에는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한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 국고 출연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을 통해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분야에 배분받게 되었다.

그러나 복권수익금 배분의 경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배분율이 법상 명시되어있지 않고, 복권위원회에 기금을 신청하여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매년 배분되는 금액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복권수익금을 통한 재원조성 대책 이외에 2004년부터는 뉴서울골프장을 활용한 신규사업개발 등 다양한 재원확충 방안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이사회 운영

#### 가. 주요추진내용

-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이사회 역할 제고
- 원장 중심의 기관 자율성 제고
- 우리원 최고 의결기구로서 비상임 이사의 역할 강화 및 이사회 활성화
  - 비상임이사 : 9명(문화정책국장 포함) ※ 현재 기금운영분야 1인 공석

- 이사회 개최 활성화 추진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자문회의 활성화 추진
- 주요 현안 보고의 정례화
- 기관운영관련 주요사항 심의 의결 활성화

나. 구성 및 운영 현황

○ 문예진흥원 이사명단

(작성일 : 2003.12월)

구분	성명	임기	현직위	주요경력
상임	현기영	2003.2.17~2006.2.16	문예진흥원 원장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비상임	김창완	2003.4.30~2006.4.29	이사	조선일보 가정조선부장 / 도서출판자유문고주간 / 한국문인협회사무국장
비상임	김호석	2003.4.30~2006.4.29	이사	전남대강사 / 화가(동양화)
비상임	허영한	2003.4.30~2006.4.29	이사	계명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강사 / 경원대학교조교수
비상임	최종원	2003.4.30~2006.4.29	이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 한국연극배우협회회장 / 한국연극협회이사
비상임	최정자	2003.4.30~2006.4.29	이사	한국무용협회 부이사장 / 세종대무용학과장 / 빛마루무용단체감독
비상임	박인배	2003.4.30~2006.4.29	이사	민예총사무차장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실장 / 한국민족극운동협회부의장
비상임	임정희	2003.4.30~2006.4.29	이사	연세대문리대디자인학부겸임교수 / 문화연대(사)시민자연문화센터소장
비상임(당연)	이성원	2003.6.5~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 / 국립현대미술사무국장 / 문화정책국장
상임(당연)	강형철	2003.5.3~2006.5.2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숭의여자대학교교수 /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참고) 감사 및 문화진흥(주)대표이사

감사	최희준	2001.4.2~2004.4.1	감사	국회의원
대표이사	김철	2003.9.25~2006.9.24	대표이사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기획특보

다. 2003년도 주요추진사항(정기 이사회 개최)

회차	일자	의안번호	의안내용
제169회	2003.2.19	제546호	2002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결산(안)
		제547호	기본재산 설정(안)
		제548호	문예진흥기금 모금미납금 특수채권 소멸처리(안)
제170회	2003.5.2	제549호	사무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이사회 의견 청취
제171회	2003.5.19	제550호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551호	2004년도 뉴서울골프장기금운용계획(안)
제172회	2003.5.23	제552호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재심의
제173회	2003.8.7-8.8	제553호	직제규정 개정(안)
		제554호	감사규정 개정(안)
제174회	2003.10.28-10.31	제555호	뉴서울골프장 일부토지 매각(안)
제175회	2003.12.8	제556호	직제규정 개정(안)
		제557호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제176회	2003.12.22-26	제558호	보수규정 개정(안)
		제559호	'03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사업 중 이월사업 예산(안)

라.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자문회의) 추진

회차	일자	회의내용	비고
1회	2003.5.20	'04기금운용계획 심의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세부검토	소위원회
2회	2003.5.21	'04기금운용계획 심의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세부검토	소위원회
3회	2003.7.15	문예진흥법 개정(안) 검토 자문회의	자문회의
4회	2003.8.13	문예진흥법 개정(안) 검토 자문회의	자문회의
5회	2003.10.6	문예진흥기금 재원확충방안 검토 및 현안사항 자문회의	자문회의
6회	2003.12.4	'04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추진계획(안) 간담회	간담회

## 4.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 중점 목표

-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의 최대한 제고
- 지원신청자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 나. 지원신청 공고 및 접수

### 1) 지원신청 공고

- 공고 일자 : 2002.9.25
- 공고 방법 : 17개 중앙 일간지에 공고(5단x 37cm)
  - 중앙·동아·경향·세계·국민·한국경제·내외경제·파이낸셜 뉴스·조선·한국·한겨레·대한매일·문화·매일경제·서울경제·머니투데이·전자신문

### 2) 지원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 안내 책자 및 포스터
  - 배포처 : 16개 광역시·도, 예총·민예총 본부와 각 지회(부), 전국문화원연합회와 각 지역 문화원, 문화의 집, 주요 문화예술단체 등
- 인터넷 공시
  - 우리 원 홈페이지 : [www.kcaf.or.kr](http://www.kcaf.or.kr)
- 개별 안내
  - 우리 원 이메일(e-mail)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서 전송
  - 전년도 지원신청 단체에 안내 서한(원장 명의) 발송

### 3) 지원신청 안내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02.10.7(월), 10.8(화) 마로니에 미술관 3층
- 개최 의의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체제와 이에 따라 변경된 지원신청 방법 등을, 국민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원 지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함.
- 참석자 : 일반 국민 및 예술인 200명
- 진행 방법 : 주요 내용 종합 프리젠테이션, 참석자 질의 및 우리 원 실무 팀장 응답

###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식 교부 : 우리 원 안내실 및 각 팀,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내려받기 가능),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관광/체육)과, 예총·민예총 본부 및 각 지회(부), 전국문화원연합회 및 각 지역 문화원, 각 지역 문화의 집 등
- 접수 방법 : 우리 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접수 기간 : 2002.10.1(화)~2002.10.31(목)(1개월)

## 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1) 지원심의위원 선정 기준

-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함.
-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대표자 등 신청사업과 특수(이해) 관계에 있는 자는 심의위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심의의 객관성과 참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년도 심의위원 전원을 신규 위원으로 교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함.

- 경향별·지역별·성별·연령별로 균형 있게 안배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론가들의 참여 폭을 늘림.
- 신진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새롭고 다양한 문화 환경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급변하는 문화흐름을 앞서 견인할 수 있는 심의를 유도함.

2) 기금지원심의위원회(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42조 근거)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
  - 8개 분야(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별 1인씩 선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
- 역할
  -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의 기본 방향, 심사평가 결과 반영 방안, 분야별 배정 예산 등 검토
  - 공통심의기준, 지원 등급·단가 등 지원심의 기본 방침 등 검토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별 지원액 등) 최종 확정,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심의 등

3)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 구성
  - 8개 분야별 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우리 원의 심의위원 뱅크를 토대로, 원내 선정위원회에서 3배수 내외의 후보를 선정한 후 최종 위촉
- 역할
  - 각 분야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결정
  -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 후보사업들에 대해 지원 예정액 결정

라. 공통심의기준과 주요 고려사항

1) 공통심의기준

-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월성(秀越性/빼어남)
-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2) 공통심의기준별 세부 착안사항

-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월성
  - 사업을 통해 발표되는 프로그램의 예술(문화)적 창의성
  - 기획·연출·구성 등의 참신성·독창성 등
  - 제작진과 참가 단체(개인)의 예술(문화)적 기량
  - 특히 정기(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 등
-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사업 목적과 사업 활동의 연계성
- 사업 계획의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활동의 구체성·적합성·실현가능성
- 소요재원 조달 방법(수입·지출 예산의 산출 등)과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신청사업 목적과 문예진흥기금 지원목표와의 부합도
  - 신청인(단체)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신청 사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기대되는 파생 결과의 구현도
  - 해당 분야의 발전에의 기여도 및 기대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목표에의 달성도 등
  - 특히 정기(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이 해당 분야 발전에 끼친 기여도와 파급효과 중점 검토
-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 사업 추진 주체(공동참여자 포함)의 역할과 기능의 적격성
  - 사업 추진 주체(공동참여자 포함)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
  -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결과 등(2002년도 심사평가 종합 등급은 이 심의기준에 그대로 적용)

### 3) 2003년도 심의기준의 특징적 사항

- 공통심의기준별 5개 등급(A/B/D/D/E등급)은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의 ‘탁월(A)/우수(B)/보통(C)/미흡(D)/아주미흡(E)’정도를 판단하는 절대평가 방식에 의함.
- 각 신청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공통심의기준별 등급은 각 신청사업들간 상대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점에 의해 백분율로 점수화
  - A등급 100점 • B등급 80점 • C등급 60점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각 공통심의기준은 신청사업의 해당 성과목표별로 그 가중치를 달리함
- 각 위원별 점수 =  $\sum [(4개\ 기준항목별\ 가중치) \times (배점) / 100]$
- 전 위원의 종합 점수 =  $\sum [위원별\ 점수]$ 
  - \* 단, 어느 한 위원이 해당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서 상하 30% 포인트를 벗어나는 평점을 부여했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다시 평균평점을 산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제고

### 4) 주요 고려사항

-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집중지원의 지속 확대 및 보급확산형 소액지원의 병행
  - 예술 창조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규모에 있어서 전략적인 집중 지원 체제를 유지 강화
  - 문화 복지 및 향수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소액다건 방침을 병행
- 지원사업 심사평가 결과의 최대한 반영
  -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모든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결과를 반영
- 동일 조건일 경우 다수 혜택 신청사업 우선 선정
  - 동일 분야, 동일 여건의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는
    - 개인보다 다수 또는 단체가 수혜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지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사업비 지원 및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예술단체의 경상운영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
  - 단 기존의 경상비 수혜 단체는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유도

- 지원 규모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단체는 적정 수준의 자체자금 또는 별도 후원자금의 확보 능력이 있어야 함.

마.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1) 회의 구분

- 1차 심의 : 제1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 2002.12.5(1일), 우리 원 회의실
- 2차 심의 : 제1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문학’·‘미술’·‘음악’·‘무용’  
·‘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 등 8개 분야)  
; 2002.12.10~12.13(각 1박 2일), 유네스코문화원(경기 이천)  
※ 단 ‘다원예술’은 우리 원 회의실에서 1일
- 3차 심의 : 제2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문학’·‘미술’·‘음악’·‘무용’  
·‘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 등 8개 분야)  
; 2002.12.20~12.24(각 1일), 우리 원 회의실
- 4차 심의 : 제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 2002.12.30(1일), 우리 원 회의실

2) 운영 개요

- 1차 심의(제1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계획 보고(우리 원 회의실)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기본 방향,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 지원심의 방침, 개개 핵심역량사업별 지원 등급 및 단가 기준, 분야별 예산배정 등 결정
- 2차 심의(제1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
  - 분야별·핵심역량사업별 세부 심의 방침 결정,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격성 심의
  - 신청자(단체)의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에 대한 전 위원들의 개별 검토를 토대로 각 신청사업과 신청자(단체)에 대한 토론(정보 교환 등)후 위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채점  
☞ 채점 집계 결과는 3차 회의에 제출
- 3차 심의(제2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
  - 2차 심의회의의 채점 집계 결과를 토대로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후보 사업들에 대한 적정 지원예정액(안) 등 결정  
☞ 이 우선순위를 토대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지원유형별 통합순위’는 4차 심의회의에 제출
- 4차 심의(제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 분야별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1, 2차) 결정사항에 대한 종합 심의 후 최종 확정 및 의결,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심의 등  
※ 기금심의회의 심의대상 사업 : 자체사업, 지역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전국 규모의 장르별 대표행사, 기타 정책사업 등

바.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

1) 지원등급 및 지원단가 책정 : 제1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 2002년도 지원 등급 및 단가 기준, 2003년도 신청사업의 성격과 총 소요예산 등 규모, 우리 원의 집중지원 방침 등을 고려하여, 각 지원유형 내에서 분야별 3~4개의 지원 등급

및 단가 기준을 책정

- 각 지원유형 내에서의 분야별 예산은, 2002년도 지원실적 및 2003년도 수요(신청)를 토대로 배정
  - 예산 배분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가중치의 총합을 100으로 할 때, 02년도 실적을 60(지원예산액 50, 지원결정건수 10), 03년도 수요를 40(지원신청액 30, 지원신청건수 10)의 비중으로 함

## 2) 채점 : 제1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

- 분야별 위원들은 모든 신청사업별 4개 공통심의기준에 대한 점수를 평가표에 기재한 후 우리 원에 제출
- 공통심의기준별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채점은 다음과 같이 A~E까지 5단계의 절대평가 방식을 택함.
  - A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탁월할 경우
  - B등급 :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우수할 경우
  - C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보통일 경우
  - D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미흡할 경우
  - E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아주 미흡할 경우

## 3) 심사평가 결과의 지원심의 반영 “ 제1차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 지원사업자는 공공기금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우리 원은 공공기금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함과 아울러 기금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채점 시 2002년도 심사평가 결과 반영을 제도화함.
- 심사평가 결과의 통합정보망 등록 마감 및 집계 기준일은 2002.11.30로 하며 따라서 이때 까지 등록된 평가 결과에 한해서만 2003년도 지원심의에 반영함. (2002.12.1 이후 등록되는 평가 결과는 2004년도 이후의 지원심의시 반영함)
- 2002년도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등급은 해당 단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능력으로 간주하여 2003년도 공통심의기준 중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에 적용함. 따라서 2002년도 심사평가 최종등급은 2003년도 지원신청사업의 분야나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신청인(단체)의 모든 신청사업에 일괄 적용하며, 한 단체(개인)가 여러 사업을 수행한 경우, 평가받은 모든 사업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책정함
- 2002년도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방법별 등급책정 및 지원심의 반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서면평가만 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사업 : 소정 서면평가를 이수한 사업은 이 서면평가 점수(40점)를 백점으로 환산하여 책정된 등급을,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A/B/C/D/E)의 5개 등급)에 동일 등급으로 반영함.
    - ※ 지원사업 종료 후 11월 30일 현재까지 1개월이 넘도록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소정 서면평가를 이수치 못한 사업은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에 대하여 최고등급(A등급)을 주지 아니함.
  - 현장평가만 이수한 사업 : 현장평가 점수(60점)를 백점으로 환산하여 책정된 등급을 반영함.
    - ※ 이 경우 사업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11월 30일 현재 서면평가 없이 현장평가만 이수한 사업은 현장평가 점수(60점)만을 백점으로 환산하여 책정된 등급을 반영하되, 최고등급(A등급)을 주지 아니함.

- 두 평가 모두 이수한 사업 : 두 점수(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를 합하여 책정된 등급을,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A/B/C/D/E의 5개 등급)에 동일 등급으로 반영함.
- 한 단체(개인)가 여러 지원대상사업을 수행한 경우 : 평가받은 모든사업의 평균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하여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A/B/C/D/E의 5개 등급)에 동일 등급으로 반영함.
- ※ 이들 여러 사업 중 10월 31일까지 완료되었음에도 11월 30일까지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소정의 서면평가를 이수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에 대하여 최고등급(A등급)을 주지 아니함.

4) 채점결과 및 심사평가결과의 종합집계

- 공통심의기준 항목에 대한 채점 집계시 A는 100점, B는 80점, C는 60점, D는 40점, E는 20점을 부여하며, 각 신청사업의 평균평점 산출 시 위원들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어느 한 위원이 해당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서 상하 30%를 벗어나는 평점을 부여했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다시 평균평점을 산출하며, 이렇게 재 산출된 평균평점을 지원우선순위 결정 시 적용함.
- 신청사업의 해당 성과목표에 따라 공통심의기준의 가중치를 달리하며, 이 가중치와 각 심의위원들의 평가등급별 배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공통 심의 기준	성과목표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배점				
	예술창작 진흥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	A	B	C	D	E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월성	(40)	(20)	(20)	(30)	100	80	60	40	2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20)	(20)	(20)	100	80	60	40	20
해당분야 발전에의기여도와 과급효과	(20)	(40)	(40)	(30)	100	80	60	40	20
신청인(단체)의 사업추진능력	(20)	(20)	(20)	(20)	100	80	60	40	20
계	100	100	100	100					

- 5) 지원유형별 표준평점 및 통합순위 산출 : 제2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
- 6)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예정액 일차 책정 : 제2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
- 7)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예정액 최종 확정 : 제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사.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위원 명단

1)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8개 분야 8인)

2) 분야별 심의위원 (8개 분야 82인)

분야	성명	성별	생년(나이)	현직 / 주요경력
문학	윤홍길	남	1942 (60)	· 소설가, 한서대 교수,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 원광대 졸업, 한국문학작가상·현대문학상·한국창작문학상 등 수상
미술	최병식	남	1954 (48)	· 미술평론가, 경희대 교수 · 경희대·대만시립중국문화대(석사)·성균관대(박사) 졸업,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역임
음악	정완규	남	1957 (45)	· 음악평론가, 중앙대 교수 · 연세대·미국텍사스텍주립대(석·박사) 졸업, 전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회장
무용	박일규	남	1953 (49)	· 현대무용가, 서울예대 교수 · 뉴욕대 예술대학원 졸업
연극	안치운	남	1957 (45)	· 연극평론가, 호서대 교수 · 중앙대(석사)·프랑스파리3대학(박사) 졸업
전통예술	황루시	여	1951 (51)	· 민속학자, 관동대 교수 · 이화여대(석·박사) 졸업, 무속현장답사 전문('76~)
다원예술	신세미	여	1956 (46)	· 문화일보 대기자(미술전문) · 연세대 졸업, 문화일보 문화부장 역임
문화일반	박찬	남	1948 (54)	· 시인, 간행물윤리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민예총 지도위원 · 동국대 졸업, 전 대한매일논설위원, 동국문학상 수상

▪ 문학 분야 : 12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세부장르	비고(추천)
정진규	남	1939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	
감태준	남	1947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	한국시인협회
문정희	여	1947	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	
이지엽	남	1958	경기대 한국동양어문학 교수	시조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시조시학회
최일남	남	1932	소설가, 방송문화진흥회이사	소설	
손장순	여	1935	소설가	소설	
윤홍길	남	1942	한서대 문예창작과 교수	소설	
노경식	남	1938	희곡작가	희곡	한국희곡작가협회
김종상	남	1937	서울유석초등학교 교장	아동문학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박상규	남	1937	동화작가	아동문학	민족문학작가회의
임현영	남	1941	중앙대 국문학과 교수	평론	한국문인협회 한국평론가협회 한국수필가협회
김인환	남	1946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평론	

▪ 미술 분야 : 12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세부장르	비고(추천)
송수남	남	1938	홍익대 동양화과 교수	동양화	
서정태	남	1952	중앙대 한국화과 교수	동양화	
곽남신	남	1953	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양화	한국미술협회
홍승혜	여	1959	서울산업대 교수	양화	
이태호	남	1951	작가	조각	민족미술인협회
김정화	남	1951	작가	서예	
김승희	여	1947	국민대 공예디자인학과 교수	공예	
박영택	남	1963	경기대 미술학과 교수	사진	민족사진가협회
김종성	남	1935	서울건축사무소 대표	건축	
송미숙	여	1943	성신여대 교수	평론	
장석원	남	1952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평론	
최병식	남	1954	경희대 미술대학 교수	평론	

▪ 음악 분야 : 9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추천)
조영방	여	1953	단국대 교수	기악	
김윤자	여	1951	숙명여대 교수	성악	
최창남	남	1956	디딤돌문화원 이사장	작곡	민음협
하재은	남	1937	연세대 교수	작곡	
이신우	여	1962	서울대 교수	작곡	
전정임	여	1963	예술종합연구소	평론	
정완규	남	1957	중앙대 교수	평론	음악협회
문일근	남	1948	음악평론가	평론	
주성혜	여	1963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론	

▪ 무용 분야 : 10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추천)
정승희	여	1945	무용원 교수	한국	
양선희	여	1953	세종대 교수	한국	무용협회
윤미라	여	1960	경희대 교수	한국	
박일규	남	1953	동량댄스앙상블 대표	현대	무용협회
하정애	여	1945	신라대 교수	현대	
김화례	여	1952	경희대 교수	발레	무용협회
박인자	여	1955	숙명여대 교수	발레	
이계홍	남	1947	무용평론가	평론	
이순열	남	1935	무용평론가	평론	
이은경	여	1960	국민일보 문화부장	언론	

▪ 연극 분야 : 10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추천)
박조열	남	1930	극작가	극작	
이강백	남	1947	극작가	극작	희곡작가협회
김효선	여	1959	성균관대 강사	무대	
박상규	남	1951	국립극단장	연기	
윤광진	남	1954	연출가	연출	연극협회
이창구	남	1941	청주대 교수	연출	
김창우	남	1949	경북대 교수	연출	민극협
유민영	남	1936	단국대 교수	평론	
안치운	남	1957	연출가	평론	
김방옥	여	1952	청주대 교수	평론	

▪ 전통예술 분야 : 10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추천)
김정자	여	1942	서울대 교수	국악	
이상규	남	1947	한양대 교수	국악	
현경채	여	1960	서울예대 강사	국악	
오용록	남	1955	서울대 교수	국악	민음협
정병호	남	1927	중앙대 명예교수	전통무용	
김명자	여	1945	안동대 교수	민속	
이종철	남	1944	문화재위원	민속	
조홍윤	남	1947	한양대 교수	민속	
황루시	여	1951	관동대 교수	민속	
반영환	남	1936	전 서울신문논설위원	언론	

▪ 다원예술 분야 : 10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세부장르	비고(추천)
신세미	여	1956 (46)	문화일보 대기자 (문화부장 역임)	종합	
김창남	남	1960 (42)	성공회대 교수, 대중문화평론가	종합	민음협(03) 추천
조유현	남	1961 (41)	서울스코프 발행인	종합	
정현이	여	1959 (43)	한성대 회화과 교수	미술	
김종근	남	1957 (45)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미술평론가	미술	
장승헌	남	1958 (55)	공연기획자	무용	
김창화	남	1955 (47)	상명대 공연학부 교수	연극	
송희영	여	1963 (39)	서울여대 교양학부 교수	음악	
강현	남	1962 (40)	대중음악평론가	대중	민음협(03) 추천
임준철	남	1958 (44)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영상	

▪ 문화일반 분야 : 9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세부장르	비고(추천)
김송배	남	1943 (59)	시인	종합	예총(03)추천
이태수	남	1960 (42)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장애인	
송애경	여	1956 (46)	아시테지 한국본부 감사	종합	
박찬	남	1948 (54)	전 대한매일 논설위원	종합	평가위원(02)
이광호	남	1956 (46)	한국청소년개발원 정책실장	청소년	
전승보	남	1964 (38)	세종대겸임교수, 광주비엔날 레전시부장	종합	민예총(03)
이종훈	남	1950 (52)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	공연	
임동지	남	1945 (57)	전 문예진흥원 진흥국장	종합	
허영자	여	1938 (64)	시인, 성신여대 교수	종합	

## 5. 간접 지원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

### 가. 예술극장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 예술극장 경영 이념
  - 창조적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제공

- 양질의 예술문화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기여
- 예술극장 경영 전략 목표
  - 최우수 예술문화 제공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위상 확립
- 예술극장 운영 목표
  - 고객의 관점
    - 양질의 예술문화 제공
    - 공연장 고객 만족도 향상
  - 내부 프로세스
    -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극장의 차별적 이미지 구축
  - 공익적 관점
    - 공익 공연장으로서 사회적 서비스 기능 강화
    - 전문 무대 기술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재무적 관점
    - 수익·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1) 예술극장 운영

가) 총 운영 실적

- (1) 대극장
  - (가) 총운영일수 : 304 일
  - (나) 총공연횟수 : 316 회
  - (다) 총 관객수 : 102,964 명
- (2) 소극장
  - (가) 총운영일수 : 318 일
  - (나) 총공연횟수 : 418 회
  - (다) 총 관객수 : 36,439 명

나) 2002년도 예술극장 대관 운영 실적

- (1) 예술극장 대극장
  - (가) 대관일수 : 262일
  - (나) 대관건수 : 62 건
  - (다) 공연회수 : 267 회
  - (라) 관람인원 : 86,844 명(객석점유율 46.5 %)
    - 유료 : 43,643 명
    - 초대 : 23,201 명
- (2) 예술극장 소극장
  - (가) 대관일수 : 289 일
  - (나) 대관건수 : 37 건
  - (다) 공연회수 : 385 회
  - (라) 관람인원 : 32,661 명 (객석점유율 56.6%)
    - 유료 : 16,031 명
    - 초대 : 16,630 명
- (3) 대관운영 수입
  - (가) 대극장 : 199,054,200 원
  - (나) 소극장 : 51,286,000 원
  - (다) 연습실 및 부대시설 등 기타 수입 : 90,784,000 원
- (4) 예산집행실적 : 1,517,889,278원(예산액 1,727,558,000 원, 집행율 87.9 %)

2) 예술극장 기획공연

가) 2002년도 예술극장 자체기획 및 기획대관 추진 실적

(1) 자체기획 및 기획대관 공연 건수 : 총 9건

(가) 자체 기획 공연 : 3 건

- 마당을 나온 암탉 (소극장, 2003. 1. 2 - 1.30)
- 피터와 늑대 & 재미있는 이야기발레 (대극장, 5. 1 - 5. 10)
- 울 할아버지 꽃상여 (대극장, 11. 17 - 11. 30)

(나) 기획 대관 공연 : 6 건

- 퓨전퍼포먼스 '입춘대길' (학전블루, 2. 5 - 2. 9)
- 연극 산소 (소극장, 4. 1 - 4. 20)
- 제3회 서울국제 크로스오버 즉흥춤 페스티벌 (소극장, 4. 22 - 4. 25)
- 청산별곡 II (대극장, 8. 24 - 8. 31)
- 제5회 인터내셔널 댄스미팅 포즈 (대극장, 12. 2 - 12. 7)
- 댄스뮤지컬 겨울이야기 (대극장, 12. 22 - 12. 25)

(2) 관람인원 : 19,898명 (총 객석점유율 : 52.5 %)

(가) 유료 관객 : 11,701 (객석점유율 : 30.8%)

(나) 초대 관객 : 8,197 (객석점유율 : 21.6%)

(3) 세입실적 : 157,039,293원 (목표액 138,000,000 원, 113.8%)

(4) 예산집행실적 : 183,360,530원(예산액 199,900,000원, 91.7%)

3) 예술극장 사회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명 :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1) 운영 기간

- 상반기 : 2003. 3. 22 - 5. 31(10주 프로그램)
- 하반기 : 2003. 10.11 -12. 13(10주 프로그램)

(2) 수강 대상 : 6 - 7세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포함)

(3) 수강인원수 : 총 36명

(4) 세입실적 : 16,357,000원

나) 극장 탐방 체험프로그램 "극장아 노~을자"

(1) 운영 기간 : 2003. 7. 22 - 7. 25(4일간, 총 8회)

(2) 수강 대상 : 6 - 7세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포함)

(3) 수강인원수 : 총 235명

(4) 세입실적 : 2,032,500 원

다) 예산집행실적 : 15,818,790원(예산액 20,142,000 원, 집행율 78.5 %)

4) 예술극장 전국무대기술인 현장 연수 추진 실적

가) 신진 무대 기술인 현장 연수 추진

(1) 기간 : 2003. 2. 1 - 12. 31

(2) 인원 : 8명 ( 조명 2명, 음향 2명, 무대 2명, 공연기획 2명)

나) 지역무대 기술인 연수

(1) 기간 : 2003. 1월 - 12월 연중 수시

(2) 인원 : 총 6명

다) 예산집행실적 : 58,574,590 원 ( 60,800,000 원, 집행율 96.3 %)

5) 관객리포터제 운영

가) 운영 기간 : 2002. 1. 1 - 12. 31(1년)

나) 리포터 수 : 18명

다) 주요 활동 실적

- 리포터 제출건수 : 176 건
  - 극장시설 및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 137건
    - . 어린이 놀이방 설치
    - . 홍보물 비치대 교환
    - . 어린이용 방석 구입
    - . 화장실 환출서기 표시 테이프 부착
    - . 자동 우산 비닐 포장기 구입 등
  - 공연 진행과 관련된 사항 : 18건
    - . 공연 시작 전 안내방송 표현 수정(핸드폰 -->휴대폰)
    -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안내방송 멘트 마련
    - . 공연시작 시간 준수
  - 기타 : 21건
- ※ 비예산 사업

6) 학전블루소극장 운영 추진 실적

가) 사업 목적 및 개요 :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단체에 대관하여 공연예술계를 간접지원하고 예술성이 높고 실험적인 창작무대예술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대학로 소극장 연극공연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나) 2003년도 운영 실적

- 총운영일수 : 345 일
  - 기획공연 : 29일
  - 대관공연 : 316일
- 총공연횟수 : 429 회
  - 기획공연 : 47회
  - 대관공연 : 382회
- 총 관객수 : 44,253 명(객석점유율 55.2 %)
  - 유료 : 24,962 명
  - 초대 : 19,291 명

다) 대관운영 수입 : 94,720,000 원

라) 예산집행실적 : 337,038,345 원 (예산액 357,656,000 원, 집행율 94.2%)

※ 참고 2003년도 예술극장 대극장 대관공연 현황 (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참고 2003년도 예술극장 소극장 대관공연 현황 (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참고 2003년도 학전블루소극장 대관공연 현황 (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참고 2003년 예술극장 운영자문위원 외부인사

마) 예술극장 운영 자체평가

(1) 공연 프로그램

□ 대관

- 공연단체의 예술극장 대관 수요와 극장 선호도는 높은 편으로 대관사업 운영여건은 대체로 양호
  - 대관신청 경쟁률 2002년도 대비 대극장 소폭 상승 (2.84:1->2.93:1), 소극장 대폭 상승 (3.50:1->4.59:1)

월/연도	분야	만찬행사명	주요인사	성별	공공기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관인수	공연인수
1. 11 / 1.30	극단	대한민국	김광림	남	○ 한국예술종합학교	마포원 드림 안무	극원	19	177
1.14 / 1.29	대한악악회	새싹악회		남		안무원	연극	28	28
1.20 / 1.19	공연	공연장특별	김유철	남	○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공연	연극	16	16
1.20 / 1.20	3명	가림원	가림원	남	○ 한국예술평론가	연극	연극	20	23
1.17 / 2.28	극단	대한악악회	이병훈	남	○ 연극연출가	가림원	연극	27	23
2.21 / 3.10	아름다운	아름다운		남	○ 용인대 교수	연극	연극	10	14
2.12 / 2.16	한채원	한채원	최준호	남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	연극	26	24
2.13 / 2.20	극단	대한악악회	김재현	남	○ 하서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	연극	24	33
2.24 / 2.26	젊은인	젊은인	김성달	남		연극	연극	3	2
2.26 / 3.28	8명	젊은인	김성애	남		연극	연극	3	30
3.10 / 3.10	2명	젊은인	김성애	남		연극	연극	3	3
3.10 / 3.23	젊은인	젊은인	이명옥	남		연극	연극	3	2
3.22 / 3.23	사)한국	사)한국	이명옥	남		연극	연극	12	20
3.23 / 3.23	3명	사)한국	이명옥	남		연극	연극	8	10
3.27 / 3.27	1명	사)한국	이명옥	남		연극	연극	14	23
3.19 / 4.22	극단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11	18
4.23 / 4.26	극단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19	16
4.26 / 4.20	극단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19	16
4.23 / 4.23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2	11
4.23 / 4.26	아름다운	아름다운		남		연극	연극	6	12
5.10 / 5.20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19	26
5.21 / 10.22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13	16
10.22 / 10.29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3	3
10.26 / 10.26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21	29
10.25 / 10.28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13	21
10.19 / 10.16	극단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13	13
10.12 / 10.20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10	21
10.20 / 11.22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28	42
10.23 / 10.25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2	11
10.26 / 10.20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3	2
10.12 / 10.23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3	3
10.16 / 10.26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10	24
10.29 / 12.22	극단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10	17
12.22 / 12.30	대한악악회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8	13
17.10 / 17.30	젊은인	젊은인	총계	남		연극	연극	323	420
12.10 / 12.12	LDN	LDN		남		연극	연극	3	2
12.15 / 12.27	아름다운	아름다운		남		연극	연극	3	3
12. 3 / 12.28	김영환	김영환		남		연극	연극	3	12
9. 6 / 9. 7	이정희	이정희	총계	남		연극	연극	317	433
9. 8 / 9. 9	김정학	김정학		남		연극	연극	2	2
9.12 / 9.14	육십나	육십나		남		연극	연극	3	2
9.16 / 9.17	전홍조	전홍조		남		연극	연극	2	1
9.18 / 9.28	극단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11	13
9.29 / 9.30	지구	지구		남		연극	연극	2	1
10. 1 / 10. 2	오은	오은		남		연극	연극	2	2
10. 3 / 11. 2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31	30
10. 3 / 10. 9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7	10
10.10 / 10.11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2	1
10.12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1	1
10.13 / 10.16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4	3
10.17 / 10.20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4	5
10.21 / 10.23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3	2
10.24 / 10.26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3	3
10.27 / 10.29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3	2
10.30 / 11. 2	서울	서울		남		연극	연극	4	3
11. 3 / 11. 9	극단	대한악악회		남		연극	연극	7	4
11.10/11.12	전자	전자		남		연극	연극	3	6
11.13/11.16	국수	국수		남		연극	연극	4	2
12. 1	오느	오느		남		연극	연극	1	1
12. 8/12.10	정승	정승		남		연극	연극	3	2
12.11/12.20	연희	연희		남		연극	연극	10	11
12.21	슬기	슬기		남		연극	연극	1	1
12.26/12.28	세계	세계		남		연극	연극	3	2
12.29/12.31	박명	박명		남		연극	연극	3	2
총계								285	280

※ 대관신청일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쟁률이 대극장 4.51:1, 소극장 6.89:1로 상승하며 2003년 소극장 임차운영 종료로 대관 경쟁률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 (2004년 상반기 대극장 4.2:1, 소극장 5.17:1)

- 예술극장 공연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저하 추세여서 극장의 인지도 향상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시급
  - 유료관객 점유율 2002년도 대비 대극장 34.9%→23.4%, 소극장 29.1%→27.8%
  - ※ 전국 공연장 2000년 평균 유료관객 22.8%(문화관광부, 2004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별다른 우위를 보이지 못함.

□ 기획공연

- 가족대상 공연의 시즌성 레파토리화(“마당을 나온 암탉”, “피터와 늑대 & 재미 있는 이야기 발레”), 다양한 장르의 참여(“입춘대길”), 새로운 소재의 개발(“산소”) 등 창의적이며 건전한 공연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
- 대극장 5건 42일 49회, 소극장 3건 29일 33회, 학전블루 1건 29일 47회로 가용일수(극장 사용일수) 대비 각각 13.8%, 9.1%, 8.4% 공연.
- 유료관객 점유율은 2002년 대비 다소 하락 (대극장 31.4%→27.8%, 소극장 100.6%→55.6%)하였으나 대관공연(대극장 23.4%, 소극장 27.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유지.
- 타 공연장과 차별화된 예술극장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관을 포함한 공연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기획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학전블루 소극장 임차 운영

- 공연발표 공간이 절대 부족한 여건에서 저렴한 대관료와 우수한 공연 지원 서비스로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
  - 대관 경쟁률은 2002년 대비 하락(2.93:1→2.0:1)하였으나 2002년의 경우 연도중반에 예술극장과 분리 공모로 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
- 시행 첫 년도인 2002년에 비해 사업운영의 내실화로 유료관객이 22.7%→27.9%로 증가하는 등 성과 향상

(2) 공연 홍보

- 대관공연에 대해 예술극장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안내, 격월간 홍보지 발간 등 홍보 지원을 하는 수준으로 공연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은 공연단체가 전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프로모션 기능이 취약하여 공연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제약이 많음.
- 기획공연의 경우 개별 공연 위주의 홍보를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술극장의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예술극장 운영 및 공연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 필요.

(3) 극장 운영 서비스

- 하우스매니저 운영으로 공연진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객의 측면에서 극장이용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
  - 관객안내원과 자원봉사자, 관객리포터 등 공연진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한편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공연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제고 지속 추구
- 2002년도부터 시행한 관객리포터제도를 정착시켜 극장 이용에 있어 미비점을 엄밀하게 체크하여 운영개선에 반영

(4) 시설관리

- 대극장 천정 및 객석 교체 공사 설계, 기자재 물품창고 설치, 대, 소극장 객석 출입문 및 조명실 출입문 교체, 광케이블 설치 및 노후 허브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극장 기능 상당 수준 개선
- 대극장 조명회로 대폭 증설, 무선마이크 16채널 구입, 소극장 모니터용 카메라 및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극장의 기술적 성능 크게 향상
- 향후 노후 시설 교체 및 기능 취약 부분 지속 개선을 위한 투자 필요

(5) 교육프로그램

□ 사회교육

- 상하반기 미취학 아동 각 2팀 총71명을 대상으로 연습실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 교실 시행하였으며 참여도가 높아 좋은 성과를 거둠.
- 초등학교 저학년 235명을 대상으로 1일 2회, 총 8회의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여 극장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특화시킴.
-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높은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나 시설과 인력의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무대전문인 교육

- 신진무대예술인(인턴) 교육프로그램
  - 2002년과 같이 예술극장 인턴 8명(무대기술 6명, 공연장 운영 2명)을 채용하여 실시
  - 예술극장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도제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지역무대예술인 현장 연수
  - 무대 및 조명분야에서 연 9인 평균 2.67주 연수 참여
  - 음향분야 참여자가 없고 4명은 전국연극제 준비 스태프의 참여, 하반기 신청자 없음. 현장 인력이 장기간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문화예술연수원에서 단기 집중교육실시로 동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추세임.
  - 2005년 이후 지속 추진여부 검토 필요.

(6) 경영효율성

- 재정자립도 2002년 대비 23.6% -> 28.9%로 향상
  - 지출 2,267,443천원 -> 2,112,682천원으로 감소(시설유지비 대폭 감소, 인건비, 자산취득비, 기획공연 추진비 증가), 수입 534,071천원 -> 611,273천원으로 증가(대관료 증가)
- 단순 수입, 지출 단순 대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로 경영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예술극장 재정에 대한 기업회계 방식 도입 필요

(7) 향후 주요 개선 추진사항

- 공연프로그램의 개선 : 단순 대관을 탈피하고 시설의 운영효과 및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의 구성하여 대관공연작품 선정에 적용하는 한편 기획공연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함.
- 홍보·마케팅 강화 : 예술극장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예술극장의 인지도 향상을 통한 공연홍보효과 개선, 회원제 실시 및 관객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마케팅 시행, 온라인 입장권 판매시스템 도입을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등 적극적이며 입체적인 전략 전개
- 극장 시설 및 서비스 지속 개선 : 시설 및 기자재의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객의 공연장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예술극장의 공공 기능을 강화

나. 마로니에미술관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미술 창작 발표의 장을 제공(대관)하고, 우수 기획전을 적극 유치(기획전시), 하며, 지역의 우수한 신진작가 작품 초대전을 통하여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공간 운영함을 목표로 함.

1) 2003년도 예산운영

- 시설운영목표(근거 : 문예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 2001)
  - 한국의 주류미술을 선동하는 비영리성 공공전시관
  - 대안성을 지닌 쿤스트 할레(Kunsthalle)로서의 전시공간
  - 미래지향적 복합미술지원센터 및 국제미술교류의 창구
- 2003년도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실적
  - 가)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
    - 마로니에미술관 국·영문 소개자료 발간(1000부, 200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운영과 연계하

여 해외 주요 미술계 인사에 배포 활용)

- 학예연구 기능 확충 : 학예연구 인력 운영 기반 마련(4명) 등
- 외부 전문가 그룹 운영의 실효성 강화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분과별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기반 마련('03.4월)
  - 전시예술,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국제교류분과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전시기획의 집중력 강화 및 전시운영의 관람객 서비스 제고
  - 개간시간 연장 : 10:00~19:00 → 11:00~20:00
  - 전시설명, 강연회, 관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슨트 회원제 도입 및 시범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미술관운영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가칭 '공원 프로젝트' 추진방안 조사연구 : 시범 전시기획 추진('공원 쉼표 사람들' 전, '03.8월), 이미지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 수립('03.9월), 중장기발전계획 시안 마련 및 운영자문위원회 추진('03.10월~12월)
- 나) 국제교류 전시기획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 교류대상처 '인물 DB' 구축(40명)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현대미술분과(CIMAM) 가입('03.2월)
- 다) 재정자립도 및 운영 수익률 모델 정착
  - 재정자립도 : 53.8%('02년도 37.6% 대비 16.2%p 증가)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운영 수익성 제고 노력 추진(월 수강료 현실화, 130,000원 → 150,000원)
- 라) 소장품 구입·매각 등 관리·운영 기능 정비
  - 전시기획과 연계된 작품 구입 방안 마련 및 소장작품 활용도 제고
  - 소장작품 구입 : 신학철 '한국현대사802' 등 13점(50,000,000원)
  - 소장작품 지역순회전 추진 : '03.10.18~10.30, 경기 포천 반월아트홀
  - 기타 소장품 관리·운영(345점)

## 2) 2003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 가) 지역작가초대전 『발견 2003, 'Open your eyes'』 ('03.3.21~4.20, 관람인원 8,072명)
  - 지역순회전(2개처) : 마산 삼진미술관('03.4.25~5.25), 강릉 문화예술관('03.7.12~7.27)
- 나) 중진작가초대전 『공원 쉼표 사람들, 'Park\_ing'』 ('03.8.2~8.30, 관람인원 7,736명)
- 다) 대표작가초대전 『우리가 만든 거대한 像-신학철』 ('03.11.21~12.21, 관람인원 4,212명)
- 라) 공동기획전
  - 기획공모전 : '삼십'전(민정아) 등 5건, 관람인원 13,016명
  - 공동기획전 : '아시아의 지금'(민족미술인협회) 등 3건, 관람인원 7,933명
- 마) 국제교류기획전(국내작가해외전시)
  - 전시주제 : The Post man is a Genius, 서울의 경험과 상상
  - 일정 : '03.8.28~10.18
  - 장소 :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Netherland Media Art Institute, Montevideo/Time Based Arts
- 바) 한국미술소개자료해외배포
  - 자료제작 : 마로니에미술관 소개자료(국·영문)
  - 수록내용 : 마로니에미술관 일반현황 및 전시소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및 PS1 프로그램 소개 등
  - 제작부수 : 1000부
  - 배포활용 : 2003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기간 현지 배포 등
- 사) 미술사회교육프로그램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운영(연중, 월평균 회원 212명)
  - 화요일의 미술이야기(매주 화요일 19:00~21:00, 연간 3기, 총 23회, 연인원 320명)
  - 도슨트 전문과정(매주 목요일, 19:00~21:00, 연간 총 31회, 40명 회원제)
- 아) 소장품 관리

- 소장품 구입 : 신학철 '한국현대사802' 등 13점(50,000,000원)
- 소장품 수증 :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 4점
- 소장품 유지관리 : 총 345점

자) 미술관 운영

- 일반대관전 : '강인구 개인전' 등 41건, 관람인원 41,330명, 대관료 수입 69,140천원
- 세미나실 운영
  - 대관 : 8건(유료 7건, 무료대관 1건)
  - 운영일수 : 연간 157일(자체활용 포함)
  - 대관료 수입 : 1,635천원
- 기타 전시장비 확충 및 시설 개보수 추진 등

3) 중점추진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참고) 2003년도 마로니에미술관 전시장 운영 세부내역

구 분	전시명(기획자·대표자)	분야	일정	기간(주)	장소	관람객	
자체기획	지역작가초대전 : 발견 2003전, 'Open your eyes'	종합	'03. 3.18-4.21	5	전관	8,072	
	중진작가초대전 : 공원 쉼표 사람들, 'Park_ing'	종합	'03. 7.29- 9. 1	5	전관	7,736	
	대표작가초대전 : 우리가 만든 거대한 像-신화철	회화	'03.11.18-12.22	5	전관	4,212	
	소계(3건)				15		20,020
공동기획	기획 공모	삼십(민정아)	건축	'03. 1.14- 2. 3	3	1	2,742
		Visible vs Invisible(김선아)	종합	'03. 1.14- 2. 3	3	2	1,919
		보라(오창규)	종합	'03. 2. 4- 2.24	3	1,2	2,719
		표류에의 초대(플라잉시티)	설치	'03. 2.25- 3.17	3	1,2	2,485
		나쁜엄마들, 땅에 발 붙이다(백미현)	종합	'03. 5.27- 6.16	3	1	3,151
		소계(5건)				15	
	공동 기획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발표전(김수연)	종합	'03. 4.22- 5. 5	2	1	1,597
		'2002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귀국보고전(김종성)	건축	'03. 4.22- 5. 5	2	2	2,662
		국제교류전 : 아시아의 지금, 'Seoul-Asia Art Now 2003'(새민족미술인협회)	종합	'03. 9.23-10.20	4	전관	3,674
	소계(3건)				8		7,933
	일반대관	윤주영 개인전-다큐멘타리사진전(윤주영)	사진	'03. 5. 6- 5.12	1	1,2	1,659
		제22회대한민국사진대전(새사진작가협회)	사진	'03. 5.13- 5.26	2	1,2	2,529
		온 공예전(이경자)	공예	'03. 5.27- 6. 2	1	2	1,228
구성호 개인전		공예	'03. 6. 3- 6. 9	1	2	983	
김성희 개인전		회화	'03. 6.10- 6.16	1	2	322	
이윤경 개인전		회화	'03. 6.17- 6.23	1	2	1,017	
김 중 개인전		회화	'03. 6.17- 6.23	1	1	955	
서울조각회전(류종민)		조각	'03. 6.24- 7. 7	2	1,2	868	
'너의 시선을 차단하라'(김연)		설치	'03. 9. 2- 9.15	2	1,2	2,525	
시립조각회전(김근배)		조각	'03. 9.16- 9.22	1	1,2	788	
제8회홍익여류한국화회전(오남자)		회화	'03.10.21-10.27	1	1	1,096	
양영수 개인전		회화	'03.10.21-10.27	1	2	1,177	
제3회서울사진대전(백영환)		사진	'03.10.28-11. 3	1	1,2	727	
한학림 개인전		조각	'03.11. 4-11.10	1	1	528	
박경범 개인전		조각	'03.11.11-11.17	1	1	577	
창작미술협회전(하영식)		회화	'03.11. 4-11.17	2	2	1,139	
김언배 개인전		회화	'03.12.23-12.31	1	1,2	708	
이형민 개인전		회화	'03. 1.14- 1.20	1	소	247	
신주혜 개인전		설치	'03. 1.21- 1.27	1	소	1,363	
그림 IN 전(민유리)		회화	'03. 2. 4- 2.10	1	소	839	
김유섭 개인전		회화	'03. 2.11- 2.17	1	소	927	
이상하 개인전		회화	'03. 2.18- 3. 3	2	소	1,830	
박계훈 개인전		설치	'03. 3. 4- 3.17	2	소	654	

※ 장소구분 : '전관'(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갤러리) / '1' (제1전시실) / '2' (제2전시실) / '소' (소갤러리)

※ 참고) 2003년도 마로니에미술관 자체기획전 참가(초대)작가 세부내역

□ 지역작가초대전 『발견 2003, 'Open your eyes'』 2003.3.21~4.20

연번	작가명	지역	생년	분야	약 력
1	고상우	서울	1978	사진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2	박경택	제주	1972	사진	동신대 사진예술학과 / 중앙대 대학원 사진학과
3	박세진	서울	1977	회화	이화여대
4	송민철	경기	1977	비디오	성균관대 미술교육과
5	윤미연	부산	1976	비디오, 퍼포먼스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6	이인희	충남	1975	설치, 비디오	충남대 및 동대학원
7	이중근	서울	1972	설치	경원대 및 동대학원
8	장종관	군산	1973	설치	한국예술종합학교
9	전미숙	전주	1965	사진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10	정수진	서울	1969	회화	홍익대 /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11	조병왕	서울	1969	설치	서울대 및 프랫인스티튜트
12	천영미	대구	1978	설치, 비디오	한국예술종합학교
13	홍영인	서울	1972	설치	서울대 및 동대학원 골드스미스 칼리지

□ 중진작가초대전 『공원 쉼표 사람들, 'Park\_ing'』 2003.8.2~8.30

연번	작가명	생년	분야	약 력
1	강홍구	1956	사진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2	김승영	1963	설치	홍익대 / P.S.1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
3	양주혜	1955	설치	홍익대 조소과 / 마이세이유 워미니 미술대학
4	정정화	1956	영상	이화여대 약학과 / 함부르크 국립조형 미술대학 졸업
5	최민화	1954	회화	홍익대
6	박용석	1972	설치	경원대 회화과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7	박주연	1972	설치	런던대학, 골드스미스 칼리지
8	배영환	1967	설치	홍익대 동양화과 졸업

□ 대표작가초대전 『우리가 만든 거대한 像-신학철』 2003.11.21~12.21

연번	작가명	생년	분야	약 력
1	신학철	1943	회화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 국제교류기획전시(국내작가 해외전시) 『The Post man is a genius』 2003.8.28~10.18

구분	연번	작가명	생년	약 력
설치 및 영상부분	1	고승욱	1968	홍익대 서양화과 졸
	2	박화영	1968	서울대 서양화과 / 프랫인스티튜트 졸
	3	이주요	1971	이화여대 서양화과 졸
	4	임홍순	1969	경원대 서양화과 졸
	5	조 습	1973	경원대 서양화과 졸
	6	플라잉시티	-	창작그룹(김기수, 장종관, 전용석)
싱글채널 비디오	1	김 범	1963	서울대 및 동대학원
	2	김지현	1968	홍익대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
	3	믹스라이스	-	창작그룹(임홍순, 장효정, 전용석, 조지은, 타칸아웅칸)
	4	박세진	1977	이화여대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
	5	박혜성	1968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 수료
	6	배영환	1969	홍익대 동양화과 졸
	7	임민욱	1968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졸
	8	최정화	1961	홍익대 서양화과 졸

※ 참고) 2003년도 마로니에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내역

- 전시예술 분과  
- 위원회 구성 : 5명

성명	성별	생년	현 직	주 요 약 력
김원방	남	1958	미술평론가	홍익대, 파리1대학 대학원 졸
박영택	남	1963	미술평론가, 경기대 교수	성균관대, 동 대학원 졸,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성능경	남	1944	작가	홍익대 졸, 대표작가초대전 초대작가(2000)
이동석	남	1964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인하대, 홍익대 대학원 졸, 조선일보 신춘문예(1997)
김성원	여	1961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파리 1대학 대학원 졸, 동덕여대 겸임교수

- 위원회 운영  
· 2003. 10. 21 : 2004년도 중진작가초대전, 대표작가초대전 초대작가 선정 및 전시기획·진행 자문  
· 2003. 11. 11 : 2004년도 '독립·신진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 지원대상 심의·선정(고원석 등 4명)

-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분과  
- 위원회 구성 : 5명

성명	성별	생년	현 직	주 요 약 력
김호석	남	1957	작가, 우리 원 이사	홍익대 및 동대학원 졸
박신의	여	1957	미술평론가, 경희대 겸임교수	이화여대, 파리8대학 졸
양현미	여	196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홍익대 대학원 졸
이인범	남	1955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연구위원	홍익대 및 동대학원 졸
전진삼	남	1960	건축평론가	중앙대학교 졸, 월간 건축인 포아 편집장 역임

- 위원회 운영  
· 2003. 11. 18 : 마로니에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Visual Space 2006' 시안 설명 및 자문

- 국제교류 분과  
- 위원회 구성 : 5명

국가	대 상 처	위 원	비 고
일본	주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구보 가즈아키	위촉 완료(2003. 12월)
영국	영국문화원	미정	
독일	독일문화원	미정	
프랑스	프랑스문화원	미정	
이태리	이탈리아 문화원	미정	

- 위원회 운영  
· 2003. 12. 23 : 주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구보 가즈아키) 방문 면담 추진

-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5명

성명	성별	생년	현 직	주 요 약 력
윤난지	여	1953	이화여대 교수	이화여대, 동 대학원 졸
정준모	남	1957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중앙대, 홍익대 대학원 졸
김원방	남	1958	미술평론가	홍익대, 파리1대학 대학원 졸
박영택	남	1963	미술평론가, 경기대 교수	성균관대, 동 대학원 졸,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이학준	남	1965	서울옥션 상무	고려대 경제학과 졸

- 위원회 운영  
· 2003. 12. 18 : 2004년도 미술작품 구입대상 작품 심의·선정(신학철 '한국현대사 802' 등 13점)

#### 4) 마로니에미술관 운영 자체평가 내용

##### ○ 2003년도 중점추진과제 성과평가

- 마로니에미술관 소개 자료의 경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와 연계된 현장 배포 활용을 통해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연도별 전시·프로그램 안내 소개자료 발간의 지속 추진을 통해 미술관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력의 전개가 요구됨.
- 학예기능의 안정적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인적,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함.
- 향후 학예인력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 필요
- 분과별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외부 전문가 그룹 운영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국제교류 분과의 경우 주한 외국문화원 관계자를 활용한 당연직 위원제 도입을 통해 항구적 교류협력 채널 구축 노력 도모가 요구됨.
- 공연장 중심의 주변 문화환경을 고려한 개관시간 연장 조치는 시행 첫해로 관객 유치에 있어 당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였음.
- 다만, 향후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지속적 홍보강화 및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도슨트 회원제 및 관련 전문 교육연수 과정은 전시설명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에 기여하였으나, 향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와 미술관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집중력있는 운영을 위한 발전적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시설 개선을 통한 관람객 접근 용이성 제고 및 장애인 편익 도모를 위한 추진과제는 소요예산 확보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004년도중 별도의 추진방안 모색이 요구됨.
- 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당초 2003년도중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일정 조정이 불가피함 ('04. 3월중, 예정)
-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인물 DB' 구축을 통해 향후 교류협력 채널의 인적 기반 강화 및 교류성과의 체계적 축적 토대를 조성함.
- 특히 국제박물관협의회 가입을 계기로 2004.10월중 제20차 ICOM-CIMAM 서울 총회 등을 활용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확장 노력이 필요함.
- 국제교류 전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예산 편성은 예산회계 제도에 대한 근원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운영을 통한 미술관 운영의 재정자립도 제고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안정적 수익모델로서의 정착이 기대됨. 다만, 향후 동 사업 운영의 수익성이 미술관 운영에 실질적 효과로 반영되기 위한 방안 및 미술관 운영목표 및 사업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통해 발전적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됨.
- 소장품 관리와 관련하여 수장고 규모 및 소장가치 등을 고려한 적정 수장능력 유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그 실질적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향후 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과 연계하여 소장작품의 이관, 장기 무상대여 및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품의 수증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의 강구가 필요함.

##### ○ 2003년도 주요사업별 추진 성과평가

- 지역작가초대전, 중진작가초대전 및 대표작가초대전 등 주요 3개 자체 기획전시 추진에 있어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기획의도, 전시공학적 연출 및 수용자 만족도 및 관심도 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다만, 지역작가초대전의 경우 기획의도의 적극적 구현을 위한 학예연구작업의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중진작가초대전의 경우 기획의도 구현을 위한 방향성 제시의 집중력 강화 등이 요구되었음.
- 공동기획전은 '기획공모'형 5건 및 '공동기획'형 3건 등 총 8건이 추진되었으며, 홍보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분야의 관심도를 높였음.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운영을 통해 연간 수입실적은 330,419천원(목표액 306,906천원 대비 108%), 연간 수익금 배분액(50:50)으로는 84,736천원(목표액 66,247천원 대비 128%)의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안정적 수익모델 형성에 기여하였음.

※ 2003년도 전시장 운영실적(제1·2전시장, 소갤러리)

- 총괄
  - 전시규모 : 연간 52건
  - 운영일수(작품설치 및 반입·반출 기간 포함) : 연간 994일(1개 전시장 평균 331일)
  - 가동율 : 연간 90.6%(331일/365일)
  - 관람인원 : 연간 82,299명(1일 평균 249명)
- 세부내역
  - 자체기획전 : 3건, 연간 315일(1개 전시장 105일), 관람인원 20,020명
  - 공동기획전 : 8건, 연간 315일(1개 전시장 105일), 관람인원 20,949명
  - 일반대관전 : 41건, 연간 364일(1개 전시장 121일), 관람인원 41,330명

다. 예술자료관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1) 예술자료관 운영

- 시설운영목표 : 운영 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예술정보화 기반 확충,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2)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가) 한국 근·현대 예술사 증언채록사업

-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2003년 2월 27일(목)
  - 참석자(5명): 김춘미, 이인범, 안광희, 노재명, 김경애
  - 안건: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관한 논의
- 한국 근·현대 예술사 증언채록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자문위원 위촉
  - 유민영, 김경애, 노동은, 오상길, 송혜진, 전경옥, 김재용
- 1차 자문회의 개최(3.28)
  - 증언채록사업 추진계획안 자문
  - 사업 기초설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과제 수행계획안 자문 등
- 한국 근·현대 예술사 증언채록사업 추진계획 수립(4.4)
- 사업 기초설계를 위한 용역 연구기관 공모 및 2차 자문회의 개최(4.30)
  - 응모기관: ICAS(송미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안규철), 덕수궁 미술관(최은주)
  - 안건: 제안서 Presentation, 질의 및 응답, 평가
- 기초설계 용역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용역연구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일정: 2003.5.26 - 9.30(4개월)
  - 용역비: 60,000,000원
  - 연구내용: 사업 방향성, 세부 추진방안, 예술계 의견 수렴 및 샘플 증언채록(박용구)
- 기초설계 중간보고서 검토 및 자문회의 개최(7.23)
- 기초설계 2차 중간보고서 서면 검토(9.15)
- 기초설계 최종보고서 검토 및 자문회의 개최(10.14)
- 자문회의 개최(11.7)

- 최종보고서 추가 검토
- 1차년도 사업 추진방안 및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 검토
- o 1차년도 실행계획 수립(11.10)
- o 연구기관 공모(11.12-11.21)
  - 응모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o 자문회의 개최 및 용역기관 선정(11.28)
  - 용역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o 연구용역 계약체결
  - 기간: 2003.12.10 - 2004. 5. 31(6개월)
  - 용역비: 340,000,000원
  - 연구내용: 예술인 30명에 대한 증언채록
- o 용역비 일부 예산 이월조치(238,000,000원)

## 나) 도서관 업무

### (1) 이용자 서비스 개선

#### (가) 이용자용 기기 및 가구 교체

##### o 교체내용(수량)

- 기기: LCD 프로젝터(2), 콘솔(Audio Mixer)(1), 대형 TV(1), CD Player(4), VTR 녹화기(2), DVD 재생기(3), PAL TV 모니터(2), TV 모니터(7), 컴퓨터(8), Pre-Amplifier(1), D. A Converter(1), 컬러복사기 (1)
- 가구: 영상음악실 개인감상 부츠 및 문헌정보실 열람용 테이블

#### (나) 영상. 음악자료 관외대출 실시>

- o 이용가능 자료: 관외대출용 영상. 음악자료(CD 897, DVD 393, 비디오 테이프 460, 총 1,750점)
- o 이용 가능자: 예술자료관 회원 및 고전음악강좌 수강생
- o 대출건수: 2,378점

#### (다) 영상. 음악실 개관시간 시범 연장 운영>

- o 운영기간: 2003년 6월 - 10월
- o 연장내용: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 개관

#### (라) 그룹회원제 도입>

- o 내용: 2명 이상이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입회비(1인 기준 30,000원)를 할인
- o 그룹회원 가입자: 34명

#### (마)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교류협정 체결>

- o 체결일: 5. 20
- o 내용: 예술자료관 열람실에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국내외 학위논문 등 340만 건의 서지정보 D/B 이용이 가능함

#### (바) 문화광장 열린 도서관 운영>

- o 기간: 8.11 - 8. 31
- o 내용: 문화광장에 열린 도서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예술의 전당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자료관을 알리고, 아울러 간편히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o 이용실적: 487명 799권

#### (사)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 o 기간: 10월 - 11월
- o 조사대상: 207명
- o 조사내용: 소장자료, 기자재, 회원제도, 대출제도, 직원 친절도, 열람환경 등 도서관의 제 요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함
- o 조치 내용 및 계획: 컬러복사기 및 흑백 복사기 교체, 사용 방법 게시, 이용자 의견 게시판 설치 등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각 개선하고, 향후 대출기간 연장, 대출책수 확대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아) 해외문예소식 발간

- o 내용: 최신 해외 문예정보를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 또한 언론사, 국회, 예술자료관 회

- 원 등을 대상으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o 발간회수: 15회

(2) 자료수집

(가) 영상자료 제작 시스템 개선

- o 내용: 우리 원의 직접 촬영제작 방식에서 실제 촬영은 외부 전문업체가 맡도록 하고, 우리 원은 우수 공연에 대한 영상물 확보를 위한 조사, 공연단체 섭외, 저작권 등의 확보 등의 기획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음
- o 효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우수 공연물 영상 확보
- o 제작편수: 185편 (비 예산제작 17편 포함)

(나) 영상자료 수증

- o 기증자: 서울예술단 등 10개처
- o 기증자료: 테이프 수 기준 136개, 작품 수 기준 268편
- o 기증단체 혜택: 테이프를 변환한 DVD를 기증단체에 주고, 예술자료관도 DVD를 소장. 활용함

(다) 자료구입

- o 단행본: 국내서 3차 1,1213권 / 외서 5차 625권
- o 영상자료: DVD 409종 553개 / VHS 147개
- o 음악자료: CD 777종
- o 학술정보 D/B: 58종(신규 8종)
- o 정기간행물: 국내, 일본 및 구미 정간물 264종 구독

(라) 기타

- o 연극대본, 공연 프로그램, 전시 도록 등의 비 유통자료 수집

(3) 이용실적('02년 실적)

- o 개관일: 291일(291일)
- o 회원가입: 471명(412명)
- o 총회원수: 952명(481명)
- o 자료대출: 23,667점(20,052점)
  - 문헌정보실: 5,425권(5,161권) / 영상음악실: 18,242건(14,891건)
- o 이용자수: 27,435명(23,797명)
  - 문헌정보실: 11,038명(10,356명) / 영상음악실: 16,397명(13,441명)

(4) 서지정보 D/B 입력건수: 14,506건

다) 음악강좌

(1) 개선내용

- o 강좌 수를 확대(기존의 2개 강좌에서 수요반<심화과정>을 개설하여 3개 강좌로)하고, 수요반의 상, 하반기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선택 폭을 확대
- o 자원봉사자제 도입을 통하여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2) 고전음악강좌

(가) 화요반(기초과정)

- o 주제: 대중과 함께 하는 클래식
- o 강의횟수: 30회
- o 세부 과정: 가곡에서 아리아까지(김정희), 합창음악(김희철), 오페라 따라잡기(장일범), 실내악과 관현악(이영조), 생활 속의 음악(이정신)
- o 수강료: 220,000원
- o 수강생: 40명

(나) 수요반(전반기)

- o 주제: 기악시대의 여명을 연 작곡자들

- 강의횟수: 16회
- 세부 과정: 빈 고전파의 거장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왕치선)
- 수강료: 110,000원
- 수강생: 22명

(다) 수요일반(후반기)

- 주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과의 만남
- 강의횟수: 14회
- 강사: 허영환, 김용환, 김미옥
- 수강료: 99,000원
- 수강생: 25명

(라) 목요일반(중급과정)

- 주제: 낭만음악의 발전과 현대음악
- 강의횟수: 30회
- 세부 과정: 낭만주의 음악사(김용환), 낭만주의와 국민주의(채승기), 후기 낭만에서 현대까지(신혜승), 낭만주의와 합창음악(김규현),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과 그 중심의 작곡자들(김규현), 생활 속의 음악(김진묵)
- 수강료: 220,000원
- 수강생: 57명

(3) 청소년 하계 음악강좌

- 기간: 8.6 - 8.8
- 참가자: 참가접수 48명, 수강자 연 129명
- 주제: 청소년을 위한 즐거운 음악 이야기
- 강사: 이중엽(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 프로그램: 악기의 세계, 음악의 형태, 이야기가 있는 음악, 현악 4중주 실연

3) 수입 및 지출

가) 수입: 43,408,532원

- 회원 입회비 13,520,000원 / 복사료(영상,음악자료, 칼러복사) 4,379,490원 / 소모품 414,000원 / 음악강좌 24,481,000원 / 공중전화 74,390원 / 복사기 임대료, 전기사용료 499,390원 / 기타 40,262원

나) 지출: 767,649,094원(총 예산 1,046,835,000원)

4) 예술자료관 운영에 대한 2003년 자체평가

가) 한국 근. 현대 예술사 증언채록 사업

- 사업의 전문적 성격에 따른 준비기간(기초설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1차년도 증언채록(30명) 사업이 이월되었음
- 증언채록의 시급성(고령, 건강)을 고려할 때 사업의 조기착수가 바람직함
- 구술사 연구 전문인력 Pool, 연구경험 등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확보(연구인력 및 우리 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충실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예술사 증언채록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고, 향후 구술사 연구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나) 도서관 운영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 졌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을 통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여함
- 예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형태(단행본, 잡지, 논문, 대본, 포스터, 도록, 팜플렛, CD, DVD, D/B, 전자저널 등 각종 뉴 미디어자료)에 걸친 예술자료의 양과 질을 확보

- 예술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자도서관(목록시스템, 소장자료 D/B, 충실한 서지정보 구축 등)의 조기 구축이 요구됨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하여 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 o 여간 시간이 확대되고 문화욕구가 증대하는 상황에 이용자 층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개관일 및 시간 조정, 프로그램 개발(사회교육 등), 자료확대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복합 문화공간 운영을 통하여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모두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다) 음악강좌

- o 고전음악강좌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1회성 강좌인 청소년 하계음악강좌의 내실화가 필요함

<별첨>

소장자료 현황 : 208,705점('03.12.31 현재)

\* '02.12 195,126점과 비교하여 13,579점 증가

분류	분류	단 위	보 유 량	비 고	
도 서 자 료	단 행 본	권	50,227		
	연속간행물	권(합본)	10,366	368종	
	동 인 지	권	3,672	774종	
	소 계	권	64,265		
비 도 서 자 료	공 연 대 본	대 본	6,331	8,594 줄거리 432, 음악대본 64	
		마이크로필름	4,553		
		폴텍스트 D/B	4,000		
	공연 팸플렛·프로그램		건	10,101	
	전시 팸플렛·도록		건	34,814	
	포스터	원 본	점	2,105	
		사진본	점	4,547	
	사 진 자 료		매	47,645	
	마이크로 필름 악보		편	783	
	소 계		점	108,589	
영 상 자 료	레이저 디스크		개	754	
	VHS 비디오		개	8,246	Betamax, Umatic 자료 VHS 전환본 포함
	U-Matic 비디오		개	1,030	
	Betamax 비디오		개	72	
	슬 라 이 드		개	168	
	16mm 필름		개	281	
	VCD 및 DVD		장	1,259	
소 계		개	11,810		
음 악 자 료	컴팩트 디스크		개	12,735	
	카세트 및 릴테이프		개	3,703	
	LP		개	4,137	
	SP		개	2,798	
	소 계		개	23,373	
뉴미디어	CD-ROM		개	668	학술D/B 73종 포함
<b>총 계</b>	208,705점				

## 5) 문화예술정보화 사업

### 가)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 (1) 문화예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

- 문화예술정보 ArtsOnLine 운영 및 정보제공
  - 2003년도 주요지원사업 결과 서비스
  -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및 배니스비엔날레 서비스
  - 국민제안참여센터 홈페이지 개설
  - 문화예술지(월1회)
  - 상설예술강좌(문학, 미술, 연극) 강의 내용(주1회)
  - 예술극장, 미술관 공연 및 전시안내(월1회)
  - 각 팀 사업 홍보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등(수시)
- '2003 웹·모바일 아트 유망작가 발굴 지원' 인터넷 신청접수 및 평가
- 노후화된 웹서버 교체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2) 원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예진흥기금의 인터넷 지원신청 접수를 위한 업무 개발
  - 2004년도 지원신청 접수시 시범운영
- 행정전산화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 예산/회계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지원시스템, 자산 및 모금관리시스템, 성과평가시스템 등

#### (3) 국가지식정보 D/B구축 사업 사후 관리

- 문화예술인(단체) 홈페이지
- 한국동인지문학관
- 미술작가500인 홈페이지

### 나) 문화예술정보화 사업 자체평가

-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예연감, 우리원 주요사업 결과물 등 각종 문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문화예술정보사이트(www.artsonline.co.kr)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국민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간 원내 통합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지원사업, 예산/회계, 대관, 모금, 중/단기 연수프로그램 등 통합업무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왔으며, 2003년도에는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의 인터넷 신청접수로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 라.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 1) 시설운영목표 : 공연예술, 무대미술(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및 예술 현장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장·단기 교육 연수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문화예술연수원 시설을 관리 운영함.
- 2)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 가) 2003년도 예산운영
    - 총괄
      - 세입 : 185,900,000원(예산), 131,815,000원(실적, 70.91%)
      - 세출 : 854,508,000원(예산), 777,932,947원(실적, 91.04%)
      - 재정자립도 : 16.94%(당초 목표 21.76%)
    - 분석
      - 세입부문중 음향녹음실 임대수입(실험무대 포함)은 13,550천원으로 당초 목표액 22,300천원(예산) 대비 60.8%의 실적으로 목표에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연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지역적 접근성'(경기 고양시 소재)이 낮아 발생한 문제(문화예술연수원의 기능인 순수예

술문화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순수예술의 메카라는 장소인 문예진흥원 본관이 소재하고 있는 해화동 대학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장소는 문화예술단체의 근접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더 많은 단체들에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임)와 국내 전반적인 음반 시장이 MP3과 일 복제 등과 같은 악재로 인하여 음반 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음이 한 이유로 들 수 있으며, 92년 문화예술연수원의 개관과 함께 설치된 음향장비의 노화(타기관 시설의 음향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연수원 음향녹음실 대관을 기피하는 사항이기도 함)로, 외부에서 요구하는 현재의 녹음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수원 셔틀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운행, 교통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으나, 더 근본적으로 장소문제를 해결(예 : 장소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비의 노후화는 현재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원활한 음향녹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7년 넘은 주장비를 교체하여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세입부문에서 사업수입인 문화예술 장·단기연수 프로그램 교육참가비 118,265천원으로 당초 년간 목표액 163,600천원 대비 72.3%로서 달성율이 약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단기연수교육이 목표 수입액을 거의 달성하였으나, 장기연수(무대예술아카데미)의 경우 당초 목표인원(70명)에 비해 적은 인원이 신청(66명)하여 51명을 선발, 43명을 등록시키게 되므로써 세입부문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단기연수의 실적은 전체 모집인원 780명중에 775명의 연수생을 모집함에 따라 99.4%라는 확보률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실적을 보였다.
- 세출부문의 경우 총 777,931천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854,508천원 대비 90.3%를 달성하였다. 이는 장·단기연수의 경우 95%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나, 연수원 운영부문의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및제세(상수도 설치로 인하여 비용 절감)등으로 84%라는 집행률의 낮은 실적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중점추진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가)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1) 무대예술 전문(장기) 연수

- 목적 : 공연예술, 무대미술(기술) 분야의 예술 창조 능력 배양 및 우수 인력 양성
- 운영 프로그램 : 1개 프로그램
  - 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예술 최고 전문가 양성과정)
    - 교육기간/인원 : 1년 (연1회), 43명
    - 교육내용 : 무대디자인, 무대의상, 무대조명, 무대음향, 연기 등 실기 실습 및 이론
    - 졸업인원 : 32명(무대디자인 11명, 무대의상 3명, 무대조명 7명, 무대음향 3명, 연기 8명)
    - 졸업유보자 : 11명(2학기 미등록자 7명, 2학기 휴학 1명, 학점미달 3명)

##### (2) 문화예술 단기연수

- 목적 : 문화예술행정, 예술기획(경영), 무대기술분야의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전문 연수
- 운영 프로그램 및 참가인원 : 5개 프로그램 28개 과정, 775명(비정규과정 및 국가보조금사업 미포함)
  - 문화행정연수 : 6개 과정, 154명
    - 문화행정업무향상과정(1,2차), 문화행정리더쉽과정 I(1,2차), 문화행정리더쉽과정 II, 문화예술기금관리과정
  - 예술경영연수 : 10개 과정, 315명
    - 문화예술마케팅전략수립과정(1,2,3차), 문화예술마케팅실무과정(1,2차), 축제기획과정(1,2차), 공연기획과정(1,2차), 문화교육프로그램기획과정
  - 무대예술전문인연수 : 10개 과정, 306명
    - 무대음향과정(I, II, III, IV), 무대조명과정(I, II, III, IV), 무대기계오·작동문제해결 워크숍과정, 안전관리워크숍과정

- 무대예술전문우수자 해외연수(국가보조금사업) : 11명
  - 연수진행일 : 2003.8.29(금) ~ 9.6(토), 8박 9일
  - 장소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상 3개국
- 위탁교육(비정규과정) : 년4회 중 상반기 1회 실시, 51명
  - 위탁교육 의뢰 단체와 협의 후 연수 진행
  - 위탁교육 단체 : 부천시 원미구청
  - 연수진행일 : 2003.3.3(월) ~ 3.5(수), 2박 3일간
  - 장소 : 롯데 오션캐슬(충남 태안군 안면도)

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회관 운영 및 서비스 향상

(1) 음향녹음실 대관

- 대관실적 : 48건, 67타임(1타임=3시간 30분 기준)
- 분야별 대관내역 : 연극(3타임), 국악(4타임), 아동극(5타임), 클래식(10타임), 인디음악(14타임), 뮤지컬(28타임), 기타(3타임) 등

(2) 연수생을 위한 편의시설보완 및 환경미화 개선

- 체육시설 : 농구대, 탁구대(1대) 및 족구장 설치
- 편의시설
  - 위성방송 설치
  - 구내식당 시설 개선
    - 창조관 휴게장소 설치
    - 핸드폰 충전장치 설치
    - 연수원 외부 벤치 설치
    - 무대예술아카데미 학과사무실 설치
    - 연수원 환경미화를 위한 연수원내 각 시설내외 미술품 설치
    - 단기연수 숙박시설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물품 비치 등.

4)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자체평가

○ 단기연수프로그램

- 공연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5일간의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일반인(민간단체)의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연수생 신청자들의 연수 참여 기회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에게 문화예술 전문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3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교육기간의 변경, 시기 절적한 교육의 변화 및 홍보강화로 인하여 연간 교육인원 및 연수 교육 참가비 등을 목표 달성치에 근접하게 달성하였다.
- 주문식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프로그램인 위탁교육을 처음 실시하여, 당초 계획(4건) 대비, 실적(1건)이 저조한 편이나, 새로운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한데 그 의의가 있었다.

○ 장기연수프로그램(무대예술아카데미)

- 무대예술아카데미는 단기간(1년) 교육이었음에 불구하고, 학생들의 기량이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공동워크숍과 졸업발표회가 그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다소 과중한 교육 일정 아래, 수업과 공연의 병행으로 파생되는 다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장기연수 졸업생 및 강사진들의 사후관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관련 인적자료의 D/B를 추진하고 있다.
- 기존의 공연예술워크숍(연기분야)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상호협력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시너지효과가 배가되는 교육실시 여건을 조성하였다.

○ 연수원 운영(대관 포함)

- 문화예술 인적 자원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전문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문화예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현실적이고

- 적절하게 편성함으로써 시대의 흐름 및 문화예술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했다.
- 연수생을 위한 합숙시설을 운영하고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연수원내 각 시설내외 미술품 설치 및 체육시설 보완, 구내식당 시설 개선 등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 시대의 흐름 및 문화예술계의 요구에 따라 문화예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함.
  - 지역문화시설(단체)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향후 연수원의 이미지 쇄신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원의 시설개선 및 기자재의 첨단화, 홍보방법의 다양화, 찾아가는 연수교육, 지역문화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 전문 연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년 도별 문화예술 연수 실적 (1987-2003) (단위 : 명, 2003. 12. 31 현재)  
가) 단기연수

연 수 명	구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문화행정연수	실횡 시수	-	-	4	5	3	3	2	2	2	2	3	4	3	3	5	4	6	51
	수인 료환	-	-	119	175	100	63	70	58	73	76	112	99	71	110	125	78	154	1,483
축제기획연수	실횡 시수	-	-	-	-	-	-	-	-	-	-	-	-	-	1	1	3	2	7
	수인 료환	-	-	-	-	-	-	-	-	-	-	-	-	-	26	39	150	65	280
공연기획연수	실횡 시수	-	-	-	-	-	-	-	-	-	-	-	1	1	1	1	2	2	8
	수인 료환	-	-	-	-	-	-	-	-	-	-	-	30	26	36	34	35	62	223
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연수	실횡 시수	-	-	-	-	-	-	-	-	-	-	-	-	-	2	2	3	1	8
	수인 료환	-	-	-	-	-	-	-	-	-	-	-	-	-	87	56	79	35	257
예술경영연수 (문화예술마케팅)	실횡 시수	-	-	-	-	-	-	-	-	-	-	-	-	-	-	-	-	5	5
	수인 료환	-	-	-	-	-	-	-	-	-	-	-	-	-	-	-	-	153	153
무대예술전문인 연수	실횡 시수	1	1	1	1	1	1	1	1	1	1	2	2	2	4	4	4	10	38
	수인 료환	103	105	130	109	91	52	50	43	38	42	83	102	90	199	137	108	306	1,788
무대예술전문연수 우수자 해외연수	실횡 시수	-	-	-	-	-	-	-	-	-	-	1	1	1	1	1	1	1	7
	수인 료환	-	-	-	-	-	-	-	-	-	-	10	15	14	13	15	12	11	90
위탁교육 (찾아가는 교육)	실횡 시수																	1	1
	수인 료환																	51	51
문화예술지원 워크숍	실횡 시수	-	-	-	-	-	-	-	-	-	-	-	-	-	1	-	-		1
	수인 료환	-	-	-	-	-	-	-	-	-	-	-	-	-	24	-	-		24
지역문화종사자 연수	실횡 시수	3	3	3	3	3	3	3	3	3	3	3	-	-	-	-	-		33
	수인 료환	247	327	283	219	231	142	116	116	86	109	107	-	-	-	-	-		1,983
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연수	실횡 시수	-	-	-	-	-	-	-	-	-	-	-	1	1	-	-	-		2
	수인 료환	-	-	-	-	-	-	-	-	-	-	-	48	17	-	-	-		65
문화학교관계자 연수	실횡 시수	-	-	-	-	-	-	-	-	-	-	-	1	1					2
	수인 료환	-	-	-	-	-	-	-	-	-	-	-	28	34	-	-	-		62
청소년지도자연수 (문화축매요원연수)	실횡 시수	1	1	2	2	2	2	2	2	2	2	2	1	1	-	-	-		22
	수인 료환	114	107	199	208	173	151	125	133	109	74	57	39	24	-	-	-		1,513
문화자원봉사자 연수	실횡 시수	-	-	-	-	-	-	-	-	-	-	-	1	1	2	-	-		4
	수인 료환	-	-	-	-	-	-	-	-	-	-	-	31	31	35	-	-		97
계	실횡 시수	5	5	10	11	9	9	8	8	8	8	11	12	11	15	14	17	28	189
	수인 료환	464	539	731	711	595	408	361	350	306	301	369	392	307	530	406	462	786	8,018

나) 장기연수

(단위 : 명)

연수명	구분	'89	'90	'91	'92	'93	'94	'95-'96	'97-'98	'99-'00	'01	'02	'03	계	
공연예술 아카데미	기수	1	2	3	4	5	6	7	8	9	유보	-	-	9	
	졸업 생	33	42	48	47	42	46	33	45	33				369	
공연예술 워크숍	기수	-	-	-	-	-	-	-	-	-	-	1	2	-	2
	졸업 생	-	-	-	-	-	-	-	-	-	-	13	7	-	20
무대예술 아카데미	기수	-	-	-	1		2	3	4	5	유보	6		7	7
	졸업 생	-	-	-	15		33	26	29	25		42		32	202
계	졸업 생	33	42	48	47	57	79	59	74	58	-	62	32	591	

- ※ 시설 증개축 공사로 인하여 2001년 교육 유보
- ※ '02년도 공연예술아카데미는 공연예술워크숍(3개월 과정)으로 대체
- ※ '03년도부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연기분야 포함

## Ⅱ.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 Ⅱ.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1. 지원목표(성과목표)별 종합평가(별첨 종합평가서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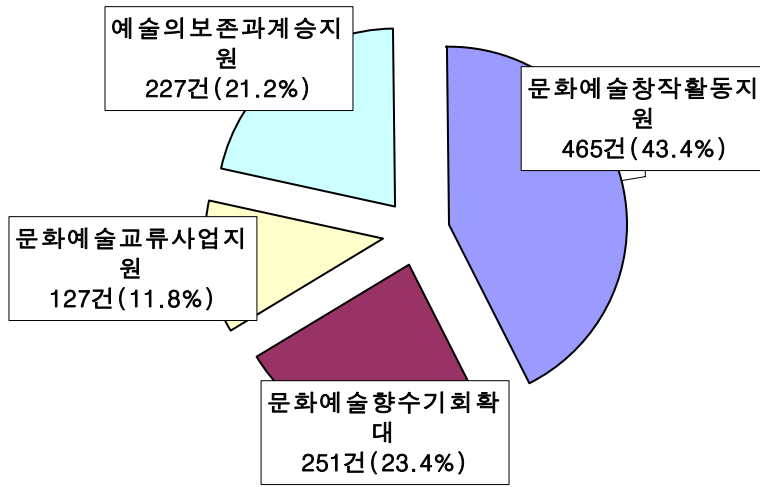
가. 지원목표(성과목표)와 해당 단위사업

지원목표(성과목표)	단위사업명
<p>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p> <p>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창작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적 예술 활동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의 기반과 그 창조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함.</p>	가)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나)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다) 다원적 예술 지원
	라) 신진 예술가 지원
<p>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p> <p>국민들이 예술인과 문화단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울러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문화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함.</p>	마) 관객개발 지원
	바) 찾아가는 예술 지원
	사) 참여하는 예술 지원
	아) 예술자료·정보 보급 지원
	자)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차)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p>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p> <p>남북간 및 재외동포와의 민족문화예술 교류사업,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와 해외 우수 문화예술의 상호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 조화 및 통합,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림.</p>	카)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타)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p>예술의 보존과 계승 지원</p> <p>민족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존, 조사, 연구사업과 예술정보화 사업,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과 전승, 발표, 보급 등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적 계승</p>	파) 예술 보존·조사 연구 지원
	하)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 지원

나. 지원목표(성과목표)별 계량적 평가 현황 및 결과(2003.12.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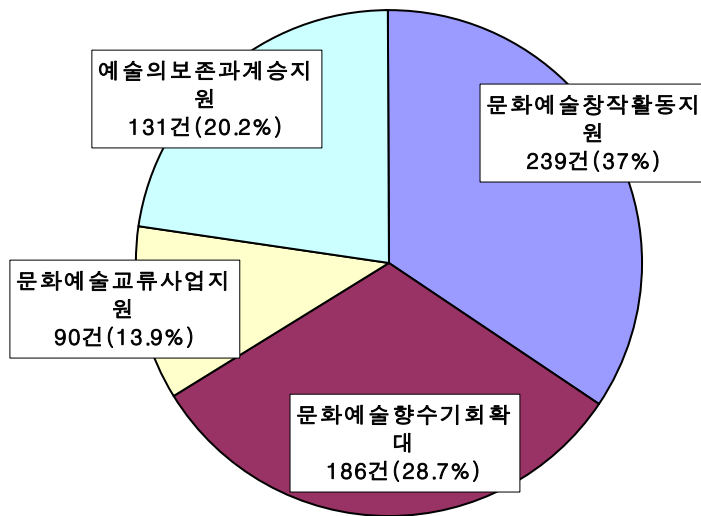
1) 성과목표별 지원대상현황

### 성과목표별 지원대상현황 (총 1,07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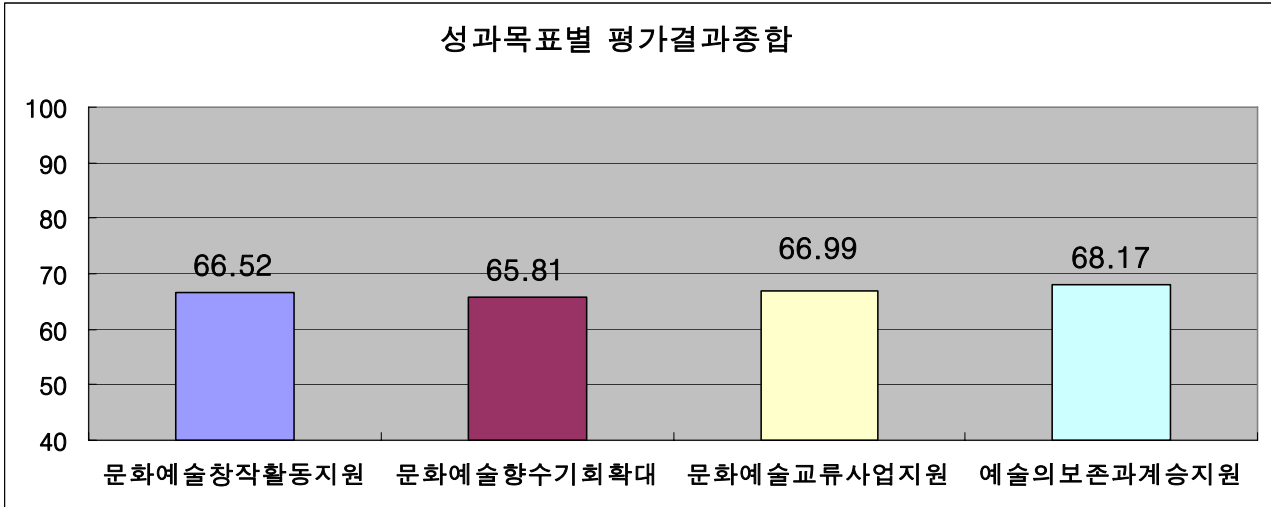


### 2) 성과목표별 평가현황

#### 성과목표별 평가현황 (총 646건)



3) 성과목표별 평가결과



다.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종합

1) 종합평가의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둘러싼 문화 예술적 환경을 향상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목표한 성과를 충실히 달성해가며 수행되었다.

2003년 역시 문예진흥기금이 추구하는 바를 뚜렷이 하기 위해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104억)”,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107억)”,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18억)”, 및 “예술의 보존과 계승 지원(44억)”이라는 4대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행되었으며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전국적 단위사업과 국제적 활동을 포함하여 약 1,071건의 개별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창작활동공간(예술극장), 전시활동공간(마로니에 미술관), 예술정보 및 자료관 운영, 문화예술 연수관운영 등 간접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수치화 할 수 없는 민족의 문화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02년과 달리 2003년은 일반 국민의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대폭 증가하여 국민모니터링 참여횟수가 2002년에 527건에서 2003년에 1169회로 120%나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 주었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02년도의 77.30점에서 2003년도에 78.75점으로 약 1.45점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민모니터링 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한 여론조사에서도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적 우수성”과 “기금사업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및 “문예진흥기금 목표에 대한 종합달성도” 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지원목표아래 하위 14개 단위사업별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수행되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큰 목표아래,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84억)”을 통하여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의 ‘창의적, 실험적 작가를 위한 전시지원’등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 전시, 공연예술의 다양한 창작과 발표 활동 및 독창적이고 탁월한 기획행사 및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였고, “창작공연활성화 지원(10억)”을 통해 극단 예술의 ‘붓다를 훔친 도둑’ 극단 미추의 ‘뮤지컬 최승희’,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부러진 기둥’, 오은희 무용단의 ‘THE GATE’ 등 우리나라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창작품을 발굴, 공연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원적 예술 지원(5억5천)”을 통해 라이브 클럽연대의 ‘라이브클럽페스티벌’ 등 예술 형식, 내용, 제작방식 등에서 정형화된 기성예술 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independent), 실험, 대안(Alternative)적 경향의 비

주류 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새로운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예술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신진예술가 지원(5억)"을 통해 김성환, 유경화, 박소정, 국은미, 장우재, 원영오 등 문학, 미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우리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한 신진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작품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예술 창작 기반과 그 창조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라는 큰 목표아래에서, "관객개발 지원(31억)"을 통한 전국적인 사랑티켓제도의 운영으로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었으며,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12억)"을 통해 문화예술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국민들에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정화된 예술 발표 공간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거행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전국 각지의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고, "예술 체험, 참여 활동 지원(18억)"으로 부암 아트의 '유아음악회' 등 아동, 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 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 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 애호가를 육성함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고 생활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 문화 향수층을 확대하였고,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7억)"으로 (사)민족사진가협회의 '어르신 사진찍어 드리기' 등 세대간, 계층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였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38억)"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서,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2억4천)"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의 '북한 이탈청소년 대상 토론연극 워크샵 및 세미나'지원 등 남북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과 재외동포대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해외문화예술 교류 지원(15억)"을 통해 '국악중심'의 '오케스트라아시아 2003 - 서울 공연' 등 모든 분야의 우리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해외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 및 우리문화예술인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예술의 보존과 계승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예술 보존, 조사연구 지원(30억)"을 통해 '김수근 문화재단 서울건축학교'의 변화의 시작, 새로운 풍경/ 다시 오늘의 자리에서'사업 등 소중한 예술 유산과 각종 예술 자료의 구축 및 기록 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활동,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고, "예술 자료 정보화 및 보존 보급(3억)"을 위해 '국악CD음반정보화 및 보급'사업 등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정보화 및 보급, 기 개발(발간)된 문화예술 콘텐츠(문헌, 시청각자료 등)의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예술 발표, 전승 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대를 잇는 예술혼-명인들의 후예들' 사업 등 전통예술의 보존, 계승 발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 등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평가위원들의 개별적인 총평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보았다.

"총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극소수의 수준 이하의 행사를 제외한다면 다수의 문학단체들은 일정한 수준을 담보하면서 문학의 대사회적인 봉사과 문학인 친목, 국제교류, 과거 문학 유산에 대한 계승 등을 고르게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학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보다 정교한 심사와 평가로 더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망사항은 여전히 희망으로 남는다. 진정한 민족사적인 지원이 되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4개 분류에 의한 다소 막연한 지원범주가 아니라 차라리 주제나 소재에 따른 보다 정밀한 분류법에 의한 지원 세부 항목을 설정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집 지원의 경우에는 첫 창작집 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도 고려해볼직하다. 중견 이상의 문학인들이 몇 년만에 한번씩 지원금을 신청하는 현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별 행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동일인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골 발제자들이 되풀이 되는 현상은 특혜의 일종이다.

단체별 지원도 균점의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전 장르에 걸친 전국적인 단체와 지부, 장르별 단체, 등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심사위원의 취향에 상관없이 균점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 현 영)

“전반적으로는 무난하나 역시 내실 있는 소수의 건수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적다는 점이 한계임. 단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원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정책의 필요하다.” (최 병 식)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지원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기존의 단체뿐만 아니라 젊은 단체들을 배려하고 지역을 안배하고, 새로운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 평가하려고 했다. 그것은 연극장르에 있어서도 그 폭을 넓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 (안 치 운)

“무용평론가인 김채현, 장광렬 두 평가위원의 지적은 2003년 무용계를 결산하는 동시에 지원사업의 결과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먼저 김채현 위원은

1. 젊은층에 대한 지원은 실험성이 엿보이는 등 성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 중견들에 대한 지원은 타성에 젖고 독창성이 떨어진 공연이 대부분이라 성과가 미흡하다.
3. 연례 행사에 대한 지원은 타성에 젖은 기획으로 인해 성과가 미흡하다.
4. 단위 사업들 사이에 균형을 기하여 충실한 공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행사 성격에 따라 지원액의 증감 등 적절한 지원 규모가 따라야 한다.
6. 층계의 타성에 젖은 공연 관행을 벗어나는 참신한 기획이 드물다.

라고 타성에 젖은 무용가들의 작품과 창작성 부족을 심각하게 지적했으며

두 번째로 장광렬위원은

1. 신청 당시의 사업 계획서와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가 무척 많았다.
2. 춤 소극장 지원 확대에 의해 젊은 무용가들의 춤 공연이 증가했고 다양한 기획공연도 생겨났다.
3. 무용가나 무용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점차 탈피해야 한다.
4. 현재 공연 활동에 치우친 지원 사업을 교육 프로그램이나 저술 활동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5. 인맥에 연계되어 있는 무용가들의 심의위원 선정을 줄이고 현장을 잘 알고 무용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평론가들이나 전문 언론인 등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며 현 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금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성공적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지원단체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무용가들의 심의위원 선정을 줄이고 평론가들이나 전문 언론인 또는 문화정책 전문가>을 심의 선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일지도 모른다.“ (박 일 규)

“지원심의 과정에서부터 지원 사업의 진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과 노력이 기울여진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기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보며 우선 지원심의 과정과 방법이 좀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전문성, 활동 수준과 영역 등의 파악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심의에 충분한 인원과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방대한 심의 분량을 정해진 적은 시간에 지원 대상자들이 제공한 서류 정보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새로운 방법이나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의 대상 별로 해당 전문가 그룹에 의한 예비 심사의 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정 완 규)

“전반적으로 사업기획이나 내용, 결과면에서 우수했으며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통예술의 경우 행사의 기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장기지원 사업의 경우 보다 엄격한 현장평가를 통해 적절한 제재와 자극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자생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내용이 현저하게 계획서와 다른 것이 증명될 수 있을 때 적절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이나 기업체 등 중복지원의 경우, 확인하여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 루 시)

“문예진흥원이 3년째 시도하고 있는 다원예술의 지원 및 사후 평가는 더욱 확산되고 보강돼야 할 것이다. 문예진흥원이 지원하고 평가하는 다원분야의 사업들은 이 분야가 어떻게 이뤄지고 변해가는지, 이제 막 장르의 개념이 세워지고 있는 다원분야에 대한 자료로서 기록의 의미도 크다. 지난해 다원분야의 행사들은 가치면에서는 독창적인 기획이 돋보인 반면, 구체적 진행에서 홍보 및 관객 동원에서는 미비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다원분야의 지향점은 어느 정도 기획서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나 타 장르와의 조화나 관객과의 교감에선 부실한 양상을 보였다. 물론 기성예술과 다름을 추구하는 다원분야인 만큼 심사 및 평가의 잣대도 달라야겠지만, 해당분야 전문가의 관심은 별도로 하더라도 행사별로 주목하는 대상 층에 대한 연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다.

다원분야는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심사 및 평가위원들도 생소한 분야를 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심사 및 평가가 이뤄지기 위한 시스템 연구도 필요하겠다. 이질적 장르가 만나는 대상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순조롭기 위해, 심사와 사후평가를 두루 경험케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올해 심사자가 다음해의 사후평가를 맡는다든지 전년의 사후평가자가 다음해의 심사를 맡는 등, 기획과 실재평가를 교차해서 맡는 가운데 실질적인 분야 및 업무의 파악이 수월하다고 본다.

문예진흥원측은 심사 및 평가를 특정인에게 2년 이상 잇따라 맡기지 않는 방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꾀하고 있으나, 전년의 심사 및 평가의 내용을 파악하는 편이 다음해의 사업 진행에 시행착오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1명 정도는 전해와 동일하게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문예진흥원측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전 해의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논란 및 과제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신세 미)

“지원된 사업이 지원 액수에 상관없이 지원 목적에 못 미치는 사업이 많다. 기획적 능력과 문화 목적에 맞게 문화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많지 않았다. 그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 수혜인들(관객, 관람자)에게 문화예술의 목적(삶의 정화, 의미 재생, 자아 성찰, 비전 제시 등..)을 이루는 행사가 적어 아쉽다. 문화사업 지원은 지원을 받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삶의 근원적 의미가 재생산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을 위한 문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공연장이나 전시장, 문화교육장 같은 문화 인프라 구축이 더 되어 있었으면 더 좋은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인프라는 개인이 구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국가나 사회가 도움과 책임이 필요하다.“(김 윤 태)

“2003년도 문예진흥 기금사업은 나름대로의 항목, 기준, 그리고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적어도 불공정에 관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목표를 상황에 맞게 조정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창작, 향수, 교류, 보존과 계승으로 나누어진 영역에 각각 속해있는 단위사업 유형 14개가 고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일단이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업에 따라서 이 유형에도 속하고 저 유형에도 속할 수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원은 목표와 유형이 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와 목적에 의해 목표와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진흥원의 기금사업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희망하건데 기금사업 지원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향후 지원사업 선정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정 갑 영)

“위에서 이미 성과목표별 총평을 기록했으므로 여기서는 그 대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문예진흥원(또는 문예진흥기금사업) 5개년 전략(또는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4년에 ‘NEA 5개년 계획 1986-1990’이 수립된 바 있으며 이 계획에서 ①예술의 수월성 및 최상의 창작능력 개발 ②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③접근 확대 ④예술기관들의 활력 진작 ⑤예술교육 확대를 ‘5대 성과목표’로 설정했다. 1993년에는 ‘정부 성과 및 결과 법률’(약자: GPRA)에 따라 ‘NEA 전략 계획 1999-2004’가 수립되어, 목표우선순위는 ①접근 ②창의성 ③예술교육 ④보존 ⑤예술조직의 안정성 ⑥지역사회 예술개발 ⑦파트너쉽 ⑧NEA관리 등으로 바뀜으로써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는 예술향수권 확대가 제1목표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 2002년말에는 ‘NEA 전략계획 2003-2008’을

다시 수립하여, 목표우선순위가 ①예술적 창의성과 보존 ②예술교육 ③접근 ④파트너쉽 등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에 적절히 부응하는 정책목표 우선순위와 정책내용 등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된 '5개년계획'이 발표되고 이 틀 속에서 매년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심사기준과 절차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또한 동일한 계획과 기준에 의거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도에 문예진흥원은 4대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산하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성과목표별 지원심의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이 보다 더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의 합리성과 일관성 및 공정성과 공평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병폐중의 하나인 분야간 장벽높이와 자기인맥 챙기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성과목표별 지원심의위원회' 각각에는 예술분야별로 복수의 예술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 대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예진흥원의 최고관리층이 정책(성과)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분야별이 아닌 성과목표별로 예산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정치력과 관리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분야별'이 되던지 '성과목표별'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 분야별(또는 성과목표별)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는 예술전문가만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행정(또는 정책)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심의 및 평가의 합리성과 효과성 그리고 공정성과 생산성뿐만 아니라 그 질적 수준도 높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 **(구 광 모)**

세간에 문예진흥기금이 우리나라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로서 연극 "날 보러 와요"가 영화화된 2003년 최대 히트 문화상품 "살인의 추억"을 일례로 언급 될 수 있다. 2003년 말 매일경제 문화부에서 조사, 분석한 "2003년 히트 문화상품의 경제효과분석(매일경제, 12.26일자, 33면)"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전국 관객 530 만 명을 동원하여 극장 매출액만 360 억 원이상 이며, 비디오 판권, 해외 수출액 등을 포함 총 매출액이 약 400 억 원 대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영화는 원래 1996년 2월 20일부터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전 문예회관소극장)에서 초연되었던 "날 보러 와요(김광림 작, 극단 연우무대)"를 원작으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이 작품은 당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이었던 "1996년 서울연극제"에서 공식 참가작품으로 참가하여 극단 연우무대가 제20회 최우수 수상단체로 선정, 지방순회공연을 하였다. 이후 "날 보러 와요"는 연우무대, 한양레파토리, 악어컴퍼니 등을 통해 316회 이상 재 공연되었고, 2003년도에 "살인의 추억"으로 영화화되었다. 이렇게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세간에 대규모적인 흥미를 끌어 문화상품화 된 것도 있지만, 문예진흥기금이 지향하는 바는 경제적 상품으로 재단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단히 많은 문화예술적 사업들을 예술가, 예술단체들과 함께 묵묵히 창조해 가고 있다.

참고로 2003년에 지원되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568개 단체의 참여관객수와 참여예술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약 60억원의 지원금으로 약 5 만 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관여하여 9 천여 작품이상의 신작이 발표되었다. 이는 총 지원사업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좀 더 심층적인 결과 분석이 필요하나 통계치 만을 볼 때 경제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문화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세간에서 주장하는 문화상품은 바로 보이지 않는 순수예술의 저력에서 나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 2월 현재에도, 장안에 1999년도에 발간된 백동호의 장편소설 '실미도'(출판사 밝은 세상)를 원작으로 한 '실미도'라는 영화가 화제이다. 2004년 2월 현재, 영화 '실미도'는 1000만 관객을 예상하고 한국은행 등 경제계에서는 우리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3400억원으로 분석(문화일보, 2004.2.9, 19면)하며 흥분하고 있다. 한편, 1973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영화중흥과 순수문화예술계의 중흥에 크게 이바지 해 왔던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세간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2004년 폐지되었다. 주로 극장 입장료에 부가되었던 문예진흥기금은 적은 기금규모로 전 국민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입되어 왔었다. 문예진흥기금은 제 1, 제 2, 제 3의 "살인의 추억", "실미도" 뿐만 아니라 "투란도트", "서태지" 등의 시대를 장악하는 문화코드들이 탄생할 수 있는 폭발적인 문화잠재력을 가진 순수예술계의 창의

력을 키워나가는 주요한 재원이다. 우리사회로부터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 2)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성과목표1)에 대한 의견

지원의 요체인 창작분야는 이미 정석화 되어 있다. 정해진 평가기준이 있으나 심사위원회에 따라 약간의 유연성과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별다른 말썽이 없이 그런대로 자리가 잡힌 분야이다. 다만 매년 심사위원회에 따라 선정자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불안하지만 그것도 크게 보면 일종의 다양성이기도 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정한 주제와 소재별 지원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촌 소재나 민족사의 굴곡을 다룬 등을 일정비율로 선정하는 등이다.

(임 현 영)

전 분야에서 어느 정도 평가될 만한 수확을 거두고 있으며, 지원기금의 1차적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진예술가나 순수분야의 차별화 된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는 의례적인 형식을 중심으로 지원 요청되는 경우 이를 철저히 구분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 가는 작가지원이 중요하다. 전 분야에서 참여도나 홍보의 절실함이 많이 지적되었다.

특히 대한민국미술대전과 같은 경우는 비대한 규모에 비하여 그 내실이 너무 떨어져 이후 경쟁부분으로 유도하고, 자체적인 대규모의 개혁이 필요하거나 아예 새롭게 변신하는 방안이 요구됨. 이점에 있어서는 사진대전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신진예술가부분에서는 보다 참신한 작가의 발굴과 지나치게 실험적인 요소를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향의 시각을 수용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평가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 다음 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최 병 식)

서면으로 신청하는 창의적 예술 활동 사업은 사후 평가를 가장 크게 필요로 한다. 올 해 이 사업의 특징은 작은 연극제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규모가 작은 연극제에는 젊은 연출가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공연된 작품들은 고전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작가들의 몇 작품들을 한꺼번에 공연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점은 1)연극제를 대부분 작은 극단이 주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연출가들과 공연장소가 한정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관련 전문 인사의 현장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연극제들이 있었던 것은 올 해의 수확이다. 2)이 사업을 평가하는 일은 참 힘들다. 그것은 평가자가 더 많은 시간과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안 치 운)

매년 반복되는 공연들의 나열로 참신성과 실험성이 결여된 공연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은 그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허나 전체 지원의 규모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이들 신진예술가들에 지원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창작활동은 있지만 관객부재라는 무용계의 심각한 현실에 대하여 이제는 대책을 연구해야만 한다. 거의 비슷한 제작비로 타 장르는 장기공연에 관객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무용공연은 하루나 이틀공연에 가족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높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 창작되는 것도 아니다. 실로 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일 규)

지원된 사업들의 수준이 내용 면에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 사업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많았다, 대체로 예술적인 신선함과 창의성 면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이 보다 높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기획 능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정 완 규)

진흥원 핵심 목표이다. 문화예술의 미래는 실력있고 개성있는 신인들에게 달려있다.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 (황 루 시)

다원분야는 대중문화 외에 비 주류문화 및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나는 전위적이고 실험 작업이 주가 되는, 보다 새로운 현대적이고 젊은 예술이라는 점에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면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다. 현재 지원 대상 및 평가 건수에서도 문학 전통예술 음악 미술 무용등 다른 분야의 25~50%선에 불과하다. 문화일반과 더불어 다원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창작을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다원의 성격이 자리 잡기 위해 기획서의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사후평가 작업이 기성장르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본다.(신 세 미)

장르에 따라 위원들의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유파악과 타당한 평가라면 향후 지원심의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장르에서도 심의에 참가한 작품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정 갑 영)

이 분야 평가위원들의 서술적(비계량적)평가를 종합하면, 사업목표의 종합달성도와 수월완성도 및 기대효과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서면과 현장 평가를 통한 계량적 평가결과는 66.52%로서 C등급(63-75점)에 해당된다. 한편 국민모니터링에 의한 국민만족도 평가결과는 2002년도 74.3%에서 2003년도 77.5%로 상승되어 그 효과성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목표의 핵심인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75.3%로서 평균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구 광 모)

### 3)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성과목표2)에 대한 의견

유명인 위주에서 균등한 기회 제공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더 평등한 문학인의 참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문학인의 참여는 균등화하되 작품 선정이나 가치 추구에서는 정평이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예술적 가치가 없는 작품이 대중들에게 과대 포장되어 오도될 우려도 있다.

동인 모임 단위의 행사는 지향하고 국민대중에 다가서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용도 민족 현실을 일깨울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임 현 영)

미술부분에서는 규모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액소건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연에서의 답습적 행사형식을 가려내도록 해야 한다. 문예진흥원에서 기획력을 발휘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음악에서 지적된 부분이지만 각 지역을 매개하는 중간역할 시스템의 확충도 중요하다.

함께 하는 문화복지에서는 탄탄한 프로그램과 운영상의 보완이 절실하다. 함께 하는 문화복지는 주로 장애인들에게 집중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액 소수의 프로젝트로 운영하여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소 형식적인 내용으로 호를 위험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아직은 소액, 소수의 건수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최 병 식)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중심과 지방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서울 중심인 경우에는 아동 병원이 그 대상이고, 지방중심인 경우에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이다. 현재 이 사업은 다른 장르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형극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의 매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원 사업의 특성을 다시금 정리하고, 실행된 사업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 수용자의 지리적

범위, 분포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호응도는 작품과 지역에 따라 사뭇 달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극단의 철학과 실천 의지이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평가자의 몫도 대단히 중요하다. **(안 치 운)**

단체에 따라 공연의 질과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났다. 준비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지방공연의 공연의 내용이 떨어지는 단체가 있는 반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준 단체도 있었다.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의 차이가 해소되려면 이 부분에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박 일 규)**

국민들이 예술인과 문화단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울러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문화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게 한다는 취지나 목표는 좋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그럴듯한 타이틀과 사업 계획으로 포장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실제 사업은 대체로 기획의 부재와 내용의 부실, 그리고 준비와 성의 부족 등으로 조잡하고 부실한 모습을 띄고 있다. **(정 완 규)**

지역 사랑 티켓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찾아가는 예술은 취지에 비해 결과의 편차가 심하므로 단체선정과 현장평가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참여를 통한 예술지원은 정서교육의 측면에서 아동, 청년대상이 바람직하다. 함께 하는 문화복지분야의 지원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황 루 시)**

다원예술은 대중공연을 포함해 보다 젊은 층과 대중을 의식한 분야임에도 실제 현장에선 광범위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험적 작업이나 비주류문화 위주이다 보니 다원예술은 타 분야에 비해 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찾아 즐기는 관객도 소수의 매니아에 그치는 경향이다. 일부 사업은 행사장에 주최 측의 진행자만 분주할 뿐 일반관객은 찾아보기 힘든, 자기들만의 축제로 그치고 있다. 기획단계에서 행사의 개요와 내용 뿐아니라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및 관객 유치 전략을 일깨우는 항목을 추가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다. **(신 세 미)**

문화 예술의 행위의 민주화/체험화를 위한 이 분야 사업은 다른 분야보다 지원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이 많았다. 문화 미 수혜 지역을 찾아가거나 예술 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 참여 활동이 문화 수혜 사업에 적합했고, 장애인들과 노인 같은 문화 소외인들에 대한 사업은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었다. 주체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김 윤 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입장, 비 전문예술인들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철저히 비 전문예술인들의 향수 증진과 문화감수성 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들도 문제 제기하는 대로 예술체험활동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지원신청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가 많다는 평이다. 다시 말해서 적합성과 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가 많다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비 전문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된 것인 만큼 이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분야의 지원사업 그 자체가 의미 없게 될 것인 만큼 참여 부분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갑 영)**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는 성과가 65.81%(C등급)로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4대 성과목표 중 최하위의 실적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모니터링에서도 2002년 81.7%에서 2003년 78.2%로 하락했다. 그러나 문제점은 ‘찾아가는 예술지원’, ‘참여하는 예술지원’,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등과 같은 세부목표들의 개념과 그 차이에 관하여 예술단체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 하고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부목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성과목표에 대한 2003년도 세부목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심사했으며 또한 같은 기준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①다양한 예술장르와 활동에 대한 국민체험기회의 확대 ②청중 및 관객 확대와 다양화의 촉진 ③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예술활동 확대.

이러한 세부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이 기대되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고 공고되었다: ①국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의 접근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시, 공연, 유통, 순회행사 등 ②다양한 공동체들과 관련되고 새로운 관객을 창출하기 위한 선구적인 프로젝트 ③전국에 방출되는 예술방송프로그램 ④국민의 예술접근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의 혁신적 활용 ⑤성인들을 위한 예술교육(학교교육 제외)활동 ⑥예술에 중점을 두는 지역개발 프로젝트(구 광 모)

#### 4) 문화예술교류사업(성과목표3)에 대한 의견

남북 교류와 해외교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형식적인 행사위주로 흐르기 쉬운 분야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친목 위주의 교류성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지만 기획에 따라서는 민족문화의 저변확대와 심화를 위한 불가결한 행사이기도 하다. 정교한 기획으로 우리 사회에 유익한 행사로 뿌리 내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임 현 영)

통일민족문화교류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렇다 할 규모나 내실이 어려운 실정이다, 평가결과도 어느 정도 형식만을 유지하는 부분으로서 내실을 기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통일원과 사전 토론과 지원협력에 의한 장기비전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외동포예술인 초청연수”와 같은 경우 매우 의미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해외교류에서 있어서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전 분야의 지적이 있었다. 평가 역시 해외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특히 비엔날레나 공연 등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최 병 식)

이 사업은 그동안 유명단체들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채워졌고, 반복적으로 지원을 했다. 2004년부터는 각 단체의 중심 사업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간된 백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안 치 운)

국제행사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약하여 관객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지원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외화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는 해외 무용공연이지만 초만원에 이르는 성공적인 기획사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공연위주의 교류도 중요하나 세계적인 문화예술교류의 네트워크의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박 일 규)

대상 사업이 실제로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과 관련이 있는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한민족창작음악축전”은 이 분야 대상 사업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의 경우 전문적이고 특성화 있는 분야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류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교류 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 완 규)

문화는 실질적인 접촉과 향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은 추상적인 목적을 갖는 사업보다 한 분야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외교류사업의 경우 사업의 질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음. 엄격한 대상선정과 현장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황 루 시)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나 이루는 기획이 다원분야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푸전이라기보다 주력에 부수가 따르는 협업수준의 만남에 그치기도 한다. 일부 발빠른 기획자들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음악 무용 미술등 특정 장르와 더불어 다원분야에 중복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질적 장르의 만남을 시도하는 작업의 경우, 이름만의 다원을 걸러내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기준이 요구된다. 다원분야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획자나 단체의 이름이나 과거 활동의 후광에서 벗어나 지원 심사단계에서 특히나 철저한 선별이 요구된다. (신 세 미)

문화예술의 해외교류 사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지난 한해이다. 해외교류는 유명 외국작품만을 수입하여 이벤트성으로 사업하는 곳에 지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완성된 공연과 작품을 교류하기보다는 교육이나 학술 세미나를 위한 학문적 교류 지원도 아쉬웠던 한해였다. (김 윤 태)

문화예술교류는 남북문화교류와 구제문화교류 두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목표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 영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공존하고 있으며 해당 장르의 국내적 행사로 변질된 행사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인 남북문화교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전략마련과 함께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제교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제문화교류에서 단기와 중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전략적으로 - 문화교류를 위해서든 혹은 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든 간에 - 어느 지역이 우선적인지에 대한 사전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현지교류는 자체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만 나타나 있다.(정 갑 영)

국민모니터링에서는 2002년도 76.5%에서 2003년 81.2%로 만족도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면과 현장 평가결과는 '교류사업지원'(66.52%)이나 '창작활동지원'(66.99)이나 모두 별차없이 C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종합되었다. 전문가평가와 일반국민평가에서 그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은 '교류사업지원'의 세부목표인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과 '해외교류지원'에 관한 인식과 그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해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특히 '교류사업지원'이 '향수기회확대 지원'과 동일한 배점과 가중치가 사용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예술적 수월성을 돋보이게 해야 할 해외교류와 남북교류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이 밖에도 '신청과 실제와의 합치도'에 관한 관리와 규제가 더욱 요망된다고 하겠다.(구 광 모)

##### 5) 예술의 보존과 계승(성과목표4)에 대한 의견

근현대 문학사료 발굴과 작가 연구 및 재평가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최근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가장 앞선 분야다. 그러나 여전히 문학사적인 체계적인 정본이나 확립된 문학사적 평가가 없는 불모지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행사만 반복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임 현 영)

이 부분은 전 예술문화분야의 인프라구조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해와 전문적 자료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아카이브제도의 구축과 다양한 연구개발의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를 육성, 지원해야 한다. 특히나 지원대상자의 이전 학술적 경력을 중요시하고 경쟁력을 평가에 가산해야한다. 그만큼 지원대상자의 수준과 책임성이 동시에 수반된다는 점이다

## (최 병 식)

창의적인 사업이 거의없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안치운)

학문적 연구와 보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존과 연구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호회 수준의 기획과 보급에서 벗어나 연구와 추진에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분야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정완규)

전통예술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획과 사업이 많았다. 공연물도 대부분 우수했다. 내실이 부족한 경연대회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승 보급이 더 의미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악제의 경우 여전히 그들만의 잔치라는 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황루시)

특정행사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단체의 새 시도를 지원하느냐, 두 작업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통해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단체의 행사가 예년에 지원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재차 지원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지원이 끊긴다면 다원예술의 실험정신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년째 지원을 받아온 내용일 경우 계승작업이 의미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신세미)

이 영역은 보존과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이루어지는 분야인 만큼 그 목표에 분명한 사업이 지원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한 세미나 워크샵 등도 이 영역에서 지원되고 있어 자칫 동호인 모임의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몇몇 지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평가를 차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분야이면서 자칫 명분과 의미 있는 결과 없이 재원을 낭비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한 해의 지원방향이 분명히 정립되어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정갑영)

서면과 현장 평가에서 '예술의 보존과 계승'은 가장 높은 성과 점수인 68.17%를 받았으나 이 또한 C등급에 해당되는 성적이다. 국민모니터링에서는 2002년 76.7%에서 2003년 78.1%로 그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는 세부목표인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각 항목별 최고인 86.5%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예술 이외의 예술적 작품들에 대해서도 최첨단의 기술과 자원 등을 동원하여 적절히 보존되고 계승되도록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구광모)

라.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 1)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제도의 의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국민만족도를 측정키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일반)모니터링 제도는 200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93명의 문예진흥기금 국민(일반)모니터링 요원을 공개 모집하여 국민만족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국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수용자 중심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문예진흥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일반) 모니터링」 추진 현황

- 국민(일반) 모니터링 전담 요원 모집 : 2003. 3. 10 ~ 3. 16
  - 신청인원 : 553명
- 국민 모니터링 전담 요원 선정 : 93명
  - 지역별 분포도
    - 서울 48명, 인천 4명, 대전 2명, 대구 3명, 광주 2명, 부산 3명, 울산 2명, 경기 16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2명, 경남 1명, 제주 1명
  - 연령별 분포도
    - 20대 49명, 30대 27명, 40대 11명, 50대 3명, 60대 3명
  - 관심분야별 분포도
    - 문학 7명, 전시예술 13명, 공연예술 41명, 전통예술 10명, 다원예술 4명, 문화일반 18명
- 국민 모니터링 요원 인터넷 오리엔테이션 : 2003. 4. 7
- 국민 모니터링 추진 : 2002. 4. 7~10. 31
- 국민 모니터링 설문조사 : 2003. 11.13~11.28
- 국민 모니터링 간담회 : 2003. 11. 29(토)
- 2003년도 국민모니터링 추진실적 : 총 1169회, 290건(건당 평균 4명이 수행)  
: 전년도 대비 120% 참여실적 증가  
(※ 2002년도 국민 모니터링 추진실적 : 총527회, 150건(건당 평균 3.5명이 수행))

3) 국민모니터링 평가현황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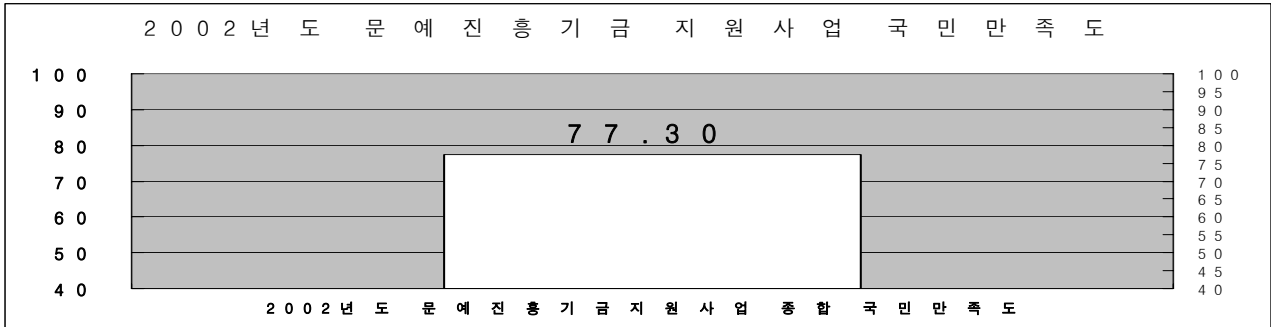
가)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평가현황

2002년도와 비교할 때 2003년도 국민모니터링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약 120% 이상으로 늘어난 참여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평가는 지원 목표별 가중치를 토대로 주요평가기준인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해당 성과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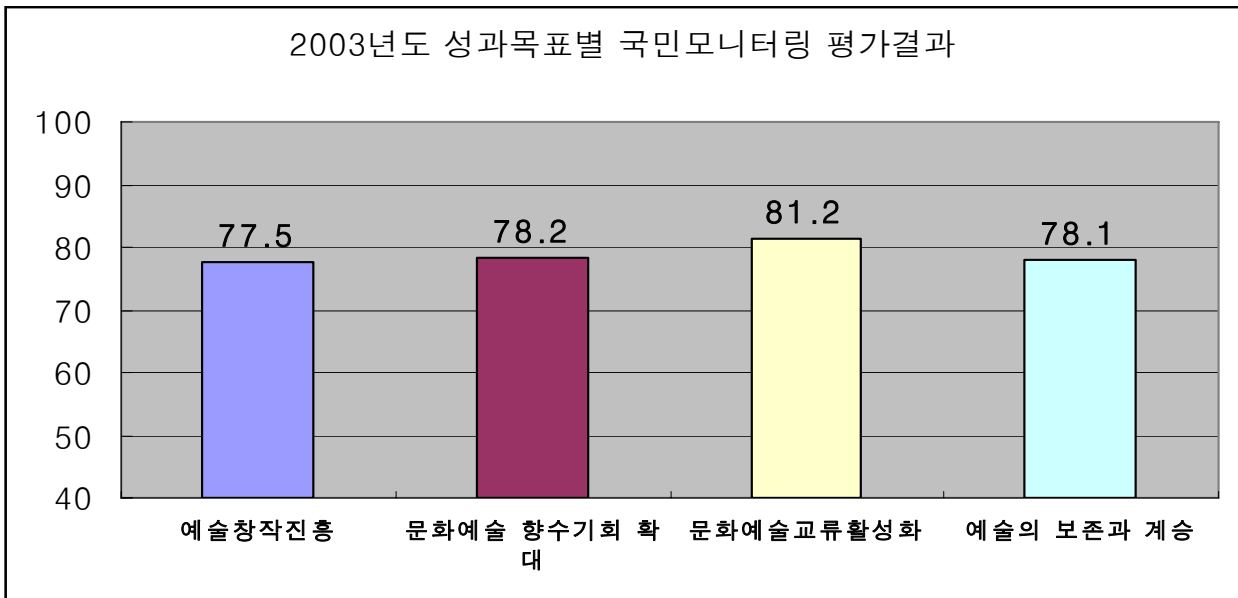
나) 문예진흥기금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별 국민(일반)모니터링 평가실적(건)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 지원		예술 체험 참여활동 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통일민족 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		전통 예술 발표 전승 보급지원		계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178	107	38	18	28	17	62	22	86	33	29	6	12	5	38	20	29	9	114	53	614	290
60%		47.4%		60.7%		35.5%		38.4%		20.7%		41.7%		52.6%		31%		46.5%		47.2% (평가건수/평가대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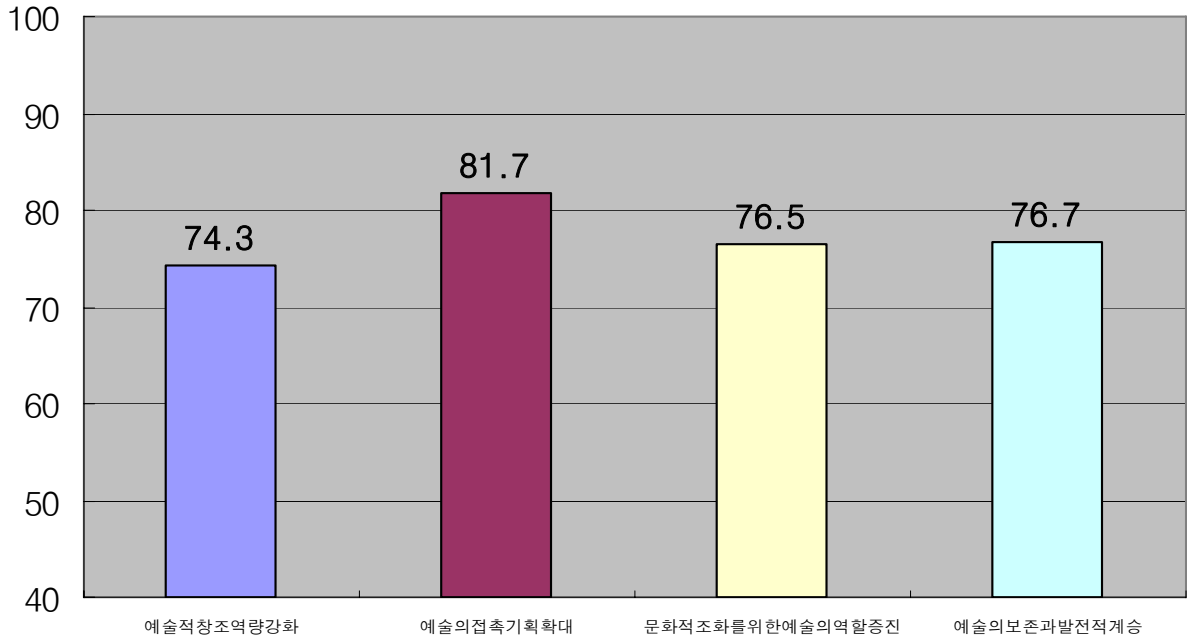
다)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종합평가결과 (2002년, 2003년)



라)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목표별 국민모니터링 종합평가결과(2002년,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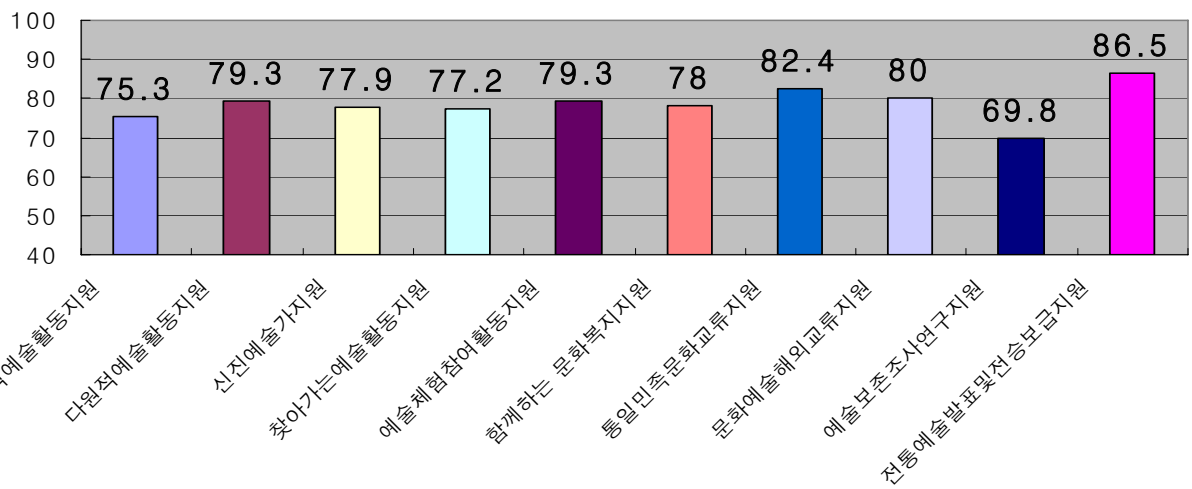


2002년도 성과목표별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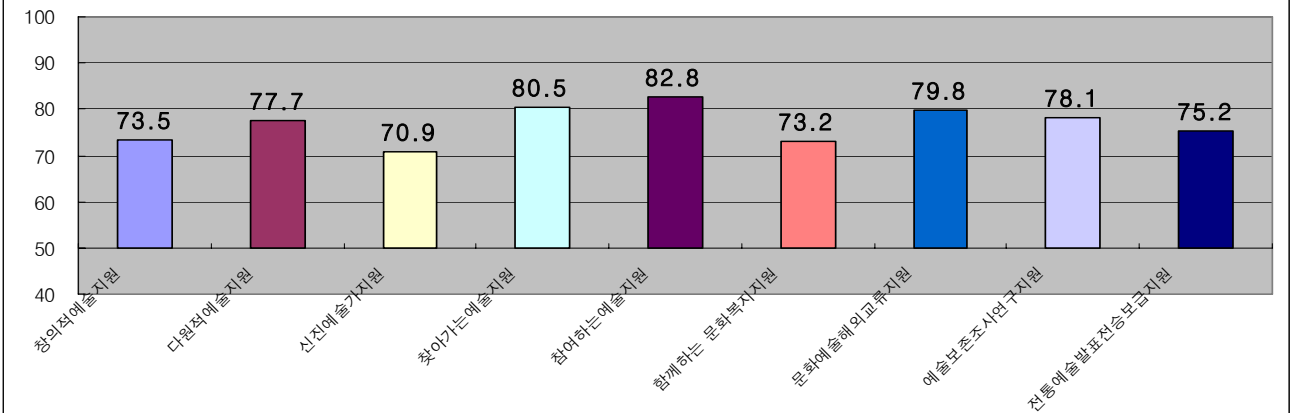


마)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유형별 국민모니터링 종합평가결과(2002년, 2003년)

2003년도 지원유형별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2002년도 지원유형별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국민모니터링 요원이 200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문예진흥기금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제 문예진흥기금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위사업(지원유형)별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위의 결과처럼 평가실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총 평균 78.75점으로 2002년도의 77.30과 비교해 볼 때 약 1.45점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4대 성과목표 중 “문화교류활성화”라는 성과목표에 대한 만족도가 타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81.2점) 실제 이 목표의 하부 단위사업인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과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사업” 등은 각각 82.4점과 80.0점 등은 80.0점 대 이상을 상회하여 비교적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6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바)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요원대상 설문조사 주요결과

(1) 국민(일반)모니터링요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진행 현황

- 설문대상 : 2003년 문예진흥기금 국민모니터링 참여 요원 81명
- 설문내역 :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국민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 설문진행일시 : 2003.11.13~11.28
- 설문현황
  - 응답자 비율 : 66.7%(응답자 54명/모니터링 참여자 81명 중)
  - 응답자 성비 : 29.6%:70.4% (남성/여성)
  - 응답자 지역분포 : 83.3%:16.7% (서울경인/기타지역)
- 국민(일반)모니터링 요원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03.11.29(토), 16:00~21:00, 미술관 3층 세미나 실 등
  - 참석자 : 국민모니터링요원 34명 및 관계자 등 37명

(2) 주요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문화예술적 우수성 및 완성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53.7%)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38.9%)로 평가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일반 국민과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적 기여도와 파급 효과에 대해 대체로 높거나(42.6%)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42.6%)로 평가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일반 국민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높거나거나 (35.2%)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55.6%)로 평가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 단체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 (37%)이거나 대체로 미흡한 편(37%)으로 평가
- 지원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운영의 필수사항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서울과 지역간의 지원 격차가 완화되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원사업의 관람가격적정성 확보되어야 함(사랑티켓과 연계)
- 예술창작단체와 대중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대중의 문화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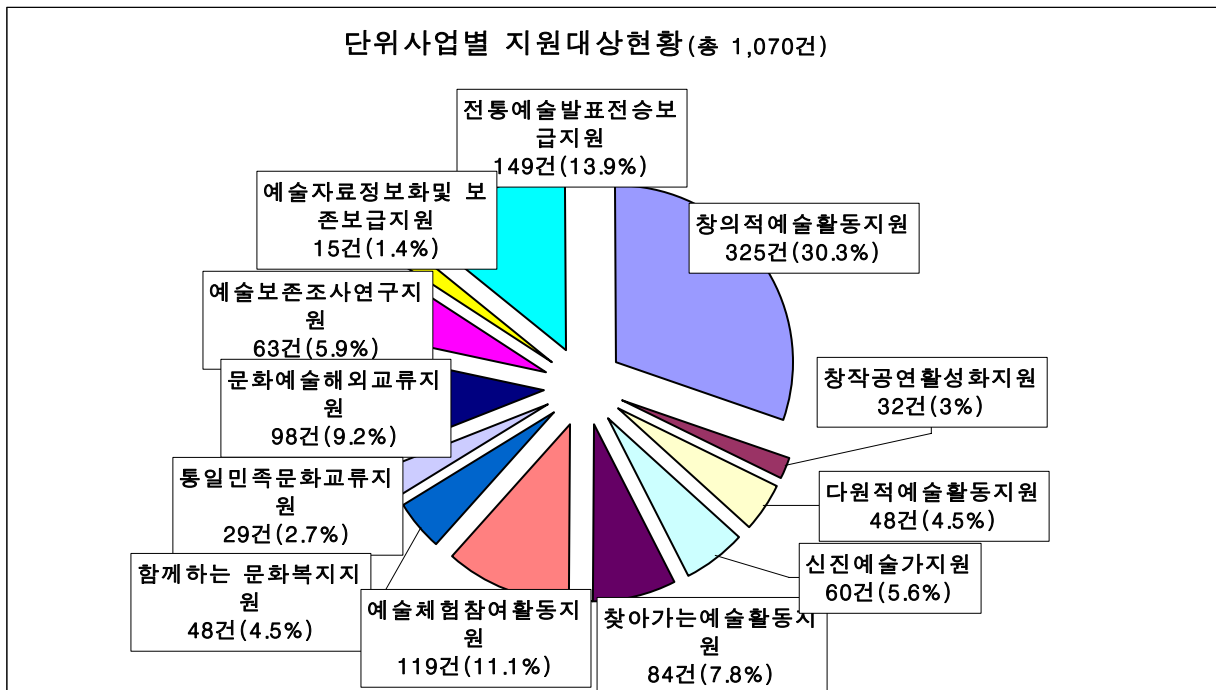
## 2. 단위사업별 종합평가

### 가. 지원목표별 단위사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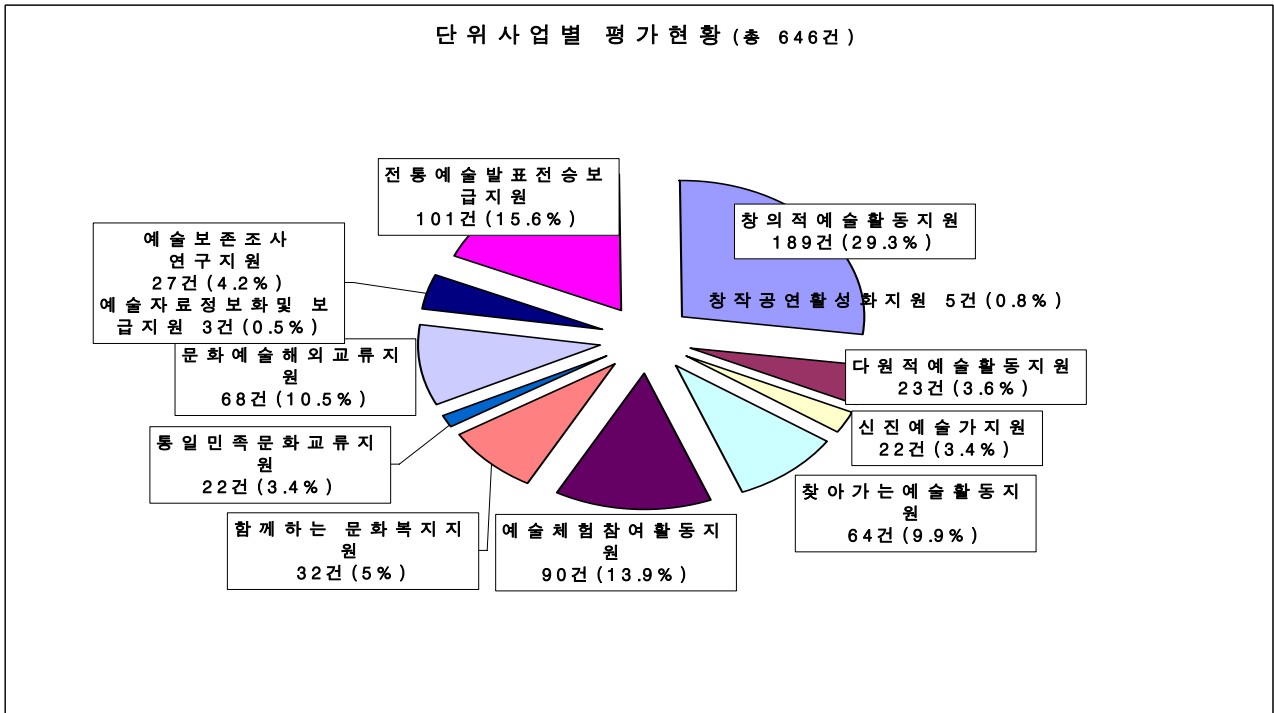
단위사업명	지원목표(성과목표)
가) 창의적 예술 지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나)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다) 다원적 예술 지원	
라) 신진 예술가 지원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마) 관객개발 지원	
바) 찾아가는 예술 지원	
사) 참여하는 예술 지원	
아) 예술자료·정보 보급 지원	
자)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차)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
카)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타)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예술의 보존과 계승 지원
파) 예술 보존·조사 연구 지원	
하)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 지원	

### 나. 단위사업별 평가 결과 종합(2003.12.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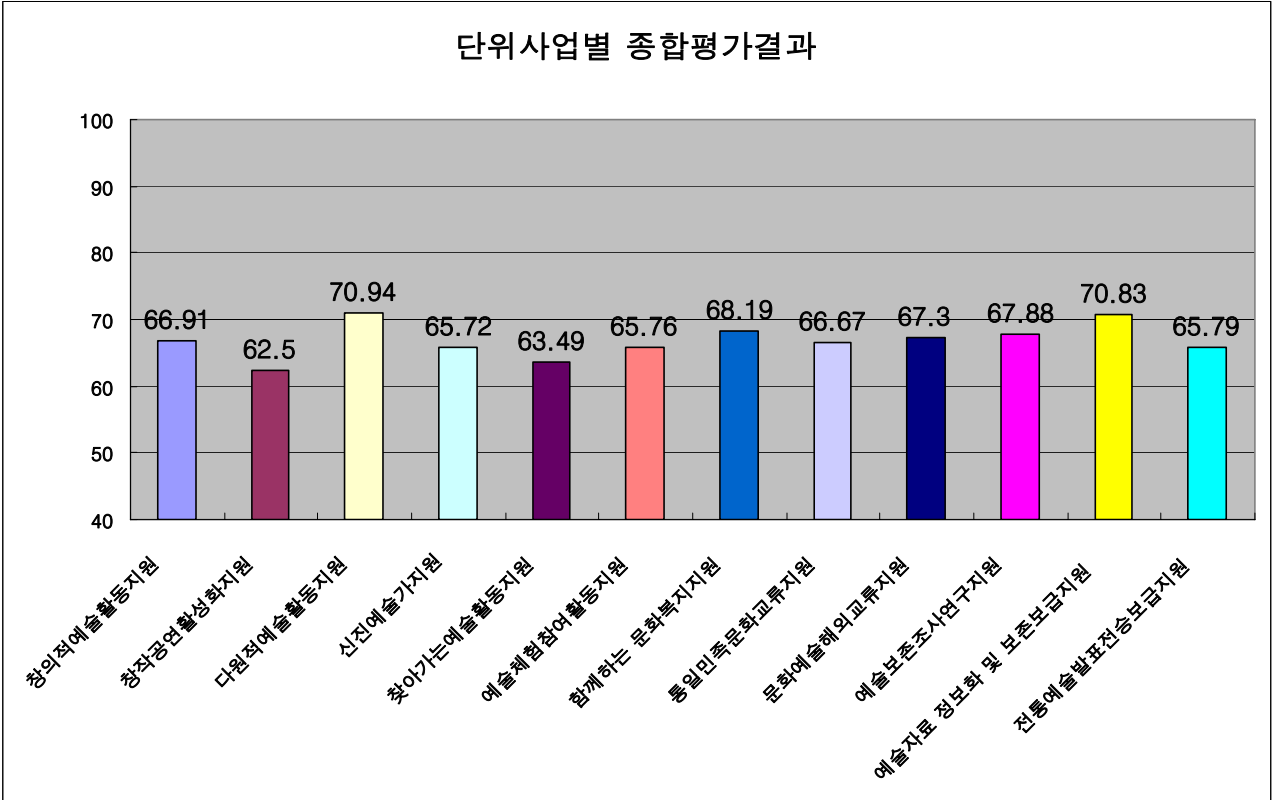
#### 1) 단위사업별 지원대상현황



2) 단위사업별 평가현황



3) 단위사업별 평가결과



#### 4) 단위사업별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

##### 가)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
-------	--------------

##### (1) 사업개요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 전시, 공연예술의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이고 탁월한 기획행사 및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주요 추진실적 : 부록 참조

단, 극단여인극장, 극단전망은 극단 사정에 의해 각각 12,000,000원씩 우리원 지원금을 포기하였고,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국고 지원금(10억 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어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우리 원 지원금(2천만원)을 포기하였으며, 서울오페라앙상블은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원금(3천만원)을 포기하였고, 무용분야에는 장은정현대무용단(자체사정), 조윤라발레단(자체사정), 신은경발레앙상블(자체사정), 방미영(자체사정), 김은희무용단(자체사정) 등 5건은 자체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 하였음.

##### (3) 2003년도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사업 평가

##### (가)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사업 문학부문 자체평가

- 주요 기간 문학단체의 기관지 발간 지원을 통하여 문단의 활발한 활동 및 상호교류를 돕고 작가 개인들에게는 작품 발표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문학 분야의 창작 여건 확충에 큰 도움이 됨.
- 개인 작품집 발간 지원은 지원단가가 대폭 상승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창작 지원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지원대상 작가들이 보다 수준 높은 작품집 발간을 준비하고 의욕적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나)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사업 미술부문 자체 평가

-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전시의 기획력 부재에 대한 반성과 창의적 전시의 토양을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작가들에게 실험적인 작품제작을 통한 작업영역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공모전이나 개인전이 아닌 기획전시 출품의 기회 및 창작 신작에 대한 기대치 설정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 기금지원의 중점방향이 창작활동 지원에 있는 만큼 사업 기획력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적절하고 심도 있는 평가관리를 위하여 인력보충이 절실하다.
-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진작가들의 다양한 발언을 독특한 공간실험을 통해 담아냄으로써 이후 미술계의 원활한 소통의 발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미술 공간사업의 경우, 특정한 주제나 내용을 통한 전시라기보다는 젊은 예술가들의 존재 조건과 상황을 들추어냄으로써 기존 미술계와의 발전적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미술계에 일정한 비판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마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안미술공간의 경우 연중 지속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수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미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무엇보다도 대안공간들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다. 전체 지원금에서 상당액을 차지하는 이 부분은 각 대안공간들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르비아에서 열린 김창겸전은 전시의 성격이나 작가의 진지함 등이 평가되었지만 전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적인 일단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원금의 일부에 해당되지만 적극적인 홈페이지 구축의 의지나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언론홍보 등이 미약하였고, 전시장의 큐레이터나 상임직원의 안내서비스 등은 매우 절실한 현실이었다. 단체지원으로서는 미술대전이 별도로 언급되어질 수 있지만 이미 독자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대부분 생략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매년 치밀한 결과평가와 과거의 대전형식과 주최단위가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지원금제도의 기획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사안별 공모형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진정한 신진작가지원제도와 세계화의 근본적인 취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사진대전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문가들의 예술성보다는 상투적이고 새로운 독창적 관점이나 실험적인 요소가 너무나 결여되어있는 작품 대부분의 형식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았다. (최병식)
-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의 개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예를 들면 신진 예술가 지원 분야와의 차별성이 필요하고, 창의적이라는 의미가 전체 한국 미술계의 창의성을 높이는 수준이나 아니면, 순수예술 활동의 확대, 발전을 위한 지원이나가 불분명하다.(강성원)
-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는 창의성 있는 전시가 부족한 편. 특히, 일부단체들의 연례 행사성 전시는 예술성과 기획력이 떨어져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켰음. ‘대안공간’에서의 개인전은 예술성 면에서 비교적 무난한 성과를 보인 반면, 홍보 및 연구 활동이 수반되지 않아 대중적 과급력을 확보해내지 못했으며, 매스컴에서의 반응도 높지 않았다. (김희선)

## (다)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전체적인 공연자체는 무리 없이 잘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당초 지원계획에 비해 몇 건의 사업포기는 지원금을 전제로 행사를 계획하는 관행의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일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단체 연속 지원제도’ 등 보다 차별화되고 집중적인 지원사업 유형 개발이 필요함.
- 타 장르보다 지원 건수 및 예산이 많은 상황에서 대관난까지 겹쳐 지원받는 무용단체나 개인이 공연장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4년 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으나 향후 동일사례 시에는 대관사정이나 무용예술계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발표회 형식에 그치고 마는 일부 사업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평가를 통해서 지원심의 시 참고해야 함.

## ※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공연예술 부문 평가위원 평가

- 서면으로 신청하는 창의적 예술활동 사업은 사후 평가를 가장 크게 필요로 한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작은 연극제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규모가 작은 연극제에는 짧은 연출

가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공연된 작품들은 고전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작가들의 몇 작품을 한꺼번에 공연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점은 연극제를 대부분 작은 극단이 주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연출가들과 공연장소가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내년에 나은 방향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관련 전문 인사의 현장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연극제들이 있었던 것은 올 해의 수확이다. (안치운)

- 심사대상은 심사할 만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잘 선정됐다. 하지만 페스티벌에 대한 지원의 경우 단체의 능력에 따라 작품의 수준차가 컸다. 해화동1번지 3기동인의 ‘권력유감’ 시리즈의 경우가 특히 그랬다. 극단 여행자와 그룹 동시대의 작품은 고전에 실험을 결합, 뛰어났지만 다른 작품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구극연극페스티벌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였지만 ‘바냐 아저씨’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두드러진 작품은 없었다. 단막극장의 ‘유진오늘 단막 페스티벌’은 한번에 2편을 올리면서도 서로 다르게 급조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무대가 인상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김승현)
- 관람 평가한 대상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지역 주민 대상의 페스티벌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신작 중심의 공연이었고, 신작의 수준 또한 양호했다. (이영미)
- 시대 변화, 춤 계의 역량 축적 등으로 미루어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참신성과 독창성을 갖춘 춤 기획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위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예술활동 분야는 이런 기획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이런 기획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특이한 변화 없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공연들에 대한 지원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기획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떨어지는 공연이 대부분이었다. 상투적 공연 관행을 맴도는 공연은 창의적 예술 활동의 이름과 합치하지 않으며, 일부 공연을 제외하면 열기마저 식어 일반 관객은 물론 전문 인사의 현장 참여마저 유도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원 방식과 기준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부문에서는 특히 춤계 현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를 지원심의위원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김채현)
- 무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지원 받은 분야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무용가나 무용 단체의 공연과 행사에 지원되어서인지 평균적으로 무난했다. 하지만 일부 명목상의 공연과 예술성을 가진 작품의 수준 편차가 심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은 더욱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이희나)
- 사업의 내용면에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창의성 면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의 보다 높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기획 능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정완규)
-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예술적 완성도에서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관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하면 행사의 의미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홍보와 기획력을 키워 나가야 할 숙제를 갖고 있다. 한국 합창제가 “창의적 예술 활동” 영역에 적합한지 검토 필요하다.(신동일)
- 7개의 지원 분야 중 가장 많은 현장평가가 있었던 분야였다. 이 분야에서 총평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체들이 받은 점수와 공연에 쏟은 정의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충 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 점들을 보자면 공연장소와 시간에 대한 친절 한 배려, 수상작들에 대한 비평적 해설, 적극적 홍보 자세 등이었다. 아울러 한국 창작곡들에 대한 배려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현장평가에서 드러났다. 창의적 활동도 악단의 수준과 발상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석렬)

- 2003년 음악분야에서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공연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가장 컸다.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이라는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해서인지 이 항목에 해당하는 공연들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추구하는 지향 점에서 매우 큰 편차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무난한 수준의 공연들이었으나, 가장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은 ‘한국합창제’였으며, 애초 기획에서부터 진행 과정과 홍보, 그리고 공연 당일 주최 측의 태도까지 적극성과 의지가 부족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하지숙)

세부사업명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 (대한민국미술대전)
-------	--------------------------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미술분야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예술 행사로 참신한 신인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풍토 고취 및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함.
- (나) 사업규모 : 지원금액 95,000,000원
- (다) 사업내용 :
  - 1부 비구상계열 : 전시기간 : 2003.5.24~6.12
    -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 전시부문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 2부 구상계열 : 전시기간 : 2003.10.4~10.21
    -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 전시부문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 3부 서예계열 : 전시기간 : 2003.8.1~8.17
    -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 전시부문 : 한글, 한문, 전각, 소자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2) 주요 추진성과

- (가) 대한민국미술대전 1부 비구상계열 추진성과
  - 출품수 : 1,026점
  - 시상내역 : 250점(대상 1, 우수상 4, 평론가상 2, 특선 49, 입선 194)
- (나) 대한민국미술대전 2부 구상계열 추진성과
  - 출품수 : 1,375점 - 시상내역 : 307점(대상 1, 우수상 4, 평론가상 2, 특선 70, 입선 230)
- (다) 대한민국미술대전 3부 서예계열 추진성과
  - 출품수 : 1,925점
  - 시상내역 : 513점(대상 1, 우수상 4, 특선 96, 입선 412)

(3) 자체 평가

- 참신한 신인 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풍토를 고취하겠다는 사업취지 및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은 미술계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작가 발굴이라는 근본취지를 위해 심사방식의 개선, 평론가상 신설 등 제도적 개선 및 자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새로운 미술경향을 반영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방식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함.
- 지원대상 사업이 장기적 지원의 대상이며 연례성 전시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 및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미술대전 심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4년도 기금심의위원회에 반영하였음.
- 2004년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지원을 유보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새로이 기획된 사업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됨.

세부사업명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대한민국공예대전)
-------	-------------------------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공예인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창작풍토를 조성하여 신진작가들의 등용 및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예계의 찬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우수한 작품전시로 일반인들에게 공예예술 진수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나) 사업규모 : 지원금액 25,000,000원

(다) 사업내용

- 전시기간 : 2003.9.8~9.19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전시부문 :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칠공예, 염직공예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2) 주요 추진성과

- 대한민국공예대전 추진성과
  - 출품수 : 234점
  - 시상내역 : 130점(대상 1, 우수상 4, 특선 28, 입선 97)

(3) 자체 평가

- 제2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부문 출품작은 총 234점으로 예년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다양한 기법과 소재선택, 조형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으나 현대 공예의 발전과 관심을 위해 공예대전의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세부사업명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대한민국건축대전)
-------	-------------------------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초대작가들의 우수한 작품과 신진 건축가들의 계획작품을 전시하여 건축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건축문화를 바로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건축학도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진 건축가들의 등용문이 되게 하는 전시를 지원하기 위함.

(나) 사업규모 : 지원금액 30,000,000원

(다) 사업내용

- 전시기간 : 2003.11.14~11.24
- 장 소 : 예술의전당 미술관
- 전시부문 : 360여점,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성(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도시설계에 관계되는 작품) 및 주제가 있는 초대된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

- 일반공모부 : 120점
- 초대작가전 : 73점
- 한국건축가협회상 : 7점
- 건축사진전 : 150여점
- 건설·자재업체전 : 10여점
- 주최 : (사)한국건축가협회

(2) 주요 추진성과

○ 대한민국건축대전 추진성과

- 출품수 : 1,488점

초대작가 출품작품수 : 73점 일반공모부 출품작품수 : 1차 1179점/2차 236점

- 일반공모부 시상내역 : 120점(대상 1, 우수상 4, 특선 6, 입선 109)

(3) 자체평가

○ 대한민국건축대전의 경우 신진건축가와 기성건축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실현시키고 건축의 환경적 기능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전시라고 보여짐.

○ 전년도에 비해 작품수가 증가하였음.

세부사업명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대한민국사진대전)
-------	-------------------------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사진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인발굴로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한편 사진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함.

(나) 사업규모 : 지원금액 : 20,000,000원

(다) 사업내용

- 전시기간 : 2002.5.13-5.26
- 장 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 전시부문 : 공모전-141점, 초대전-100점
- 주 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 주요 추진성과

○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진성과

- 시상내역(141점) : 대상 1점, 우수상 1점, 특선 10점, 입선 129점

(3) 자체 평가

○ 현대 사진인의 창작의욕과 예술사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대발전예 뒤떨어진 담보적인 소재선택이나 형식으로 새로운 사진대전의 발전계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여 짐.

세부사업명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서울창작음악제)
-------	------------------------

(1) 사업개요

- 1969년 우리나라 창작음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한 서울음악제를 2002년부터 창작 음악의 활성화 및 신인 작곡가의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서울창작 음악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작곡가들의 창작의욕 진작 및 창작예술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가) 행사내역

- 대상작품 : 현재적 기법이나 실험적 작품을 포함한 한국적이고 예술적인 세계 초연 작품
- 위촉 및 공모부문 : 가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 위촉 및 공모작품 발표 일정
  - 2003. 5. 28 : 가곡과 실내악
  - 2003. 5. 29 : 실내악과 가곡
  - 2003. 5. 30 : 관현악
- 장소 : 추계예술대 콘서트홀(객석규모 735석)

(나) 주요 추진 경과

- 2002년 10월 : 위촉작품 위촉(관현악곡-장정익)
- 2002년 12월 : 공모작품 요강 발표
- 2003년 3월 31일 : 위촉, 공모작품 접수 마감
- 2003년 5월 28일-30일 : 위촉 및 공모작품 발표

(다) 주요 프로그램내용

- 가곡과 실내악

(2003. 5. 28/ 추계예술대 콘서트홀)

성명	구분	제 목	비고
박 샘	공모	겨울나무	가곡
김문선	공모	"Erasure" for Piano Quartet	4중주
김지원	공모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4중주
홍승희	공모	겨울 산	가곡
정현수	공모	시의 노래	독주
진희연	공모	푸른 옷	가곡
우미현	공모	점에서 선으로	4중주
전옥용	공모	상념(想念)	3중주
천성미	공모	눈 먼 새의 연가	가곡

- 실내악과 가곡

(2003. 5. 29/ 추계예술대 콘서트홀)

성명	구분	제 목	비고
김명인	공모	소품 5곡 (Five Pieces for Chamber Ensemble)	7중주
배민정	공모	미리보는 죽음의 자유	5중주
이가영	공모	너의 하늘을 보아	가곡
손정훈	공모	Cast Back	3중주
양희영	공모	호룽불	3중주
백소영	공모	봄밤	가곡
임승혁	공모	유희	6중주
한아름	공모	굴레	2중주

- 관현악

(2003. 5. 30/ 추계예술대 콘서트홀)

성명	구분	제 목	비고
김민아	공모	A Piece for Orchestra	관현악
채명주	공모	Maturity for Orchestra	관현악
최중윤	공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개벽"	관현악
장정익	위촉	세대의 트롬본과 관현악을 위한 만파정식지곡(萬波停息之曲)	관현악

(3) 서울창작음악제 자체 평가

- 매년 우리나라 창작음악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동 행사는 특히 신인 작곡가 발굴 및 기성세대의 활발한 창작의욕 고취 등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오랜 기간동안 동일한 행사를 기획, 주관함에 따라 행사운영이 매너리즘에 빠진 경향이 엿보임

<b>세부사업명</b>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대한민국작곡상)
--------------	------------------------

(1) 사업개요

-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창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음악인들의 사기 진작과 음악문화를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 창작음악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가) 행사내용

- 사업명 : 2003 대한민국 작곡상
- 주 관 : (사)한국음악협회
- 일 정 : 2003. 12. 05
- 장 소 :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총 객석수 1,000석)
- 후 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시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나이제한 없음),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응모와 동시에 가입 가능
- 작품요건 : 신청 마감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창작되어 기 발표된 한국음악 작품에 한함.
- 대상작품
  - 한국음악부문과 서양음악부문을 격년으로 시행하며, 2003년에는 한국음악부문을 2004년에는 서양 음악부문을 시행한다.
  - 작품의 부문은 다음의 3개 부문이며, 1인 1편만을 출품할 수 있다.
    - 1부문 : 창극, 관현악, 2부문 : 실내악, 3부문 : 독주곡, 독창곡
- 시상내역
  - 최우수상 : 백대웅 영원한사랑 '춘향아'
  - 우수상 : 나효신 불완전성에 대하여
  - 우수상 : 최재륜 축제
  - 우수상 : 공우영 여정, 노을풍경
- 지원액(집행액) : 20,000,000원

(다) 주요 프로그램내용

- 창극, 관현악

성명	부문	작품명	비고
백대웅	창극	영원한 사랑 춘향이	
김대성	관현악	관현악곡 '청산'	
윤혜진	관현악	꽃같은 인생	
임평룡	관현악	통일의 소리	
김성경	협주곡	월백설백천지백	
이경희	관현악	새하늘의 노래	
최정민	협주곡	회상	
백성기	관현악	백두대간	
김선	창극	매창뜸에 이화우 훑날릴제	
윤명원	관현악	류관순	
이인원	관현악	월위리 청청	
정대석	관현악	한강	
이준호	관현악	서울의 달	
이용탁	관현악	기원	
원일	관현악	새	
나효신	협주곡	불완전성에 관하여	
유은선	관현악	창구만들기	
김미림	관현악	산의 소리	
강상구	관현악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박호성	관현악	친(親)여(與)민(民)동(同)락(樂)	

○ 실내악

성명	구분	작품명	비고
조복래	실내악	노을-전통창작음악연주회-해금사랑	
남동현	실내악	비비빅	
오의혜	실내악	수채화	
김승근	실내악	실내 협주곡	
김만석	실내악	누에의 꿈	
조원행	실내악	그들의 이야기	
오혁	실내악	사비성의 축제	
황규상	실내악	다스름	
김도연	실내악	슬픈강	
박경훈	실내악	가을의 일기	
정동희	실내악	갈잎소리	
류형선	실내악	대금,해금,가야금을 위한 두개의자장가	
변계운	실내악	아비투스(일상)	
최재운	실내악	축제	

○ 독주곡, 독창곡

성명	구분	작품명	비고
김요섭	독주곡	산길, 바다	
김은경	독창곡	초가을, 그네의 노래, 보리방아	
공우영	독주곡	여정, 노을풍경	

(3) 대한민국작곡상사업 자체 평가

- 대한민국 작곡상은 발표된 작품만을 심사하는 행사로서 문혀있던 우수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발굴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창작음악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나, 전문 음악인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가 부족하고, 행사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

세부사업명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전국연극제)
-------	----------------------

(1) 사업개요

- 지역연극의 균형 발전을 통한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우리 원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회 주관하는 연극 축제로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단체가 참가 공연하며 대상(대통령상) 등을 시상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21회 전국연극제
- 기 간 : 2003. 6. 12 - 6. 30(19일간)
  - 개막식 : 2003. 6. 12. 17:00
  - 15개 시·도 공연 : 2003. 6. 13 - 6. 29(15일간)
  - 폐막(시상)식 : 2003. 6. 30(월) 11:00
- 장 소 : 공주 문예회관 대극장
- 참 가 : 전국 15개 시·도 대표극단 및 해외교포극단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연극협회
- 주 관 :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연극협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예총충남지회 등

(나) 전국연극제 관련 주요 추진일정

- 2002.8.29 : 제21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회의 개최(충남 공주시 결정)
- 2002.11.13 : 제22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회의 개최(대구광역시 결정)
- 2003.2.20 : 제21회 전국연극제 관계자회의 개최
- 2003.2.26 : 제21회 전국연극제 추진계획 수립
- 2003.3월-6월 : 지역예선대회 개최 및 지원금 지급
- 2003.4.29 : 해외교포극단 초청대상 확정 및 지원계획 수립
- 2003.5.27-5.28 : 제21회 전국연극제 대표자회의 개최
- 2003.5월-6월 : 본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금 지급  
시상계획(심사위원 위촉), 개막리셉션계획, 홍보계획 등 수립
- 2003.6.12-6.30 : 전국연극제 본선대회 추진
- 2003.8월 : 전국연극제 연출상 및 최우수연기상 수상자 해외시찰연수 지원금지급
- 2003.10.28 : 2005년도 제23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회의 개최
- 2004. 2월 : 2004년도 제22회 전국연극제 관계자 회의 개최(예정)

(다) 세부추진내용

- 개막식 행사 : 2003. 6. 12(목)

행 사 내 용	일 시	장 소	공 연 자
· 식전 축하공연	16:30~16:50	공주문예회관	한국마임 연기자 협의회
· 개막식	17:00~17:40	공주문예회관	충남연극협회
· 축하공연	17:40~19:10	공주문예회관	카자흐스탄극단(뽀어서족지말아라)
· 환영리셉션	19:10~20:10	문예회관전시실	문화관광부장관

- 폐막식 행사 : 2003. 6. 30(월)

행사내용	일시	장소
· 축하공연	10:30~10:50	공주문예회관
· 시상식	11:00~12:00	공주문예회관
· 환송리셉션	12:00~13:00	공주문예회관 전시실

○ 해외교포극단 및 15개 시·도 대표 공연 : 2003. 6. 13 ~ 6. 29 (15일간)

일자	시·도	극단명 (대표자)	작품명	작가	연출	비고
6.12(목)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단	짧어서 죽지 말아라	최영근	이올레그	해외교포
6.13(금)	충청남도	짧은무대 (서경오)	천도 현향가	국민성	서경오	창작초연
6.14(토)	대구시	온누리 (이국희)	진땀 흘리기	이강백	이국희	
6.15(일)	제주도	이 어 도 (부재호)	작은 할머니	엄인희	김광흡	
6.16(월)	부산시	열린무대 (구현철)	트라 우마	구현철	구현철	
6.17(화)	울산시	울 산 (박용하)	천년의 수인	오태석	박용하	
6.18(수)	인천시	엘 칸 토 (봉원웅)	고 목	함세덕	박정학	
6.19(목)	연변동포	연변연극단	사랑의 품	리광수	방미선	해외교포
6.20(금)	대전시	마 당 (진규태)	꽃마차는 달려간다	김태수	진규태	
6.21(토)	충청북도	청년극장 (홍진웅)	달의 안해	이 산	강민구	창작초연
6.22(일)	전라북도	창작극회 (류경호)	상 봉	최기우	류경호	창작초연
6.23(월)	전라남도	거 울 (김종호)	북어 대가리	이강백	서수현	
6.24(화)	강원도	굴렁쇠,오름 (김귀선,황헌중)	택시 드리벌	장 진	장규호	
6.25(수)	광주시	진달래 피네 (최영화)	몽 연	김정숙	최영화	
6.26(목)	개일본조선 문학예술가	①도꼬지부 ②오사까지부	하늘우의 꿈나라 꿈판을 여는 사람들	김정호 김지석	김원배 김지석	해외교포
6.27(금)	경상남도	마 산 (이상용)	날보러 와요	김광림	김민기	
6.28(토)	경기도	물 뒀 (임성주)	에비 대왕	홍원기	장용휘	
6.29(일)	경상북도	은 하 (백진기)	불의 가면	이윤택	백진기	

※ 1일 2회(16:00/ 19:30) 공연

○ 시상내역

- 단체상 : 대상 : 2천만원, 금상 : 각 1천만원, 은상 : 각 5백만원,
- 개인상 : 각 2백만원(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수상자에게 해외시찰비 각 3백만원 별도 지원)
- 심사위원 : 박조열(극작가), 김완수(연출가), 강영걸(연출가), 정상철(전 국립극단장), 최유진(공주영상정보대학 교수)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명	극단명	대표자	작품명(작, 연출)
대 상	대통령상	전북	창작극회	류경호	상 봉(최기우작, 류경호연출)
금 상	행정자치부장관상	충남	짧은무대	서경오	천도현향가(국민성작, 서경오연출)
	문화관광부장관상	강원	굴렁쇠,오름	김귀선,황헌중	택시드리벌(장 진작, 장규호연출)
은 상	충청남도지사상	대구	온누리	이국희	진땀흘리기(이강백작, 이국희연출)
	문예진흥원장상	울산	울 산	박용하	천년의수인(오태석작, 박용하연출)
	연극협회이사장상	충북	청년극장	홍진웅	달의 안해(이 산작, 강민구연출)
	공주시장상	경북	은 하	백진기	불의 가면(이윤택작, 백진기연출)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명	수상자	극 단 명	작 품 명
희곡상	충청남도지사상	전북	최기우	창작극회	상 봉
연출상	문예진흥원장상	전북	류경호	창작극회	상 봉
최우수연기상	연극협회이사장상	강원	황현중	굴렁쇠,오름	택시드리벌
연기상	연극협회이사장상	인천	김인숙	엘칸토	고 목
		울산	오만석	울 산	천년의 수인
		전북	김순자	창작극회	상 봉
		충남	오태근	젊은무대	천도현항가
		충남	서경오	젊은무대	천도현항가
무대예술상	예총충남지회장상	대구	장병인	온누리	진땀흘리기 (분장)

○ 관객현황

일 자	시·도	작 품 명	관람객수(명)			비고
			계	일반	학생	
6.11(수)	전야제	유명가수 초청공연	800	700	100	
6.12(목)	개막식	주요인사 참석	750	700	50	
	카자흐스탄	젊어서죽지말아라	700	650	50	해외
6.13(금)	충청남도	천도 현항가	1,750	850	900	창작
6.14(토)	대구	진땀 흘리기	1,200	1,050	150	
6.15(일)	제주도	작은 할머니	1,500	830	670	
6.16(월)	부산	트라 우마	1,700	650	1,050	
6.17(화)	울산	천년의 수인	1,620	720	900	
6.18(수)	인천	고목	1,570	877	693	
6.19(목)	중국	사랑의 품	850	620	230	해외
6.20(금)	대전	꽃마차는 달려간다	1,880	491	1,389	
6.21(토)	충청북도	달의 안해	1,590	1,040	550	창작
6.22(일)	전라북도	상봉	1,460	1,110	350	창작
6.23(월)	전라남도	복어 대가리	1,110	820	290	
6.24(화)	강원도	택시드리벌	1,600	960	640	
6.25(수)	광주	몽연	1,640	1,450	190	
6.26(목)	재일본조선	하늘우의 꿈나라	1,050	850	200	해외
	문학예술가 동맹	하나 아리랑				
6.27(금)	경상남도	날보러 와요	1,510	1,130	380	
6.28(토)	경기도	에비대왕	1,510	1,130	380	
6.29(일)	경상북도	불의 가면	1,610	1,610	0	
6.30(월)	폐막식 및 시상식		550	550	0	
소계	문예회관내 관람객		27,950	18,788	9,162	
어린이	어린이 마임, 인형극, 구현동화		2,129	0	2,129	
예술무대	교향악, 판소리, 국악, 마임 등		11,160	8,082	3,078	
합계			41,239	26,870	14,369	

○ 객석점유율(객석수 : 문예회관 대극장 747석)

- 공연(해외교포극단 및 15개 시도) 객석점유율 : 102% (총 객석수 25,398석)

.총 16회 공연 25,850명

○ 관람료 : 일반 8,000원 / 학생 4,000원

(라) 사랑티켓 운영 현황

○ 티켓종류 : 학생용 (고교생 이하 사용) 및 일반용

○ 티켓 가격 (액면가격)

- 학생용 : 4,000원권 (1,000매)
- 일반용 : 8,000원권 (4,000매)

○ 티켓운영 현황

티켓종류	발행수량	판매수량	회수수량	미회수수량	환불 수량
4,000원권	10,000	9,384	6,961	2,077	346
8,000원권	13,000	11,792	6,918	4,830	44
계	23,000	21,176	13,879	6,907	390

- 사랑티켓 문예진흥기금 지원액 : 50,000,000원
  - 4,000원권 : 6,961매 x 3,000원 = 20,883,000원
  - 8,000원권 : 6,918매 x 5,000원 = 34,590,000원
  - ※ 총 55,473,000원 중 지원예정액 50,000,000원 지원

(마) 부대행사 내용

행사 내용	일시	장소
· 전야제	6.11. 20:00	문예회관 특설무대
· 거리홍보공연	6.11 ~6.30	주요 시내 일원
· 공연무대	6.12~6.29	공주문예회관 특설무대
· 학술 심포지엄	6. 14	민속극박물관 소극장
· 연극근대사 자료전	6.12~6.30	문예회관로비
· 연극도서장터	6.12~6.30	문예회관로비
· 전국연극인 사랑방	6.12~6.30	금강유황온천장
· 문화유적 답사	6.12~6.29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 민속극박물관 → 공산성

(바) 지역예선대회 개최 내역

사업수행단체 (대표자)	기간	장소	경연참가 단체수	창작초연 작품수	비경연 참가단체	지원금(천원)		
						진흥원	시·도	계
부산연극협회	4. 4-4.28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6	1	1	9,000	15,000	24,000
대구연극협회	4. 2-4. 9	대구문예회관	2	0	1	3,000	19,000	22,000
인천연극협회	5. 1-5.19	인천수봉문화회관	5	0	0	7,500	25,000	32,500
광주연극협회	3.27-3.31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5	0	0	7,500	7,200	14,700
대전연극협회	4.27-5. 3	대전시민회관	5	1	0	7,500	12,000	19,500
울산연극협회	4. 3-4. 6	울산예술회관 소극장	2	0	0	3,000	10,000	13,000
경기연극협회	4. 3-4.16	경기도내 일원	12	1	0	18,000	30,000	48,000
강원연극협회	4. 9-4.14	속초문예회관	6	0	0	9,000	24,530	33,530
충북연극협회	4. 2-4. 7	충북도내 일원	2	1	0	3,000	11,600	14,600
충남연극협회	4.28-4.30	공주문예회관	3	1	0	4,500	10,000	14,500
전북연극협회	4.16-4.20	소리문화의전당	5	2	0	7,500	10,000	17,500
전남연극협회	4.22-4.27	해남군문예회관	6	0	0	9,000	14,000	23,000
경북연극협회	4.17-4.21	경북도내 일원	5	0	1	7,500	20,000	27,500
경남연극협회	4.10-4.19	사천문화회관	10	0	0	15,000	72,500	87,500
제주연극협회	4.28-5. 1	제주도문예회관	4	0	0	6,000	20,000	26,000
합계			78	7	3	117,000	300,830	417,830

(사) 지역예선대회 심사위원 명단

시·도	지역예선대회 심사위원 명단
부 산	이성규(부산연극협회 자문위원), 정봉석(부산연극협회 부회장), 심상교(부산예술문화대 교수), 손기룡(극단예사당 대표), 박찬영(부산연극협회 회원)
대 구	김영규(연극인), 표원섭(가야대 교수), 이상원(시립극단 감독), 박근형(연출가), 권순중(구미일대학 교수)
인 천	이동규(연기), 조상건(연기자), 최용길(극작가)
광 주	정 철(동신대 예체능대학장), 김창일(목포시립극단상임연출), 김길수(순천대 교수)
대 전	정성규(한남대 국어교육과교수), 최용훈(극단작은신화 대표), 김현목(극작가)
울 산	정일성(극단미학 대표), 김태근(원로연극인), 정상태(연출가)
강 원	박완서(연극인), 김학철(연극인), 오연수(강원연극협회장), 이일섭(연극인), 장규호(연극인), 김동석(연극인), 정연수(시인)
경 기	윤우영(대진대 연극학부교수), 최정일(중앙대 교수), 강태기(연기자)
충 북	조병진(청주대 연영과 교수), 임승빈(청주대 국문과 교수), 장남수(충북예총 회장)
충 남	김영무(극작가), 김도훈(한성대 교수, 전 극단뿌리 대표), 이태훈(한성대 교수, 전 극단민예대표)
전 북	강남진(백제예술대 교수), 정초왕(전북대독문과 교수), 김용선(전주예고 연영과 학과장)
전 남	문고현(연출가), 김영무(극작가), 권병길(연기자)
경 북	노경식(극작가), 이승호(연기자), 김성노(실험극장 연출가)
경 남	정 현(연기자), 오테영(극작가), 방은미(극단아리랑대표)
제 주	강용준(극작가), 홍석표(제주전문대교수, 전 협회장), 김가영(극작가)

(아) 종합평가

○ 15개 시·도 공연

- 심사총평(심사위원장 공식 발표문)

“ 제21회 전국연극제는 그 개최 지역의 연극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내지 관심을 자극, 제고시키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심사위원 전원이 강조했다. 전국연극제 역사상 가장 인구가 적은 소도시 였는데 다가 가장 긴 개최 기간이었음에도 객석은 연일 만원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의 열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강조할만하다. 주최자들의 노력과 행사 조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심사위원회는 제21회 전국연극제가 그 표현 수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착실히 향상되고 있다(특히, 무대미술, 조명, 의상, 음향 등에 있어서)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예년에도 자주 지적되어온 극단의 표현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레퍼토리 선정, 연출자와 연기자의 기초 실력 부족, 경연의 목적을 잘못 인식한데서 비롯되는 일방적인 현시적 장면 만들기 등의 현상이 여전히 일면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상 수상단체 선정사유

“대상 수상작 “상 봉”은 비록 수작이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우리들의 삶에 끼친 고통의 모습을 정면으로 다루려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시점의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볼 때 그 작품의도에 있어서 호소하는 힘이 컸다.

올해 참가작들이 대부분 그 전달력(특히 화술에 있어서)이 약했던 데 비해서 돋보였고, 음향, 조명, 음악 등의 협조가 뛰어났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남북관계가 일대 전환기에 있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초극하는 화해의 정신이 고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심사위원회는 “상 봉”이 사회를 향한 강한 메시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상 봉”은 비록 감상적이고 표피적인 형상 수준이긴 하지만, ‘연극은 사회를 향한 행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각별히 새삼 의식함으로써 다수 의견으로서 대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세부사업명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전국무용제)
-------	----------------------

(1) 사업개요

- 지역무용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무용 활동의 교류와 활성화를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가)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2회 전국무용제
- 기 간 : 2003. 9. 16(화) ~ 9. 24(수) (10일간)
  - 개막식 및 인천 경연 : 2003. 9. 16(화) 17:30
  - 시·도 경연 : 2003. 9. 17(수)~23(화) 19:30~21:10
  - 폐막(시상)식 : 2003. 9. 24(수) 11:00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가 : 15개 시·도 대표무용단 및 축하공연단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무용협회
- 주 관 : 인천광역시, 한국무용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예총인천연합회 등

(나) 전국무용제 관련 주요업무 추진 일정

- 2002. 8. 30 : 제12회 전국무용제 개최지 확정(인천광역시)
- 2003. 2. 11 : 제13회 전국무용제 개최지 확정(대전광역시)
- 2003. 3. 14 : 제12회 전국무용제 관계자 회의 개최
- 2003. 3. 24 : 제12회 전국무용제 시행계획 수립
- 2003. 6월-8월 : 지역예선대회 개최 및 지원금 지급
- 2003. 8. 5 : 제12회 전국무용제 대표자 회의 개최
- 2003. 7월-9월 : 본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금 지급, 시상계획, 심사계획, 개막리셉션계획, 홍보 및 평가계획 등 수립
- 2003. 8. 25 : 2005년 제14회 전국무용제 유치 신청 안내
- 2003. 9. 16-24 : 제12회 전국무용제 본선대회 추진
- 2003. 11월-12월 : 전국무용제 안무상 및 최우수연기상 해외시찰 지원금 지급
- 2003. 12월 : 2005년 제14회 전국무용제 개최지 선정(제주)

(다) 세부추진내용

- 개막식 행사 : 2003. 9. 16(월) 16:50-20:00

행 사 내 용	시 간	장 소	단 체
식전 축하공연	16:50-17:20	인천종합문예회관	인천시립무용단
개막식	17:30-18:10	인천종합문예회관	무용제 사무국
인천대표 경연	18:20-18:50	인천종합문예회관	바이브무용단
환영 리셉션	19:00-20:00	미추홀 뷔페	문화관광부장관

○ 시·도 대표경연

날짜	시간	지역	단체	대표자	공연명	장르
9.16(화)	18:20	인천	바이브무용단	김희진	상자속의 바다풍경	현대
9.17(수)	19:30	경북	정수희&퇴계무용단	정수희	종이배Ⅱ	현대
	20:30	충남	최선무용단	최선	단청(丹青)	한국
9.18(목)	19:30	경남	김금희무용단	김금희	아랑, 나비되어...	한국
	20:30	울산	김외섭무용단	김외섭	天地人	한국
9.19(금)	19:30	전북	collaboration/OR 김원무용단	김원	A Different Corner Ⅱ	현대
	20:30	경기	안양무용단	이규용	몽(夢)가(家)	한국
9.20(토)	19:30	대구	NSDT	배성철	아! 태양이여	한국
	20:30	강원	AHA댄스씨어터	조성희	신(新)데렐라-아름답기만 했다	현대
9.21(일)	19:30	부산	동아발레연구회	강세영	검은달-험릿, 또다른 선택	발레
	20:30	제주	김정무용단	김정	혜음	한국
9.22(월)	19:30	전남	양미란목포한국무용단	양미란	망각의 환(環)	한국
	20:30	대전	배주옥무용단	배주옥	승어리 샘	한국
9.23(화)	19:30	충북	오진숙 Contemporary Dance Company	오진숙	생명의 그물	현대
	20:30	광주	광주현대무용단	임지형	물·밀·꽃잎	현대

○ 폐막식 행사 : 2003. 9. 24(수)

행사 내용	시간	장소	단체
폐막 축하공연	11:00-11:20	인천종합문예회관	발레블랑
폐막 축하공연	11:20-11:40	인천종합문예회관	서은정현대무용단
시상식	11:40-12:10	인천종합문예회관	무용제 사무국
환송 리셉션	12:10-13:00	미추홀 뷔페	인천광역시

○ 시상내역

- 단체상 : 대상 2000만원, 금상 각 1000만원, 은상 각 500만원
- 개인상 : 각 200만원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	무용단명	대표자	작품명
대상	대통령상	광주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임지형	물·밀·꽃잎
금상	행정자치부장관상	충남	최선무용단	최선	단청(丹青)
	문화관광부장관상	강원	조성희 AHA댄스씨어터	조성희	신(新)데렐라-아름답기만했다
은상	인천광역시장상	인천	바이브무용단	김희진	상자속의 바다풍경
	문예진흥원장상	충북	오진숙 ComtemporanyDanceCompany	오진숙	생명의 그물
	한국무용협회이사장상	울산	김외섭무용단	김외섭	천지인(天地人)
	한국예총인천연합회장상	전북	김원무용단	김원	A DIFFERENT CORNER Ⅱ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	수상자	무용단명	작품명	비고
안무상	인천광역시장상	광주	임지형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물·밀·꽃잎	
연기상	문예진흥원장상	강원	조성희	조성희 AHA댄스씨어터	신(新)데렐라 -아름답기만했다	최우수
		울산	박지애	김외섭무용단	천지인(天地人)	
		충북	송진주	오진숙 Comtemporary Dance Company	생명의 그물	
		인천	손소영	바이브무용단	상자속의 바다풍경	
		광주	이숙영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물·밀·꽃잎	
		부산	박순영	동아발레연구회	검은 달 -햄릿, 또 다른 선택	
무대기술상	한국무용협회이사장상	부산	신상준	동아발레연구회	검은 달 -햄릿, 또 다른 선택	

※ 안무상, 최우수연기상 수상자에게 해외시찰경비 300만원 별도 지원

- 심사위원 : 송수남(전 단국대 교수), 한명옥(인천시립무용단 상임안무가), 김소라(대구카톨릭대 교수), 정의숙(성균관대 교수), 서정자(한국발레협회 이사), 장광열(평론가), 문애령(평론가) (이상 7명)

○ 관객현황

구분	대공연장			특설무대	계
	일반	학생	소계		
전야제	-	-	-	1,500	1,500
개막식	441	950	1,391	-	1,391
경연	1,275	8,108	9,383	-	9,383
폐막식	450	50	500	-	500
부대행사	-	-	-	10,000	10,000
<b>계</b>	<b>2,166</b>	<b>9,108</b>	<b>11,274</b>	<b>11,500</b>	<b>22,774</b>

○ 사랑티켓 운영 현황

- 티켓종류 : 학생용(고교생 이하 사용) / 일반용
- 가격(액면가격) : 학생용(3,000원) / 일반용(7,000원)
- 티켓운영 현황

티켓종류	발행수량	판매수량	회수수량	미회수수량	환불 수량	비고
3,000원권	8,000매	7,950매	7,870매	80매	-	
7,000원권	3,500매	2,680매	1,584매	1,096매	-	
계	11,500매	10,630매	9,454매	1,176매	-	

- 사랑티켓 문예진흥기금 지원액 : 22,076,000원
  - 3,000원권 : 7,870매 × 2,000원 = 15,740,000원
  - 7,000원권 : 1,584매 × 4,000원 = 6,336,000원

(라) 부대행사 내용

행사내용	일시	장소
인천무용사진전	2003.9.19~23 (종일)	인천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
순회공연	2003.9.17/18/20 (19:00)	서구/계양구/강화군 문예회관
인천새싹춤공연	2003.9.17 17:30-18:3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Dance Screen	2003.9.19 21:00-23:0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댄스스포츠 페스티벌	2003.9.21 14:0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2003.9.20~21 15:0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명무전	2003.9.21 17:30-18:3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젊은 춤꾼, 열린 무대	2003.9.22 17:30-18:3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무용퍼포먼스와 마임	2003.9.23 17:30-18:3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댄스스포츠강습	2003.9.17~23 17:00-18:00	인천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마) 지역예선대회 개최 현황

사업수행단체	기간	장소	경연참가	비경연참가	지원금(단위:천원)		
					진흥원	시도	계
인천광역시	6.27-28	인천문예회관	6	0	9,000	30,000	18,000
대전광역시	6.3-5	대전문예회관	4	6	6,000	12,000	19,700
대구광역시	6.24-25	대구문예회관	3	1	4,500	15,200	24,000
부산광역시	7.15-17	부산문화회관	6	1	9,000	15,000	14,500
울산광역시	6.27-28	울산문예회관	3	0	4,500	10,000	14,500
광주광역시	6.12-13	광주문예회관	4	0	6,000	8,000	14,000
경기도	6.30-7.4	용인문예회관	9	1	10,000	35,000	45,000
강원도	7.9	춘천문예회관	7	-	10,000	15,000	25,000
충청북도	6.12	청주예술의전당	4	0	6,000	14,000	20,000
충청남도	7.29	공주문예회관	3	-	4,500	10,000	14,500
전라북도	6.4	한국소리문화의전당	4	0	6,000	10,000	16,000
전라남도	6.25	목포문예회관	3	1	4,500	17,500	22,000
경상북도	6.28-29	안동시민회관	6	0	9,000	10,000	19,000
경상남도	7.17-18	경남문예회관	2	4	3,000	23,500	26,500
제주도	예선대회 미개최		-	-	-	-	-
계			58	14	83,000	195,200	274,700

(3) 전국무용제 사업 자체평가

- 예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작품 수준이 향상되었고, 특히 무용음악과 무대미술, 조명 등 극장에

술에서 중요한 부문들이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여 전체적으로 무용예술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특히 참가 무용단들마다 작품 제작에 전념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경연 열기 못지않게 무용가들의 치열한 창작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에 지역간에 작품 수준의 편차가 다소 컸던 점, 단체의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무거운 주제를 선정한 점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무용의 대중화를 자연스럽게 선도한 주관처인 인천광역시 무용관계자들의 노력은 한국의 무용발전을 위한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b>세부사업명</b>	전국 규모 예술행사 지원(서울공연예술제)
--------------	------------------------

(1) 사업개요

- 세계 10대도시이며, 한국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국제 수준의 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여 문화한국 이미지를 선양하여, 우리 공연예술의 세계화와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함
- \* 지원예산 : 500,000천원 (서울시 350,000천원, 국고 500,000천원 별도지원)
  - 우리원 지원예산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집행

(2) 주요 추진실적

(가) 행사개요

- 행사명 : 2003년 서울공연예술제
- 기 간 : 2003. 10. 4(토) ~ 11. 2(일)
  - 개막식 : 2003. 10. 4(토) 17:30 :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일원
  - 연극, 무용 등 공식참가 및 부대행사 진행 : 2003. 10. 4(토) ~ 11. 1(토) 대학로 및 세종로 일원
  - 폐막(시상)식 : 2003. 11. 2(일) 17:00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 행사 추진 경과
  - 10월 4일 개막식(연출: 이기도, 전훈 : 마로니에공원 야외특설무대)
  - 10월 5일 마로니에TTL야외무대 개막(총40여팀), 거리연극제(6팀),거리음악제(9팀) 개막
  - 10월 8일 마르셀 리 "에피소(EPIZOO),아파시아(AFASIA)"(~10일까지:문예진흥원 소극장)
  - 10월 10일 로비음악회 개막(총 7회 행사)
  - 10월 10일 2003 국제 학술심포지움(덕성여대/10일~12일)
  - 10월 10일 합평회 개막(10월 10일,18일,25일,11월1일)
  - 10월 11일 광화문댄스페스티벌 개막(~24일까지 매일 행사:세종문화회관 분수대광장)
  - 10월 14일 리체이넘극단 "오이디푸스왕"(~16일까지:문예진흥원 대극장)
  - 10월 16일 나도100잔 시작(노란대문 야외카페)
  - 10월 18일 유고자파드극단 "갈매기"(~20일까지:문예진흥원 대극장)
  - 10월 18일 한국예술교육 개혁을 위한 토론회(마로니에공원)
  - 10월 19일 유고자파드극단 연출가 벨라코비치 After Talk /연극인 박정자씨 유고자파드 환영와인파티
  - 10월 22일 문화관광부 "이창동"장관 나도 100잔 참여
  - 10월 25일 모린플래밍 " After Eros"(~26일까지:문예진흥원 대극장)
  - 10월 29일 무용부문 공식선정작 연기상 심사회의
  - 10월 30일 짜부튀큰 주립 발레단 돈론댄스컴퍼니 "Chocolate, Taboo or Not"(~31일까지:성균관대 새천년홀)
  - 10월 31일 데자도네 컴퍼니 "There Where We Were"(11월1일까지:문예진흥원 대극장)
  - 11월 2일 연극부문 공식선정작 연기상 심사회의 / 폐막식(문예진흥원 대극장)
  - 11월 2일 대학로포럼 '서울공연예술제에 대한 반성과 전망'

(나) 참가 작품 공연일정

○ 연극 - 공식초청작품

단체명	작품명	연출	작	공연장명	공연일정
극단신화	두여자두남자	정일성	윤대성	문예진흥원예술극장 소극장	10월 16일-23일
	이혼의조건	정진수	윤대성		
	당신안녕	김영수	윤대성		
물리	서안화차	한태숙	한태숙	정미소	10월 4일-19일
오늘	늙은부부이야기	위성신	위성신	학전블루소극장	10월 4일-12일
모시는사람들	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	권호성	김정숙	국립달오름극장	10월 3일-9일
컬티즌	졸업	황인뢰	이만희	문예진흥원예술극장소극장	10월 25일-11월 2일
가고	구사일생	박장렬	강석호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대극장	10월 4일-9일

○ 연극 - 새로운 공간을 찾는 젊은 연극초대전

단체명	작품명	연출	작	공연장명	공연일정
가변	ON AIR 햄릿	송형종	조현아	해화동1번지	10월 7일-19일
김동수컴퍼니	우동한그릇	김동수	구리료혜이	바탕골소극장	10월 11일-16일
연희단거리패	잠들수없다	남미정	김도원	바탕골소극장	10월 28일-11월 2일
그룹동시대	아가멤논가의 비극	오유경	서지혜	학전블루	10월 15일-19일
극단 동승무대	나의교실	김낙형	김낙형	바탕골소극장	10월 17일-23일
사다리움직임연구소	휴먼코메디	임도완	공동창작	학전블루	10월 20일-26일
공연창작집단 뛰다	상자속 한여름밤의 꿈	이현주	박지선	바탕골소극장	10월 4일-9일
극단 돌곶이	우리나라 우투리	김광림	김광림	학전블루	10월 29일-11월 2일

○ 무용 - 공식 초청작

단체명	작품명	안무자	공연장명	공연일정
윤미라무용단	물빛그늘	윤미라	문예진흥원예술원대극장	10월11일
안애순무용단	아 이 고	안애순	문예진흥원예술원대극장	10월12일
발레블랑	GEN©SYS	정현주	문예진흥원예술원대극장	10월22, 23일
서울발레시어터	Color of Life	제임스 전	문예진흥원예술원대극장	10월22, 23일
박인자발레단	삼륜 자전거를 타고	박인자	문예진흥원예술원대극장	10월22, 23일
가림다 무용단	시간속의 심판	김남식	문예진흥원예술원대극장	10월28, 29일
창무회	얼음 강	김매자	문예진흥원예술원대극장	10월28, 29일
이명진무용단	심청	이명진	국립극장 달오름	10월14, 15일
Crayon Dance Project	코끼리를 어떻게 먹을수 있을까?	조훈일	문예진흥원예술원소극장	10월12일
최테레사무용단	윈터랜드	최테레사	문예진흥원예술원소극장	10월12일, 13일
Yoo Moving Exchange	Active Zone Improvisation	미나 유	문예진흥원예술원소극장	10월12일, 13일
춤 다숨 무용단	강철세잎	조훈일	국립극장 달오름	10월14, 15일

(다) 세미나 개최 현황

○ 연극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 New Approaches on Theatrical Space

- 일시 : 2003년 10월11일(토)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 주최 : 서울공연예술제 집행위원회, 한국연극학회
- 해외초청자 : 해외 인사 7~8명
- Patrice Pavis(프랑스) 프랑스 8대학 등

○ 연극평론가협회 : 서울공연예술제 연극작품 품평회

- 일시 : 공연예술제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 대상 : 평론가, 해당작품의 관계 연극인, 일반 연극인, 학생, 일반 관객, 언론인
- 방법 : 해당 주제 공연되었던 작품을 대상으로 매주 사회자와 패널2인을 바꾸어가면서 패널들의 간단한 발제에 이어 해당 작품에 관한 분석
- 대학로포럼
  - 주제 : 서울공연예술제 운영에 관한 평가 세미나
  - 일시 : 2003년 11월3일
  - 주최 : 서울공연예술제, 대학로 포럼

(3) 서울공연예술제 사업 자체평가

- 문제점
  - 기존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의 통합행사로 출발함에 따라 연극협회 및 무용협회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003년부터 예술감독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융합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연극, 무용중심의 나열식 행사에 따라 정체성 확보 미흡
  - 집행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배분된 위원들로 구성됨에 따라, 행사참여 의지가 미약하고, 예술제 실제 조직 내에서 자문역할에 불과
  - 추진 사무국의 임시 구성에 따라 해외 공연단체 섭외 등 다년간 지속사업수행이 불가능하며, 사후처리 등 행정수행 능력이 저하
- 개선방안
  - 2004년부터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부활에 따라 이들 행사를 해당 협회가 주관토록 하고 서울공연예술제는 독자운영체제로 전환 함
  - 행사의 목표와 기본적인 방향을 집행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추진을 예술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집행위원회와 예술감독의 권한을 확대 함
  - 자문역에 그치던 집행위원회를 해외 및 국내의 공연예술계의 흐름에 정통한 실무형 인사로 구성하여 행사운영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체제를 구축함
  - 집행위원회 수시개최 및 분과(기능)별 집행위원의 행사준비 및 운영참여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감독과 사무국의 추진력을 지원함
  - 매년 임시 구성으로 운영되던 추진사무국의 상설운영을 통하여 다년 행사기획을 준비할 수 있게 하며, 추진 능력을 배양
  - 예술감독 및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극, 무용으로 양분된 공연장르를 음악, 전통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가 가능토록 함

<b>세부사업명</b>	기간문예단체지원
--------------	----------

(1) 사업개요

- 예술인들의 전국적 연합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본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2003년도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

- (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580,000,000원
- 사업비 : 340,000,000원(제20차 예총대표자회의 20,000,000원, 월간 ‘예술세계’ 발간 70,000,000원, 제17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 40,000,000원, 예총 단위협회 정보화사업 운영 : 210,400,000원)
  - 경상운영비 : 239,600,000원

- (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 350,000,000원
  - 문화정책포럼 : 10,200,000원
  - 연구사업 - 문화의집 표준 운영 모델 개발 연구 : 8,500,000원
  - 일일문화정책동향 발간사업 : 10,000,000원
  - 문예아카데미 대중강좌 : 135,600,000
  - 문예아카데미 정기 문예포럼 : 9,200,000
  - 민족 문화예술 db 구축사업 : 12,676,000원
  - 민족예술인 네트워크 : 15,150,000원
  - 민족예술인대회 : 15,000,000원
  - 제2회 문예활동가 여름학교 : 5,074,000원
  - 기간 민예총 발간자료 및 강의안 DB구축사업 : 17,000,000
  - 월간 '민족예술' 발간 : 100,200,000원
  - 민족미학예술의 연구프로젝트 : 11,400,000원

세부사업명	계기성 우수기획사업지원
-------	--------------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 연도 중반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획되는 사업중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획성 사업이나 범 국가적 또는 긴급하게 지원을 필요로하는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지원대상 (심의기준)
  - 연도 중반 기획되어 파급효과 등 우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 국가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행사를 계기로 기획된 문화행사
  - 기타 문화정책 수행 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지원신청건수 / 지원신청액 : 52건 / 1,409,549,000 원
- 지원결정건수 / 지원결정액 : 45건 / 700,000,000원
- 지원집행건수 / 지원금집행액 : 45건 / 700,000,000원

(3) 자체 평가

- 예산 범위 내에서 계기성 사업의 취지를 살려 엄선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좀더 분화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창작과 향수, 국내와 해외 등 특화된 목표를 가진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수시 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분기별 심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요청됨
- 연례신청 사업보다 지원액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04년부터는 분야별 세분화된 위원회를 구성하며 신청사업 분야에 따라 심의위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우리원의 기획 의도나 사업 발굴 능력 향상을 위해 원내 지원주무 부서장의 심의 참석을 강화함

## 2003계기성우수기획사업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번호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지원액	비고
1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신형원)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 음악회	40,000	1차
2	새문화기구를 위한 연대 회의(양기환)	‘WTO시대의 문화-교역인가 교류인가’연구 자료집 발간	5,000	2차
3	충북민예총(김승환)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주제가 있는 공연교류	25,000	
4	한국춤평론가회(이종호)	새정부 춤 정책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8,000	
5	정혜승(설치작가)	Multipoint-L’Erban에서의 인터내셔널 그룹 리서치 프로그램 참가	5,000	
6	아트선재센터(김현진)	상하이 한국현대미술전개최	20,000	
7	김소라 외 3인	제50회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가 (4인)	10,000	
8	임영균(사진작가)	임영균 중국상해 시영 오리진 갤러리 초대 사진전	5,000	
9	국제 민속연극축제집행위원회(박현순)	대구 민속연극축제-대학극 축제 한마당	100,000	
10	(사)온누리 국악예술단(권응섭)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민족문화예술축제 공연참가	10,000	
11	(재)서울예술단(신선희)	제1회 북경국제 희극 연출제 초청 공연 뮤지컬“로미오와 줄리엣”	30,000	
12	지역문화네트워크(이홍우)	지역문화활성화와 문화분권을 위한 대토론회	3,500	3차
13	문화개혁시민연대 문화사회연구소(이동연)	문화 영향평가제도연구	40,000	

번호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지원액	비 고
14	민예총부산지회	월레거리문화행동SPACE.POP	15,000	4차
15	주신 E&S	윤호간 2003 July corncert"감동"	10,000	
16	어어부 프로젝트	어어부 서울- 서구	15,000	
17	신명 아트센터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을 위한 2003 민중연희 페스티벌	10,000	
18	한국사진문화재단	한국사진영상센터 개관기념 종합 사진 영상전" Oh! Peace Korea"	10,000	
19	김형주	휴전50주년 기념 한국의 얼 전시	5,000	
20	이경은	제9회 로야몬드 재단 안무센터 안 무연수	3,000	
21	구동희	Akademie Schloss Solitude 인터 내셔널 아티스트 프로그램 참가 및 신작제작	10,000	
22	쌈지 스페이스(김홍희)	차학경 관련 심포지움	10,000	
23	김 범	제8회 이스탄불 국제비엔날레 참가	2,000	
24	정연두	제8회 이스탄불 국제 비엔날레 참가	2,000	
25	홍성지	ISCM WOLD Music Days 2003 연주참가	1,500	
26	극단 입체	프랑스 파리공연축제 초청공연	15,000	
27	한국미술사학회	국제미술심포지움" 현대미술에 투 영된 전통미술의 의미"	10,000	
28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한국인의 익살과 해학, 동래야류 미국4개도시 특별 순회공연	10,000	
29	양혜규	텔피나 파운데이션 주최, 아티스 트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8,000	
30	YELLOW SEA CULTURAL NETWORK (윤재갑)	한국-네덜란드 현대미술 교류전	15,000	

번호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지원액	비 고
31	평화기원 문화제 조직위 (지금중)	정전 50년 평화 기원 문화제	30,000	5차
32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정희섭)	제1회 문화정책 심포지엄	12,000	
33	민예총 대구지회(차재근)	문화의 날 대구개최 기념 “대구 민족 굿 한마당”	20,000	6차
34	전북작가회의(김용택)	금강문화축제 “세노야 2003”	20,000	
35	민예총 광주지회(김경주)	광주지역 주민 생애사 구술 아카이브 展	15,000	
36	고생모 (여균동)	신도시 展 “넌, 어디서, 사니?”	15,000	
37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오용록 )	작곡가 조념 헌정 공연	10,000	
38	김유연	‘사라짐’ 국제현대미술 전시 및 세미나	10,000	
39	김운수	2003년 베이징 국제미술비엔날레 ‘한국미술 특별전’ 조직 및 참가	30,000	
40	김정지	런던 첼시 공예전 참가	3,000	
41	한국연극학회(신현숙)	‘연극 공간의 새로운 접근’ 국제학 술대회	7,000	
42	A-P ITI아시아 태평양 극 예술협회(양혜숙)	아시아 문화연대 회의 2003	15,000	
43	송미숙 전통예술단(송미숙)	송미숙 전통예술단 캐나다 공연	8,000	
44	중요무형 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이윤석)	2003 고성오광대 미국하와이 공연	7,000	
45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 회의(양기환)	제4차 세계문화 NGO 총회 참가	10,000	
계		총 45 건	658,000	

#### 나)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	-------------

##### (1) 사업 개요

- 우리나라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창작품을 발굴, 공연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 추진실적

- 지원결정현황 : 35건 1,054,000,000원
  - 2003년도 지원(공연) 대상 : 26건 766,000,000원
  - 2004년도 지원(공연) 대상 : 9건 288,000,000원
- 지원금 집행실적 : 31건 976,000,000원

- 2003년도 선정사업 : 25건 746,000,000원
- 2002년도 선정사업 : 6건 230,000,000원

### (3) 자체평가

#### ○ 사업의 의의

- 창작공연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작가의 순수 창작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창작품의 대본(악보)를 심의하여 초연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전지원사업과, 초연작품의 현장심의를 통한 재공연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후지원사업으로 운영됨으로써, 명실공히한 국내 창작공연물의 육성사업임

- 또한 국내 지원제도가 매년 일년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동사업의 경우 초연, 재공연에 구분 없이 익년도 공연계획까지 담보함으로 해서 충분한 공연준비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음

#### ○ 사업의 효과

- 사전, 사후 지원사업을 통해 자칫 흥행기대 여부에 따라 무대화되기 어려운 창작품들에 대한 안전한 제작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 지원건수를 고려하여 여전히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는 일반 공연제작지원 유형과 달리 실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작품별 집중지원 형태를 띠고 있음에(오페라, 뮤지컬 등은 2003년에 작품당 80,000천원까지 지원)따라 예술단체의 활동을 보장하여 주고 있음으로 해서 무대화 여건이 힘들었던 지방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제작등에 자극을 주고 있음

- 또한 2003년에 지원된 “내사랑 DMZ”, “웃어라 무덤아”, “최승희” 등 일부 작품이 평단의 호평과 함께 전국순회공연(내사랑...), 일본 알리스페스티벌 참가 (웃어라..) 등 지속적인 레파토리 공연의 기반을 쌓고 있음

#### ○ 개선점

- 동사업은 재공연 내지 초연사업을 집중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선정작품 건수에 비례해서 당초 목적에 맞는 제작규모를 고려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여전히 제작비에 대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당초 계획에 맞도록 작품규모에 따른 적정한 지원규모가 확보되어야 함

- 일부 단체의 경우, 지원액 규모가 일반 창작활동지원보다 월등한 규모임을 착안하여 무분별한 지원신청에 대한 방지책(순수창작품의 범주, 공연시간, 공연규모 등의 엄격적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후지원의 경우, 지원신청공연에 대한 심의위원 전원의 현장심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따라 일부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연심사 확인 등 신청건별 심의위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창작공연활성화지원 선정 및 지원내역

○ 2003년도 하반기 창작활성화 사전지원 선정 작품  
 - 2003년도 상반기 신청 작품

분야	단체명	공연작품	지원결정액	비고
연극	연희단거리패 (이운택)	○ 작품명 : 차범석 선생 팔순기념공연 '옥단어!' ○ 공연예정일 : 2003.11.03-11.16 ○ 이운택 연출 / 차범석 작	40,000,000원	집행
	극단 차이무 (이상우)	○ 작품명 : 양덕원 이야기 ○ 공연예정일 : 2003.12.01-12.31 ○ 민복기 작/연출	30,000,000원	집행
	극단 비파 (김영환)	○ 작품명 : 호텔 피닉스에서 잠들고 싶다 ○ 공연예정일 : 2004년 상반기 ○ 김영환 연출/ 오태영 작	30,000,000원	2004년도 예정
	극단 성과 (권오일)	○ 작품명 : 달의 뒤쪽 ○ 공연예정일 : 2004년 상반기 ○ 권오일 연출 / 조정일 작	30,000,000원	2004년도 예정
	극단 미추 (손진책)	○ 작품명 : 뮤지컬 '최승희' ○ 공연예정일 : 2003.09.24-10.12 ○ 손진책 연출 / 김지일 작	80,000,000원	집행
소 계		5건	210,000,000원	
음악	문화뱅크 (박상열)	○ 작품명 : 한.폴수교기념'창작음악회' 중 김미림 'River' ○ 공연예정일 : 2003.15.24 ○ 김미림 곡 / 임평룡 지휘	10,000,000원	집행
	민음협 전통위원회 (김상철)	○ 작품명 : 붉은점 아리따와 신의 탈 ○ 공연예정일 : 2003.10.01-11.10 ○ 김상철,유은선곡 / 류이인렬 연출	30,000,000원	집행
	최우정	○ 작품명 : Hebrew melodies for string quartet, voice, percussion and electric sound ○ 공연예정일 : 2003.12.19-12.21 ○ 최우정 곡	10,000,000원	집행
	박동욱	○ 작품명 : 타악기 합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정중동 ○ 공연예정일 : 2004.05.25 ○ 박동욱 곡	8,000,000원	2004년도 예정
	경북오페라단 (손희정)	○ 작품명 : 신중-그 천년의 울음 ○ 공연예정일 : 2003.09.26-09.28 ○ 진영민 곡	80,000,000원	집행
	화음챔버오케스트라(박상연)	○ 작품명 : 부러진 기둥 ○ 공연예정일 : 2003.08.24-08.25 ○ 백병동 곡	10,000,000원	집행
소 계		6건	148,000,000원	
계		총11건 (연극5건/음악6건)	358,000,000원	집행계 8건 290,000,000원

○ 2003년도 하반기 창작활성화 사후지원 선정 작품  
 - 2003년도 상반기 신청 작품

분 야	단 체 명	공 연 작 품	지원결정액	비 고
연극	극단 예솨 (정법길)	○ 작품명 : 붓다를 훔친 도둑 ○ 공연예정일 : 2003. 10월 ○ 원철 스님 작/송미숙 연출	30,000,000원	집행
	서울공연예술가협회(최치림)	○ 작품명 : 늙은 부부 이야기 ○ 공연예정일 : 2003. 11월 ○ 위성신,오경민 작 / 위성신 연출	30,000,000원	집행
	극단 물리 (한태숙)	○ 작품명 : 서안화차 ○ 공연예정일 : 2004. 5월 ○ 한태숙 작/연출	30,000,000원	2004년도 예정
소 계		3건	90,000,000원	
무용	손인영 NOW 무용단(손인영)	○ 작품명 : 아바타 처용 ○ 공연예정일 : 2004. 2월 ○ 손인영 작/안무	50,000,000원	2004년도 예정
	댄스씨어터 온(홍승엽)	○ 작품명 : 두 개보다 많은 그림자 ○ 공연예정일 : 2004. 하반기 ○ 홍승엽 작/안무	50,000,000원	2004년도 예정
소 계		2건	100,000,000원	
음악	이찬해	○ 작품명 : 잃어버린 생명 나무를 찾아서 ○ 공연예정일 : 2004. 3월 ○ 백영준 작/김관규 연출	50,000,000원	2004년도
	송원장단연구회 (박근영)	○ 작품명 : 판소리, 고법음악회 "樂夫天命" ○ 공연예정일 : 2003. 하반기 ○ 박근영 곡/장정문 연출	10,000,000원	집행
	용인심포니오케스트라(조계식)	○ 작품명 : 제12회 정기연주회 ○ 공연예정일 : 2003. 10월 ○ 이영조, 이범석 곡	10,000,000원	집행
소 계		3건	70,000,000원	
계		총8건 (연극3건/무용2건/음악3건)	260,000,000원	집행 계 4건 80,000,000원행

- 2003년도 상반기 창작활성화 사전지원 선정 작품
- 2002년도 하반기 신청 작품

분 야	단 체 명	공 연 작 품	지원결정액	비 고
연극	극단 청우 (김광보)	○ 작품명 : 웃어라 무덤아 ○ 공연예정일 : 2003.12.02-12.18 ○ 김광보 연출 / 고연욱 작	30,000,000원	집행
	극단 여인극장(강유정)	○ 작품명 : 붉은 별이 거울에 비치네 ○ 공연예정일 : 2003.11.10-11.30 ○ 강유정 연출 / 최명희 작	30,000,000원	집행
	극단 로얄씨어터(윤여성)	○ 작품명 : 갯골의 여자들 ○ 공연예정일 : 2003년 하반기 ○ 김동기 작	30,000,000원	집행 * 희곡(김동기, 1천만원 지원) 먼저 선정 후, 공연단체(로얄씨어터, 2천만원 지원) 선정
소 계		3건	90,000,000원	
음악	호남오페라단 (김영구)	○ 작품명 : 창작오페라 '춘향' ○ 공연예정일 : 2003.05.20-05.23 ○ 이철우 곡 / 장수동 연출	70,000,000원	집행
	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조성규)	○ 작품명 : 창작관현악의밤 - 이문승, 김유희 작곡 ○ 공연예정일 : 2003.05.28	26,000,000원	집행
소 계		2건	96,000,000원	
계		총5건 (연극3건/음악2건)	186,000,000원	집행 계 8건 186,000,000원

○ 2003년도 상반기 창작활성화 사후지원 선정 작품

- 2002년도 하반기 신청 작품

분 야	단 체 명	공 연 작 품	지원결정액	비 고
연극	극단 목화 (오태석)	○ 작품명 : 내사랑 DMZ ○ 공연예정일 : 2003.09.25-11.25 ○ 오태석 작/연출	20,000,000원	집행
	연극집단 반 (임승추)	○ 작품명 : 이브는 아담을 사랑 했을까 ○ 공연예정일 : 2003.03.17-04.06 ○ 김수미 작 / 박장렬 연출	20,000,000원	집행
	극단 풍경 (박정희)	○ 작품명 : 미롱 ○ 공연예정일 : 2003.12월 ○ 홍란주 작/연출	20,000,000원	집행
	극단 갖가지 (심상태)	○ 작품명 : 뮤지컬 카르멘 ○ 공연예정일 : 2003.2월-3월 ○ 고선웅 작 / 양정웅 연출	30,000,000원	집행
소 계		4건	90,000,000원	
무용	오은희 무용단 (오은희)	○ 작품명 : THE GATE ○ 공연예정일 : 2003.10월 ○ 오은희 안무 / 이승구 연출	30,000,000원	집행
	이경옥 무용단 (이경옥)	○ 작품명 : 홀신 ○ 공연예정일 : 2003.11월 ○ 이경옥 안무	20,000,000원	집행
	이현수	○ 작품명 : 이현수.류석훈의 춤 ○ 공연예정일 : 2003.하반기 ○ 이현수,류석훈 안무/서정림 연출	20,000,000원	집행
	정혜진무용단 (정혜진)	○ 작품명 : 들의 거울 ○ 공연예정일 : 2004.06.06-06.07 ○ 정혜진 안무 / 이승수 작	20,000,000원	2004년도 예정
소 계		4건	90,000,000원	
음악	경서도창악회 (백영춘)	○ 작품명 : 삼생인연 ○ 공연예정일 : 2003.상반기 ○ 백영춘 작/김관규 연출	30,000,000원	집행
	삶과꿈싱어즈 (신갑순)	○ 작품명 : 보리스를 위한 파티 ○ 공연예정일 : 2004.상반기 ○ 강석희 곡 / 표재순 연출	20,000,000원	2004년도 예정
	피아노마당 (배준선)	○ 작품명 : 귀뚜라미 귀뚜라미 ○ 공연예정일 : 2003.05.03-05.05 ○ 신동일 곡 / 배준선 연출	20,000,000원	사업포기
소 계		3건	70,000,000원	
계		총11건 (연극4건/무용4건/음악3건)	250,000,000원	집행 계 8건 190,000,000원 행

○ 2002년도 선정사업 중 2003년도 집행사업

분 야	단 체 명	공 연 작 품	지원결정액	비 고
연극	극단 실험극장 (이한승)	○ 작품명 : 세상에 해지머는 달이 떠 온단다. ○ 공연예정일 : 2003.05.15-25 ○ 최창근 작/ 김광보 연출	50,000,000원	집행
	극단 연우무대 (정한룡)	○ 작품명 : 저사람 무당 같다. ○ 공연예정일 : 2003.03.15-31 ○ 김학선 작/ 연출	30,000,000원	집행
소 계		2건	80,000,000원	
무용	손인영NOW 무용단 (손인영)	○ 작품명 : 페미타지 ○ 공연예정일 : 2003.10.08-09 ○ 손인영 안무/ 연출	30,000,000원	집행
	최테레사 무용단 (최테레사)	○ 작품명 : 움직임과 테크놀로지 연작시리즈 ○ 공연예정일 : 2003.06.03-04 ○ 최테레사 안무	30,000,000원	집행
	김나영Dance Project (김나영)	○ 작품명 : 칼멘 센디에고의 행방 ○ 공연예정일 : 2003.10.04-05 ○ 김나영 안무	30,000,000원	집행
소 계		3건	90,000,000원	
음악	호남오페라단 (김영구)	○ 작품명 : 동녘 (전봉준) ○ 공연예정일 : 2003.03.29-30 ○ 이철우 곡/ 장정식 연출	60,000,000원	집행
소 계		1건	60,000,000원	
계		총6건 (연극2건/무용3건/음악1건)	230,000,000원	집행 계 8건 190,000,000원행

다) 다원적 예술활동 지원사업

<b>세부사업명</b>	<b>다원적 예술활동 지원</b>
--------------	--------------------

(1) 사업개요

- 예술 형식 · 내용 · 제작방식 등에서 정형화된 기성예술 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 (independent), 실험, 대안(Alternative)적 경향의 비주류 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새로운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 다양한 소수문화(Minority Culture)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제고를 위함
-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과 그 발표 및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2) 주요 추진성과 : 세부내역 부록 참조

단, (주) 인포아트코리아의 “국제디지털아트네트워크”는 자체사정으로 사업포기

(3) 다원적 예술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 지원 유형의 성격상 단체의 인지도나 신뢰도보다 사업 내용에 대한 기획성, 예술성 부분이 우선시 됨.
- 복합적인 예술 장르 및 다양한 예술 형태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뷰 심의의 필요성 대두
- 개인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적은 지원액으로 지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평가 후 제도적으로 개인에 대한 다년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문학 : 만 35세 이하의 역량있는 젊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작품집 발간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차세대의 중견 예술인력으로 육성함.
- 미술 : 미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한 신진예술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작품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미술창작 기반과 그 창조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
- 공연예술 : 역량 있는 예술 인력(예술가, 무대예술인, 큐레이터)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35세 이하의 예술가 해당

(2) 주요 추진성과 : 부록 참조

(3)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자체평가

- 올해부터 젊은 작가들의 개인 작품집 발간사업을 수용하면서 지원건수가 전년도에 2건에서 17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신진 작가들의 발굴 및 육성에 큰 도움이 됨.

(나)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자체평가

- 역량 있는 예술 인력 발굴을 위한 단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됨.
- 신진 예술인(개인)을 대상으로 국내 전시 및 국내외 연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형태로서 신진예술인의 발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해외연수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총 소요 예산에 비해 지원금 지급율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사업수행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연수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최근 국내외 연수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신진예술가의 기획이나 전시 등과는 구분되어 별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짐.

※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작가들의 신선한 작업의지나 창의성, 실험적인 노력, 기획성은 평가할 만 하였지만 이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전시를 선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얼마동안의 작업기간을 보장받는 소수 정예 선발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나 외국의 스튜디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나 지원을 통한 다음단계로서의 진출과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통분야의 참신한 작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 유감이며, 지원유도와 차별화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최병식)
- 마찬가지로 신진 예술가 개념의 보다 구체적인 관점이 필요. 신진이든 창의적이든 범주의 설정목표의 구체적, 계량적 수준까지를 세부 기준과 원칙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짐(강성원)
- ‘개인’에 대한 지원이므로, 선정 시 작품성과 장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지원대상 예술가중 작품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작가를 찾기 힘들었음. 문예진흥원 지원의 공공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작가 선정의 객관성이 필요하며, 상업성이 최대한 배제된 작품 성향을 가진 작가들로 포커스를 좁혔으면 함.(김희선)

(다)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평가

-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국내공연과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해외연수가 많이 있었음.
- 국내공연에는 신진예술가다운 실험적인 무대로 호평을 받았음.
- 해외연수의 경우, 의무기간(6개월)에 비해 지원액이 적다고 판단됨. 따라서 연수기간을 현재대로 시행할 경우 지원액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신진예술가들이 이 계통에서 좀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여 문예진흥원의 신진예술가로 선정이 되면 무엇인가 다르다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신진예술가 공연기획 분야의 해외연수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공연기획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신진 예술가들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예술지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 이들의 공연형태는 흡족하지 않다. 장소, 경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올해 예술적 완성도를 지녔으며, 혁신적인 신진 예술가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은 크게 아쉽다. 그것은 공연의 형태, 공연장소의 특이성, 공연 텍스트의 적절함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이다. 이 점은 심사할 때 주목해야할 부분일 것이다.(안치운).
- 장우재가 쓰고 연출한 ‘차력사와 아코디언’은 아코디언을 켜는 가짜 약장수, 차력사, 여배우 등 3류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 진지한 내용과 배우들의 연기가 잘 어울린 다시 보고 싶은 작품. 신진예술가 다운 연극의 진지성이 돋보인다.(김승현)
- 관람평가 대상이 된 두 편이 모두 하반기에 올려졌다. 두 편 모두 수작으로, 초연 이후 재 공연이나 기획공연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창작자인 원영오와 장우재 모두 이번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색깔을 좀더 확연히 드러내고 확립하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 (이영미)
- 30대 중반을 전후한 신진 세대의 안무력 향상은 현재 춤계의 두드러진 변화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신진예술가 지원 공연작은 일부 편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무용 분야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비중이 낮아 차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새로운 대책이 요망된다.(김채현)
- 단위 사업 중에 가장 성실한 태도로 열의를 보였던 분야였다. 안무가의 창작열이나 예술성이 돋보였다. 다만, 네 공연 중 두 공연만 계획서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아직 평가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립적으로 나름대로의 창작열을 발휘하고픈 더 많은 신진예술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이희나)

(라)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전통예술부문 자체평가

- 2003년까지 전통분야의 공연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장르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일반 기성단체의 열악한 지원금 규모에 비해 신진예술가 분야에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지원규모를 높임으로써 관계분야의 활동을 보장하는 집중지원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전통예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지원대상이 모두 국악계통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봄.(황루시)
- 가야금 연주, 민요 공연, 철현금 연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바,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지닌 신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신진예술가 지원 종목 분야가 좀 더 다양화 될 필요가 있고, 실험정신에 충만한 젊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충되면 좋겠다.(김기형)

- 전통예술분야의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중 현장 평가사업은 모두 조수현(가야금), 함영선(민요), 유경화(철현금)등 3건이다. 신진예술가의 지원은 젊은 국악인을 발굴하여 국악계의 스타로서의 출발을 돕는 음악회로서의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유경화이다. 비주류 악기인 철현금 독주회를 한 최초의 인물이며, 젊은이다운 참신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주회이다. 반면 함영선은 민요의 재해석이라는 중요한 주제의 음악회였지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현경채)
- 하반기에 이루어진 신진예술가지원 사업 중 평가한 사업은 함영선의 소리닷컴으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비교적 다양한 시도가 펼쳐졌던 공연이다.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고자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엿볼 수는 있었으나 지원된 기금과 실행된 공연 사이에서 일정 부분 격차를 느끼게 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에서 공연 프로그램 구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전반적으로 공연 외적인 부분과 불균형을 이룬 사업이다. (유희경)

#### 마) 관객개발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관객개발지원
-------	--------

(1) 사업개요

- 공연예술 관객을 개발하고 공연단체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연작품을 저렴하게 선택, 관람할 수 있는 공연종합관람권(사랑티켓)을 관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할인 차액을 공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2)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

(가) 서울 지역 사랑티켓 사업

- 주최 : 한국연극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음악협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등
- 주관(지원대상) : 한국연극협회 좋은공연만들기 협의회(최종원)
- 참가단체 : 총 232개 단체, 512개 작품
- 사랑티켓 종류 : 3종
  - 대학생, 일반용 : 2종(12,000원권, 20,000원권)
  - 초·중·고생용 : 1종(8,000원권)
- 총 지원액 : 2,517,799,000원 (서울시 지원금 30,000,000원 별도)
  - 관객 지원 : 2,211,655,000원
  - 소극장 지원 : 270,144,000원 (소극장 공연관람 사랑티켓 한 매 당 1,000원을 극장 지원금으로 지원, 2001.4.20부터 시행)
  - 인쇄비 지원 : 36,000,000원(월별 3,000,000원)

(나) 지역사랑티켓 사업

- 추진지역 : 부산, 울산, 대전, 충북, 경남, 전북, 인천, 광주, 부천, 대구, 거창, 과천 등 12개 지역
  - 2001 : 4개 지역 (부산, 울산, 대전, 충북)/ 시범 실시
  - 2002 : 7개 지역 (부산, 울산, 대전, 충북, 경남, 전북, 거창)
- 기간 : 2003년도 연중, 또는 행사 시기별
- 사업별 지원현황 (단위: 원)

지 역	시도 확보예산	문예진흥기금 지원액	비 고
①부산광역시	30,000,000	58,200,000	※ 지역 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의 2배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Matching Fund System) - 울산시와 부천시는 시도 확보 예산과 문예진흥기금 예산 1:1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②울산광역시	50,000,000	50,000,000	
③대전광역시	10,000,000	20,000,000	
④충청북도	30,000,000	60,000,000	
⑤경상남도	30,000,000	60,000,000	
⑥전라북도	10,000,000	20,000,000	
⑦인천광역시	10,000,000	20,000,000	
⑧광주광역시	10,000,000	20,000,000	
⑨부천시	5,000,000	5,000,000	
⑩대구시	0	10,230,000	※ 문화의달을 맞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액 지원, 시범 추진 - 대구 : 2003년 문화의달 개최
⑪거창군(국제연극제)	50,000,000	50,000,000	※ 지역 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만큼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Matching Fund System)
⑫과천시(한마당축제)	30,000,000	20,553,500	
⑬전국연극제		50,000,000	※ 문예진흥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원
⑭전국무용제		22,076,000	
계		466,059,500	

(다) 기타 관객개발 활성화 사업

① 연말 이웃초청 공연관람행사 추진

- 개요 : 연말을 맞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초청,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
- 대상 작품 : 크리스마스 캐롤(서울예술단), 크리스마스의꿈(정동극장),댄스뮤지컬 겨울 이야기(최청자 뒷마루 무용단), 옥단어(연희단거리패), 인당수사랑가(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빈방있습니까(극단 증언) 등 6개 작품
- 초청 대상 : 사회복지시설(종합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원생,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사회복지 시설의 근무자 등 총 1,200명(각 공연 당 200명씩)
- 기간 : 2003년 12월
- 예산 : 21,071,000원

② 가족 Concert "가을 밤, 벌레 우는 밤" 개최

- 개요 :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음악회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어린이합창단, 아버지 중창단, 저명인사 합창단 등이 부르는 동요 등
- 일시 : 2003년 10월 11일, 19:00 - 21:00
- 관람인원 : 2,000여명
- 예산 : 35,000,000원

③ 대성동 초등학교 어린이 초청 관극 이벤트 추진

- 개요 : 대성초등학교 어린이를 초대하여 공연, 전시 관람 기회 제공
- ※ 대성초등학교는 '자유마을' 대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휴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사 공동 경비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 마을로부터 400m 북방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는 곳임.
- 총 초청인원 : 대성초등학교 전교생, 교사 등 총 29명
- 일자 : 2003.10.14(화)
- 세부 내용
  - 공연 관람 : <옛날 이야기, 개와 고양이> (극단 사다리)/ 브로드홀(목동 방송회관 내)
  - 전시 관람 : 아프리카 미술관 (부관장으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작품감상) / 대학로
  - 도서 기증 :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추천을 받아 우수 어린이 도서 1,000권을 기증
    - 대상 도서 : 산골아이(황순원) 등 1,000권
    - 기증 : 기증식(2003.10.14) 후 대성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기증(2003.10.24(금))
- 예산 : 7,132,080원

④ 사랑티켓 홍보브로셔 제작

- 개요 : 대학로 공연장 지도, 사랑티켓 이용방법 등을 담은 브로셔 제작, 배포
- 활용 : 대학로 티켓박스, 정보센터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 비치, 활용
- 제작 매수 : 5만 매
- 일자 : 2003. 12월
- 예산 : 5,500,000원

⑤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운영

- 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정보센터 운영, 회원활성화 사업 등
- 예산 : 122,870,910원

※ 사랑티켓문화사랑카드 운영 기금 적립

- 개요 : 국민카드사와의 계약에 의거 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0.2%를 받아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실계약은 0.1% 적립, 0.1%는 회원활성화 비용으로 활용)
- ※ 계약일 : 2002.2.27(수)
- 적립액 : 165,538,926원

○ 적립일 : 2003. 3.5(수)

(3) 자체 평가

- 지역사랑티켓 사업의 경우, 2001년도 지역사랑티켓 시범 실시(4개 지역)를 시작으로 2002년도에는 7개 시·도, 2003년도에는 12개 시도로 사업 추진 지역이 확대되었음. 전국연극제, 무용제 사랑티켓 사업 등과 함께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 국민카드사와의 제휴로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제를 운영, 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 문예진흥기금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인터넷 사랑티켓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사랑티켓 이용관객의 편의를 증대시켰음.
- 사랑티켓 이용 안내와 대학로 공연장 지도를 담은 ‘사랑티켓 홍보브로셔’를 제작하여 티켓박스 와 사랑티켓 정보센터,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에 비치, 활용케 하여 관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였음.
- 그동안 사랑티켓사업으로 한정되었던 관객개발사업 형태를 ‘연말 이웃초청 관극 행사’, ‘가을밤 음악 콘서트’, ‘대성동초등학교 초청 관극행사’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관객개발에 기여하였음.

바)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	--------------

(1) 사업개요

○ 문화예술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국민들에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정화된 예술 발표 공간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거행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전국 각지의 박물관·미술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참조

단,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의 “산업체근로자를 위한 순회음악회”의 경우 순회지역 섭외 등 단체 사정에 의해, 아트앤컴퍼니의 “예술을 위한 디자인”, 공주민속극박물관의 “예천 청단놀음 탈전시회” 및 (사)한국서예협회의 “달리는 서화전” 등 역시 사업을 포기하였음.

(3)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자체 평가

○ 유명 문인들을 초청하여 도서 및 벽지에 찾아가 지역 문인들과 함께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강좌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지원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문학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학의 활성화와 문단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함.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평가위원 평가

○ 한국소설가협회의 중소도시 순회 문학행사가 이 분야의 주요 활동이다. 오랜 활동이 축적된 상태라 비교적으로 균형과 체제가 잡힌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명인사가 아니라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단체별 활동에서 이 분야의 업적은 드물어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 더 개발했으면 좋을 듯 싶다. 특히 시, 소설, 수필 등 대중성 있는 장르의 단체들은 심포지움보다는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싶다.(임헌영)

○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학 관련 행사에서 소외된 지방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소설가협회에서 주관한 중소도시 순회 문학행사는 경남문학관 기획행사와 함께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사전 계획과 실제 행사 시행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그때그때 문예진흥원, 행사 주관 사업체, 일반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 그 사실이 알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시행 사업의 절대수가 적은 것이 아쉬웠기에 앞으로는 이 분야의 사업 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김성수)

(나)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자체 평가

○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에 있어서 중소도시보다는 도서벽지나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문화예술에의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을 찾아가는 사업의 기본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런 사업의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단지 찾아가는 예술지원으로의 지원금 신청을 위한 기획전임을 느끼게 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보여 짐. 지원신청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지역민들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자체행사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짐.  
○ 미술순회전시의 경우 작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음.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이 부분에서는 지원규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중적 파장이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특히 거리행사나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경우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며, 규모의 왜소함에 의하여 실제 의도된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예가 많았다. (최병식)

- 찾아가는 예술 활동의 개념도 지원목표가 뚜렷하고 지원대상도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봄(강성원)
- 예술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대중들과 예술적 활동을 함께 하는 행사를 외부 기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예진흥원과 기획자 공동으로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함. 타 부문에 비해 관심이 낮은 분야이므로, 문예진흥원이 주도권을 갖고 기획력을 발휘함으로써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적 나눔의 폭을 넓혀나갔으면 함.(김희선)

으

(다)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사업 취지는 문화예술향수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음.
- 신청당시에 예정되었던 장소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오히려 넓은 장소로 변경하여 더욱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었음.
- 단순한 순회공연이 아니라 문화향수의 기회가 적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지원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이 부분의 문제점은 매우 간단하다. 반복하는 것이지만, 공연되는 작품들이 기존 작품들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극단 아리랑, 민족예술단 우금치, 극단 한강처럼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극단은 이미 공연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장소만 달리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이 주 공연장소가 되는데, 이를 확대해서 문화 향수권을 늘리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것이다. (안치운).
- 배우협회가 주체가 돼 만든 악극에 상당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는 유명배우들을 캐스팅에서 배제한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싶다. 또 악극이라는 장르 선택도 문제가 있었다.(김승현)
- 특히 춘천인형극제 기간의 춘천국제연극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찾아가는’으로서의 의미가 높아질 수 없었고, 작품 성과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이영미)
- 문화 향수권의 증대 면에서 중시되어야 하나, 공연 단체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대중성보다 예술성을 통해 일반인들의 춤 예술 안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원 기준을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김채현)
- 시행사업에 따라 성과의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지원 신청서의 사업 내용과 확연하게 달라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파급효과를 높이는 사례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은 데다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사업도 있어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 시행되고 있었다.(장광열)
- 지방의 예술 향유 환경이 서울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지원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공연에서는 홍보는커녕 현수막이나 프로그램, 포스터 내지는 전단지 한 장도 만들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지방 공연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공연하는지조차 알수 없는 식의 진행은 지원여부를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 있는 공연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이희나)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기획에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며 사업의 구성과 진행에 보다 전문

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포장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부실한 사업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정완규)

-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좀 더 세심한 기획력과 관객과 좀 더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동일)
- 현장을 찾아가는 음악회가 서너번 열렸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친근성 창출, 현장에 맞는 레퍼토리 선정, 청중수를 늘이기 위한 홍보자세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이 분야에서의 발상은 <열린음악회>류의 공연을 외진 지역이나 이색적인 장소에서 연다는 것으로 고정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공연형태에서도 준비가 적어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 보다 창의적인 발상과 접목시켜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석렬)
- 일반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느꼈던 점이지만,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의 경우는 아쉽게도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의도와 의미를 알고 제대로 실행하려는 단체가 드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군포에서 공연된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한 건밖에 평가하지 못했지만, 다른 공연에 대한 대강의 장소나 내용을 봐도 휴가철 해수욕장 등에서 하는 일종의 오락성 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음악 향수의 욕구나 필요성이 큰 지역이나 오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조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단체는 지원을 배제하고, 나름대로의 음악적 소신을 갖고 활동하는 음악가들과 또 절실한 공급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든다.(하지숙)

(라)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자체 평가

- 지원사업 중 찾아가는 예술지원사업의 목표 적합성과는 거리가 먼 사설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기획전시사업들이 많아 동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음. 이에 박물관 기획전시사업에 대해서는 예술체험참여지원유형으로 지원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로 지역순회를 하는 사업은 5개 사업
- 하반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지원프로그램 추진하여 총 5건 180,000,000원을 선정하였음. 1차 서면심사, 2차 인터뷰심의를 통하여 지원단체 선정시 찾아가는 예술지원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집중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찾아가는 사업들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단점(예를 들면 순회 횟수를 줄인다든가, 일정 및 장소 잦은 변경 등)을 보완하여 지원 유형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었음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평가위원 평가

- 찾아가는 예술 활동 사업을 한 단체는 대부분 기획이나 구성, 그리고 실제적 행사 내용면에서 볼 때 지원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행했다. 먼 지역을 찾거나 오지 장소를 찾는 데도 마다하지 않았다. 각 지역 사회의 문화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했고, 행사내용도 대부분 많은 열의가 보였다. 도시에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행사는 도시문화의 풍요 속에서도 문화적 소외를 받는 학생,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돋보였고,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정서에 맞게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내용으로 행사 내용을 구성한 것이 돋보였다. 또 일부 우수한 행사는 일방적인 보여주는 행사에서 직접 지역민이 짧게나마 낮에 문화교육을 통해 배우고 저녁공연 시간에 발표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문화 교육적 행사도 좋은 찾아가는 예술 활동이었다.(김윤태)
- 2003년에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각 단위사업 중 가장 충실하게 집행된 분야가 바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이다. 각 단체가 모두 기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일반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기에 좋았다. (인터넷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준 단체도 있었다.) 지역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 찾아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다만 어떤 사업의 경우,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기도 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승

하)

-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예술 활동은 일반관객을 포함, 문화체험이 부족한 특정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예술활동 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소 반복적인 공연과 공연의 질이 저하되는 미숙한 수준의 공연은 초반의 관심과는 달리 외면 당하는 역효과와 지역행사에 끼워 넣는 성의 없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공연의 참신성과는 달리 사업진행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관객이 행사정보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좀더 세심한 기획자의 노력이 요구된다.(이진향)

사) 예술 체험 참여활동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예술 체험 참여활동 지원
-------	---------------

(1) 사업개요

- 아동·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 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 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 애호가를 육성함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고 생활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문화 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참조

(3)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지원 사업 문학부문 자체 평가

- 정형화된 형식과 내용에서 탈피하여 장르별, 지역별, 주제별로 다양하게 기획된 문학행사와 사업이 지원됨으로써 일반인들의 문학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함.
- 특히, 정기적으로 연중 지속되는 사업 지원이 늘어남으로써 고정 향수층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장르별로 청소년교육프로그램과 작품낭송행사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평가위원 평가**

- 문예부흥을 위한 소설 낭독회(소설가협회), 전국한시백일장(한국한시협회), 수필낭독(한국수필가협회), 전국문학인 교류한마당(작가회의), 등 여러 활동이 엮보인다. 주관단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궤도에 오른 고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시 백일장과 수필 낭독 등은 비문학인이나 일반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좋은 기획이다.(임헌영)
- 문학 분야의 예술체험 참여활동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나 질량 면에서 매우 우수했다고 평가된다. 한국소설가협회에서 주최하는 ‘문예 부흥을 위한 소설낭송회’ 월례 행사와 한국한시협회에서 주관한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및 한시학당 강좌 운영’사업, 한국회곡작가협회의 청소년 창작 희곡 교실” 사업 등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이들 사업은 평소 문학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힘든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인 문학 체험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내용이다. 다만 사업별로는 행사의 규모와 들인 비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거나 일반인의 참여도가 보통 수준을 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업 주체의 역량 차이라 하겠지만 공통적인 문제로는 주로 행사 자체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 노력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김성수)

(나)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미술 부문 자체 평가

- 미술 강좌나 청소년대상 실기 지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은 수용자들의 물질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 책정에 많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용자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최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예술 체험 참여도 지원대상의 구분의 명확해야 한다고 봄(강성원)
-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과 큰 차별성이 없는 부문으로, 지원 대상을 ‘예술의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전시로 축소했으면 함. 아동·청소년의 예술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공공미술관·사설화랑과 연계해 대중들의 참여가 손쉬운 장소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기획자와의 사전 조정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김희선)

(다)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미래의 문화예술향수 세대인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잠재적인 관객층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창의적 예술활동지원 등의 사업에 비해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함.
- 참가료(강습료)를 받고 시행되는 연수회나 강습회의 경우 지원여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민문화 향수층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단지 대상층이 다를 뿐 찾아가는, 함께하는 등 사업들 간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 행사가 되기 위해 의식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이 주로 농어촌을 위한 것이라면, 이 사업은 같은 지역에서 그 대상을 청소년, 어린아이들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위 사업과 예술체험참여 활동지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연작품은 주로 인형극인데, 이것도 이 사업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줄이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안치운).
- 제시된 기획 내용에 비추어 전문인 중심의 행사에 그쳐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지원 기준의 재설정부터 요구된다.(김채현)
- 올해 예술참여 분야에는 전국무용연수회와 청소년 발레페스티벌이 있었다. 전국무용연수회는 수준 있는 강사진들의 열의와 대조적으로 참여자들의 태도가 다소 성실치 못해 안타까웠다. 또한 지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참가비 책정 등이 시정되어야 할 듯하다. 청소년 발레페스티벌은 일반 발레 학도들을 장려한다는 의미는 있겠으나 수익성에 대한 좀 더 투명한 평가가 요구된다.(이희나)
- 예술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적은 대상을 위한 사업에 의의가 크다고 본다. 다만 대상에 적절한 내용의 공연이 필수적이며 질적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소극적인 행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비롯해 공연 기획과 관객 유치 등에 좀더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정완규)
-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예술체험, 참여 지원 사업이라고 공연의 완성도가 낮아야 할 이유는 없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라도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해야 문화 예술 향수 기회 확대라는 의미를 충분히 설릴 수 있을 것이다.(신동일)
- 두 번의 공연은 모두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공연이었다. 하나는 전년도의 답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연 내용이 알차지 못했다. TV와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현재의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수집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들도 포함하여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석렬)
- 아마도 가장 효과적으로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이자, 또 그 파급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부문은 바로 일반인들이 예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항목의 공연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도 역시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처럼 다소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다행히 부암아트홀의 '유아음악회'의 경우는 비교적 목표에 맞는 내용과 기획력, 그리고 주최측의 의지 등이 잘 어우러져 좋은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예술체험참여활동의 기회가 열악한 곳(서울의 강북지역, 지방의 중소 도시 등...)에서 그 지역 음악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상설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별해서 지원한다면 더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하지숙)

(라)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자체 평가

- 초중고등학교의 축제사업의 경우 매칭펀드에 대한 개념이 안내되었음

**※ 예술 체험 참여활동 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평가위원 평가**

- 이 분야는 내용적인 면에서 지원목적에 못 미치는 사업이 많았다. 기획적인 면도 문제지만 기획 단체들이 예술 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행사 내용이 문화 수혜자들이 예술행위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문화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 공연에 관람자나 관객으로 참여하는 행사와 다름이 없었다. 방법론의 부재이다. 대상(노인, 청소년)이나 내용(통합적 예술방법) 등, 예술 체험활동이 관해 단체들의 연구와 스스로 배우는 교육이 선행되어야겠다. 그리고 일부 단체 행사 중, 일반적인 청소년을 위한 예술체험참여 프로그램인 것처럼 외적인 의도를 내놓고 의도와 반대로 제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청소년 행사도 있어 결과 속의 차이가 다른 사업도 있었다. 행사를 위한 행사와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르다.(김운태)
- 전통예술과 문화를 일반인이 특히, 지역주민이 향유해야 함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고답적이면 곤란하다. 예컨대 인터넷 세대인 청소년들 앞에서 판소리 類의 공연을 하면 ‘쇠귀에 경 읽기’가 된다. 그들에게는 ‘난타’ 공연이 먹혀든다. 우리 나라는 현재 노인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혼율 증가로 고아 아닌 고아가 양산되고 있다. 실업율 증가로 청년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퇴직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하여 참신한 기획이 많이 나와야 할 분야이다. (이승하)
- 예술체험 참여활동지원 사업은 내용 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과 축제형태의 행사사업을 제외하고, 지원사업에 따라서 약 1-2시간의 공연관람과 부대행사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관람>을 그 목적으로 둔 사업을 제외하고, 목적이 <참여...>임에도 <관람>차원에서 끝나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비록 보다 많은 다수의 수혜자 발생을 그 목적으로 둔다하여도 그 목적을 <체험>에 둔 경우는 진정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진향)

<b>세부사업명</b>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	--------------

(1) 사업개요

- 사업 명 : 제21회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 사업목적 : 전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함으로써 여성 문학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학적 체험이 일상의 가정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
- 참가부문 : 시, 산문, 아동문학 등 3개 부문
- 참가자격 : 23세 이상(1981.01.01 이전 출생자)의 여성 - 학생 제외

(2) 주요실적

- 행사일시 : 2003.10.16(목) 09:00~16:30
- 행사장소 : 마로니에 공원 일대, 예술극장 대극장, 마로니에미술관 3층 강좌실
- 행사협찬
  - 동아제약(주)/수석문화재단
    - 시상금 : 7,200,000원(수석문화재단 조건부기부금)
    - 문학강연 사례비 : 400,000원(수석문화재단 조건부기부금)
    - 수상자 상품 : 화장품세트 30명분
    - 행사 기념품 : 참가자 전원 증정
    - 기타 : 신문광고 및 행사홍보, 현수막, 팸플렛, 원고지 등
  - 시문학사, 월간문학사, 아동문예사 : 협찬사 명칭 사용 및 각 부문 장원작품 문예지 게재
- 참가자 : 400명(참가비 2,000원)
- 백일장 글제

- 시, 산문 : 느낌, 편지, 건망증
- 아동문학 : 떡볶이, 자전거, 강아지
- 심사위원(7명)
  - 시 : 노항립(1942, 시인), 이승철(1958, 화남출판사 편집주간)
  - 산문 : 현길연(1940, 소설가·한양대 교수), 송영(1940, 소설가), 김영현(1955, 소설가·<실천문학> 대표이사)
  - 아동문학 : 박종현(1939, 아동문학가·월간<아동문예>대표), 강정규(1941, 소설가·아동문학가)
- 수상자 및 시상내용 : 30명
  - 장 원(3명) : 부문별 각 1명 (상금 70만원, 상패, 상품)
  - 우수상(3명) : 부문별 각 1명 (상금 30만원, 상패, 상품)
  - 장려상(9명) : 부문별 각 3명 (상금 20만원, 상장, 상품)
  - 입 선(15명) : 부문별 각 5명 (상금 없음, 상장, 상품)
- 부대행사 진행 : 문학강연(소설가 이경자, “우리에게 문학은 무엇인가”)
- 예산집행 내역
  - 예산액 : 5,600,000원
  - 집행액 : 4,518,480원(83.94% 집행)
  - 집행잔액 : 1,081,520원
  - 수석문화재단 조건부기부금 : 7,600,000원(시상금, 강사사례비)
  - 참가비 수입 : 800,000원

(3) 자체 평가

- 행사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참가자 수가 2001년의 282명, 2002년의 309명에 이어 금년도에 400명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협찬사의 도움으로 시상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행사 이미지 개선 효과를 유도함.
- 역대의 행사장소로 이용해 온 예술극장 대극장의 사용이 여의치 않아서 개회식만 대극장에서 개최하고 강연은 미술관 강좌실에서, 시상식은 미술관 현관 앞 야외에서 진행한 결과, 강좌실의 좌석부족으로 강연시간이 다소 혼잡스러웠지만 시상식은 백일장의 본래 모습을 잘 살리고 자연스러운 행사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음.
- 다만, 행사일이 추석연휴에 연이어져 있음으로 인해 행사홍보가 시의성 있게 집중되지 못하였고, 참가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개최 이력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참가자 수와 행사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사업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b>세부사업명</b>	무용전문 소극장 지원
--------------	-------------

(1) 사업개요

- 활발한 작품 활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무용공연 공간난을 해소하고, 발표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무용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학로에 편중된 작품발표공간의 분산을 유도하여 대관단체와 공연장 운영주체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

(2) 주요 추진실적

- 무용 : 지원대상 (1건 60,000,000원) 지원완료
  - 지원대상 : 씨어터제로(대표:심철중)
  - 지원액 : 60,000,000원
  - 운영실적 : 전체대관(232일) 중 무용공연 149일(64%) 대관

(3) 예술전문소극장지원 사업 자체 평가

- 무용전문소극장 본래의 취지를 살려 사업성과가 우수하였음.
- 특히, 신진예술가들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시도가 이루어졌고, 지원

금을 통한 인프라의 점진적 개선으로 공연 여건이 나아졌음.

- 다만, 공연장 운영에 있어 지원조건이었던 대관 일수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향후 선정되는 무용전문소극장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연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세부사업명	문화의달 행사지원
-------	-----------

(1) 사업개요

- 10월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기념식 및 문화축제 행사를 펼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오늘날 우리 문화의 모습을 점검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원함

(2) 2003년도 문화의 달 행사 개요

- 일 시 : 2003년 10월 18일(금) - 10월 19일 (일)
- 장 소 :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야외공연장 및 전국
- 주 제 : 문화의 빛깔 문화의 힘 (부제 : 지역문화, 문화한국의 시작입니다)
- 추진위원 : 김채현(위원장), 강형철, 권정호, 김종현, 이균옥, 정남준(위임 조영신), 최준호, 홍종흠, 이균옥

(3) 추진경과

- 2003.06.03 : 문화의달 행사추진위 구성 및 1차 회의
- 2003.06.18 :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3.06.23 : 대구지역 1차 출장
- 2003.07.01 : 제3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3.07.29 : 대구지역 간담회
- 2003.08.06 : 제4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3.09.17 : 제5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3.09.24 : 제6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3.09.26 : 행사 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 2003.10.18 : 제6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3.10.18 : 문화의달 행사 개최

(4) 문화의 날 기념식 - 문화의 날 큰 잔치

- 일시 : 2003년 10월 20일 오후 2:00
- 장소 : 대구 문예회관 대극장
- 참석 :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문화예술계인사 등 1,500여명
- 연출 : 박만호
- 사회 : 이동훈, 임영희
- 내용
  - 열림의식무 '화평지무' : 국립국악원 무용원
  - 축배의 노래 : 대구시립 중창단
  - 대구문화상 시상
  - 공로상 시상
  - 젊은 예술가상 시상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상
  - 합창 '영광의 날' : 대구소년소녀합창단
  - 문화훈장 시상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문화관광부 장관 축사 (이창동 장관)
  - 헌화춤 : 국립국악원 무용단
  - 총체시극 : 무용단 춤세상, 타이거즈태권단, 대구극단여인 참가
  - 맺음의식 '다리를 건너 21세기로' : 슬기둥

(5) 행사 결과

○ 문화의 날 특별행사

- 일시 : 2003. 10. 18(토) - 10. 20(월)
- 장소 : 대구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등
- 공연내용 : 오페라 바리에이션, 풍물한마당 '고성오광대', 아동극 '똥벼락'  
창작판소리 한마당, 우리나라우투리, Jazz&Samul '和'
- 전시내용 : 야외 설치미술전 '문화의 빛깔전'
- 기타행사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분권' 학술 세미나
- 참여관객수: 20,000명

○ 국민참여 프로그램

- 기간 : 2003. 10. 13(월) ~ 10. 19(일)
- 장소 : 국·공립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 내용 :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의 달 관심 고취를 위한 무료입장, 할인 혜택 제공

(6) 문화의달 행사추진사업 자체 평가

- 지역 개최 : 문화 분권이라는 정책의 방향과 함께 처음으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사전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예산확보, 행사 운영, 지자체와의 협조 등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도 행사개최지는 공고를 통하여 선정, 지자체에서 미리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행사 운영
  - 축제 기획 및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획성과 충실성이 높은 행사가 가능함.
  - 순환 지역개최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행단위의 조직적 구성 및 운영 등은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임
- 행사 내용
  - 기념식에서 수상자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전통 궁중의식을 활용한 '한국형 문화의전'에 대한 시도는 긍정적 평가됨.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 시 무료입장 및 입장료 할인 등의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기여하였으나 문화의 달 전체적인 행사가 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음

카)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함께하는 문화 복지 기금신청사업
-------	-------------------

(1) 사업개요

- 세대간·계층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참조

(3)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자체 평가

- 장애인문학단체의 기관지 발간과 개인의 작품집 발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기 계발 및 예술창작의 의욕을 북돋우고 사회적 동화의 장을 제공함.
- 기타 소외 계층을 위한 문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평가위원 평가**

- 장애인문학을 통한 재활증진(부산 장애인문화회), 등이 이 분야에 속한다. 지원 대상도 적고 수준도 낮지만 사회문화 복지 차원에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임현영)

(나)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자체 평가

-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개발 육성하며 그들 스스로 완성한 작품을 전시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고,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사업추진의 지속적인 추진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업추진 단체(개인)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건수의 확대 및 건당 지원규모의 증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함께 하는 문화복지의 개념은 전체 문예진흥기금의 목표와 거의 같다고 봄. 그러므로 체험 참여와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임.(강성원)
- 장애인(맹인)을 위한 전시에 대한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음. '문화복지'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 개인이나 단체의 직접미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류전이나 순회전 형태의 전시기획, 타예술 장르와의 융합 등도 유도해냈으면 함.(김희선)

(다)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동 사업은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 예술 향수권 확대라는 지원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은 대상이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지역을 직접 방문, 공연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들이 문화적으로 소홀한 점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공연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좀더 예산을 증액하여 많은 소외계층이 문화를 좀더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함.
- 소외계층은 문화예술향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음. 따라서 이 유형의 사업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예술적 수월성보다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원유형의 사업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함.
- 타 지원유형에 비하여 지원예산이나 지원액의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평가위원 평가**

- 이 사업의 중심 장소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유아 병원이다. 현재 이 사업은 다른 장르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형극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의 매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원 사업의 특성을 다시금 정리하고, 실행된 사업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 수용자의 지리적 범위, 분포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호응도는 작품

과 지역에 따라 사뭇 달랐다. (안치운).

- 소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참여 단체들의 의지와 자세는 진지하나, 대상 관객층을 면밀히 고려하는 기획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지원 기준을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제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김채현)
- 이 분야 역시 소외된 계층의 예술 향수를 위한 분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참여 단체의 성실도이다. 소외 계층이 무용 예술을 대면했다는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가시적 성과 이면의 비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태도와 의미를 생각하여 더욱 철저한 평가와 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이희나)
- 문화적 체험과 예술 활동 참여 기회가 상대적 적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공연의 주체가 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출의 향상이 필요하다.(정완규)
- 두 번의 공연은 모두 장애인을 위한 공연이었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공연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규모와 성의 면에서 미흡한 공연이었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을 청중으로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 장애인들을 위한 레퍼토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 음악가들에게 보다 많은 연주 기회를 준다는 개념도 강조 되어야 하겠다.(이석렬)
- 이 목표의 경우는 특성상 평가의 척도를 다른 항목과 다르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연의 완성도나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공연을 마련하는 장소나 대상을 염두에 두었는지, 사회적인 복지차원의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또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내용의 공연이었는지 등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성격상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과 다소 의미가 중복될 수 있는데, 찾아가는 예술활동의 경우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 지방을 찾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함께하는 문화복지의 경우는 애초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화를 향수하지 못하는 여러 사회복지시설(병원이나 고아원, 소년원, 교도소...)과 대중적인 공간(지하철, 거리, 공공기관 건물 로비...) 등으로 타겟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또 제시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하지숙)

(라) 함께하는 문화 복지 기금신청 사업 전통예술부문 자체 평가

- 지원사업 4건은 비교적 모두 당초 계획에 의거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나 배정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 4건의 사업으로 얼마나 유형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임. 대폭적인 지원액 확대가 필요함. 또한 전통분야는 함께하는 문화복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르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과 연계되면 좋은 효과를 내리라 생각됨.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부문 전통분야 평가위원 평가

-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만큼 보다 확대되어 실시해야할 분야로 생각됨.(황루시)
-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문화복지 증대와 도예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도자기 제조기술지도’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김기형)
- 전통예술분야의 함께하는 문화 복지 지원 사업 평가대상은 1건으로 “장애인 문화 복지 증대와 도예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도자기 제조 기술지도” 사업이다. 정신 지체 장애인들에게 도자기 제조 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약 30명의 학생에게 도예 기술 전수하고 있었다. 기획 의도는 좋으나 사업의 완성도면에서는 미흡한 행사임. 순수한 의도가 의심스러웠음.(현경채)

(마)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자체 평가

-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평균 지원액이 적음.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전체 예산 증액이 절실함.
- 장애인 단체가 직접 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찾아가는 예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내용의 중복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평가위원 평가**

- 문화복지 분야는 복지가 주목적이다. 이번 지원 행사에 근로자 장애인과 중증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우수했다. 주최 단체와 기획자들은 문화복지 대상자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삶과 그 예술적 행위, 문화적 표현을 잘 알고 공연기획을 구성했다. 문화 수혜자가 누구나 따라 문화적 콘텐츠 구성과 기획행위가 달라야 한다. 이번 문화 수혜의 사각지인 장애인을 위한 문화지원은 문화행위를 통해(직접 예술작품을 통하든, 간접적 관람자로서 공연에 참여하든) 통념적 장애인으로써의 자아 인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했던 사업들이었다. 헌신적 기획력(한정된 예산 속에서 복지목적을 위한 다양한 다수의 프로그램) 과 실제적 치료에 가까운 공연내용(장애인들의 정서를 끌어 낼 수 있었던 대중예술인들의 참여)은 지원의 의미가 돋보였던 분야이었다(김운태)
-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는 아주 알차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 진행자들과 동행하면서 가슴 벅찬 감회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난다. 문제는 길으로 드러난 대의명분은 뚜렷하지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찰이 치밀해야 할 분야가 바로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이다. 만에 하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내세우는 단체 중 제대로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수혜 당사자가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국민 전부가 될 것이다. (이승하)
- 장애인, 노인, 보호시설 아동 등, 주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복지차원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단계적 발전을 거듭하여 보다 지속적인 문화사업으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위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수혜자의 진정한 의미로써의 문화/예술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이진향)

<b>세부사업명</b>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
--------------	---------------

(1) 사업개요

-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큰 원로문화예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문화예술인으로서 30년 이상 해당 분야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신 분
  -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생계가 곤란하신 분

(2) 추진실적

- 2002. 11 : 추천서 및 신청서 접수
  - 추천분야 : 문학, 미술, 전통, 무용, 연예, 영화
  - 2002 지원 중단 : 9명
- 2002. 12 - 1 : 추천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
  - 추천대상자 (총 26명) : 문학 10 / 미술 2 / 전통 5 / 연예 6 / 영화 3
- 2003. 1. 21 : 지원심의회 회의 개최
  - 신규선정자 (총 9명) : 문학 2 / 미술 1 / 전통 2 / 연예 3 / 영화 1
- 2003. 1. 28 :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지원인원 : 60명

- 문학 15 / 미술 8 / 사진 7 / 음악 2 / 건축 1 / 전통 7 / 연극 5 / 무용 3  
연예 8 / 영화 4
- 연도중반 지원 중단 : 7명

- 김대현, 이용찬(문학) / 백중호, 홍진삼(미술) / 김명욱(사진) / 김대진(음악) / 양영숙(전통)

(4) 지원액 : 일인당 연간 720만원(월 60만원)

(5) 자체 평가

- 원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유일한 사업이므로 지원 수혜자들의 호응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문화활성화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지역문예진흥지원
-------	----------

(1) 사업개요

- 중앙 문예진흥기금을 15개 광역시·도에 직접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연계망을 고유하고 정책적인 보완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을 신장하는 사업

(2) 지원금 배분 및 등급기준

○ 배분기준

기 준 항 목		2000 배분기준	2001 배분기준	2002 배분기준	2003 배분기준
문예진흥기금 모금실적		30%	30%	30%	30%
문화예술분야 투자예산	투자예산 증가율	30%	-	-	-
	1인당 투자예산증가율	-	30%	-	-
	1인당 투자예산액	-	-	20%	20%
문화예술활동 지원실적	지원 건수	20%	20%	-	-
	지원의 효율성	-	-	20%	20%
지역문예진흥사업 운영 평가치 반영을 통한 인센티브		-	-	20%	20%
인구수		20%	20%	10%	10%
계		100%	100%	100%	100%

- 등급기준 : A급 3억원 (2개처/경기,제주), B급 : 2억7천만원(3개처/부산,인천,경남), C급 2억4천만원(그외 10개처)

(3) 사업운영 개선 추진실적

- 전국문예진흥기금운영협의체(가칭)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3. 10.8(수), 15:00~18:00
  - 장소 : 문예진흥원 본관 3층 회의실
  - 참석
    - 우리원 : 사무총장, 지원1부장, 총괄협력팀장, 담당
    - 시.도 : 6개 시.도(재단) 총 8명(경기문화재단(1),강원문화재단(2), 제주문화예술재단(2), 서울시(1), 인천시(1), 광주시(1))
  - 회의 내용
    - 참석한 시.도(재단) 등이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 협의체 구성에 찬성
    - 협의체 구성 단위는 지역문예진흥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시.도 자치단체 또는 재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음.
    - 기타 협의체의 역할 등
- 2003년도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 : 15건, 3,810,000,000원(예산액 3,810,000,000원)
  - A급 : 300,000,000원X 2개처 = 600,000,000원 (경기,제주)
  - B급 : 270,000,000원X 3개처 = 810,000,000원 (부산,인천,경남)
  - C급 : 240,000,000원X10개처 =2,400,000,000원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광주)

파)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통일민족문화교류 기금신청사업
-------	-----------------

(1) 사업개요

- 남·북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과 재외동포대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

(2) 주요 추진성과 : 별첨 부록 참조

단, (사)민예총의 “코리아 통일 축전”사업은 북한과의 일정차질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

(3) 통일민족문화교류기금신청사업 자체평가

- 남북 간 민족문화예술교류사업은 올해 초 한반도 핵 위기로 인한 대북 관계 경색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여 추진하기로 한 사업과 북한이 방한하기로 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향후 지원심의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행사위주의 소극적 지원보다는 대북 직접 교류의 성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관련 사업은 자료집 등 서적 발간, 세미나 개최, 연변이나 러시아, 유럽 등 동포사회를 직접 찾아가서 개최하는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급하고 민족정체성을 심어주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형식적인 왕래로 그친 경우도 있어 심의단계에서부터 탄탄한 기획력과 실질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통일민족문화교류기금신청사업 평가위원 평가

- 문학의 남북 교류는 통일 이전의 독일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북한문학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도 한국 내의 월북작가에 대한 축제나 세미나 등을 널리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동포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임현영)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가 주관한 사업인데도 행사에 따라 실제시행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홍명희문학제’는 월북작가 홍명희의 생애와 <임격정>의 예술성, 남북 교류와 일본인 학자의 참여를 통한 해외학자 교류, 충북 민예총 및 괴산 일원의 시민 등을 포괄하는 우수한 행사였다. 이에 반해 ‘동포작가와의 대화’ 사업은 문예진흥원의 지원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는 동일한 사업주체라 해도 실제 지역의 실무진에 따라 행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사례라 하겠다.(김성수)
- 통일 민족문화 교류 지원은 보다 지원이 확대되어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적 성격에 지원돼야 한다고 봄.(강성원)
- 작은 문화적 교류가 민족 간의 담을 허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용의 문화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완규)
-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한민족창작음악축전”은 이제 문화교류 사업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평가 당시 이 분야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행사는 단지 국내 작곡계의 공모전 중 하나로 전락했다.(신동일)
- 역시 두 번의 현장평가를 다녀왔다. 민족의 창작 역량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축제적 성격이 보다 강화 되어야겠다. 예전의 창작곡들도 기억된다면 민족적 차원이 입체성을 가질 것이다. 교포 가수를 초빙한 공연 기획은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예술적 차원에서는 민족적 어법을 향한 보다 알찬 준비가 필요했다. (이석렬)

- ‘통일민족문화교류’라는 목표가 평가자로서도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지고, 이 항목을 굳이 따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음악계의 경우는 이 부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또한 사회 현실 참여도가 낮다. 하지만 장르로만 보면 ‘이정미 내한공연’처럼, 대중음악이나 클래식이라는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음악과 공연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 면에서 ‘통일민족문화교류’라는 협소한 목표 대신, 이 목표와 함께 중간적인 음악 장르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목표로 수정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또한 음악부문에서 이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신진예술가 지원’에 대한 부문이라고 생각한다.(하지숙)
- “재외동포예술인 초청연수” 사업은 북한의 영향 하에 있는 동북아의 재외동포 예술인을 초청, 3개월간 훈련시키는 사업으로 그 기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현지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심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교육대상자의 수준이 고르지 못하여 귀국 후 우리 문화를 보급할 만한 인원은 절반 정도로 보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황루시)
-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통일 민족문화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 (김기형)
- 전통예술분야의 통일 민족문화 교류지원의 현장 평가사업은 1건으로 “2003 재외동포 예술인 초청연수” 사업이다. 3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행사이지만 현장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현경채)

#### 하)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해외문화예술교류 기금신청사업지원
-------	-------------------

(1) 사업개요

-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문화일반 등 모든 분야의 우리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해외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 및 우리문화예술인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성과 : 별첨 부록 참조

- 단, (사)한국서예협회의 “한중국제교류전” 등 9건은 전염병, 이라크전쟁 등등으로 사업포기.

(3) 해외문화예술교류 기금신청사업 지원 자체평가

- 예술 각 분야의 해외 세미나, 전시, 공연 참가 및 국내 세미나, 전시, 공연 개최, 해외 예술가(단체) 초청 사업 등 89건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교류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급성 호흡기감염증후군(SARS), 이라크 전쟁,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노조 파업 등 예기하지 못한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해 보다 행사 취소 발생건수가 많아서 지원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2003년도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사업은 지원신청액이 96억7천900만원이었으나 지원결정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지원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의 비율이 11.7%에 불과하며, 지원신청건수 대비 지원결정건수 비율도 문예진흥기금 평균인 35.7% 보다 훨씬 낮은 26.4%에 그치고 있다. 국제교류 사업의 특성상 국내에서 수행되는 사업보다 항공료, 체재비 등 추가경비가 필요하므로 지원액이 많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소액 지원이 되고 있어 지원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 분야의 지원예산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사업의 경우 국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데 국외 추진 사업의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향후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망된다.

※ 문화예술 해외교류기금신청사업 평가위원 평가

- 한국문학평론가협회의 국제심포지움, 해외작가초청 문화교류(문인협회), 등 해외문학 교류는 이제 친선단계를 지나 전문적인 공동 연구 수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해외문학 소개와 이해를 돕는 차원의 심포지움에서 한국문제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가 권장할만한 지원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임현영)
- 문화예술 해외교류지원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나 해외동포문학의 현황 등을 학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세계문학의 시각에서 본 한국전쟁과 그 문학적 결산>을 주제로 한 한국문학평론가협회의 국제심포지움은 발표된 논문이나 토론의 학문적 수준이나 대회 진행의 완성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시간에 쫓긴 나머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저평가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는 행사 진행방식이 요망된다고 생각된다. 내용의 충실함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외교류는 자칫비용만 축나는 외화내빈행사로 전락할 수 있기에 늘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성수)
-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도 보다 심층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지원해야한다고 봄(강성원)
- ‘해외교류전’이란 무게에 맞지 않아 대체로 전시내용이 거칠고 단조로운 편. 예술과 자연의 만남을 구현하거나 ‘인도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등 기획의도는 참신했던 반면, 디스플레이 등 제반 전시요건들이 충실하고 세련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전시의 품격을 확보해내지 못했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떨어졌다고 봄.(김희선)
- 이 사업은 그동안 유명단체들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채워졌고, 반복적으로 지원을 했다. 2004년부터는 각 단체의 중심 사업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간된 백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안치운).

- 춘천마임축제는 성공한 축제로 자리 매김한 것으로 보임. 고슴도치섬이 축제마당이 돼 지역주민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대거 내려오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대거 참여해 아주 좋음. 하지만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2003은 뼈격거리의 모습이 역연함. 2004년 축제 역시 이름만 다른 똑같은 내용의 축제를 시청에서 기획,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일본희곡 번역독회 및 심포지움은 일본 연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좋은 반응과 함께 끝이 났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김승현)
- 관람한 한 행사(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는 그간의 진통에 비해 성실한 축제진행을 보여주었고 관람객들도 안정적이었다. 단 다른 국제연극제들과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국내작의 부족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영미)
- 형식적이며 상업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공존한 분야로서, 해외 단체의 국내 초청 지원과 관련 기준을 다양화되 면밀히 재설정해야 한다. 무용계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 교류는 구색 맞추기 식의 단순 교류를 탈피하여 1) 한국 춤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 2) 한국 춤계의 창작력 자극 3)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의 측면에서 기획되고, 지원 기준도 이에 준해 설정될 필요가 있다.(김채현)
- 사업에 따라 그 성과가 확연하게 달랐다. 수년째 시행하고 있는 모 국제 댄스 페스티벌의 경우 유료 관객이 어느 날에는 10명도 안될 정도로 관객수도 적어 국제 행사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업 수행 능력에 문제점을 드러낸 행사도 있었다. 무용 분야의 경우 지나치게 공연 위주의 행사에 치우친 지원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장광열)
- 한국 프랑스 공동 제작 사업 이외에 모든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행사 나름대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연이 올랐다. 다만, 사스로 인해 가을로 미루어진 세계청소년 무용축제의 일부는 광화문 댄스 페스티벌에 포함 진행되어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일부 공연은 의지에 비해 질적인 면이 뒤쳐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이희나)
- 전문적이고 특성화 있는 분야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류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교류 사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완규)
- 음악분야의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사업은 가장 충실했던 분야라고 생각된다. 특히 행사의 완성도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었고 청중의 호응도나 참여도도 높았다.(신동일)
- 비교적 예술적 지향점이 높은 단체들이 이 분야에서 공연을 펼쳤다. 공연 내용들은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대중들과의 접점을 찾는 차원이나 해설적 차원에서의 친절함 등은 부족했다. 내용이 충실했음은 고무적이지만 사회적 전파를 생각하면 전략적 차원이 강구해야 하겠다. (이석렬)
- 이 항목에 해당하는 2003년의 공연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과 다양성을 갖춘 것이 많았다. 특히 21세기 악회의 현대음악극 공연과 한양대음악연구소가 주최한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 정격연주도입을 위한 공연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현대음악과 고음악을 소개하는 계기도 되었고, 또한 최근 해외 음악계의 흐름도 알 수 있었던 보기드문 공연이었다. 현 시대에 가장 지원이 요구되는 목표이자, 또 국내 음악계에도 좋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된다.(하지숙)
- 국악학회가 주관한 “제 8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는 실크로드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음악세계를 조명한다는 주제로 시행되었음. 전문 학술대회인 관계로 일반인의 참여는 적었으나 성과있는 학회였고, 한국음악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됨.(황루시)
- 전통예술분야의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사업 중 현장 평가 사업은 3건이다.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아서2- 샤마니카 2003”은 계획서상의 내용보다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한국국악학회의 “제8회 아태민족음악학회 및 축제”와 “오케스트라 아시아 2003 공연”은 모두 전주 소리축제의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었다. 이 2건은 성공적인 지원 사업이다.(현경채)

- 문화예술 해외교류지원 사업 중 하반기에 평가한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와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공연 총 2개 사업이다. 두개 사업 모두 전주소리축제의 일환으로 같은 시기에 공연되었으나, 앞의 사업의 경우는 “비단길의 음악과 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가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각국의 전통 공연은 부대사업으로 소개되었다. 해외 문화교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나 학술회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통역의 문제, 행사진행 전문인력의 부족 등은 전체 행사의 진행 과정에 차질을 빚게 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에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공연은 애초의 계획에서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많은 관객을 확보한 비교적 성공리에 치루어진 행사였으며, 야외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클래식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공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진행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졌다. 두개 사업 모두 문화예술의 해외 교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는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의 경우는 행사의 형식적인 측면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희경)
- 해외 교류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분야는 지원 결과의 양극성을 띄고 있었다. 외국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국제 교류는 아니다. 문화행위가 실질적 교류의 결과로 나올 때 지원 사업에 의미가 있다. 교류적인 면으로 볼 때 외국인들(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이든, 초청된 외국인 든)에게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배우기를 강요하는 행사나 외국문화를 박물관 들여다 보듯 하는 국제교류는 진정한 교류가 아니다.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행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요 자랑대회 정도였다. 이와 반대로 아시아 실험연극제는 한국연극계가 실험하지 못하는 삶과 사회의 표현을 아시아 여러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으로 우리를 재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연교류를 통해 객관적 삶의 성찰이 존재했던 국제교류였다. 프린지 기획의 아시아 실험 연극제는 해외교류 지원적 의미가 큰 행사였다. 다음 지원 시 외국인의 관련여부로 지원을 결정하지 말고 문화 내용적인 면에서 국제 교류적인지 먼저 점검 할 필요가 있다.(김윤태)
-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사업 중에는 속 빈 강정이 있을 수 있다. ‘함께 노는’ 사업보다는 ‘함께 연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문화를 외국에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과연 기획과 홍보와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예의 주시해야 될 분야이다. 특히 재외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이승하)
- 2003년 지원사업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에 주력한 사업이 대부분인 반면 행사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각 단체의 사업성격에 있어서는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었으나, 행사의 내용과 질에 다소 큰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행사준비에 있어 소홀한 면이 있다보니 급급한 행사 위주로 단편적 시선을 끌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은 내/외국인 모두에게서 이끌어내지 못한 듯하다. 반면, ‘넥스트웨이브 페스티벌’은 젊은 연극인들의 교류 외 내용 면에서 참신하고 큰 의미 있는 행사였으나, 다양한 관객 층을 확보하지 못함이 매우 안타까웠다.(이진향)

<b>세부사업명</b>	문화예술해외교류기획사업
--------------	--------------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

(1) 사업개요

- 한국문화 해외소개의 장으로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

나인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에 한국작가 참가를 지원하여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림

(2)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

- 전시명 : 베니스비엔날레 제50회 국제미술전  
(The Venice Biennale 50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 전시일정 : 2003년 6월 14일 ~ 11월 2일
  - . 시사회 : 2003년 6월 12일 ~ 14일
  - . 공식개막식 : 2003년 6월 14일 15:00 (장소 : 이태리관 앞 야외식장)
- 전시장소 : 베니스시 비엔날레 공원(Biennale Gardens), 아르세날레 (Arsenale)
- 주관 : 베니스비엔날레협회
  - . 총감독 : 프란체스코 보나미 (Francesco Bonami) - 시카고현대미술관 수석큐레이터
- 전시주제 : Dreams & Conflicts - The viewer's dictatorship  
(꿈과 갈등 - 관람객의 독재)
- 한국관 커미셔너 : 김홍희(여, 55세, 쌤지스페이스 관장)
- 한국관 참가작가 및 작품
  - . 황인기(51세) : <바람처럼 Like A Breeze>
  - . 박이소(45세) : <베니스비엔날레 Venice Biennale>, <2010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1위-10위 World's Top Ten Tallest Structures in 2010>
  - . 정서영(38세) : <새로운 삶 A New Life>, <기둥 The New Pillar>
- 한국관 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 9명
  - . 미술계 전문인사 : 이구열(위원장, 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 하동철(서울대 교수), 윤난지(이화여대 교수), 이형우(홍익대 교수), 윤진섭(호남대 교수), 박신의(경희대 교수)
  - . 당연직 위원(3명)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곽석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강형철), 문화관광부 예술국장(백익)
- 회의 개최
  - .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 : 2002. 11. 16
  - . 한국관 전시기획(안) 설명 및 참가작가 선정 승인 : 2003. 1. 3
- 한국관 개막식
  - 일시 : 2003년 6월 13일(금) 15:00 ~
  - 장소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앞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공원)
  - 주최 : 우리원 원장(현기영), 주이태리 한국대사(송영오), 커미셔너(김홍희)
  - 참석인사 : 한국관 전시 작가(황인기,박이소,정서영), 한국관 운영위원장(이구열), 한국관 후원회장(김택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천호선), 서울시립미술관장(하중현), 광주시장(박광태),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이용우) 및 국내외 미술평론가, 기자 등 200여명
- 2003년도 수상 내역
  - 작가상 (Golden Lion for best work exhibited i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 페터 피셀리(Peter Fischli), 다비드 바이스(David Weiss)
  - 국가관상 (Golden Lion for best national participation)  
/ 룩셈부르크관(Luxembourg Pavilion)
  - 35세 미만 작가상 (Golden Lion for best artist under 35 years of age i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 올리버 페인(Oliver Payne), 닉 렐프(Nick Relph)

- 젊은 이태리 작가상 (Prize for best young Italian artist)  
/ 아비쉬 케베르자데 (Avish Kheberhzadeh)
-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전체 운영 실적
  - 방문객 : 260,103명 (한국관 방문객 : 123,964명)
  - 입장권 : 260,103장 발행. 매일 평균 1,806명 방문. ( 제49회 미술전 비교 17% 증가)
  - 입장수익 : 2,390,000유로 ( 29% 증가 )
  - 제50회 국제미술전 총비용 : 8,200,000유로. 총수익 5,000,000유로
  - 전세계 150여 국가 및 사립기관의 작가 지원을 통해 437,672유로 기금 지원
  - 자국관이 없는 국가(30개국) 전시에 약 500,000명 방문
  - 도록 13,941권 판매 : 28%는 영문판
  - 기자 등 언론관계자 9,394명 방문 : 이태리 3,370명, 66개국 외국인 6,024명
  - 외국잡지 25개 커버기사화합
  - 이태리 56개, 외국 84개 TV 방문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 자체평가
  -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이 50회를 맞이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권위하에 62개국 380여명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26개 국가관이 있는 비엔날레 공원(카스텔로 공원)과 아르세날레(Arsenale) 및 국가관이 없이 참여한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이 가설국가관 혹은 전시장을 빌려 베니스 전역에 전시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행사로 개최되었음.
  - 비엔날레 공원에 상설국가관이 없는 룩셈부르크관의 국가관상 수상은 국가관이 없는 국가에게 국가관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건이며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이변으로서, 비엔날레는 관람객의 주의를 즉각 끌어당기는 소리, 영상, 공간의 강하면서도 시적인 결합, 그리고 정치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미묘한 반향으로 전시장 공간을 가득채운다는 점. 또한 이러한 전시장 장소 자체가 대규모의 각 국가관이 필요한 것인지에 의문을 던진다고 수상 사유를 밝힘.
  - 한국관 전시는 전체적으로 시원하며 깔끔하다는 평이었으며, 커미셔너와 작가의 의도대로 한국관의 원형을 복원하여 베니스의 풍경과 한국관 내부의, 안과 밖 공간 뒤집기라는 기획 핵심을 살려낸 전시로 평가되었음
  - 개막식(13일) 이전의 패널 디스커션(12일)은 커미셔너, 한국관 참여작가, 아르세날레 참여작가(주재환, 김홍석, 김소라), 미술평론가, 언론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여 진지하게 진행되었음. 다만, 시사회 기간(12일~14일) 중 관람객 통제가 불가능하여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며 향후 개막식 전날 전시장에서서의 부대 행사 개최는 개막식 준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억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 해외문화기관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 (1) 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주석:주위치) 대표단 국내 초청 방문
  - 기간 : 2003. 10. 20~10.29(9박10일)
  - 지역 : 서울, 경주, 제주
  - 방문자
    - 단장 : 靳尚誼(Jin Shangyi) /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Vice President of the CF LAC), 중국미술가협회 주석(Chairman of the China Artists Association)
    - 단원
      - 田伯平(Tian Boping) / 북경시서예가협회 비서장, 서예가(Secretary General of Beijing Calligraphers Association, Calligrapher)
      - 王守明(Wang Shouming) /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관공청 부주임(Deputy Director of

General Office, CFLAC)

- 朱孟宇(Zhu Mengyu) /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국제부 의사담당(Section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CFLAC)

- 내용 : 우리 원과 중국 문련 간 문화예술 교류 방안 협의, 우리 원 미술관 및 극장 등 시설 견학,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 방문 및 인사교류, 각종 전시, 공연, 영화 관람, 경주 및 제주의 문화유적과 시설 시찰

(2)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대표단 국내 초청 방문

- 기간 : 2003. 10. 21 - 10. 31 ( 10박 11일 )
- 지역 : 서울, 경기, 경주
- 방문자 : 프랑스 문화부 담당자 및 예술행정가 6인
  - 단장: Marie-Christine LORANG : 프랑스 문화통신부 아시아문화 담당관
  - 단원: Yukiko KAMIJIMA : 루브르 박물관 아시아 지역 메세나 담당관
  - Christophe DANDOY : 풍피두 발전조합 메세나/후원 책임자
  - Veronique LEPRETTE : Mobilier national et aux Manufactures des Gobelins de Beauvais et de la Savonnerie 박물관 후원 및 홍보담당관
  - Fabienne GROLIERE (1주) : 국가유적보호센터 후원업무 책임자
  - Sophie LEROI (2주) : 파리 국립 오페라단 후원회 담당자
- 내용 : 프랑스문화부 위임사업인 꾸렁 프로그램(programme courants)의 일환으로 ‘한국의 문화재단 연구’라는 주제 하에 경기, 부천문화재단 등 공공문화재단과 삼성, 금호 등 사설 문화재단 등 방문, 공연 및 전시 관람, 경주 문화유적 시찰 등.

(3) 자체평가

- 중국문련의 경우 1993년 양 기관 교류가 시작되고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그 동안 교류 성과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음. 중국에 발생한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인해 방한 일정이 연기되고 최종 일정도 한·중국 정부간 외교 문제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주중 한국대사관 및 국내 중국대사관측과 상호 긴밀한 협조 연락을 통하여 일정대로 정상 추진하였음.
- 프랑스 문화예술 대표단의 방한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문화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문화 담당자들에게 문화 예술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였고 개별 공공, 사설 재단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다양한 문화재단 운영 실태, 재원조성 방법, 지원내용, 각 재단의 주력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프랑스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한국기업메세나협회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기업 메세나의 현황과 실적,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었음. 방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및 실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방문단을 구성함으로써 단지 양 국 문화예술인들 간의 친선 방문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예술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방문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4)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개최 ‘2003 세계종교음악페스티벌’ 참가 지원

- 주최 :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 기간 : 2003. 12. 5(금) ~12. 14(일)
- 장소 :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대극장
- 한국팀 참가 단체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연수원
- 공연명 : 영산재
  - 공연내용 : 목탁석, 쇯중, 시련, 거불, 명발, 도량계 작법, 천수바라춤, 범고, 향화계 작법. 사

다라니 바라, 공덕계

- 출연진 : 마일운 영산재 보존회 연수원장 외 11인
- 지원액 : 20,000,000원 (출연진 항공료 및 화물운송비)
-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은 비유럽(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지역의 현대예술(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음악)을 독일인들에게 소개하는 단체로 2003년부터 우리 원과 교류를 시작하였음.
- 1,1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의 공연으로 800명 가량의 관객이 관람하였으며 주관객층은 독일인들이었음. 장엄한 불교 의식이 세련된 형태로 보존, 전수되고 있다는 데 대한 관심과, 범고춤, 바라춤, 승무 등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공연에 대한 뜨거운 호응이 있었음. 앞으로 유럽 등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지에 한국의 전통 및 현대 공연 예술을 소개하는 데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5) 해외문화예술정보서비스사업

- 현지 통신원 활용 정보 수집 : 미국(1인/고지영:미국 뉴욕대 공연행정 석사 과정 준비)  
프랑스(1인/김설아:프랑스 파리2대학 박사과정 준비중)
- 실적 : 프랑스 <음악축제 La fête de la Musique> 현황
- 자체평가
  - 주요 국가의 현지 통신원을 활용하여 각 국의 문화예술 정보와 현황을 조사하게 하여 국제교류사업에 활용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정보 수집 및 조사에 따른 현지 통신원 제공 정보의 시의 적절성 문제와 현지 통신원이 공연 입장료, 현지 교통비 등의 업무추진비용 추가 지급 요구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동사업의 추진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립함이 필요함.

(6) 한국문화체험학교 운영

- 사업개요
  -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을 함양시키고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교포에게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학교를 운영
- 2003년도 주요실적
  - 교육기간 : 2003. 7. 9(수) ~ 7. 12(토) 총4일간
  - 교육장소 : 삼척각, 조계사, 공주 공산성·무녕왕릉·충남산림박물관·계룡산 신원사, 부여 부소산성
  - 교육 참가인원 : 143명
  - 교육내용 : 전통문화교양강좌, 한지공예실습, 국악 배우기, 김치 담그기, 도자기 제작 실습, 사찰 문화 체험
- 자체평가
  - 한국어 및 한국적인 것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포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생활과 전통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적인 것과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이론 위주의 강의 방식이 아닌 현장 실습과 체험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생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교육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음.

자)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예술보존조사연구 기금신청사업 지원
-------	--------------------

(1) 사업개요

- 소중한 예술 유산과 각종 예술 자료의 구축 및 기록 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활동,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참조

단, 예총제주지회의 “제주문화예술백서 발간”사업은 자체사정에 의해 사업포기

(3) 예술보존조사연구 기금신청사업 자체 평가

- 분야별 주요 문학단체의 연례 세미나 및 심포지움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문학인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문단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함. 문단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각 단체활동이 당면한 과제 및 발전방향의 제시가 주된 의제로 다루어졌고, 일반인과 지역 문인 등 비회원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 미술분야의 학술대회 행사 및 연구 성과물의 발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존 가치 있는 자료를 집대성하고 참신한 연구 지식을 발굴하여 미술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술 분야에 있어서 지속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미술분야 발간사업의 경우 실질적 사업추진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진일정의 조정 및 추진과정의 검토가 요구됨.
- 한국연극의 경우 우리나라 연극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매년 5,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장르별 연구 활동 및 이를 위한 세미나, 발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책정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향후 예산의 증폭적인 확대가 필요함
- 발간사업의 경우 지원금이 지원 신청액 대비 적게 지원됨에 따라 원고 수집, 서적의 제작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책자 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액을 올려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보존조사연구 기금신청사업 평가위원 평가

- 한국시인협회 세미나, 작고문인 재조명(여성문학인회), 창작회곡 세미나(한국회곡작가협회), 등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이기에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행사성으로 끝나버릴 여지가 있다. (임헌영)
- 예술보존 조사연구지원사업은 여성문학, 회곡, 시 장르 등에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소설, 비평, 구비문학 등 보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가령 작고여성문인의 문학을 재조명한다는 여성문학회 주최 행사의 취지는 예술자료 보존이라는 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했지만, 특정 모임과 원로 명망가 중심의 행사로 한정되었다. 문학유산의 보존과 연구의 경우 소장학자로 날로 늘어가는 학계 비평계의 추세를 볼 때 예술적 애정과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발표 토론할 수 있는 젊고 새로운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방했으면 한다.(김성수)
-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평가대상은 부산미술포럼, 대학미술포럼과 함께 개최되는 학술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이나 특수한 영역에 제한된 성격의 미술포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중 부산미술포럼의 경우는 연간 4회의 세미나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미술현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대안적인 의미로 마련된 행사로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할 만 하였다.  
우선 행사의 주제설정에서 부산시립미술관의 실체를 밝히는 다양한 접근과 검증을 통한 지역 관심사항에 대한 대안모색이나 4/4분기 주제인 지역미술시장의 문제 등은 매우 고무적인 주제였고, 토론형식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다만 홍보 전략의 부재가 갖는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이 경우는 대학미술포럼 역시 마찬가지로의 한계를 보였다. 개최 전 대 국민 홍보나 개최 후 전문가 그룹에 전달되는 메시지, 잡지나 신문과의 연계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보존이나 조사연구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원체계가 학술진흥재단과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

지만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철저한 학술지 중심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최병식)

-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은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안목을 갖추고 지원대상을 선정해야한다고 봄. (강성원)
- 학문적 연구와 보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호회 수준의 기획과 보급에서 벗어나 연구와 추진에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완규)
- 이 분야에서는 일정한 학구적 수준과 함께 소재 선정에 대한 명확한 논지가 있어야겠다. 어떤 행사는 행사 자체로서의 준비와 기획이 미미한 경우가 있었다. 보존과 연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 인식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석렬)
- 이 항목 역시 필수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목표이지만, 아직 그 인식이 미비한 것 같다. 그 수준이 우수한 단체조차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에 이 목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하지숙)
- 여성의 자기 표현 워크샵이란 지원 사업인데 우선 이 사업이 예술보존 조사 연구 분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세미나와 워크샵에 지원을 했는데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지원 사업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업 자체 의도는 좋으나 참여는 미진했다. 문화행위를 통한 예술 교육지원 분야 정도 되겠다.(김윤태)
- 문화일반의 제 사업은 공연 부문에 치중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분야의 사업은 가시적인 효과를 가두기도 쉽지 않고 성격도 사실상 애매하다. 현재 세미나와 워크숍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질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광부와 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과의 변별점이 요구된다.(이승하)
- 현 문화 기획인과 문화 기획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업은 문화프로그램활성과 전문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사업이라 생각한다. 기획 단체와 수혜자의 진지한 참여는 사업지원의 의미에 부합된다고 본다. 반면, 세미나 위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참여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와 같은 행사이전에 전국문예회관 상호간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면 한다.(이진향)

<b>세부사업명</b>	<b>문화예술발간</b>
--------------	---------------

(1) 사업개요

- 1974년 5월 『문예진흥』으로 창간한 이래 현재까지 무수한 변화를 거치면서 발간 유지되어 온 본지는 2002년 월 1회, 2천5백부를 발간하여 판매와 기증을 병행하였음.
- 발간체제
  - 간 별 : 월간 / . 판 형 : 4 x 6 배판
  - 표 지 : 원색 / . 제 본 : 무선제본
  - 부 수 : 매회 2,500부 내외

(2) 주요실적

- 2월호 발간 : 집중기획 <문화의 새 코드\_사이버, 광장, 자발성의 문화>  
152면(본문 148면)
- 3월호 발간 : 연속집중기획 <초.중.고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1)>

164면(본문 160면)

- 4월호 발간 : 연속집중기획 <초.중.고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2)> 168면(본문 164면)
- 5월호 발간 : 집중기획 <청소년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168면(본문 164면)
- 6월호 발간 : 집중기획 <전쟁과 문화예술> 160면(본문 156면)
- 7월호 발간 : 집중기획 <광주 문화예술 점검> 152면(본문 148면)
- 8월호 발간 : 집중기획 <8. 15와 한국 문화예술> 144면(본문 140면)
- 9월호 발간 : 집중기획 <극장 경영과 마케팅> 148면(본문 144면)
- 10월호 발간 : 집중기획 <한글. 말하기 글쓰기> 152면(본문 148면)
- 11월호 발간 : 집중기획 <주5일 근무와 문화예술> 168면(본문 164면)
- 12월호 발간 : 집중기획 <기업의 문화 마케팅> 164면(본문 160면)
- 2004년 1월호 발간 : 집중기획 <그래도 문화예술 이다.> 156면(본문 152면)

(3) 문화예술발간 사업 자체 평가

-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계 활동상과 문화정책 분야별 통계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한편, 문화 향수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주력하였음

<b>세부사업명</b>	<b>문예연감발간</b>
--------------	---------------

(1) 사업개요

- 문예연감은 1976년 창간 이래 이어져 온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사료집으로서 매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문화예술 각 분야 활동의 총량을 수록하고 있으며, 매년 700부를 발간하여 판매 및 기증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
- 발간체제
  - 판형 : 4x6배판
  - 발행부수 : 700부
  - 발간 면수 : 1,278면
  - 지질 : 표지\_포크리스(청). 은. 2000합지, 면지\_페스티발 150g/m<sup>2</sup>, 간지 및 목차. 화보\_아트 120g/m<sup>2</sup>, 표지카바\_아트 200g/m<sup>2</sup>, 본문\_미색모조 80g/m<sup>2</sup>
  - 발간일시 : 2003년 7월 31일

(2) 주요실적 및 발간내용

- 본문 내용 중 개관은 기존의 6개 분야 44개 분과에서 7개 분야 48개 분과로 확대함.
  - (개관 집필자 : 정과리 등 48인, 기획자료 집필자 : 김진수 등 6인)
- 분야별 총론을 편성하여 한 분야에 대한 1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함.
- 권말부록으로 문화예술 단체 및 공연. 전시장의 주소록을 수록함.
- 업그레이드된 cd-rom을 동시 발간함.

(3) 문예연감발간사업 자체 평가

- 문예연감은 매년 국내 문화예술계의 활동을 정리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전문 사료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더구나

이 사업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에도 불구하고 영리와는 무관하게 28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임.

<b>단위사업(지원유형) /분야</b>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 지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	--------------------------------

1. 사업개요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

2. 추진실적

- 총 지원액 : 2,200,000,000원
- 지원내역
  - 연구사업비 : 1,303,121,000원
  - 인건비 : 261,490,000원
  - 경상비 : 635,389,000원

3. 자체평가

- 문화 부문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지원하여 문화관련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문화복지 정보지 발간을 통해 문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함.

아)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존보급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예술자료정보보급 기금신청사업
-------	-----------------

(1) 사업개요

-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정보화 및 보급, 기 개발(발간)된 문화예술 콘텐츠(문헌·시청각자료 등)의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참조

(3) 예술자료정보보급 기금신청사업 자체 평가

-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예술자료정보화 보급 등 관련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건수 증액이 필요하다.

세부사업명	우수예술도서 보급사업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예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각 지역 문화거점 공간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
- 예술도서의 수요 창출을 통해 이 분야의 침체된 출판 환경을 개선·장려하고, 작가와 출판사로 연계되는 문화예술 창작 환경의 개선과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유도하며, 예술자료와 정보의 대중적 보급을 동시에 거양함.

○ 보급 분야 :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예술일반

※ 국고사업과의 연계 : 우수문학작품집의 보급은 국고사업으로 추진(200종 선정, 350개처에 배포)

○ 보급대상 도서의 선정 방법 :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심의대상 도서 : 2002.09.01~2003.08.31의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단행본 예술 도서

(2) 추진내용 및 실적

○ 심의대상 도서목록 자료 조사

- 기초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발간 「이달의 신간」 수록 도서 목록
- 리브로서적 납품 도서 목록
- 출판협동조합 납품 도서 목록

- 심의대상 도서 종수 : 615종(미술 117, 음악 109, 연극 38, 무용 14, 전통예술 56, 예술일반 281)

○ 도서선정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6명)

심의분야	성명	생년	활동사항
미술	김복기	1960	미술평론가, 월간 『아트 인 쉐쳐』 주간
	오세권	1962	미술평론가
음악	이옥희	1942	피아니스트, 서울튜터앙상블 이사장, 한국음악협회 수석부이사장
연극	최준호	1959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무용	황인주	1958	신라대 무용과 교수
전통예술	임동권	1934	민속학자, 민속학회 명예회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예술일반	공통심의		

- 1차 도서선정심의위원회의 : 2003.10.10(금), 심의기준 및 도서 선정원칙 결정
- 우수도서 1차 추천 : 2003.10.13~10.31, 170종 추천
- 1차 추천도서에 대한 출판사별 도서개요서 제출요청 및 접수 : 2003.11.10~11.19
- 우수도서 2차 추천 : 2003.11.24~12.03, 106종 추천
- 2차 도서선정심의위원회의 : 2003.12.05(금), 최종 보급대상 도서 50종 및 후보도서 순위별 선정

분야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예술일반	계
보급종수	14	10	4	2	8	12	50

- 도서 보급
  - 보급방법 : 한국출판협동조합과 선정도서의 구입·배포 계약 체결
  - 배포대상처 : 전국 공공도서관 200개처(문화 소외지역 우선)
  - 배포부수 : 대상처별 보급대상 도서 각 1권(질)

(3) 자체 평가

- 2002년도에 이어 예술분야의 우수도서를 선정,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예술도서의 출판율을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함.
- 국고 사업인 우수문학작품집 구입·배포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통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과 노력을 절감함.
- 종래 사업추진의 경우, 선정된 도서의 구입과 배포에 관하여 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결과 납품가격의 지나친 할인으로 인해 출판사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바, 한국출판협동조합과의 도서납품 수의계약(중소기업청공고 제2002-150호)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토록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함.

※ 참고) 상설예술강좌(방송발전기금) 추진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 상설예술강좌
  - 상설예술강좌 운영
    - 문학분야 :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 일반강좌
    - 미술분야 : 「화요일의 미술이야기」 - 일반강좌, 청소년강좌, 도슨트전문과정
    - 연극분야 : 「수요일의 연극이야기」 - 일반강좌, 청소년강좌
  - 문화예술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EBS 「Art & Culture 창작노트를 열다」
- 사업목적
 

문학,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진 분야에 걸쳐 상설예술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로의 제작·개발을 병행함으로써 문화예술 부문과 방송 부문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복지권 신장 및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

(2) 추진내역

(가) 상설예술강좌 운영

강좌구분		연간 추진계획 (개설기간·주기, 강연횟수)	추진실적 (개설기간, 강연횟수)	비고
문학강좌		2월~11월 매주 금요일 1회, 연간 38회	2003.02.14~11.28, 38회 (강연시간 19:00~20:40)	1~26회까지 EBS 플러스1 TV 방영
미술	일반강좌	4월~6월, 10월~12월 매주 화요일 1회, 연간 20회	2003.04.08~11.18, 17회 (강연시간 19:00~21:00)	3기 강좌 중 강사의 건강 악화로 조기종료
	청소년강좌	7월~8월 매주 화요일 1회, 연간 6회	2003.07.22~08.26, 6회 (강연시간 19:00~21:00)	
	도슨트과정	4월~12월 매주 목요일 1회, 연간 30회	2003.04.03~11.27, 31회 (강연시간 19:00~21:00)	
연극	일반강좌	4월~6월, 9월~11월 매주 수요일 1회, 연간 20회	2003.04.09~12.03, 20회 (강연시간 19:00~20:20)	
	청소년강좌	8월~11월 연간 10회	2003.08.19~11.15, 11회 (강연시간 2시간)	

○ 문학강좌 운영 내역

- TV 방영

- . 프로그램명 : 문학이야기
- . 방송매체 : EBS 위성TV(EBS 플러스1)
- . 제작편수 및 방영회수 : 26편, 78회 방영
- . 방영기간 : 2003.02.24~08.24
- . 방영시간  
매주 금요일 14:30~15:20(본방송), 20:20~21:10(재방송)  
매주 일요일 14:30~15:20(삼방송)
- . 진행자  
김주연(숙명여대 독문과 교수) : 2003.02.14~05.09 (1~13회)  
김사인(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2003.05.16~08.08 (14~26회)
- . 세부 추진내역 : 26편 제작, 70회 방영

회차	주제 (이야기 작품)	이야기 손님	TV 방영일
1	문학도 가르칠 수 있는가	윤홍길	2003.02.28, 03.02
2	영상시대 문학, 전통은 지속될 것인가	정과리	2003.03.07, 03.09
3	문학 속의 신화, 왜 뜨는가	한승원	2003.03.14, 03.16
4	문학 속의 성, 주제인가 묘사인가	김인숙	2003.03.21, 03.23
5	문학 논쟁, 왜 자주 일어나는가	성민엽	2003.03.28, 03.30
6	문학과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김정환	2003.04.04, 04.06
7	여성주의, 문학에서 꼭 필요한가	김혜순	2003.04.11, 04.13
8	소설 속의 토속어, 그 매력은 무엇인가	김주영	2003.04.18, 04.20
9	현대시, 노래가 될 수는 없는가	서우석	2003.04.25, 04.27
10	만화도 문학인가	홍승우	2003.05.02, 05.04
11	문학은 놀이인가, 구원인가	마종기	2003.05.09, 05.11
12	아동문학, 왜 잘 팔리는가	김서정	2003.05.16, 05.18
13	왜 글을 쓰는가	박완서	2003.05.23, 05.25
14	시인 송찬호 - 달은 추억의 반죽 덩어리	송찬호, 이해원	2003.05.30, 06.01
15	소설가 이제하 -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이제하, 권오룡	2003.06.06, 06.08
16	시인 서정춘 - 오늘 그 푸른 말뚝이 그림다	서정춘, 구모룡	2003.06.13, 06.15
17	소설가 박상룡 - 남도 1	박상룡, 서정기	2003.06.20, 06.22
18	시인 고희렬 - 대청봉 수박밭	고형렬, 김정환	2003.06.27, 06.29
19	소설가 서정인 - 치과의사의 죽음	서정인, 우찬제	2003.07.04, 07.06
20	시인 함민복 - 김포평야	함민복, 최현식	2003.07.11, 07.13
21	소설가 최인석 - 염소 할매	최인석, 윤지관	2003.07.18, 07.20
22	시인 황인숙 - 잠자는 숲	황인숙, 고종석	2003.07.25, 07.27
23	소설가 김원우 - 객수산록	김원우, 김경수	2003.08.01, 08.03
24	시인 김기택 - 쫓추	김기택, 김진석	2003.08.08, 08.10
25	소설가 공선옥 - 그것은 인생	공선옥, 이상경	2003.08.15, 08.17
26	시인 백무산 - 경계	백무산, 정남영	2003.08.22, 08.24

- 강좌실 강연

. 진행자 : 송기원(시인, 소설가) : 2003.08.29~11.28 (27~38회)

. 강연부제 : 삶과 문학

회차	강연일	이야기 손님	비고
27	2003.08.29	홍희담(소설가), 정향자(소설 속의 소재 인물)	
28	2003.09.05	유용주(시인), 한창훈(소설가)	
29	2003.09.19	최성각(소설가), 신동호(시인)	
30	2003.09.26	이면우(시인), 박수연(평론가)	
31	2003.10.10	도종환(시인), 허혜정(시인, 평론가)	
32	2003.10.17	박남준(시인), 강순형(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관 관장)	
33	2003.10.24	최하림(시인), 김문주(평론가)	
34	2003.10.31	박영희(시인), 안상학(시인)	
35	2003.11.07	오수연(소설가), 전성태(소설가)	
36	2003.11.14	고재중(시인), 천양희(시인)	
37	2003.11.21	하성란(소설가), 김별아(소설가)	
38	2003.11.28	박형진(시인), 박영근(시인)	

○ 연극강좌 운영 내역

- 일반강좌

회차	강연일	주 제	강 사
1	2003.04.09	연극에 관한 새로운 사유	안치운(연극평론가)
2	2003.04.16	극작가가 본 한국의 극작가들	이강백(극작가)
3	2003.04.23	박정자가 들려주는 '나의 연극이야기'	박정자(배우)
4	2003.04.30	살아있는 연극이란?	김철리(연출가)
5	2003.05.14	배우론	한명구(배우)
6	2003.05.21	몸짓으로 전하는 세계 - 마임	남궁호(마임리스트)
7	2003.05.28	배우 중심의 연극보기	박철민(배우)
8	2003.06.04	연극 새롭게 보기 - 연극 공연의 여러 가지 형태	박인배(마당극연출가)
9	2003.06.11	한국 현대 연극에 대하여 - '고도를 기다리며'를 중심으로	임영웅(연출가)
10	2003.06.18	연극, 쉽게! 편하게! 자신있게! 보기	오세곤(연극평론가)
11	2003.09.17	연극의 위기와 연극미학 - 연극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안치운(연극평론가)
12	2003.09.24	연극예술은 무엇인가? 기억과 표현 - 말과 글과 몸	"
13	2003.10.01	희곡-산문의 희곡, 운문의 희곡	"
14	2003.10.08	극장 - 공간의 시학	"
15	2003.10.15	배우 - 몸의 기억	최재오(연극평론가)
16	2003.11.05	연출 - 해석자의 무게	안치운(연극평론가)
17	2003.11.12	공연 - 연극의 형식과 언어	"
18	2003.11.19	비평 - 연극에 대한 글 쓰기와 이론	"
19	2003.11.26	한국 연극, 동양 연극, 서양 연극 - 연극의 언어	"
20	2003.12.03	연극의 미래 - 연극과 인간 그리고 자연	"

- 청소년강좌

강연일	대 상 학 교	장 소	강 사
2003.08.19	예산여자 중학교	예산여중	김동현(연출가)
2003.08.23	상명사대 부속 중학교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한은주(배우)
2003.09.06	보인중학교	보인중학교	교육극단 달팽이
2003.09.06	안양공업고등학교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이태건(마임이스트)
2003.09.06	백양고등학교	백양고등학교	김현주(배우)
2003.09.20	구리여자고등학교	구리여고	김현주(배우)
2003.09.20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한은주(배우)
2003.09.27	신림중학교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청소년극단 진동
2003.10.09	대영중학교	대영중학교	청소년극단 진동
2003.11.08	자양중학교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이태건(마임이스트)
2003.11.15	하비에르국제학교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이태건(마임이스트)

○ 미술강좌 운영 내역

- 일반강좌

회차	강연일	주 제	강 사
1	2003.04.08	돌에서 형상으로 - 고대 그리스의 조각	이주현(미술평론가)
2	2003.04.15	시각과 이미지 - 그림을 본다는 것	"
3	2003.04.22	인간은 만물의 척도 - 르네상스 미술	"
4	2003.04.29	고전에서 사실로 - 17~19세기의 서양미술	"
5	2003.05.06	부르주아지와 산업화 신대의 미학 - 인상파	"
6	2003.05.13	자기 과멸과 회귀 - 20세기 초의 유럽미술	"
7	2003.05.20	주변에서 중심으로 - 30~60년대 미국미술	"
8	2003.05.27	20세기 미술 속의 도시	"
9	2003.06.03	20세기 미술 속의 여성	"
10	2003.06.10	20세기 미술 속의 대중문화	"
11	2003.10.07	옛 그림 속의 표정·해학	오주석(관송미술관연구원)
12	2003.10.14	옛 그림의 사실성	"
13	2003.10.21	옛 그림의 필선	"
14	2003.10.28	옛 그림의 원근법	"
15	2003.11.04	옛 그림의 여백	"
16	2003.11.11	옛 그림에 깃든 마음·사상	"
17	2003.11.18	옛 그림의 상징·정치	"

- 청소년강좌

회차	강연일	주 제	강 사
1	2003.07.22	퍼포먼스란?	박 건(성암정보산업고 교사)
2	2003.07.29	화장실에서 미술은...	김인규(안면중 교사)
3	2003.08.05	미술에 관한 고정관념 깨기	박만용(부천부명고 교사)
4	2003.08.12	미술로 본 여성	윤여관(충남만리포고 교사)
5	2003.08.19	겨레미술이야기	조소영(신도봉중 교사)
6	2003.08.26	애니메이션 알기	강병순(아현직업학교 교사)

- 도슨트과정

회차	강연일	주 제	강 사
1	2003.04.03	도슨트 교육 및 활동 소개	강성은(교육담당큐레이터)
2	2003.04.10	미술관/박물관의 이해	하계훈(단국대 겸임교수)
3	2003.04.17	미술관과 교육 I	김 령(경희대 겸임교수)
4	2003.04.24	국내 미술관 교육의 사례	한주연(삼성미술관 연구원)
5	2003.05.15	해외 미술관 교육의 사례	양지연(동덕여대 교수)
6	2003.05.22	미술관과 교육 II	김 령(경희대 겸임교수)
7	2003.05.29	전시기획의 이론과 실제	김성원(전시기획자)
8	2003.05.31	미술관도슨트운영프로그램건축(호암갤러리)	강성은(교육담당큐레이터)
9	2003.06.05	전시와 해석	박신의(경희대 겸임교수)
10	2003.06.19	어린이 감상교육	오상현(뮤지엄교육연구소장)
11	2003.06.26	도상의 이해	진중권(미학자)
12	2003.07.03	미디어의 이해	김혜경(전시기획자)
13	2003.07.10	중진작가전 전시개념 이해	백지숙(큐레이터)
14	2003.07.24	중진작가전 참여작가 작품연구 I	김형미(큐레이터)
15	2003.07.31	중진작가전 참여작가 작품연구 II	김형미(큐레이터)
16	2003.08.07	중진작가전 전시설명 현장실습	강성은(큐레이터)
17	2003.08.14	현대미술의 동향	심상용(동덕여대 교수)
18	2003.08.21	국제교류전의 흐름	박만우(광주비엔날레부장)
19	2003.08.28	국제교류전 전시개념 이해	이태호(전시기획자)
20	2003.09.04	국제교류전 참여작가 작품연구 I	이태호(전시기획자)
21	2003.09.18	국제교류전 참여작가 작품연구 II	강성은(큐레이터)
22	2003.09.25	국제교류전 전시설명 현장실습	강성은(큐레이터)
23	2003.10.02	전시기획 사례연구	김혜경(전시기획자)
24	2003.10.09	내사랑 미술관 - 한국의 주요 미술관	황록주(전시비평/전시기획자)
25	2003.10.16	21세기와 자원봉사	이강현(블런티어21 사무총장)
26	2003.10.23	사례로 본 문화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역할	강임산(한국의재발견 사무국장)
27	2003.10.30	대표작가전 전시개념 이해	백지숙(큐레이터)
28	2003.11.06	대표작가전 참여작가 작품연구 I	안현주(큐레이터)
29	2003.11.13	대표작가전 참여작가 작품연구 II	안현주(큐레이터)
30	2003.11.20	대표작가전 전시설명 현장실습	안현주(큐레이터)
31	2003.11.27	교육과정 수료식 및 종합평가	박상언(마로니에미술관장)

(나) 문화예술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프로그램명 : “Art & Culture 창작노트를 열다”
- 방송매체 : EBS 지상파TV 및 EBS 위성TV(EBS 플러스1)
- 제작편수 및 방영회수 : 26편, 78회 방영
- 방영기간 및 시간 : 2003.02.24~08.24
  - EBS 지상파TV : 매주 일요일 17:40~18:30
  - EBS 플러스 1 : 매주 목요일 14:30~15:20(본방송), 20:20~21:10(재방송)
- 세부 추진내역 : 26편 제작, 78회 방영

회차	부 제	EBS 지상파TV 방영일	EBS 플러스 1 방영일
1	움직이는 드로잉의 화가 - 전수천	2003.03.02	2003.03.06(2회)
2	무대 위에 올린 인생 - 연극연출가 채운일	2003.03.09	2003.03.13(2회)
3	생각하는 춤의 세계 - 무용가 홍승엽	2003.03.16	2003.03.20(2회)
4	우리의 얼굴을 한 오페라 - 연출가 장수동	2003.03.23	2003.03.27(2회)
5	지금은 4막1장 - 연극배우 박정자	2003.03.30	2003.04.03(2회)
6	서울의 아방가르드 미술가 - 윤영석, 박화영	2003.04.06	2003.04.10(2회)
7	춤추는 국악의 지휘자 - 박범훈	2003.04.13	2003.04.17(2회)
8	섬진강 시인 - 김용택	2003.04.20	2003.04.24(2회)
9	푸른곡선의 발레리나 - 문훈숙	2003.04.27	2003.05.01(2회)
10	폭 넓은 연기의 달인 - 연극배우 전무송	2003.05.04	2003.05.08(2회)
11	움직이는 공간의 건축가 - 김석철	2003.05.11	2003.05.15(2회)
12	은빛선율과의 앙상블 - 피아니스트 박은희	2003.05.18	2003.05.22(2회)
13	탈향에서 귀향으로 - 소설가 이호철	2003.05.25	2003.05.29(2회)
14	춤으로 쓴 일기 - 현대무용가 박명숙	2003.06.01	2003.06.05(2회)
15	‘두드림’의 미학 - 난타의 연출가 송승환	2003.06.08	2003.06.12(2회)
16	2003 베니스 비엔날레-한국관을 본다.	2003.06.15	2003.06.19(2회)
17	한국의 혼을 짓는 건축가- 신영훈	2003.06.22	2003.06.26(2회)
18	다시 고쳐 쓴 서유기 - 번역가 임홍빈	2003.06.29	2003.07.03(2회)
19	사진으로 찍은 내면의 풍경 - 사진작가 구분창	2003.07.06	2003.07.10(2회)
20	차세대 연극의 선두주자 - 연출가 박근형	2003.07.13	2003.07.17(2회)
21	춤을 통한 새로운 세상 - 안무가 제임스 전	2003.07.20	2003.07.24(2회)
22	천년의 소리, 현대음악을 만나다-가야금 연주자 이지영	2003.07.27	2003.07.31(2회)
23	3차원의 공간, 4차원의 메시지 - 설치미술가 김승영	2003.08.03	2003.08.07(2회)
24	무대 위의 또 다른 연출가들	2003.08.10	2003.08.14(2회)
25	가장 한국적인 현대 무용가 - 안애순	2003.08.17	2003.08.21(2회)
26	다시 문학으로의 회귀 - 송기원	2003.08.24	2003.08.28(2회)

(3)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성과지표	목표량	실제성과	달성률(%)
상설예술강좌 - 문학	강연횟수	38	38	100%
	방영회수	78	70	90%
상설예술강좌 - 미술	강연횟수(일반)	20	17	85%
	강연횟수(청소년)	6	6	100%
	강연횟수(도슨트)	31	31	100%
상설예술강좌 - 연극	강연횟수(일반)	20	20	100%
	강연횟수(청소년)	10	11	110%
문화예술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	제작편수	26	26	100%
	방영회수	78	78	100%

(4) 사업 평가

(가) 상설예술강좌 운영

○ 문학강좌

- 1·2기(1회~26회)강좌의 강연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직접 수강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양질의 예술강좌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함.
- 강연내용의 깊이와 완성도를 제고함으로써 질적 수준에 있어서 초급대학의 교양강좌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고 현장교육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함.
- 1기(1회~13회) 강좌는 주제 중심, 2기(14회~26회) 강좌는 작품 중심, 3기(27회~38회) 강좌는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강연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수강자에게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제공함.

○ 미술강좌

- 일반강좌

- 1기 - 이주현(4월8일~ 6월10일) “행복한 감사자를 위한 서양미술 순례”  
서양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10회 동안 시대별로 간추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서양미술의 흐름을 알고, 시대별 작가의 그림세계를 수강생들로 하여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2기 - 오주석(10월7일~ 11월18일)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옛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옛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상, 그림에 깃든 마음과 사상, 해학 등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하였으며, 수강생들에 우리의 옛 그림을 볼수(읽을) 있는 안목을 한층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기별 책임 강사제를 도입하여 기별 단위 프로그램의 일관성 및 완성도를 높였음.

- 청소년강좌

- 방학기간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능 위주의 미술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삶을 위한 미술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여 문화향수 능력을 배양하고, 예술체험·참여활동의 거점 공간으로써 생활 속의 미술문화를 인식하도록 함과 미술관운영의 공공성 제고
- 현장에서 함께 하는 교사를 강사로 운영.

- 도슨트과정

- 미술관 전시설명 자원봉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도슨트전문과정은 수강생모집결과 40명 모집에 총 240명이 신청하는 큰 호응을 보임. 6: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도슨트요원들은 다양한 사회봉사경력과 유창한 외국어 실력, 미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술관과 관람객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전시설명봉사활동에 강한 의욕을 나타냄.
- 그동안 국내 미술관이 도슨트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향수층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문화봉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으나 급변 프로그램은 강사진 및 수강생들로부터 우수한 교과내용이라는 평을 공히 받고 있음. 1년 동안 집중 교육을 통해 정예화된 도슨트요원을 양성 함으로써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설명의 수준을 향상시킴.
- 1/4분기 입문교육에 이어 중진작가초대전인 ‘공원 썬표 사람들’전과 국제교류전 ‘아시아의 지금’전, 대표작가초대전 ‘우리가 만든 거대한 상 - 신학철 전’의 전시설명 실습교육이 이루어

어짐으로써 이론과 실습이 효과적으로 병행된 교과과정을 운영하였음.

- 입문교육과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년에 비해 도슨트요원들의 전시설명 내용이 한층 전문화되었다는 관람객의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도슨트요원들도 개인적으로 관람객에 대한 적극성과 자신감이 대폭 나아졌다는 의견을 보였음.

○ 연극강좌

- 일반강좌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극적 경향과 흐름, 연극 현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짐.
- 1명의 전담 강사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일관성 및 완성도를 높임.
-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수강생과 강사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강좌

- 각 학교나 동아리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호응도를 높임.
- 지금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청소년 전문 강사진을 섭외하여 학생들에게 연극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잠재적인 문화향수층 개발을 추구함.

(나) 문화예술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명사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작가의 창조적 시각 및 예술적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고급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문화예술과 방송매체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예술 창작의 현장을 향수자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차) 전통예술 발표, 전승보급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전통예술 발표 전승보급 활동 지원
-------	--------------------

(1) 사업개요

- 전통예술의 보존·계승 발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참조

\* 사업포기단체

- 고흥향교유림재단(신정식), ‘전통문화예절학교운영’ (자체사정)
- 국악실내악단소리누리(윤영선) ‘제7회 정기연주회’ (자체사정)
- 박재희새암무용단(박재희) ‘박재희 춤’ (자체사정)
- 이주희 ‘한순서와 이주희의 춤’ (자체사정)
- 휘몰이잡가보존회(박상옥) ‘수표교 다리밟기 공연’ (자체사정)

(3) 전통예술 발표전승보급 기금신청사업 자체 평가

- 전통분야는 장르의 특성상 지역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체제 안에서는 서울 위주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임. 지역의 우수한 사업들을 다시 흡수해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같은 형태의 사업이라도(예를 들어 공연, 전시 등) 전통유형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단가가 낮음. 전통무용과 일반 무용 장르로 신청한 한국무용 공연을 비교해보면 전통 쪽의 단가가 확연히 낮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특성상 소액 다건의 지원체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액 다건 지원 외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만한 사업들은 집중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단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함. 다만 단가의 범위가 넓어질 때 사업 규모에 맞는 지원액을 얼마나 적절히 판단하여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신청당시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적합한 제재 규정이 없음. 진흥원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변경을 어느 정도 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방침이 요구되고 있음

※ 전통예술 발표전승보급기금신청사업 평가위원 평가

- 가장 다양한 내용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건강한 학교축제 만들기”나 “어린이 환경마당놀이 순회공연 ‘개똥아 놀자’” 등의 사업이 우수했음. 지역축제 지원사업, 역사적 고증을 거친 전통문화의 발굴, 공연도 바람직함. 다만 자생성이 충분한 전시나 공연의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기획서와 실제 사업내용이 크게 다른 경우도 있었기에 반드시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봄. (황루시)
- 전통예술의 모습을 온전히 전승하고 보급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지원 종목 분야도 전에 비해 다양해졌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의미있는 공연물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분야 지원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기형)
- 전통예술분야의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사업 중 현장 평가 40건이다. 성공적인 지원사업은 한국현대음악앙상블과 해금연주자 강은일이다. 이 2건의 행사는 한국음악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음악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국악계는 물론 서양음악계는 물론이며, 평론계에도 새로운 이슈를 던진 음악회로 평가 된다. 또한 의미 있는 행사로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대를 잇는 예술의 혼- 명인의 후예들”이다. 원로 명인명창 명무들의 오랜만의 무대나들이를 기획한 공연으로 2003년 공연의

최대 히트작이다. (현경채)

- 하반기에 평가한 사업 중 전통예술의 발표 및 전승 보급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범패, 남녀창 가곡, 기사 연주회, 한국현대음악앙상블연주회, 제10회 전국민요경창대회, 길금의 조형 기획전시회, 조선왕조궁중연회 영조조 갑자진연, 제15회 전국 청소년탈춤 경연대회, 한지공예·다종이인형 공모대전 및 전시회, 대를 잇는 예술혼 - 명인들의 후예, 오리엔탈리카 제4회 정기연주회, 천공의 숨씨를 찾아서, 임실필봉농악, 제33회 판소리 유파발표회 등이 해당된다. 하반기에 실시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비교적 행사 계획안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일부는 대폭 체질 개선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기금 지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사업도 있었다.

전통예술의 전승 보급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공연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문제점은 공연의 기획이나 진행 등 형식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주먹구구식의 공연경영의 결과인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예술적 완성도와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관객의 호응도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범패, 남녀창, 가곡가사 연주회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대를 잇는 예술혼, 한국현대음악앙상블 연주회를 꼽을 수 있으며, 제15회 전국청소년탈춤경연대회와 제10회 전국민요경창대회의 경우는 행사 진행 및 홍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제33회 판소리 유파 발표회의 경우는 공연 외적인 부분에서 대폭 체질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유희경)

<b>세부사업명</b>	전국규모 전통예술행사지원(대한민국국악제)
--------------	------------------------

■ 대한민국국악제지원

(1) 사업개요

- 국악 전 장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객들에게 격조있는 국악감상의 기회를 넓혀주고 우리 전문예술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원함.

(2) 주요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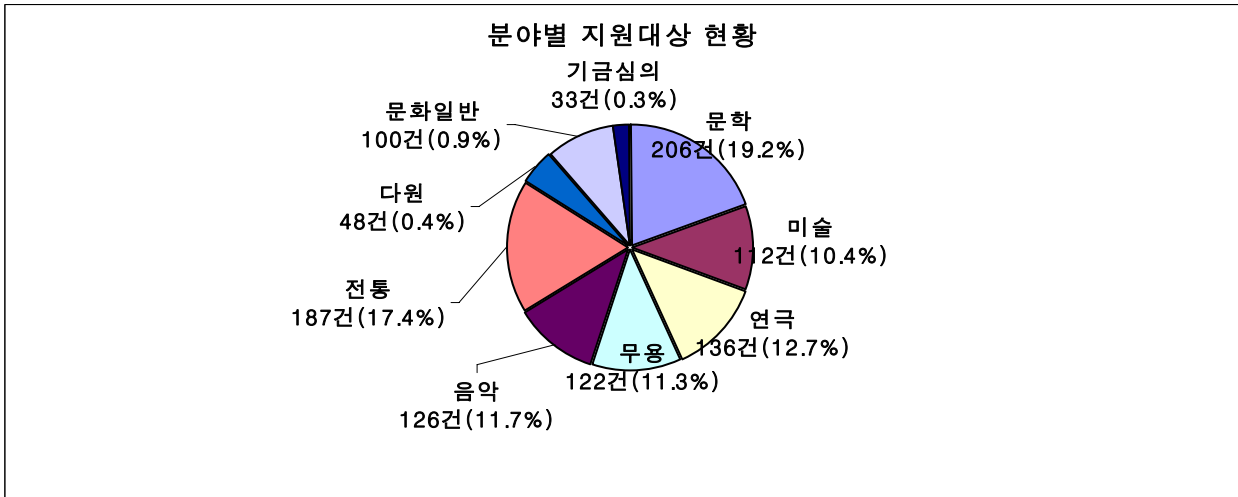
- 일정 : 03. 10. 29 - 03. 11. 02
- 장소 : 국립국악원 예약당, 별맞이터, 수원시 야외음악당
- 주최 : 한국국악협회
- 후원 :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경기도,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관람인원 : 8,400명
- 지원액 : 100,000,000원
- 프로그램 및 일정
  - 10월 29일 : 기악과 춤의 밤(국립국악원 예약당) : 창작무, 선소리산타령, 기악합주 ‘대풍류’, 대금산조, 시조, 설장구놀이, 가야금병창, 도살풀이, 풍물 ‘선반’ 등
  - 10월 30일 : 정악 정재의 밤(국립국악원 예약당) : 상령산, 춘앵전, 시춘, 가곡 ‘태평가’, 무고, 대금독주 청성곡, 학 연화대 처용무 합설, 생소병주, 종묘제례악 ‘전폐회문’, ‘영관’ 등
  - 10월 31일 : 소리극의 밤(국립국악원 국악당) : 경기재담소리극 ‘장대장타령’, 서도소리극 ‘날찾네’, 남도창극 ‘놀부전’, 여성국극 ‘콩쥐팥쥐’ 등
  - 10월 31일 : 신인무대(국립국악원 별맞이터) : 설장고, 정가 및 시조, 판소리, 해금산조, 가야금산조 및 가야금병창, 서도민요, 경기민요, 살풀이, 태평무, 남도민요, 사물놀이 등
  - 11월 1일 : 관현악과 전통연회(수원 야외음악당) : 관현악연주곡 ‘티울림’, 서도민요 협연, 경기민요 협연, 남도민요 협연, 우리소리 협연, 25현 가야금연주, 사물놀이, 소고놀이, 쇠놀이, 설장구 등
  - 11월 2일 : 타악의 어제와 오늘(수원 야외음악당) : 풍물, 두드락퍼포먼스, 리듬 파이트, 가위모리, 코리아 환타지 등

(3) 대한민국국악제 지원 자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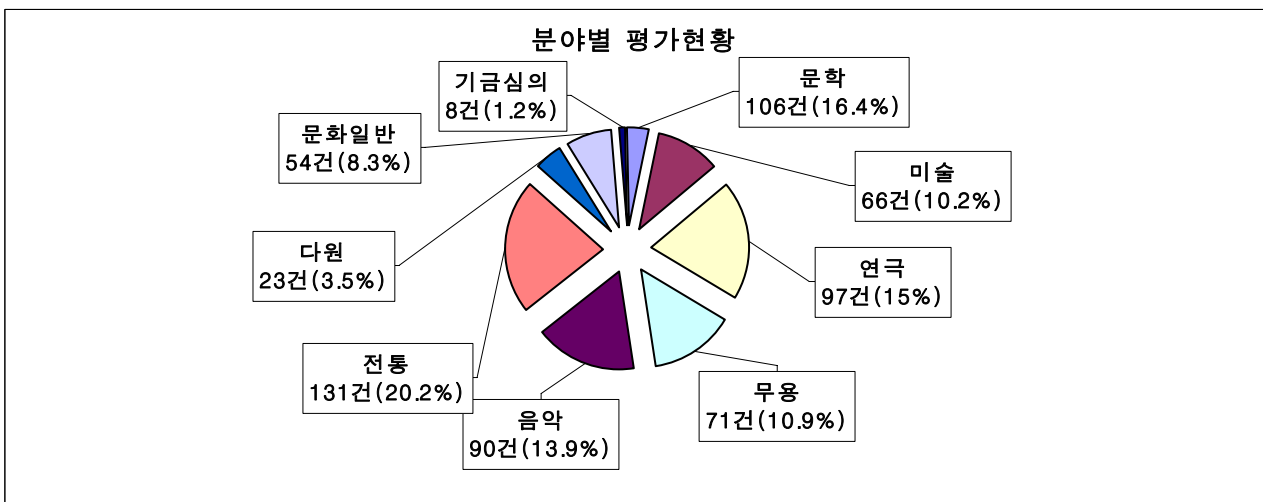
- 국악계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그 나름의 가치는 인정할 만함. 전공자나 관련 예술가 등의 호응도 높음. 그러나 앞으로 국악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에게 전통예술의 접촉기회를 넓혀주고 관객개발까지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임.

### 3. 분야별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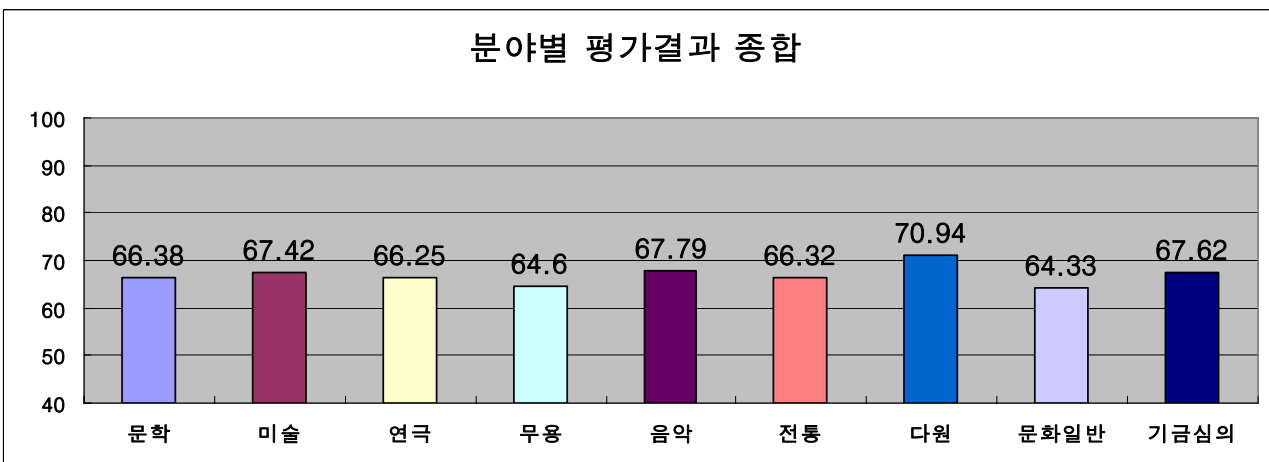
#### 가. 분야별 지원대상현황



#### 나. 분야별 평가현황



#### 다. 분야별 평가결과



라. 분야별 평가위원 총평

문학 분야 총평	평가위원
<p>전반적으로 지원단체가 일정 수준을 담보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오랜 지원방식의 진전에 따라 각 단체들은 나름대로의 행사 운용의 묘를 터득하고 있기에 종전과는 달리 기준 이하의 행사는 벗어나 있다.</p> <p>그러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단체처럼 치열한 현실의식과 심도 있는 연구 논문 등을 담보할만한 수준의 행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엄격성이 요청되기도 한다.</p> <p>특히 단체에 따라서 특정인이 단골로 등장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아예 1인이 진흥원 지원 각종 행사에서 2회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흥원 지원은 질적인 담보도 중요하지만 문학인에게 고른 시혜를 준다는 정책도 중요하다.</p> <p>예술의 향수 확대 문제는 거의 제한점에 이른 것 같다. 아무리 단체들이 이를 위해 동원력을 발휘해도 이미 후기산업사회의 대중은 외면하기 일쑤다. 앞으로는 추진 단체가 다른 언론기관과 일정한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p> <p>국제 심포지움은 철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 단체들이 해외 나들이용으로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소지도 없는 해외 문학인을 초청하여 행사용으로 뺨질하는 등의 예도 없지 않다.</p> <p>예술 보급의 대중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창작 의욕을 고무할만한 문학인의 단련을 위한 행사를 더 늘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중화와 보급은 앞으로 점점 도서관이나 지역 단위의 행정기관이 떠맡아야 할 과제이다. 말하자면 순수한 문학 창작과 연구 활동에 지원이 집중되었으면 싶다.</p>	<p>임현영</p>
<p>2003년의 문학분야 단위사업별 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술체험 참여활동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나 질량 면에서 매우 우수했고,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등은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사업주체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행사 내용의 편차가 없지 않았다. 문예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해서 지원사업의 외형적 규모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업 주체들이 좀더 의욕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찾아가는 예술 활동지원은 다른 부문보다 가치와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행사 내용이 우수해 보이진 않았다.</p> <p>문학 분야의 행사를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적 측면의 우수성과 완성도면에서 총평할 때 기획,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과 행사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행사 프로그램의 형식적 완성도를 볼 때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생각된다.</p> <p>기금을 지원한 문학 행사들의 전국적 분포와 파급효과를 종합해보면 학자, 비평가, 문인 등 해당 분야 관련 전문 인사의 현장 참여도와 호응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참여도를 볼 때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의 수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해당 지역에 문화적 기여도와 파급효과가 컸는가 하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넓히는 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해결방안은 평소 사업 주체와 지역민, 일반인들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문학 분야 지원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용 형식이 충실하고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문예진흥원과 단위사업의 사업 주체의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터넷 홍보 등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 <p>끝으로,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평가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의 실제 내용이 2가지 이상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복수 행사일 경우 모니터링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 만 모니터링하거나 여러 개의 행사를 모두 모니터링한 후 단 한번만 단위사업의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모델로 제시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가 등록과정에서 이 경우의 차별화를 시도하면 어떨까싶다.</p>	<p>김성수</p>

미술 분야 총평	평가위원
<p>1. 신진예술가나 창의적 지원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미래의 미술계를 이끌어 갈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003년도의 전시가 갖는 성과 역시 가장 강한 실험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질적인 담보를 위한 제도적 밀도를 더하여 보다 국제적인 작가지원이 절실하다. 그만큼 지원 그 자체에만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강구하는 부분적인 보완이 중요하다.</p> <p>2. 올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을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분야의 지원은 지원신청 자체가 너무나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선정과정의 지표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 아시아적인 정체성을 반영하는 지원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방안이 중요하다.</p> <p>3. 최근 대안공간들에 대한 지원이 차별화 되어 적지 않은 액수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전시단위로만 이루어졌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안공간들에 대한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여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p> <p>4. 공모전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미술대전, 사진대전 이외의 다수 전시는 이후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전면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수준의 작가 지원, 각 분야마다의 정예화 된 지원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이다.</p> <p>5. 평가부분에서 각 사안별로 심층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서를 종료 시 세미나 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당해연도, 다음연도 선정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방평가의 경우 출장비용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현실적인 조정으로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p> <p>6. 전반적으로 소수 정예지원의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도 긍정적이며, 이에 따른 심층평가제도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p>	<p>평가위원</p> <p>최병식</p>
<p>1.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은 보다 공공적 주제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공공적 창의적 사업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임. 2. 신진 예술가 지원도 예를 들면 소외 계층과 장애인 계층 등의 예술활동 참여 의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등의 구체적 목표를 위한 학력, 경력, 혹은 재산세 정도 등의 구체적 지원기준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3. 함께 하는 문화복지 지원은 굳이 필요한 개별 항목 이라기 보다는 전체 기금의 성격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보임.</p> <p>4. 통일문화 교류는 지원기금이 조금은 더 확대되어야하고, 지원대상의 기준도 보다 구체적인 범주들로 세분화돼 적용돼야 할 것 같음.</p> <p>5. 해외교류 지원은 지원 목표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혹은 한국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한 것과 해외교류의 활성화이되, 창작역량을 높이는 활성화인지 단순한 교류의 활성화인지등이 세분화되어 있어야한다고 봄.</p> <p>6. 예술 조사보존 차원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공공문화분야의 정책사업 등으로 중점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짐.</p> <p>결론 - 문예진흥원의 근본 목적사업이 대중 참여 민주주의 시대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문화예술계의 순수한 창작역량확대를 위한 지원이냐, 그렇지도 아니면, 문화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준(準) 국가정책적 차원의 문화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것이냐가 구분돼야 할 것 같다.</p> <p>이에 따른 지원대상도 매우 세분화되고 구체적이면서 그 요건기준이 범주화되고 분명한 지원대상의 기준개념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사후 평가 차원도 단순한 탐방평가만이 아닌, 지원금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주면서 법적 사후 처리 까지가 규정돼 있어야한다고 본다. 물론 이런 규정들은 심의위원이나 평가위원들에게도 해당되며 개별 위원들의 심의, 평가 소견과 전체 심사, 지원되기 까지의 모든 단계별 과정, 결과들이 공개돼야하고 공적 책임이 물어져야한다고 본다.</p> <p>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지원기금이 너무 창작, 신진역량, 기회강화 쪽에 주어졌다고 본다. 오히려 문예진흥기금은 공공목적사업분야에 대부분 주어져야한다고 봄. 현재 미술심의회 A, B팀에 할당된 지원기금은 그 반대가 돼야한다고 생각됨. 통일과 문화보존조사, 해외교류, 문화복지등에 기금의 80% 정도가 해당되면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여겨짐.</p> <p>창작과 신진의 경우, 지원결정시 매우 전문적이고 비평적인 관점에서의 작가인터뷰, 작품평가를 거쳐 지원효과를 계산한 이후 신진 작가들이나 신진단체들, 혹은 전시가 내건 공공주제의 중요성을 평가한 이후 주제만으로 결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봄.</p>	<p>강성원</p>

미술 분야 총평	평가위원
<p>2003년 미술부문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다고 본다.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각 미술 관련 단체들의 연례행사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신진미술가 발굴도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예술발전을 위한 문예진흥원 지원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p> <p>‘대안공간’이란 이름을 내건 기획자들의 기획형태 역시 ‘개인전’에 치우쳐 한국현대미술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예술과 대중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전시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중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한다.</p> <p>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초 기획자의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한 전시내용의 질적 수준인 듯 싶다. 이는, 대형화랑이나 국공립미술관의 초대형 기획전이 보여준 성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문예진흥원’ 협찬이 상업성 없는 전시들의 경제적 뒷받침 수준으로 그 의미가 격하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원신청서의 화려한 문장 속에 감춰진 기획자의 역량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p> <p>또한, 예술과 대중과의 소통, 대중의 예술체험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사의 경우, 기획자와 문예진흥원간의 사전 교감과 논의, 그리고 문예진흥원의 간접 참여를 통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개인 기획자의 역량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미술 관련 기관의 통합적인 참여를 유도, 대중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부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대안공간’ 지원과 신진예술가 발굴은, 경제적 열악함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술인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나, 지원 방식이 단조로운 편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안공간’지원시 개인전 형태보다는 기획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인전과 기획전 등으로 지원 유형을 이분화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신진예술가 발굴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좀더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p>	<p>김희선</p>

연극 분야 총평	평가위원
<p>1.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예술창작 활동 사업에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사업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p> <p>2.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지원서류와 크게 다른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는 서류를 보완시킬 필요가 있겠고, 현장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들은 차후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p> <p>3. 많은 극단의 경우, 지원을 받고 나서부터 사업의 특성을 연구하지 않고 장소와 사람들이 달라도 공연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극단의 양심에 관한 부분인데, 이를 바르게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단서는 현장평가뿐이다.</p>	<p>안치운</p>

페스티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안의 수준차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화동 1번지 동인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집단이었으나 3기 들어와 많이 약화된 것 같다. 작품의 수준차가 상당히 크다. 지난해 섹슈얼리티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권력유감전도 작품의 수준차가 심했다. 극단 가변의 ‘온에어 헬릿’과 극단 여행자의 ‘환’, 그룹동시대의 ‘아가멤논의 비극’이 눈에 띠었다. 가변의 실험성이 가장 돋보였으며, 극단 여행자의 ‘환’은 우수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여행자의 전작 ‘한여름밤의 꿈’ ‘미실’ 등과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작품이 2004년 LG아트센터라는 대극장 무대에 올라 어떻게 변신할지 주목된다. ‘아가멤논가의 비극’도 몸의 움직임은 강조한 작품전개가 인상적이었다.

지구극연구소의 연극페스티벌은 지구극 연구소의 연극목표인 러시아적 리얼리즘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진지한 노력만은 평가할 만 했다.

단막극장의 ‘유진오닐 단막극 페스티벌’은 열악한 극장환경에서 고전적인 단편을 드라마를 살려 기대이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극단 이와 삼의 창단공연인 ‘차력사와 아코디언’은 연극적 재미와 함께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희곡과 배우들의 연기가 칭찬할 만 하다.

국제페스티벌은 자리를 잡아가며 점점 더 수준이 높아가는 것 같다. 춘천마임축제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재미있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가족과 함께 갔는데 여관방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여름철로 옮겨 텐트촌까지 만든다면 한국의 주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희곡 번역 독회 및 심포지움도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진지한 한일 연극교류의 현장이면서 연극만들기의 가장 기본인 독회무대를 일반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연극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 뿌리박은 독특한 주제로 가능성있는 축제였던 남양주 야외극축제가 축제본부측과 남양주 시관계자와의 관계가 악화돼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다. 당초 5월 시작했어야 할 축제가 가을로 연기되는 등 과행적으로 치러졌다. 이 문제는 2004년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좋은 아이디어의 축제 하나가 좌초할 것 같아 우려된다.

이와 함께 배우협회의 악극 ‘여자의 일생’은 배우협회의 임원을 하고 있는 주요배우들을 쓸 수 없게 만든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배우들의 복지를 위한 공연이라지만 관객이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다.

김승현

관람평가한 건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힘들으나,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페스티벌의 성격을 지니면서 대학로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신의 극단을 어렵사리 운영하며 만들어 내는 젊은 30대 창작자들의 작품 역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년 동안 평가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진흥원이 지원하며 유도하는 정책방향에 비해 아직 우리 연극창작 경향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항목들을 볼 때, 이른바 대학로 소극장 공간과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종류의 수용자들과 만나야 하는 것들이다. 말하자면 일반 대중들의 연극 향수기회 확대, 연극 향수 능력의 향상, 연극 참여기회 확대 등의 정책방향이 이러한 지원 항목 설정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연극작품들은 이전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소극장 중심, 실내 중심이며, 아동극은 주로 유치원생 중심의 학령에 맞추어져 있고 작은 공간의 엇비슷한 발상의 작품들이다.

이영미

그런 점에서 애초부터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기획과 제작방향이 다른 작품들, 야외용으로 만들어졌거나 특정한 내용과 주제로 특화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아예 대학로 안에서 승부하려는 작품도 역시 성과는 좋은 편이다. 문제는 어중간한 작품들이다.)

정책방향의 좀더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서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였건간에, 기획방향에 맞게 제작된 작품 쪽에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순회공연적 발상을 벗어나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문화복지 역시 좀더 뚜렷한 기획방향을 보여준 것에 지원해야 한다.

무용 분야 총평	평가위원
<p>2003년도 무용 분야 지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적시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젊은층에 대한 지원은 실험성이 엿보이는 등 성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li> <li>2. 중견들에 대한 지원은 타성에 젖고 독창성이 떨어진 공연이 대부분이라 성과가 미흡하다.</li> <li>3. 연례 행사에 대한 지원은 타성에 젖은 기획으로 인해 성과가 미흡하다.</li> <li>4. 단위 사업들 사이에 균형을 기하여 충실한 공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li> <li>5. 행사 성격에 따라 지원액의 증감 등 적절한 지원 규모가 따라야 한다.</li> <li>6. 춤계의 타성에 젖은 공연 관행을 벗어나는 참신한 기획이 드물다.</li> </ol> <p>위에서 적시된 결과는 무엇보다 춤계가 매너리즘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의 성과 역시 그러한 매너리즘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p> <p>2003년도 지원에서도 지원 효과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춤 활용 영역의 확대, 안무가 발굴, 레퍼토리 재공연 등의 효과가 미약하나마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해외작의 초청도 지원 사업으로 일부 건설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지원 사업이 무용계의 문제점을 가중시킨다면 지원의 원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점이다.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처럼 일부 변화가 없진 않으나, 전체 지원 사업에서의 비중에서나 무용계에 가하는 과급력에서나 사실상 미미하다. 그러므로 타성에 젖은 사업에 대한 지원부터 배제하는 것은 무용 분야 지원 사업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사업이 춤계의 타성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타성을 벗어나고 그리하여 춤계가 타성을 벗어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무용 분야의 지원은 무용 공연의 양적 팽창에는 다대하게 기여한 반면, 질적 개선의 면에서는 별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은 2003년도 지원 사업에서도 재연되었다.</p> <p>지원 사업의 주축이 되는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에서 공연별 수준 차이가 격심한 데에다 타성에 젖은 공연이 대다수였으므로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나눠주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특히 이 부문에서 춤계의 중진들과 연관된 공연과 연례 행사 공연에서 그런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6개 분야 지원 단위 사업 가운데,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 사업과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의 성과에서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것은 신진 예술가 공연에 대해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p> <p>2003년도분의 지원 심의에서 지원 심의 인사의 인적 보완을 기해 지원의 충실을 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은 1) 기존 지원 방식의 수술, 2) 지원 선정 과정의 보완, 3) 새로운 지원 방식의 설정, 4) 새로운 지원 항목의 설정 또는 단위사업들 간의 균형 회복, 5) 지원 심의위원의 새로운 선임 방식 개발, 6) 지원 사업 평가 방식의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p> <p>더욱이 문예진흥원 지원 사업 외에 국고 지원 또는 서울시 지원 사업처럼 지원 환경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문예진흥원 지원 사업은 변별력을 강화하고 효과의 충실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수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연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공연을 제대로 소화해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행사 주체들이 지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여유를 갖지 않은 채 행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용 분야 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진흥원의 새 사업 항목을 설정하든가 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p> <p>2003년도 무용 분야 지원 사업을 총평하면, 지원 사업이 춤계가 타성을 극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의 효과는 미흡하였다. 춤계의 현수준이 문제인 점도 있긴 하나, 현수준에 대해 변화를 자극하고 현수준에서나마 시너지를 모으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p>	<p>김채현</p>

<p>- 신청 당시의 사업 계획서와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가 무척 많았다. 이는 사업 주체의 준비 부족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원자를 섭외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현장 평가 작업 결과가 지원심의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선정과 현장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한 사업당 최소 2인 이상의 현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p> <p>- 춤 소극장 지원 확대에 의해 젊은 무용가들의 춤 공연이 증가했고 다양한 기획공연도 생겨났다. 소극장 지원은 실질적으로 대관료의 부담으로 이어져 무용가나 무용단체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낳았다. 현재 한 곳의 소극장에만 머물고 있는 춤 소극장 지원을 서울 한곳 정도와 무용 활동이 활발한 지방 대도시(부산광역시)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p> <p>- 무용가나 무용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점차 탈피해 지방에 비어있는 문화공간(문예회관 등)과 전문 무용단을 상주 단체로 연결시키고 이에 대한 운영 경비를 지원 창작 활동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는 등 다목적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 새롭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p> <p>- 현재 공연 활동에 치우친 지원 사업을 교육 프로그램이나 저술 활동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유관 기관과 공동 사업 프로젝트를 시행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살린 지원사업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술 활동 지원의 경우 무용 부문은 춤 전문지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평론가들이나 무용가들의 저술 작업에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고 춤 전문지에 대한 지원액 중 일정 부분을 원고료 지원으로 한정, 비평 작업과 저술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p> <p>- 문예진흥원 차원에서 다양한 심의방안들을 도출하곤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인맥 챙기기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04년 심의결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 숫자를 줄이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무용가들이 심의위원의 3분의 2를 넘어가는 현재의 비율도 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인맥에 연계되어 있는 무용가들의 심의위원 선정을 줄이고 현장을 잘 알고 무용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평론가들이나 전문 언론인 등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p>	장광열
<p>지원 비중을 보았을 때, 창의적 예술활동 분야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진 예술가와 해외교류 분야, 그리고 나머지 세 분야가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비중이 큰 만큼 창의적 예술활동 분야에서 행사 진행과 작품의 수준 편차도 큰 편이었다. 수년간 예술성이 검증된 단체들의 경우 바람직한 성과를 보였지만, 그 밖에 연례 행사성 공연의 경우 질적 우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작품 홍보나 호응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다. 따라서 어느정도 지명도 있는 단체나 행사라고 할지라도 지원 대상 심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듯 하다.</p> <p>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분야는 신진예술가 분야이다. 젊은 무용인들의 열성과 가능성이 돋보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해 봄직하다.</p> <p>해외교류지원 분야에서는 창무국제예술제와 한일댄스페스티벌이 행사 나름대로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성실한 진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홍보가 미흡하여 관객 호응도가 약했다. 이외 행사들은 취지는 좋았으나 실행 면에서 뒤떨어졌다. 특히 서울 세계청소년 무용축제는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광화문 댄스 페스티벌 출연으로 이중지원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그에 대해서는 투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p> <p>서울/경기 지방 이외에서의 행사들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한국무용협회의 지방순회공연은 작품의 완성도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창원 공연의 경우, 극장 앞에조차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아 공연 여부를 경비실에 문의해야 할 정도였다. 지방 춤 단체가 서울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지원 정책이 필요할 듯 싶긴 하나, 그에 상응하는 기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거의 모든 단체의 결과물이 애초에 계획서에 제출했던 사항과 달라졌다는 것은 그 단체 뿐 아니라 정책상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 점을 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 평가 결과가 일목요연해지기 위해서는 수치로 매기는 방식이 효과적이겠으나, 그 밖의 비계량적 성과를 포함하는 종합평가의 반영률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이희나

음악 분야 총평	평가위원
<p>개별 단위 사업 중 창의적 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의 경우 창의성, 그리고 관객의 참여나 호응도 등에서 다소 취약한 면을 보여주었으나 예술적 완성도나 전문성은 양호한 편이었다.</p> <p>예술체험 참여활동지원, 함께 하는 문화복지지원 등은 사업의 취지에 좋고 나름대로 의의 있는 공연들이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구성과 다양한 기획이 요구되고 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공연 내용과 구성이 미흡하고, 홍보에도 성의가 없으며, 또한 연주자나 연주 단체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p> <p>개별 사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평가가 우선 필요하며, 이들 평가가 다음 지원심의회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기금 요청 단체들 또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기록들을 잘 정리해 차후 기금지원사업 평가 시 효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p>	정완규
<p>음악 분야는 전반적으로 기획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연의 목적이 불분명한 공연이나 무대 위에서의 만듦새가 영성찬 공연들이 있었고, 홍보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다.</p> <p>해외 교류 사업은 공연의 성취도가 가장 높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 데 따른 긴장감이 작용했다고 본다. 국내에서의 작업도 그만큼 성실성을 갖춰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p> <p>몇몇 사업들은 문예진흥기금 지원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합창제는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행사이고, 전문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한민족창작음악 축전도 통일 문화 교류 행사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연들은 행사의 성격을 수정을 하거나 사업 목표를 바꿔야 할 것이다.</p>	신동일
<p>한해 동안 현장평가를 다녀본 결과 공연의 수준과 성의가 단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차이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내용에 반영됐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올해 한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기술하겠다.</p> <p>여러 음악 단체들은 문화의 전달과 창조라는 차원에서 그다지 생산적인 해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국가의 문화창출 차원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동향들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정보수집 차원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까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TV에서 대중적으로 각광받은 공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청중들에게 별반 호감을 주지 못하는 공연들이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 지원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 <p>적은 수이긴 하지만 어떤 단체들은 그 수준과 양식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단체들은 올해의 현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단체들이 지닌 문제점이란 성실성 부족, 잘못된 엘리트주의, 기획력 부재 등이다.</p> <p>예술음악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공자와 대중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간격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안내서, 전문적 소양을 가진 친절한 해설가, 충분한 행사홍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p> <p>올 한해 현장평가를 행한 결과로 보면 창의적 태도, 외국의 새로운 공연 형태 파악, 청중을 대하는 친절하고 능숙한 태도 등이 보충되어야 할 점들로 나타났다. 물론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준 단체들도 있었고, 단체에 따라 수준과 발상의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엿보였다. 서울과 지방간의 차이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현장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많은 음악단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연행사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p>	이석렬

<p>2003년 음악부문 평가대상의 경우, 그래도 대부분 효율적이고 무난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연 주최측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관객에 대한 서비스나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긴장감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현 평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p> <p>단 평가자의 직업상, 우연한 기회에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된 단체들의 얘기를 듣게 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많은 경우 행사를 집행하는데 급급한 단체가 많고, 정작 공연을 홍보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개 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로 홍보에는 무심경한데, 그 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강조했으면 좋겠다.</p> <p>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이나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의 경우, 연주단체 자체가 사전 인식이 잘 되어있지 않고 그 노하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다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을 신청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예진흥원의 경우도 어떤 식의 소통방식을 고려해서, 연주단체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 장소를 효율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면 더욱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p>	<p>하지숙</p>
--	------------

전통예술 분야 총평	평가위원
<p>전통예술 분야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됨.</p> <p>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사업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다만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보다 선명한 기준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교육대상자의 수준이 고르지 못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은 현재 열악한 제도적 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전국적 규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역축제의 성격을 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부족, 기획과 진행의 미숙 등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 창작성이 강한 작품발표회의 지원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작품은 훌륭하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야 할 것임.</p> <p>몇 년에 걸쳐 시행된 지속적인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됨. 그렇지만 처음 지원되는 경우 오히려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예가 적지 않았음. 이를 볼 때 현장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사업내용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이행되는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p> <p>사업내용이 현저하게 계획과 다른 것이 증명될 수 있을 경우 적절한 제재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p>	<p>황투시</p>

<p>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의 예술적 완성도나 관객의 참여도 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몇가지 의견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예술의 전승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신인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li> <li>○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별도의 지원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li> <li>○ 문화재청이라든가 해당 지역 지자체나 기업체 등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중복 지원이 아닌가 한다.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li> </ul>	김기형
<p>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차세대 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 예술계의 스타로 급부상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음악인에게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대외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지원사업이다.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와 앞서하는 예술적인 마인드가 있는 젊은 음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p> <p>2003년도 문예 진흥 기금사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전통예술분야의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 보급 지원 사업이다.</p> <p>기획,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에서 볼 때 성공적인 지원사업으로 한국현대음악앙상블과 해금연주자 강은일, 그리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대를 잇는 예술의 혼- 명인의 후예들” 등을 꼽을 수 있다. 2003년을 돌아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문예 진흥 기금 사업으로 진행 되었다.</p> <p>하지만 계획서와 실제 사업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거나, 혹은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행사들도 상당부분 있었다. 예를 들어 (사) 강원소리진흥회의 지원사업은 사업 내용과 계획서상의 내용과 맞지 않은 단적인 예로 거론 될 수 있다.</p>	현경채
<p>○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한 형식적인 측면의 강화</p> <p>이번 하반기에 이루어진 전통예술분야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주취 측의 실행 의지나 그 결과면에서 우수한 사업이 많았다.</p> <p>그러나 일부 행사 운영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사업도 있는데, 이는 전통예술 분야의 사업이 공통적으로 갖는 취약점일 것이다. 행사의 기획에서 출연 그리고 진행까지 예술인들이 도맡아 하던 고질적인 관행과 예술경영에 관한 인식의 결여로 특정 사업에서는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때문에 예술경영 전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행사의 형식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지원사업의 지원 재고</li> </ul> <p>한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을 받아온 사업을 대상(주로 경연대회 형식의 사업이 이에 해당)으로 2년에 한번 혹은 3년에 한번 정도 의무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 기금지원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 단체의 안일한 자세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감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업 추진단체의 안일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질과 관객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적인 기금 지원을 위한 대안이 필요</li> </ul> <p>일부 기금지원 사업 중, 현장에서 실행된 사업의 내용과 지원된 기금 규모 사이에서 차이를 종종 보이고 있는데, 보다 실제적인 기금 지원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 신청안(특히 추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	유희경

다원 분야 총평	평가위원
<p>다원분야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절실한 대상이다. 기성의 무대와 공간에서 좀처럼 기회를 얻기 힘든 전위적인 장르를 포함해 실험적인 무대와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한 문화행사들이 다원분야이기 때문이다.</p> <p>올해 다원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들도 다원이란 광범위한 용어가 드러내듯 지역축제부터 소수문화축제까지 각양각색의 결과물을 망라하고 있다.</p> <p>다원분야는 지원대상의 심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관된 기준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특정분야와 달리, 다원예술은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르거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푸전장르라는 명목으로 아이디어로 무장한 발빠른 기획자나 단체들이 이름을 달리해 타분야와 더불어 중복지원을 시도할 여지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p> <p>내용에서는 새 시도를 내세운 결과물이 실험성 차별성을 내건 기획서의 내용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적지않으므로 심사 및 사후 평가의 역할이 강화돼야할 것이다.</p> <p>자칫 이질적 장르의 접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한 무대에 서는 공연에 그치거나 내용에서 특정분야와 다를바 없는 이름뿐인 다원을 걸러내기 위해 심사과정부터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겠다.</p> <p>또한 타분야와의 협업일 경우 대상층이 넓어지는 반면 불명확해지는 것인지 다원예술중에는 더 많은 대중에 파고들기 보다 오히려 주최측만의 축제에 그치는 경향도 적지않게 드러난다. 대중공연을 포함하는등 보다 젊은층이나 대중을 의식하는 분야임에도 실제 현장에선 광범위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다. 기획단계에서 행사의 개요 및 내용뿐아니라 행사를 널리 알리는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일깨우는 항목을 추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본다.,</p> <p>또한 사후 현장 평가를 통해 특정단체나 기획자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을 경우 일정기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심사 및 사후평가제도의 연계성을 확립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p>	<p>신세미</p>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적 시도는 각각의 지원사업에서 특색 있게 나타났다. 다원예술분야의 경우, 말 그대로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임과 동시에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예술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획은 우수하나 이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 1회성 공연들과 연속적인 공연들간의 진행의 차이가 드러났고, 처음 지원을 받은 사업과 다년간 계속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의 사업간에도 많은 수준 차를 느낄 수 있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제대로 표현된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협소한 장소와 미흡한 진행으로 단지 새로운 시도로만 만족해야 했던 사업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원예술분야가 가장 현대적이고 젊은 예술 분야임을 생각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여러 예술 장르의 혼합, 현대예술과 전통예술의 접목, 영상매체를 이용한 현대적인 예술 표현 등을 통한 예술활동의 시도는 독창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각각의 사업이 개성이 뚜렷하고 독특한 특징을 드러냈으며 구성 면에서도 감각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분야의 특성상 열악한 장소(무대공간의 협소, 관중수용의 문제 등)와 미흡한 진행(음향·조명의 문제 등)은 공연의 완성도를 떨어뜨렸고 조악하고 진부한 공연을 만들어내는 아쉬움을 낳았다. 내용이 기획서와 다른 경우가 많았고 사업의 일정과 장소가 공연 며칠 전까지도 확정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반면,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온 행사들의 경우, 기획과 운영 면에서 매우 안정적이었고 공연의 수준도 매우 높았다. 특히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의 경우 각각 공연의 수준 차는 있었지만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들을 하나의 행사로 묶어 즐길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새로운 예술과 대중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원예술분야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술 장르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원사업 중 우수한 사업들은 매스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고 홍보가 잘 진행되어 전문가들과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온라인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정보의 제공은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관객들이 행사 후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몇몇 사업의 경우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사의 일정이 변경되어 관객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지방행사의 경우 공연일정이나 교통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행사의 참여가 사전에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아 층을 형성해 나가면서 점점 대중성을 얻고 있다는 것은 다원예술활동 지원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새롭고 현대적인 장르인 만큼 지금까지의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다원예술분야의 경우 그 장르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존의 예술활동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기준에서의 평가가 요청된다. 우선 '다원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야 하고 지원사업평가에 대한 기준도 다른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원사업 선결과정과 선정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평가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지원사업단체들도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장르인 만큼 적극적인 노력과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지은



1. 지원사업 총평

1) 연간 평가대상 총 1,071건 중, 다원예술은 48건으로 전체 지원사업 중 비중이 낮은 편이다. 문학이 206건, 전통예술 187건, 미술이 112건, 무용 122건, 음악 119건 등과 비교할 때 그렇다.(현재는 다원예술 48건, 문화일반 95건을 합쳐야 타 분야와 비슷한 비율에 도달한다) 최근 문화예술의 개념이 확장되고 새로운 예술 및 매체실험, 장르간 융합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다원예술 및 문화일반의 지원이 강화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문화예술적 창조력을 높이는 길이다.

2) 다원적 예술활동 지원은 성과목표로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 쪽으로 더 많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다원예술은 상대적으로 시민(문화향유자)에게 안 알려진 분야다. 다원예술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궁극적인 이유는 소외된 문화활동이나 실험적 창작활동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주체인 시민들이 그러한 활동에 접할 수 있고, 수용할 만한 문화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인 지원방책으로도, 시민 문화수용자들이 다원예술 활동에 접근, 접촉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결국 다원예술이 활성화되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는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라든지 ‘홍보능력’, ‘시민의 호응도’ 등에 높은 비중을 두어 심사함으로써, 다원예술 지원단체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또 그러한 노력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3) 현장평가에서도, 웹사이트 및 홍보방안의 평가를 위한 툴(tool)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자(행사 담당자) 인터뷰, 웹사이트 파악, 그리고 행사(해당 지원사업) 한달 전에 지원대상자들이 현장평가자 및 모니터 요원에게(혹은 진흥기금사업 담당자에게) 준비과정과 대중적 소통을 위한 활동여부 등을 보고할 수 있는 등의 실질적인 평가근거들이 필요하다.

2. 사업내용의 우수성과 완성도

1) 가치중심의 평가- 독창성과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행사가 있었다. 하반기 행사 중에서 공공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이미지엑트는 전시 연출상의 독창성을, 라이브클럽페스티벌과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기획의 방향과 지향하는 바가 탁월하게 차별성을 보였다. 특히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경우는 지난 5년간 3단계에 걸쳐 추진목표와 가치를 성장시켜온 사례로 돋보인다. 구성면에서는 지하철예술무대 윈터페스티벌과 프린지페스티벌이 짜임새가 있고 돋보였다. 내용 면에서는 실험예술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보인 실험예술제와 미술의 선진적 경향인 공공성, 공동작업, 관람자 참여를 잘 보여준 왕산국제문화예술제를 꼽을 수 있지만, 다양한 뉴미디어를 갤러리 전시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한 이미지엑트, 일년간의 예술가들 중에 엄선하여 무대를 꾸민 지하철예술무대 등도 그 탁월함에서 모자람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2) 형식중심의 평가면

형식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관련해 볼 때, 실험예술제와 변방연극제는 여전히 행사의 진행에서 미숙함이 나타났다. 기획이 약하고 연출에만 집중하는 예술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수년에 걸쳐 프린지페스티벌 역시 많은 수의 자원활동가 그룹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게 되었지만, 규모가 커진 올해의 경우 이를 지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오히려 라이브클럽페스티벌은 클럽공연의 형태로 소박하고 안정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는 기초발상을 통해 매력적인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소한의 기획과 진행을 통해 무리없는 작은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가족공원의 현장 이미지 속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애초 의도한 왕산국제문화예술제라든지, 무용과 연극 등이 합쳐진 집중력 있는 공연형태를 제시한 카페드레인의 경우는 형식과 운영에 무리가 없었다고 보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홍보기획 등이 부족하여, 사람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면에서 미숙한 측면도 나타난다. 변(안이영노 계속) 방연극제와 실험예술제는 적은 수의 공연으로 많은 효과를 보려고 한 작은 축제로, 개별적 작품과 내용들은 참신하였고 전체 구성의 엮개는 짜임새가 없는 느낌을 주었다.

3. 지원목표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 파급효과: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구성의 짜임새나 실제 진행의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시도의 의미와 실험적 가치가 돋보였다고 추평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문화예술계

문화일반 분야 총평	평가위원
<p>문화일반 분야는 공연이나 문화 예술의 해외 교류, 보존 분야 같은 분야와 달리 주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일반에게 주어주는 문화 복지적 차원이나 수혜적 차원의 행사가 많다. 주로 문화 예술 작품을 가지고 찾아가 체험과 참여로 직·간접적으로 함께 하는 문화 사업이 주를 이룬다.</p> <p>2003년 문예지원금의 문화 일반분야에 지원을 받아 행한 행사의 사후 평가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문화 일반 분야 지원이 문화 수혜와 복지적 차원이므로 지원 받은 단체가 문화자체를 행하는 예술 단체라기보다는 문화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문화단체나 문화 기획자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과 문화 내용적 행위로 직접 만나기 보다는 문화 예술인들을 섭외하여 행사를 기획, 주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p> <p>1) 제대로 된 기획력과 올바른 문화 마인드가 없는 행사</p> <p>그럼 그런 지원을 받는 단체가 문화일반 지원 분야 특성에 맞게, 제대로 된 기획력과 문화적 내용을 섭외, 주관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단체인가? 평가해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와 단체가 많다. 예를 들면 어르신 영정 사진을 찍어 드리는 행사의 단체는 3시간의 행사 시간동안 10여명의 노인들이 다녀갔을 뿐이다. 홍보도 거의 안되어 있었고 장소도 노인들이 찾기 어려운 큰길 옆에 위치해서 길 건너편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었다. 편하고 안일한 기획력으로 행해진 행사였다. 품과 축제라는 지방문화 행사는 문화행사를 기획했다기 보다 관에서 주도하는 군민 위로 잔치 같았다. 거의 대부분 장소가 풍물시장으로 채워져 먹고 마시는 행사였고 품과춤 공연 그 자체도 연예인 공연 같은 분위기였다. 문화적 행사라기 보다 군민 위로 같았다. 이런 행사는 행사부 지원 사항이지 문광부 지원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 지원 내용을 보고 지원해 주기 전에 제대로 된 단체인가를 검증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p> <p>2) 기획의도와 맞지 않거나 기획력이 부족한 행사</p> <p>어떤 단체는 지원하는 의도와는 다르거나 행사 자체가 극히 빈약한 경우도 있었다. 지원을 받아 청소년 1일 문화체험행사와 직장인을 위한 정오의 예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행사내용자체가 지원이 필요 없는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행사였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서 일반인들이 대학로에서 즐길수 있는 정도의 금전(공연입장료)을 받으며 공연을 유지하면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적 돈벌이이다. 진정한 지원을 받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입장료를 안 받거나 낮은 금액만 받았어야 했다. 부유한 단체를 살찌우는 지원은 금해야 한다. 순수한 지원 기획을 이용한 금전적 행위를 하는 단체의 지원은 지원금의 순수의도와 맞지 않는다. 국립극장의 청소년 공연예술제 또한 지원을 받아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행사 아니라 예고 같은 전문예술인 청소년들의 발표행사로 일반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로 순수 대중을 위한 문예지원의도와는 맞질 않는다. 문예진흥원 지원사업과 동떨어진 사업은 평가를 통해 지원을 금해야 한다. 기획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여성의 자기표현 워크샵 행사의 경우는 좋은 의도의 문화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획은 부족했다. 행사 당일 날, 참여자는 10여명에 불과하여 홍보와 열의의 부족의 결과 같았다. 의도는 좋더라도 현실적 기획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은 기획력이 가능한 단체에게 우선 지원해 주어야 한다.</p> <p>3) 적극적인 문화행사(지역사회문화와 국제 교류)를 통해 지원 사업이 적절했던 문화 기획</p> <p>지원의도와 맞지 않는 기획 행사도 있었으나 문화예술의 내용을 십분 이용하여 지원 의도에 맞게 행한 행사도 많았다. 그런 단체들은 우선 문화컨텐츠를 직접 행위하는 단체이며 동시에 지역 사회에 문화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위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행했었던 단체들이다. 문화 일반 분야는 지역사회 문화 혜택이 중심 되는 지원 사업으므로 이런 지역 사회의 문화 수혜적 예술 컨텐츠를 잘 알고 단체의 행사 평가는 긍정적이었다.</p>	<p>김윤태</p>

(김운태 계속)충남 남부 민예총지부의 찾아가는 예술축제지원은 그 대표적 예이다. 문화혜택이 극히 적은 오지에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 작품을 그려주고 전시하고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케하는 행사였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도 성의 있는 작품성과 기획력으로 예술의 즐거움과 교육성을 훌륭히 치른 행사였다.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예술인이 참여하였고 행위도 마을 사람들이 직접 공연과 예술 작품에 아마추어으로써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는 등 긍정적 지원 사업이었다. 문예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이었던 프린지 기획의 넥스트 웨이브 페스티벌도 아시아 공연 예술팀들을 초청해서 다른 나라의 실험 공연을 통해 타성에 젖은 연극계에 각성과 대안을 제시해준 성공적 지원 사업이었다. 지하철 문화 행사인 레일아트 행사도 문화 예술을 지하철이라는 장소에서 대중과 만나서 예술이 특수계층이나 시간에만 즐기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가까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지원 의도에 맞는 기획 행사였다. 찾아가고 교류하는 문화행사는 특수 전문예술인이라든가 특수 전문 단체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 문화를 벗어나서 지역사회 문화성장과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적 다양화와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런 문화지원 행사에 걸 맞는 기획은 적극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 4) 복지적 문화혜택이 지원에 걸맞게 행해진 지원 사업

문화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 일반 지원분야는 여러 단체가 지원 의도에 맞게 복지적 성과를 이룬 사업도 많았다. 은평 천사원의 장애인문화 혜택 사업은 문화의 영역을 소수의 문화행위자와 수용자의 범위를 넘어서 문화가 모두가 모든이에게 어떤 형태든 혜택을 나누어야 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이 정신장애자인 은평천사원 사람들이 문화 답사를 하고 대중가수가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같이 즐기고 문화행사(장애인을 위한 쇼셜 파티)를 통해 정상인과 같이 문화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 행위되어 소수를 위한 엘리트 문화가 아닌 진정한 문화가 공동의 사회에 해야되는 역할의 한 예를 잘 보여주는 지원 사업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문화제도 장애인을 문화행사를 통해 사회로 나오게끔 하고 자기의 능력과 표현적 욕구를 문화를 통해 표출케하는 적절한 행사였다. 외국인 노동자 문화 예술 행사 지원도 비록 수혜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지만 문화 만민주의의 정신에 맞는 적절한 문화 복지 지원이었다.

#### 결론

문화일반 지원 분야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의 콘텐츠를 직접 행위하는 단체나 기획사 보다는 그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지방의 일반인들과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복지적 영역이다. 지원은 그 목적을 잘 기획 행사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 지원의 평가는 그런 목적에 맞게 기획을 얼마나 잘하고 실제적 행사를 하는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더러는 뛰어난 기획력과 성실한 노력,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진 단체나 개인의 노력이 있어 문화일반 분야의 지원이 의미가 빛났으나, 불성실하고 기획력의 부족으로 지원이 아까웠던 단체도 있었다. 계속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서 올바른 지원과 그 성과가 계속됐으면 한다.

문화일반 평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단체들의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주로 주말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문화의 창달과 보존, 보급과 향유의 현주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종합적인 평가 의견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본다.

1) 2003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문화일반 분야 사업 선정은 충실히 잘 되었는가?

이 정도면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년간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된 바 있는 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떨어지는 사업체의 사무실을 방문, 총무와 대화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너무 적어서'라는 답변을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설 사업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단체에 몇 회 이상 지원이 가지 않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2) 우리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계 최고인가?

우리 문화 중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판소리, 사물놀이, 탈춤, 북춤, 종묘제례악...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층과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들을 우리 문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역주민과의 유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은 홍보의 문제이다. 선정된 사업체가 홍보에 신경을 썼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마련이다. 몇 개 단체에서 주관한 마을 축제에 가보았는데 그곳 지역주민들과 잘 어울려 행사를 원활히 이끌어가는 단체가 있는 반면, 아주 주민 참여도가 낮아 썰렁한 행사를 하는 단체도 있었다. 불박이 지역주민이나 이동이 심한 도심 사람들이나 문화 향유의 주된 계층이 될 수 있다. 그들을 위한 보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4) 문화일반의 여러 사업이 놀자관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년에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마을 축제가 대단히 많아졌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장사치들이 난전을 벌인, 즉 주객이 전도된 마을 축제를 주관한 단체에 후원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건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기금이 가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단체를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5) 지역적 안배가 잘 되고 있는가?

문화일반분야 역시도 중앙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강원도, 제주도 및 몇 군데 큰 섬에서는 사업을 기획해도 선정이 안되었던 것일까? 광역시별, 도별 분포를 조사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이 문제는 평가위원의 발품이 문제될 수 있다.

이승하

총평에 앞서 전체적인 사업단체들의 행사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에 따라 내용과 진행 면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03년 문화일반 지원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문화체험을 통한 교육형식의 프로그램의 성과이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멀게만 느껴지는 문화/예술활동을 체험 학습을 통하여 잠재되어있는 자신들의 독창성과 개성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관객과 주체자의 입장을 바꾸어보는 상호 이해관계 차원의 발전 실효성의 좋은 기회이며,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형성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의의가 크다.

반면, 훌륭한 행사의도와는 무관하게 행사 기획과 진행의 미숙함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들어 나고 있다.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실제 행사진행의 내용이 상이한 사례와 기본 관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행사진행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미 전국 단위의 왕성한 활동을 주도 하고있는 예총/민예총의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금 소진을 위한 다급한 일정으로 일관하는 모습도 보여졌다. 행사당일까지 주체자가 행사장소와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흡입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관객 없는 공연과 공연을 위한 공연으로 형식적인 행사로 머무르는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획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행사 준비에 따른 주체자의 사업진행에 따른 관리 소홀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홍보/진행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행사내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는 분명 심각한 부분이다. 문화일반의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다각적 노력이 보여지는 단체도 있으나, 지원 금 수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적 발상의 가벼운 진행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사업은 엄격한 심사로 분리하여 '문화일반'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하겠다.

아울러, 현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일행사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의 사업일 경우 그 내용과 사업충실도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 한번의 현장평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원사업일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복합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진향

### III. 경영개선 평가

### III. 경영개선 평가

## 1.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평가 결과

문예진흥기금 운용(경영, 진흥사업, 자금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2003년 4월 기획예산처에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관광부 산하 기금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고 평가 대상 전체 40여개 기금 중 최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경영개선 총평】

문예진흥기금의 중장기 비전은 기금설립 목적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전략 역시 실천목표와 추진과제별로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상당히 실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사업구조 및 예산체계의 개편, 사업운용체제 개선 등 경영효율화에 진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가시적 성과도 이룬 것으로 판단됨.

기금조성원이 타 기금에 비해 다양하며, 비교적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사업비 모두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여유자금운용 및 재원조성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음. 기금수요 및 재원조성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지자체들의 문화활동예산 증대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 문화수요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합리성과 현실성이 다소 떨어짐.

평 가 지 표	배 점	등 급
<b>1.1. 경영혁신 및 조직·인력관리의 적정성</b>	<b>30</b>	<b>23.0</b>
1.1.1 기금 운용방향의 적합성 및 경영혁신 노력	18	13.1
1. 중장기비전과 운용전략의 적정성	5	B
2.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 효율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	5	B+
3.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8	C
1.1.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12	9.9
1. 관리조직의 규모와 구조의 적정성	8	B+
2. 관리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부평가·보상시스템의 합리성	4	B
<b>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b>	<b>20</b>	<b>15.5</b>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0	8.1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5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5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7.4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5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5	C
<b>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b>	<b>50</b>	<b>37.2</b>
1.3.1. 사업운영성과	30	23.2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sup>1)</sup>	5	C+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15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10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20	14.0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10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10	C+
<b>합 계</b>	<b>100</b>	<b>75.7</b>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 0.4069

### 【사업운영 총평】

본 기금의 세항사업은 문화예술창작활동,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교류사업, 예술의 보존과 계승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각 세항사업에 있어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은 대체로 인정됨. 사업목표에 따른 기대효과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소 주관적 평가가 가미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기대효과는 달성되었다고 판단됨. 지원사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국민모니터링 평가는 운용기금 수혜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니지만 사업내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평가체제라고 인정됨. 문화예술활동이 의미하는 범위의 확장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같은 세항사업 내에서도 이질적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기금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설문항목을 통해 기금운용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는 전체 기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사업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2410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b>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b>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b>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b>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2420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평 가 지 표	등 급
<b>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b>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C+
<b>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b>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2510 문화예술교류사업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b>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b>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b>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b>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2520 | 예술의보존과계승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b>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b>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C+
<b>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b>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자산운용 총평】

본 기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금융기관 선정관리, 상품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평가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투자자문계약 활용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산운영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단기자산의 비중을 총운용금액의 20% 이내로 억제하여 장기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3년 이상의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 장기투자자산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중장기 투자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었음.

현금성자금 보유비율을 월 평균 지출 규모에 연동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현금성 자산 보유를 초래하고 있음. 이보다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 또는 계획과 실적의 차이에 연동을 시키면 현금성 자산 비중을 낮출 수 있을 것임.

전체 기금의 중장기 자금수지 추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목표수익률을 상품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나누어 목표수익률을 구분 산정하고 타겟 포트폴리오를 설

정 운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중장기 자금추계를 실시하여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이 발행한 3년이상 만기의 채권 등 장기운용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금자산운용 전담직원은 2인(팀장 제외)으로서 운용업무와 백-오피스업무(운용계좌잔고 및 출납관리,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평 가 지 표	비 중	등 급
<b>2.1. 자산운용실적 (계량지표)</b>	<b>20</b>	<b>16.3</b>
2.1.1.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4	B+
2.1.2.-1 연중운용자금평균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2	B
2.1.2.-2 현금성자금 지출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2	C+
2.1.3.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3	B+
2.1.4. 연기금 투자폴 활용정도	3	C+
2.1.5.-1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	3	B
2.1.5.-2 중장기자금의 샤프비율 (Sharpe Ratio)	3	A+
<b>2.2.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b>	<b>20</b>	<b>17.0</b>
2.2.1. 단기자금운용정책의 적정성	10	B
2.2.2.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	10	A
<b>2.3.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b>	<b>25</b>	<b>20.1</b>
2.3.1.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15	B
2.3.2.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적정성	10	B+
<b>2.4. 중장기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b>	<b>35</b>	<b>27.1</b>
2.4.1. 중장기자금 운용관리체계의 적정성	15	B
2.4.2.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10	B+
2.4.3.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의 성과평가	10	C+
<b>합 계</b>	<b>100</b>	<b>80.5</b>

## 2. 2003년도 경영혁신 과제별 연간 추진실적

코드	과제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①	기계획된 경영혁신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②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2-1 (부분완료)	○조직 재설계 - 조직·인력진단을 통하여 현행 분야별·장르별 조직을 목표별·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03.9	○조직·인력진단 - 기본계획수립: '03.3.18 - 문예진흥행정혁신위원회 구성: 원내 2인, 원외 2인('03. 6월~10월) -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계약체결('03.6월) -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 결과('03.11월) 검토 및 세부 시행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추진완료시기: '04. 2/4분기
2-2 (완료)	○교육훈련기능의 강화 - 직원 의무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중장기 교육개선 종합계획 수립 추진	'03.12	○직원교육개선 종합계획 수립('03.12월) - 노사 교육실무소위원회 구성('03.3월) · 직원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 개선(안) 마련 등('03.4월) - 연간 주요 직원교육 실시 · 어학: 54명/ 5,771,331원 · 직무: 16명/ 4,618,833원 · 대학원: 11명/ 17,933,000원 · 예술소양: 2명/ 104,000원 · 기타: 83명/ 7,847,965원 ○추진완료시기: '03. 12월
③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3-1 (완료)	○유급휴가제도 개선 - 연월차 지급을 하향조정	'03.3	○유급휴가제도 개선 - 연월차 지급을 하향조정 노사합의('03.1월) · 당초 : 평균임금x1.5/184x8시간x미휴가일수 · 개선 : 평균임금x1/184x8시간x미휴가일수 ○예산절감 위해 연월차수당 지급시 휴가사 용 15일 의무공제 노사합의 ○예산절감 : 139,430,572원 ○추진완료시기: '03. 3월

코드	과제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b>[4]</b>	<b>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b>		
4-1 (부분완료)	○ 권한·책임 명료화 및 하부 위임 - 위임전결내규 하부위임 확대로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 능률성 제고	'03.9	○ 위임전결내규 일부 개정 추진 - 대관 유희일정 의사권한 조정 · 대관변경 : 사무총장→ 부장 · 유보일정신규대관 : 사무총장→부장 ○ 향후 조직·인력진단 결과에 따른 위임전 결내규 확대 추진 ○ 추진완료시기 : '04. 2/4분기
4-2 (완료)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신청 인터넷 접수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일부 지원신청서 인터넷 접수 및 관련자료 DB구축	'03.12	○ '04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일부 인터넷 접수 완료 - 대상사업 : 신진예술가지원, 예술자료정보화 및 보급지원 - 접수기간 : '03.10.1-10.31 - 접수건수 : 신진예술가(286건), 예술자료정보화(90건) - 심사일 : 해당 분야별 사업 일정 에 따라 12월중 실시 ○ 추진완료시기 : '03.10월
<b>[5]</b>	<b>대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영투명성 제고</b>		
5-1 (완료)	○ 국민제안참여센터 구축·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참여센터 설치 운영으로 - 국민의 문화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등의 참여 기회 제공	'03.12	○ 국민제안참여센터 운영 - 기본계획(안) 수립 : '03.4.10 - 운영기간 : '03.3~12월 - 총제안과제 : 12건('03.12월현재) - 제안대상과제 : · 문예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 '04 신규사업 및 사업개선방안 · 지원심의제도 개선 방안 등 - 향후 우수과제 발굴 포상 실시 ( '03.12월중) ○ 추진완료시기 : '03.12월
5-2 (완료)	○ 국민이용시설 안전관리체제강화 - 우리 원 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 문화예술연수원 등 다수 국민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03.12	○ 국민이용시설안전관리추진 ■ 예술극장 - 비상재해대책 추진계획수립: ( '03.4.1) · 비상시 대피요령 안내멘트 마련 · 비상대피반편성 및 행동요령 숙지 등 ( '03.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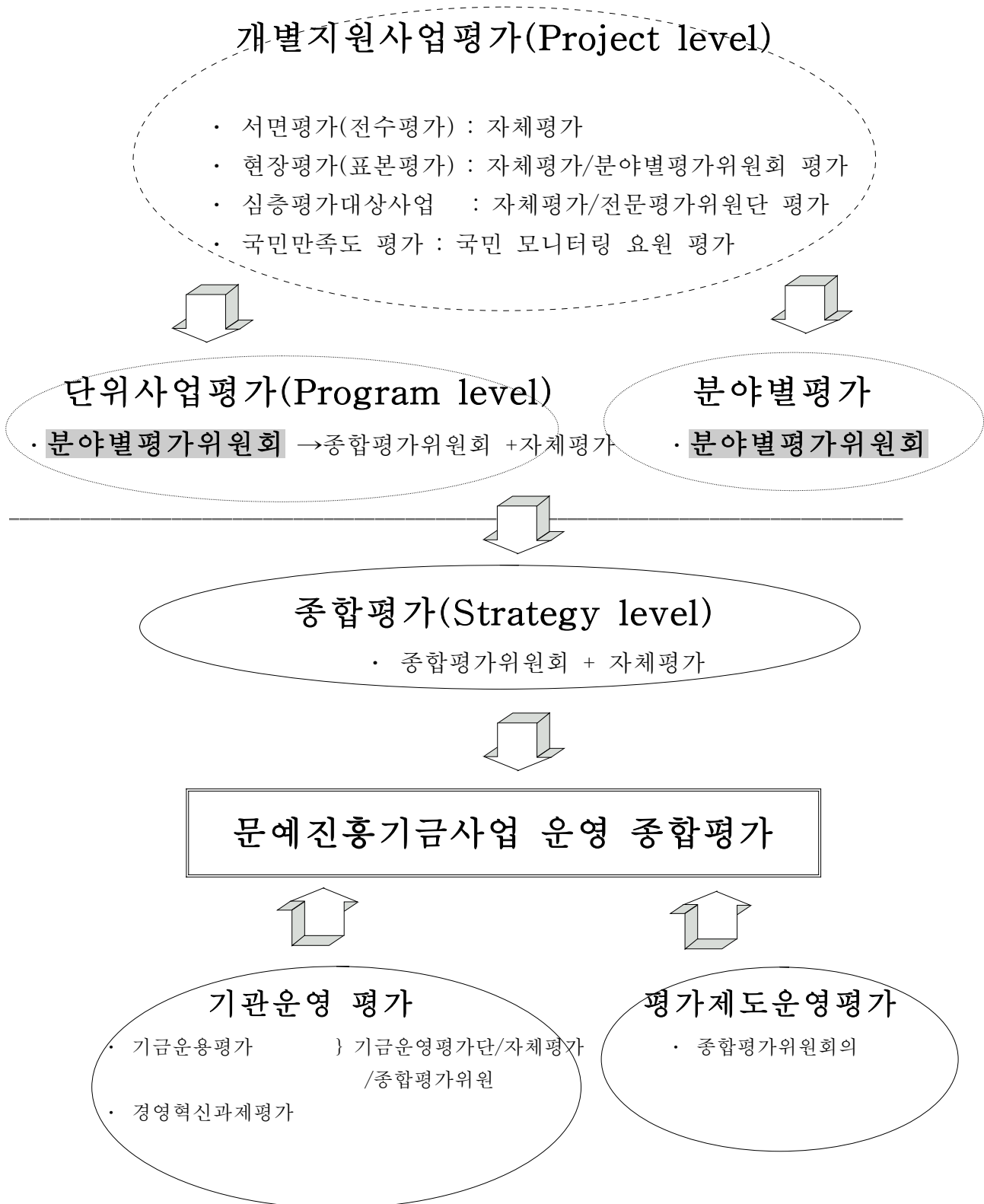
코드	과제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5-2 (완료)		'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로니에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03.2.14)</li> <li>- 사회교육프로그램교육생 상해보험 가입('03.4.1)</li> <li>- 안전관리교육실시('03.6.10)</li> </ul> </li> <li>■문화예술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재해대책추진계획 수립: ('03.2.5)</li> <li>- 안전관리교육실시('03.1~12월)</li> <li>- 일반 시설물보수공사 실시 ('03.6월,10월)</li> </ul> </li> </ul> <p>○추진완료시기 : '03.12월</p>
5-3 (완료)	<p>○국민이용시설 불편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원 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 문화예술연수원 등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li> </ul>	'03.12	<p>○국민이용시설 불편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객리포터제도 운영을 통한 관객불편사항 개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포터수 : 17명</li> <li>· 제출건수 : 285건</li> <li>· 개선사항 : 어린이놀이방 설치, 자동우산포장대 설치 등</li> </ul> </li> <li>-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03.12.10~12.31</li> <li>· 설문지회수건수(예상):500건</li> <li>· 내용: 예술극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인지도 등</li> </ul> </li> </ul> </li> <li>■마로니에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관람객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03.3.25~4.21</li> <li>· 설문대상: 500명</li> <li>· 내용: 전시관람 및 공원 이용실태 등</li> </ul> </li> <li>- 자체 기획전시기간 중 도슨트 운영 정례화 추진(총 125회)</li> </ul> </li> </ul>

코드	과제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5-3 (완료)		'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자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관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li> <li>· 기간 : '03.11월~12월</li> <li>· 대상 : 207명</li> <li>· 내용: 자료, 시설, 기자재, 열람환경, 친절도 등</li> </ul> </li> <li>■문화예술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기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li> <li>· 기간 : '03.3월~12월</li> <li>· 대상 : 장·단기 연수생 700여명</li> <li>· 내용 : 연수프로그램별 연수시설, 연수원 운영 등 만족도 조사</li> </ul> </li> </ul> <p>○추진완료시기 : '03.12월</p>
<b>[6]</b>	<b>책임경영체제 및 성과관리시스템 강화</b>		
6-1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도 평가기준개선, 다면 평가제도 확대 강화, 인센티브반영, 목표관리제 정착</li> </ul> </li> </ul>	'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도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확정('03.3월)</li> <li>- 목표평가서 평가('03.12월)</li> </ul> </li> <li>○ 성과목표 수립 및 목표달성도 평가 기준 개선('03.3월)</li> <li>○ 다면평가제도 확대 강화 수립('03.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직원평가단(10~15명) 구성에서 전 직원 평가참여로 개선 추진</li> </ul> </li> </ul> <p>○추진완료시기 : '03.12월</p>
6-2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자율경영체제 강화</li> <li>- 문화예술계 인사 참여 폭 확대 및 중요안건 심사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li> </ul> </li> </ul>	'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운영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이사진 구성 : '03.4.30</li> <li>- 주요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03.5.20, '03.5.21(2회)</li> <li>· 안건: '04기금운용계획(안)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사업별 내역 검토 심의</li> </ul> </li> <li>- 정기이사회 확대 실시 (연4회→연7회)</li> <li>- 현안사항보고 등 자문회의 수시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및 모금액지에 따른 신규재원 확보 등 5회 실시</li> </ul> </li> </ul> </li> </ul> <p>○추진완료시기 : '03.12월</p>

## IV. 평가제도 운영평가

## IV. 평가제도 운영평가

### 1.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추진 체계



## 2.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추진 방안

### 가. 중점 목표

- 목표 지향적 성과관리 체제에 부합된 심사평가제도의 지속 정착
-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의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
- 효율적·체계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및 지원심의 반영
- 적극적인 기금사업운영 및 기관경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

### 나. 주요 추진 방침

- 본격적인 심사평가 3년차를 맞이하여 동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완·개선하되, 전년도에 기본 계획과 그 성과 틀을 유지 함.
- 종합평가위원회는 2003년도 지원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원 심의결정과 성과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연간 지원의 책임성을 확보 하고, 성과목표별 가중치 도입으로 일관성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 함.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평가에 국민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만족도 평가의 효과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제도(일반모니터링요원 및 전문모니터링요원으로 구분)를 운영 함.
- 개별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 시 지원사업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서면평가'와 실사에 의한 '현장평가'의 비율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0:60으로 유지하되,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평가결과를 평가에 직접 반영 함.
- 전국규모사업 및 주요 계기성 사업 등은 해당 팀에서 주관하여 전문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기금심의회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함.
- 지원심의 등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 및 기관경영에 심사평가 결과가 최대한 실질적으로 피드백(feed-back)될 수 있도록 함.

다.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구성(2003년도 분야별 평가위원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

가) 2003년도 분야별 평가위원

분야 (인원)	성명	성별	생년	현직 / 주요 경력	관련 경력사항	비고
문학 (2)	임현영	남	1941	· 문학평론가, 중앙대교수	03분야별심의위원	
	강웅식	남	1960	· 문학평론가, 고려대교수	02분야별평가위원	
미술 (3)	최병식	남	1954	· 미술평론가, 경희대 교수	03기금심의위원	
	강성원	여	1955	· 미술평론가	02분야별심의위원	
	최석태	남	1959	· 미술평론가	신규	
음악 (3)	정완규	남	1957	· 음악평론가, 중앙대 교수	03기금심의위원	
	신동일	남	1965	· 예종강사, 작곡 및 음악이론	신규	
	이석렬	남	1962	· 음악평론가	02분야별평가위원	
무용 (3)	박일규	남	1953	· 현대무용가, 서울예대 교수	03기금심의위원	
	김채현	남	1954	· 무용평론가, 예종무용원교수	신규	
	장광열	남	1958	· 무용평론가	02분야별평가위원	
연극 (3)	안치운	남	1957	· 연극평론가, 호서대 교수	03기금심의위원, 02분야별평가위원	
	김승현	남	1961	· 문화일보기자	02분야별심의위원	
	이영미	여	1961	· 연극평론가,	신규	
전통 예술 (3)	황루시	여	1951	· 민속학자, 관동대 교수	03기금심의위원(민속)	
	현경채	여	1960	· 작곡가(국악방송 진행자)	02분야별평가위원(국악)	
	김기형	남	1962	· 고려대교수	02분야별평가위원(민속)	
다원 예술 (2)	신세미	여	1956	· 문화일보 대기자(미술전문)	03기금심의위원	
	안이영노	남	1966	· 문화평론가	신규	
문화 일반 (2)	김윤태	남	1960	· 단국대교수	신규(예술교육)	
	이승하	남	1960	· 중앙대교수, 문학평론가	02분야별평가위원(문화 일반)	
참고) 종합 평가 위원 (10)	임현영(문학), 최병식(미술), 정완규(음악), 박일규(무용), 안치운(연극), 황루시(전통), 신세미(다원), 김윤태(문화일반) 등 분야별 1명					
	정갑영	남	1954	한국문화정책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신규	
	구광모	남	1942	중앙대학교 행정학(문화정책) 교수	신규	

나) 2003년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

분야	성명	성별	생년	현직 / 주요 경력	비고
문학	김성수	남	1959	· 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 문화관광부산하 문화관광정책연구소 통일문화정책 포럼위원 · 성균관대 국문학 박사	
미술	김희선	여	1967	·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 전 중앙일보사 월간미술기자	
음악	하지숙	여	1973	· 서울대 음대 음악학 석사 · 현, KBS 음악실 구성작가	
무용	이희나	여	1977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예술 전문사 · 현, 무용전문지 월간 <몸> 객원기자	
연극	송현옥	여	1961	· 현, 서경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 전 <공연과 이론의 모임> 연구분과장 · 고려대 영국드라마 박사	
다원예술	김지은	여	1977	· 고려대 불문학과 · 현, 서울대학원 공연예술 협동과정(평론, 무대미술 전공예정)	
전통예술	유희경	여	1965	·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정책 전공(문학석사) · 2002년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전통예술분야 평가위원	
문화일반	이진향	여	1969	· 프랑스 렌스 국립보자르 Communication 학과 석사 · 전 렌스 시립 미술관 근무 · 현, 프리랜서 시각 디자이너	

2) 역할

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중 단위사업평가 및 분야별 평가

나) 각 위원별로 분담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현장평가)

라.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1)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가) 종합(Strategy level) 평가

- (1) 중점 정책목표의 타당성 및 종합 달성도
- (2) 문예진흥사업의 구조와 운영, 지원관리체계의 적정성
- (3) 분야간, 핵심역량사업간, 4대 목표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나) 단위사업(Program level) 평가

- (1) 계획 수립 단계 : 14개 핵심역량사업의 목표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 (2) 추진 단계 : 추진(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 (3) 종결 단계 : 목표의 종합 달성도와 사업의 효과성

다) 개별지원사업(Project level) 평가

【 개별 지원대상 사업 평가 】

- (1)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계획 대비 실적 등)
- (2)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3)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4)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 4대 지원 목표별 평가가중치를 차등 적용 함.

【 전체 지원사업 - 국민 만족도 평가 】

- (1) 일반 국민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문화)적 만족도
- (2)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 해당 성과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만족도

2) 기관운영평가

가) 기금운용 평가 결과 보고

- (1)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결과(경영개선·사업운영부문/자산운영부문)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한 평가결과 보고
- (2)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에 보고

나) 경영혁신과제 평가

- (1) 2003년도 기관 경영 혁신 과제 평가
- (2) 경영기획팀에서 경영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자체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 반영

3) 평가제도운영평가

가)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

나) 평가제도 운영 목표의 달성도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

### 3.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심사평가 추진

## 가. 종합 평가 중점 착안사항

- 1) 지원목표(성과목표)별 전체 사업내용의 우수성과 완성도 종합평가
- 2) 지원목표(성과목표)별 문예진흥기금의 이념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종합평가
  - 문예진흥기금의 이념 :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
- 3)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종합평가
  - 해당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종합평가

## 2. 종합 심사 평가

☞ 붙임1 '서식'에 따라 각 지원목표별로 작성

※ 참고사항)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4대 지원목표 및 14개 단위사업 명

단 위 사 업(지원유형) 명	지원목표(성과목표)
가)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나)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다)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라) 신진 예술가 지원	
마) 관객개발 지원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바) 찾아가는 예술 지원	
사) 예술 체험·참여 활동 지원	
아)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자)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
차)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카)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예술의 보존과 계승 지원
타) 예술 보존·조사 연구 지원	
파)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존·보급 지원	
하)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 지원	

#### 4.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표

※ 평가 항목별 배점

- 개별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 총 40점, 현장평가 총 60점으로 함.
- 현장평가의 경우, 지원목표별로 평가 가중치를 적용
- 현장평가 항목별 배점 총괄

평가항목	지원목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8	18	24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8	30	30	24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2	12	12	12
계		60점	60점	60점	60점

#### 5. 심사평가 대상사업 현황 분석

가. 종합 평가 실적(2003.12.31일 기준)

1) 평가 대상사업 선정

- 가) 서면평가 : 전 지원대상사업 1,070건
- 나) 현장평가 : 표본 추출(sampling)한 지원대상사업 258건

2) 종합 평가 실적

가)분야별 기준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연간 평가 대상	종합
206	106	112	66	131	97	122	71	119	90	187	131	48	23	95	54	23	8	1,070	646

나)단위사업(지원유형)별 기준

구분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 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활 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예 술 체 험 · 참여 활동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통일민 족문화 교류지 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예술보존 · 조사연 구지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존·보 급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승 · 보급지 원	계
종합 평가 건수													
연간 평가 대상 건수	189	5	23	22	64	90	32	22	68	27	3	101	646
	315	20	48	60	79	119	48	29	98	63	15	149	1,070
비율(%)	60	25	48	37	81	76	67	76	69	43	20	68	60

다) 국민(일반)모니터링평가 실적

(단위: 건)

건)

구분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다원적 예술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예술 체험·참여 활동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통일민족 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송·보급 지원	계
건수											
연간 모니터링 대상	107	18	17	22	33	6	5	20	9	53	290
	178	38	28	62	86	29	12	38	29	114	614
비율(%)	60	47	61	35	38	21	42	53	31	46	47

\* 국민모니터링평가 총 횟수는 1169회로서 290건 각각에 대하여 평균 4명이 수행

라) 참고 : 연간 평가 대상사업 건수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단위:건)

구분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지원대상 건수	206	112	136	122	126	187	48	100	33	1,070

□ 현장평가 대상사업

(단위:건)

구분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 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예술 체험·참여 활동 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통일민족 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존·보급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송·보급 지원	계
건수													
연간 지원 대상	60	0	17	14	23	34	17	9	30	13	0	41	258
	326	32	48	60	84	119	48	29	98	63	15	149	1,071
비율(%)	18	0	35	23	27	29	35	31	31	21	0	28	24

□ 서면평가 대상사업

(단위:건)

구분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 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예술 체험·참여 활동 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통일민족 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존·보급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송·보급 지원	계
건수													
연간 지원 대상	325	32	48	60	84	119	48	29	98	63	15	149	1,070
	325	32	48	60	84	119	48	29	98	63	15	149	1,07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계량적 지원 실적  
(2003년 12월 31일 현재, 지원대상단체가 제출한 568개 지원사업의 성과결과보고서에 기초한 추정치임)

구분	계
실 지원총액	5,972,500,000원
독자 및 관람객수	4,399,684명
창작작품수	9,246작품
발간 종수	508종
발간 부수	1,061,910부
참여예술단체수	2,821개
참여예술인수	52,143명
참여예술행정인 수	6,890명

## 6. 평가결과 반영 실적

가. 심사평가 결과 반영 대상

- 1) 평가반영대상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단체(개인) 중 2003년 11월 30일까지 현장평가/서면평가의 등록이 끝난 단체(개인)
- 2) 2002~3년 누적평가현황(2003.11.30 기준)
  - 총 누적평가단체수 : 1114개
  - 총 평가반영단체수 : 587개

나. 심사평가 결과 및 반영

- 1) 평가등급 책정 기본 원칙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사후평가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2002년 평가결과를 30% 비율로 반영하고, 2003년(11월30일 현재까지)의 평가결과를 70% 비율로 반영함(2003년 12월 1일 이후의 평가결과는 2005년도 이후에 반영될 예정).
  - 2002년과 2003년 평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 각각 30%와 70%비율로 종합하여 등급부여

- 2003년도에만 평가가 이루어 졌을 경우, 백점으로 환산된 2003년도의 결과만으로 등급부여
- 2002년도에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2003년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백점으로 환산된 2002년도의 결과만으로 등급부여
- 2002년도 및 2003년도 지원사업의 평가결과
  - 먼저 현장평가(60점)와 서면평가(40점) 중 어느 하나만 행해진 사업은 각각의 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하고, 현장/서면평가가 모두 행해진 사업은 두 점수를 그대로 더함.
- 이 점수들을 토대로 <표1>과 같은 일관된 등급책정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함(2003년도 지원심의 반영기준과 동일).

<표1>

등급 책 정 기 준					비 고
A	B	C	D	E	
88.0점이상	88.0점미만 ~75.0점이상	75.0점미만 ~63.0점이상	63.0점미만 ~50.0점이상	50.0점미만	2003년도 지원심의 반영기준과 동일

※ 백점으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를 절삭(버림) 처리함.

2) 2002~3년 문예진흥기금사업 단체별 누적 평가 결과

등급	A	B	C	D	E	계
해당 단체(개)	49	622	398	43	2	1114개 단체
분포도(%)	4.4	55.83	35.73	3.86	0.18	100.00%

3) 누적평가결과에 대한 200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반영 결과

- 2003년도 상반기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결과를 2004년도 지원심의 시, <2003년도 심사평가 결과반영 방안 “공통사항”>으로 하여 반영하고 성과목표별, 단위사업(지원유형)별 평가 결과를 참고토록 함.
- 2002~3년 총 평가단체 1114개 단체 중 2004년 지원 신청한 587개 단체의 1029건의 사업에 대하여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의 4개 공통심의기준 중 하나인 “신청자(단체)의 사업 추진능력” 항목에 평가 결과를 적용
- ※ 단,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31일 이전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는 지원심의 시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항목에 한 하여 상위 등급(A, B)을 주지 아니하고, 특히 사업종료 후 2003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단체는 최하등급(E)를 부여함.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반영 현황

등급	A	B	C	D	E	계
2002~3평가 단체(개)	49	622	398	43	2	1114개 단체
2004심의 반 영단체(개)	26	338	209	14	0	587개 단체
반영도(%)	53	54.3	52.5	32.5	0	52.6%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반영 결과

등급	A	B	C	D	E	계
해당 단체(개)	26	338	209	14	0	587개 단체
1건 이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단체(개)	24	234	109	2	0	369개 단체
선정비율(%)	92.3%	69.2%	52.1%	14.2%	0%	62.8%

4) 2003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반영

-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는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원 및 평가정책방향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해당 팀의 협조를 얻어 지원 사업수행 시 적절히 반영토록 할 예정임.

## 7. 2003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 평가

평가 대상 프로그램은 우수한 편인 경우가 더 많은데 비하여 평가 대상이 아닌 쪽에 부실한 행사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상적인 것은 모든 행사를 다 현장평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모든 행사가 누군가에 의하여 평가 받는다는 원칙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가자는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목이나 평가 방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

평가 작업보다 더 중요한 건 심사위원의 역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각 장르마다의 유과별로 다원화된 구조로 이뤄진 문단이기 때문에 현장적 감각과 활동 범위가 넓은 문학인이라야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평가위원 역시 이런 자격이 요구된다. 복수평가가 어려운 지경이고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신뢰감이 가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법 하다.

제도적인 장치로 모든 지원행사는 평가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최상일 것이다. (임 현 영)

심의를 할 때 신청된 내용의 검토가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제도보다 2배 정도의 시간배정이 필요함을 느낀다. 심의 시 보았던 내용과 평가 시 제시된 내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좋은 기획안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더욱 다액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내용을 우대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며, 2004년도 심의위원구성에서 미술분야가 특히 많은 과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최초 위원 위촉의 제도적인 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편파적인 심의방침에 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금심의위원들의 경우 기획사업들에 대한 결정권이 너무 없으며, 관례적인 사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액수가 많고 중요성이 있는 사업 중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온 경우 등 일부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층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 1년 전에 방향을 공지할 필요가 있음.(최 병 식)

○ 평가자의 어려움: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문예단체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명망 있는 단체와 작가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젊은 단체와 작가들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단체와 작가들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진흥원과 평가위원들이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후 평가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단체와 작가의 입장: 지원을 받은 단체와 작가들의 입장은 중립적이고, 지원사업의 목표와 무관해 보

일 때가 있다. 지원을 받게 될 단체와 작가들에게 사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윤리적으로도 걸맞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겠다.

○ 평가사업을 재검토할 때, 평가단 혹은 평가위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현재 주어지는 평가위원들을 위한 배려도 새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안 치 운)

○ 문예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 작업은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신청 사업의 내용과 실제 시행되는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가 많은 점

둘째, 지속적으로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선보이는 안무가나 단체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 점,

셋째, 무분별한 기획공연의 증가로 인해 공연 양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사업의 가치평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점

넷째, 각 지방 자치단체의 문예진흥을 위한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단체의 중복 신청 사례 증가와 문예진흥원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 때문이다.

○ 현장 평가사업이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장 평가의 결과가 다음 년도 심의에 보다 확대 반영되어야 한다. 2004년 지원심의 결과 무용 부문의 경우 2003년 현장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큰 규모의 사업들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더 큰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심의위원 구성 시 직접 춤을 추는 무용가들의 비중을 높게 반영한 관행을 되풀이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인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무용가들의 의중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현장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전제 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장르에 전문성이 있고 문화예술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전문 인력들을 엄선해야 하며 (이 경우 무용가들보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무용평론가들이 더 적합하다)

둘째, 한 사업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의 현장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현장 평가 작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현장 평가 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보완점 등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해당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시행 사업의 단순한 평가 작업에서 벗어나 더욱 발전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예진흥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요한 사업을 선정 2004년에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장 광 열)

평가 제도도 매년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평가위원의 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대다수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평가위원이 많으면 이러한 현상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평가위원이 너무 많아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너무 많은 수의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평가자를 선정 또는 제한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다양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신의 전문성에 해당하는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모든 분야의 사업을 다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모든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평가를 늘려 부실한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평가위원들이 다음 해 기금지원 심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평가위원 대표가 참여할 경우 지원 심의 전에 평가위원 회의를 가져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보고와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그래야 기금지원심의에 참석할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완 규)

현장평가는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핵심제도라고 평가된다. 전문모니터링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문화행정이나 정책 쪽의 전문모니터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모니터링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장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국민모니터링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황 루 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장르를 포함한 분야라는 점에서 다원예술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의 경우 기획자나 기획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행사의 개요 파악이 가능하지만 다원분야의 경우 이질적 장르의 접목이나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기획서에서 행사 자체를 유추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행사는 기획서와 전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일정과 장소가 공연 며칠 전까지도 확정되지 않는 문제를 드러냈다.

서서히 우리 문화계의 주요한 흐름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다원분야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항목에서 '해당분야 기여도', '홍보력', '관람객 호응도' 등에 좀더 비중을 두는 한편, 웹사이트 및 홍보방안의 평가를 위한 별도의 기재를 통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문화예술에서도 홍보매체일뿐더러 주요 표현수단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전략 세우기 등 대중과 소통하는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획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신 세 미)

#### ○ 전년도 평가 결과의 다음 년도 지원 심사 반영 문제

경제적 지원과 문화 환경적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이 문예진흥기금의 주목적이다. 그 지원 사업은 단체와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003 평가제도는 미흡하다. 시기적으로 볼 때 다음 년도의 올바른 기금 심사를 위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기금 심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전, 후반기에 평가 위원들이 서면평가를 제출하나 기금 지원심사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의심스럽다. 후반기에 제출하는 서면 평가서와 토론회는 지원심사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므로 의미가 줄어든다. 전년도, 혹은 몇 년간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모아진다면 후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심사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필요한 사업과 단체에 적용될 것이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후년도 지원 사업 결정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

#### ○ 평가 방법의 문제

평가항목이 5개로 한정되어 있어 변별력에 한계가 있다. 힘들겠지만 몇 사업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를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평가도 도입이 필요하다. 통계평가는 수학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아 평가 수치 점수만으로도 후년도 기금 지원 기준이 될 수 있다. 서면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작성과 결과 통계에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결과가 공정하므로 전문 평가위원들의 항목별 평가와 함께 병행하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이룰 수 있다.

#### ○ 평가가 지원보다 중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제도와 평가위원들이 보장되면 주관적인 기준의 기금 지원 심사는 객관적이고 간결해지며 지원 심사위원들의 수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 연구와 제도화가 필요하며 진흥원에 평가팀의 인원도 더 늘려야 한다. (김 윤 태)

현재의 평가제도는 모니터링과 심의위원들의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보다 보완해야 한다면 일정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양적인 성격을 다소 갖는 지표체계는 그 질적인 부분을 담을 수 없지만 개별적인 여러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정 갑 영 )

○ 현재의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성과목표별 평가위원회’로 개편하고, 평가체계와 평가내용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또는 성과목표별) 위원회’에 문화행정(또는 정책)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 현재 문예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을 14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각 ‘성과목표별 평가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수는 14명의 배수가 될 것이다(1개 위원회 당 14명, 28명, 42명 등).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박물관’, ‘예술교육’을 포함시켜 그 대표자들을 심의와 평가 위원에 포함시키고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제한된 지원기금과 공평성 등을 감안할 때, 학술진흥재단처럼,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의 지원이나 중복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평가에서 C등급이하를 받거나 결과를 지연 보고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신청 자격을 공개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전문가들의 패널 등을 통하여, 현재의 평가항목과 배점 및 가중치의 적절성,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의 구분 기준, 계량평가지표의 확대, ‘어떤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얼마나’보다는 ‘기금지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변했느냐’를 찾을 수 있는 평가기준의 개발 등을 포함한 평가모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구 광 모)

## 붙임자료

(붙임 1)

## 1.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층평가 결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위촉을 받고 본 위원회에서 2003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층평가 결과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보합니다.

-평가제목/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층평가

-평가위원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민국미술대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최병식(위원장), 이태호, 장석원, 강성원, 최석태

-평가기간/2003년 9월-12월 15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의 평가지표에 의한 구체적 연구/3차의 위원회 회의와 현장평가, 1회의 미협이사장과의 토론, 1회에 걸친 미협방문을 통한 제반 사항 확인(위원장)

2.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분석

총 응답자 302명(설문지, 인터넷)

배포대상-전국의 400여명 작가, 평론가 등 전문가. 20개 주요대학일괄 설문지배포, 23개 일간지 기자, 잡지사 등

### 평가항목

#### -운영의 목적과 주체

- . 미술대전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대한 적절성
- . 미술대전의 운영주체의 객관성

#### -운영의 조직과 형식

- . 미술대전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운영조직체계에 대한 적절성
- . 미술대전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적합성
- . 미술대전의 공모기능의 적절성-최근 신진작가 등용문으로서의 적절성. 세계적 시각에서 청년작가의 발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공정성 등의 문제
- . 구상, 비구상, 공예, 서예 등의 구분에 의한 공모형식의 적절성

#### -예산운영의 적절성

- . 예산편성의 적절성
- . 예산운영 등의 제반 근거서류 확보-영수처리, 사용방법 등

#### -심사 부문

- . 심사방법의 공정성
- . 심사결과의 공개와 서비스-인터넷서비스, 안내책자, 심사결과분석

#### -수요자의 만족도-설문조사결과

- . 만족도와 객관성, 필요성
- . 제반 서비스
- . 개선안에 대한 정도

#### -미술대전 전반에 대한 문제점

#### -미술대전의 개선 방안

#### -기금지원의 필요성과 방법적 개선안

### 평가내용

#### -운영의 목적과 주체

## · 미술대전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대한 적절성

###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 참신한 신인발굴

대한민국미술대전은 “참신한 신인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풍토를 고취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함”이라는 사업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참신한 신인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한동안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감안되지만 그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사조의 급변하는 변화에 발맞춘 내용과 형식적인 변화를 피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근대적인 관전성격의 전시형태가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따라 참신한 신인발굴이라는 대전제에서 실제적으로는 영상, 설치 부분을 비롯한 전위적인 사조나 실험적인 사조가 수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국제적인 사조와는 동떨어진 보수적인 장르만을 수용하는 오류를 낳았음.

그 결과 실험적인 작가들의 출품외면으로 이어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모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

#### ▲ 건전한 창작풍토 고취

그간 여러차례의 비리가 적발되어지고, 학연에 얽힌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구성 등이 야기되어 실제적으로 그 객관성을 상실하는 파행적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이미 무성한 추측으로 의식있는 미술인들에게서 미술대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음.

#### ▲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제공

2003년도에도 나타난 결과이지만 각 대전의 수준이 이미 심각할 정도로 경직되어있고, 실험적인 경향이 외면되어져 있는 현실에서 수준있는 공모전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 미술대전의 운영주체의 객관성

### ▲ 운영주체

1986년(5회)~1988년(7회) 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한국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다가 1989년부터 미술협회 주최로 개최되어왔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를 갖는 것은 본래 미협이 권익옹호와 친목단체라는 목적에서 미술대전의 이관 이후 다소 이익단체라는 권력형 구조로 바뀌어온 흔적을 숨길 수 없었음.

### ▲ 선거과열의 원인

결국 선거과열의 원인 또한 미술대전의 운영이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집행부의 구성여하에 따라 학연에 좌우되는 파행이 야기되었음.

### ▲ 운영의 문제

3년마다의 선거로 구성되는 집행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행정중심의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미술대전의 구성과 조직이 어려움. 연간4-6회에 걸쳐 치루어지는 각 대전의 행사가 현재의 집행부 규모나 성격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획, 행정의 한계가 있음.

물론 일부 업무는 외주를 주기는 하지만 결국 미협은 미술대전을 위한 단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주요업무가 집중되어있음.

### -운영의 조직과 형식

외형적인 조직은 어느정도 객관적이나 근본적인 구조의 한계가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움.

#### · 미술대전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운영조직체계, 구성에 대한 적정성

▲ 운영의 전반적인 조직은 현재 제도에서는 위원회 조직, 통보시기 등이 어느정도 공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들어서 학맥과 전국적인 분포에 대한 배려 역시 어느정도 공정하다고 생각되나 자격자의 질적인 확보에 있어서는 일부분에서 아직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함.

▲ 특히 평론가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 분야에서 작가들만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2003년의 경우 구상부분에서는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의 총 출품 수 1,375점 가운데 307점이 입상되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미술대전에 대한 대관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 7전시실만을 대여하였음. 결국 도저히 전시가 불가능하여 2-3회를 나누어 전시하게되었음.

. 미술대전의 공모기능의 적절성-최근 신진작가 등용문으로서의 적절성. 세계적 시각에서 청년작가의 발  
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공정성 등의 문제

▲ 경직성 탈피 못해 수준저하

미술대전이 미술의 전문야를 망라하여 개최되는 신진등용문이라고 전제한다면 실제로 최근 실험사  
조들에 대한 수용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직된 형식으로 공모되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이는 2003년도 각 미술대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로서 구상부분에서는 관념적인 구상성,  
답습되는 형식적 경향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었으며, 과감한 실험적 경향이나 뉴페이스로서의 세계  
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정도가 너무나 낮은 수준임.

▲ 객관적이고 거시적 판단 불가능

예를 들어 심사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의한 어느정도의 과정을 심의하고 다시 작품  
을 심의하는 등의 신중하고도 거시적인 평가방식이 요구되나 현재의 방식은 단지 1점으로만 평가하는 단  
순한 형식으로 작가의 역량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사조 수용 어려움

급증하는 설치, 영상, 개념예술, 다양한 오브제 등에 대한 배려가 평가방식, 전시방법 등에서 전면적으  
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적으로도 몇 천명에 달하는 입상자를 양산하고 있는 식의 대규모 공모전 형식은 사라졌으며, 근  
본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판단.

▲ 서예대전의 초대작가 제도 불합리

아무리 한국만이 지니는 서예계의 구조라고는 하지만 초대작가제도를 도입하여 점수제로 이를 공모전  
졸업제도처럼 운영하는 것은 자유로운 실험적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작업성격에 맞  
지 않을 뿐 아니라 수상에 대한 과열된 집착을 부추기어 부정의 소지를 제공하게되는 제도임.

. 구상, 비구상, 공예, 서예 등의 구분에 의한 공모형식의 적절성

▲ 통합적 다원성 역행

구상, 비구상, 한국화, 양화 부분 등으로 나뉘어지는 문제 역시 전체적인 조형예술의 형태가 통합되어지  
는 추세에서 역행하는 방법으로 판단.

-예산운영의 적절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 예산운영 등의 제반 근거서류 확보-영수처리, 사용방법 등

-심사 부문

미협이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성확보 미흡

. 심사방법의 공정성

▲ 개선노력 긍정적, 그러나 근본적 제도 한계

이미 제기된 문제이지만 그간 미협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거쳐 보완해온 방식으로 1,2차 심사방식이나  
개별적 채점방식을 사용하는 등의 제도에서 나름대로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판단. 그러  
나 운영상에서 근본적으로 공모전의 제도적 어려움과 미협의 구조에서는 한계를 보였음.

▲ 일부제도 긍정적

1,2차 심사위원의 개편, 운영, 심사위원 위촉 시 연속위촉 년한을 제한 한 것은 긍정적임.

▲ 작가위주의 구성 편파성 내재

특별위원회설치나 미협의 집행부에서 초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형식을 갖추어 객관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으나 이미 대다수가 작가들만으로 구성되거나 안배적인 차원으로 이어지고, 운영위원에 의하여 심  
사위원이 친분관계로 추천되어지는 과정은 여전히 남아있어 개선여지가 많음.

. 심사결과의 공개와 서비스-인터넷서비스, 안내책자, 심사결과분석

▲ 인터넷서비스 구축

현재 심사결과는 미협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결과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이나 토론, 세미나가 전혀 없는 관계로 개최 후 평가시  
스템이 없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연결고리가 없음.

▲ 특히 서예, 문인화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등이 거론되어왔음에 반해 고발센터운영과 사후 조사, 감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지적되어야 함.

### - 수요자의 만족도-설문조사결과

#### 설문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

##### . 만족도와 객관성, 필요성

#### ▲ 객관성 의문제기

미술대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44.04% ‘매우 못하고 있다.’가 13.25%로 57%를 웃도는 대답을 하였다. 이에 비하여 “매우 잘하고 있거나 공정하다”가 1.5%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많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됨.

#### ▲ 학연, 지연중심의 심사제도

한편 문제가 있다면 “미술대전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오.”라는 질문에는 72%가 1,2순위로 편중된 학연중심심사를 지적. 2순위이기는 하지만 94%가 편중된 지역주의를 지적.

#### ▲ 제도적인 문제 지적

응모방법과 공모형식 등에 대한 문항에서는 1순위만 해도 70%가 지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구상, 비구상, 공예, 서예 등으로 나뉘는 방법과 지나치게 경직된 경향으로 일관하면서 공모되는 방법과 전시형태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특히 구상, 비구상으로 나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57.95%가 반대하였음.

이에 대하여 “비구상, 구상의 문제가 아닌 예술성의 가치문제”라는 성격의 답변이 여러차례 있었음.

#### ▲ 기여도의 문제

“각 미술대전이 우리나라 미술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는 44% 정도가 미술계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진출에 도움이 되거나 미술계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는 답변을 하여 미술대전의 문제점과 크게 관계없이 일반인이나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이미 많은 대학에서나 미술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가고 있고 외면당해가고 있음.

##### . 제반 서비스

#### ▲ 서비스 개선요구

미술대전에 관한 제반 서비스시스템에서는 57%정도가 매우 못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사전, 사후 관리가 주최측에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 . 개선안에 대한 정도

#### ▲ 전면적 개편요구

“각 미술대전의 형식과 내용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체제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가 30.47% “공모형식이나 분야, 심사방법, 심지어는 주최단체까지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가 56.95%였으며, 기타의견 역시 개선안에 진보적인 개선안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아 60%가 넘는 답변을 하였음.

#### ▲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대폭 개선하는 방안과 아예 주최단체를 개편하거나 순환하는 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기됨.

“국내의 교수나 작가가 참여하는 공모전은 학연, 지연이 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관행이다. 누구도 그것을 깨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외의 작가를 초청 심사하는 것 또한 그내들이 반대할 것이니 이 또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이런 설문조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

“최근 미술의 흐름을 제대로 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마인드를 가진 미협이 주관하기보다는 평론가가 큐레이터들로 구성된 좀 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운영토록 하며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조정해야함”

“거듭 말하지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양식이 보다 중요하다. 제도를 아무리 개선한다해도 개선하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미리 생각한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실력 있고 양식 있는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미술평론가를 각 분야 30%정도 배정하는 의무조항을 두면 보

다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등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미협이 운영주체로서 있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 미술대전 전반에 대한 문제점

▲ 미술계에서 신진작가 등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심각한 경직성, 질적인 저하, 상당한 작가층의 응모외면, 지속적인 작가관리부재, 제도, 심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 현재까지 미협에서도 몇 단계 노력이 있었지만 그 개선의지나 가능성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 과연 미술협회가 현행 미술대전을 그대로 개최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대두됨. 권익옹호,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3년마다의 선거에 의한 이사장단 선출방식을 택하고 있는 미협의 집행부가 미술대전을 주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매년 6회 정도의 미술대전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시간이나 인력의 한계와 집행의 공정성, 밀도를 확보하기 어려움.

▲ 서예나 문인화의 경우 현 체제에서는 아무리 집행부가 노력하여도 구조적으로 굳어있는 사승관계가 이미 공모전 형식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공모전 형식으로 현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선하는 방안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소수의 정예작가를 선발해야 하는 방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출품작 1점에 의한 평가, 규모의 비대화로 지속적인 지원의 불가능이 노정되고 있음.

▲ 국민이나 작가들의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기금이나 국고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 - 기금지원의 필요성과 방법적 개선안

▲ 이상과 같은 미술대전의 심층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예진흥원이 1988년부터 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에 매년 상당액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이미 1점 출품에 의한 공모전형식의 필요성, 공정성, 과급효과 전반적인 면에서 공공기금이나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저하되어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더욱이 미협이 보관하고 있는 10억 정도의 적립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며, 턱없이 열악한 작가들의 작업환경을 지원을 위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문예진흥원의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있으므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새로운 장단기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강구와 적립금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것을 건의.

#### - 미술대전의 개선 방안

▲ 본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이 결과에 대하여 문예진흥원이나 평가위원회 명의로 주요 언론기관과 미술계에 즉시 공개함으로써 그간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해온 기금사용에 대한 투명한 평가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함.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대안과 위에서 언급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포괄하여 2004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겸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를 실시 한 다음 개선방안을 결정할 것을 건의함.

▲ 본위원회의 제1 예시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현대미술분야에 한하여 연구되었으며, 전통과 서예, 공예 등 타 장르의 경우는 별도의 체계로 연구를 요함. 이에 대한 대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개선안이 제기될 수 있음.

#### 1) 개최원칙

이 예시안에서는

- ① 소수정예작가 선발과 집중지원
- ②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데뷔무대 적극지원
- ③ 선발의 공정성
- ④ 순수분야의 여러 장르 포괄적 수용

등 4개 원칙을 바탕으로 개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고(예를 들면 가칭Korea Art Prize/KAT) 순수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작가들에게 시상함.

#### 2) 선발방법

공모분야는 자유공모와 지명공모로 나누고, 포트폴리오(PPT)로 누구나 자유공모하는 분야와 지명공모 분야는 지정된 평론가들에 의하여 추천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함.

심사시는 응모자의 영역구분, 연령이나 특별한 경향을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작품성에 기준을 두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있는 예술성을 중심으로 선발.

1차 선발된 작가들은 현재와 같이 대규모의 입상자가 아니라, 어느정도 정예 숫자로 하며, 매 작가마다 5점 정도의 작품을(장소는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이나,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2-3회 전시 등으로 개최가능) 전시하여 이를 평가하고 다시 2차로 전체 작가에서 5명 정도의 수상작가를 결정하여 소수 정예주의로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시상함.

### 3) 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를 각 분야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함. 결정 시 타당한 이유와 심사과정을 전체 공개하고 결과내용을 세미나식으로 발표함. 이후로는 이 기구가 독립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수행함.

이상의 안은 심층평가위원회가 현재의 미술대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어 그대로는 도저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순수미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한 것임.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200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실시한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층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통보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민국미술대전 평가위원회

최병식(위원장)

이태호

장석원

강성원

최석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층평가결과 요약

1. 미술대전의 심층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예진흥원이 1988년부터 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에 매년 상당액수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이미 공모전형식의 필요성, 공정성, 파급효과 전반적인 면에서 공공기금이나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저하되어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2. 지금까지 주최측이 나름대로의 다양한 개선노력을 하였으나, 현재의 공모전 형태와 미협이 구조로서는 도저히 긍정적인 작가발굴이나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결론으로 도출.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작가 발굴과 지원 요망.
3. 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개략적인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새로운 장단기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대안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2004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겸한 세미나를 실시할 것을 건의. 이 기회를 통하여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를 실시 한 다음 개선방안을 결정할 것을 건의함.
4.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결과에 대하여 문예진흥원이나 평가위원회 명의로 주요 언론기관과 미술계에 즉시 공개함으로써 그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온 기금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개선과정을 공유하도록 건의함.
5. 미협이 보관하고 있는 10억 정도의 적립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임. 새롭게 제안하는 대안을 포함하여, 턱없이 열악한 작가들의 작업환경 지원을 위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03년 12월 15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민국미술대전 평가위원회

최병식(위원장)

이태호, 장석원, 강성원, 최석태

(관련 참고자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한 설문 통계

아래의 내용은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설문은 전국에

약 1300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총 응답자 302명(설문지, 인터넷)이 통계되었고, 배포대상은 전국의 400여명 작가, 평론가 등 전문가. 20개 주요대학, 23개 일간지 기자, 잡지사 등이었습니다. 주관식 답변을 가능한 가감 없이 기재하였습니다.

**설문내용**

1.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그 개최 목적인 신진등용문으로서의 기능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미술계 상황에서 미술대전이 갖는 본래의 목적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잘하고 있다.(3/302, 0.99%) ② 어느정도 잘하고 있는 정도이다. (122/302, 40.4%)
- ③ 잘못하고 있다 (133/302, 44.04%) ④ 매우 못하고 있다. (40/302, 13.25%)
- 무응답 (4/302, 1.32%)

2.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미술대전의 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공정하다(2/302, 0.66%) ② 어느정도 공정하다 (87/302, 28.81%)
- ③ 문제가 있다 (168/302, 55.63%) ④ 매우 공정치 못한 것 같다.(45/302, 14.9%)

3. 미술대전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시오. 예를 든 항목 이외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① 편중된 학교나 사제시간으로 얽힌 학연중심의 인맥
- ② 편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적구성이나 봐주기
- ③ 응모방법
- ④ 각 미술대전에서 응모분야(예로 한국화, 양화, 한글, 한문 등)가 너무 제한적이다.
- ⑤ 심사방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있다.
- ⑥ 미술대전의 공모 형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항	① 편 중 된 학교나 사제시간으로 얽힌 학연 중심의 인맥	② 편 중 된 지역을중심으로한 인적구성이나 봐주기	③ 응 모 방 법	④각 미술 대 전 에 서 응모분야가 너무 제한 적	⑤심사방 법과 제도 가 잘못	⑥ 미술대 전의 공모 형태가 근 본 적 으 로 문제	무응답	기타
1순위	181 59.93%	14 4.64%	5 1.66 %	19 6.3%	16 5.3%	46 15.23%	18 5.95%	3 0.99%
2순위	38 12.58%	94 31.13%	18 5.96 %	27 8.94%	61 20.2%	15 4.97%	48 15.8%	1 0.33%
3순위	18 5.96%	52 17.21%	24 7.94 %	52 17.21%	60 19.87%	28 9.27%	67 22.19%	1 0.33%

※1~3순은 각 항목별 선택순위를 말함(기록된 숫자는 선택된 숫자임.)

**기타**

- 1순위 : 고전적인 틀이 잡혀있다.(1명),다른 공모전에 비하여 공정하다(1명), 모름(1명)
- 2순위 : 모름(1명)
- 3순위 : 모름(1명)

**예를 든 항목외**

1. 권위주의적 미술대전 제도 근본적으로 재고
2. 응모기간, 작품 성향에 따른 스케일문제
3. 미술대전의 결과로 한국미술계가 좌지우지된다. 즉 미술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자유롭지 못하니 공모전에서 입선할 그림을 제작할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이 돈을 주고 레슨 받은 후 출품하는 작품이 상 받는 것을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
4. 아마추어들이 돈을 주고 레슨 받은 후 출품함
5. 응모형태 개선해야-지역할당제, 지역 예선 등 고려
6. '제도'로서 미술대전의 역할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체제를 갖추었는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신진미술인의 발굴육성'과 '창작 활성화'역시 취지만큼 '시대'에 부합 하는지도
7. 한국미협이 주도한 심사 단합
8. 당선작의 내용이 참신한 신인의 발상과 개성을 중요시하기보다 어느 정도 숙련된 경지( 좋게 말하면 기량이 충실하고 나쁘게 말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9. 미술대전을 통해 미술발전 이뤄지지 않음(3)
10. 오늘날의 정황에 미뤄 볼 때 시상제도는 신진미술인구의 확충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한 새로운 미술의 등장에 장애요소, 한국미술협회의 권력기구화를 부채질, 대학미술교육의 부실화 초래
11. 국내심사위원에 대해 불만족
12. 미술대전을 없애든지 확실하게 해라
13. 본인을 포함하여 미술대전에 출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14. 심사위원 자질 고려
15. 심사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접수제는 좋은 작품이 입선을 하고 그 보다 못한 작품이 특선을 하는 등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주최측인 한국미술협회가 응모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친절하고도 구체적인 서비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심사결과의 자세한 설명, 분석자료 배포, 인터넷 운영 등)**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5/302, 1.66%) ② 어느정도 하고 있다. (115/302, 38.08%)  
 ③ 문제가 있다 (127/302, 42.05%) ④ 매우 많은 문제가 있다. (45/302, 14.9%)  
 무응답 (9/302, 2.98%)  
 모르겠다 (1/302, 0.33%)

**5. 각 미술대전이 우리나라 미술계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① 본래의 목적대로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② 작가들에게 미술계진출의 기회가 되었다.  
 ③ 매년 청년작가들의 경향을 대표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④ 수상경력이 취업 등에 도움이 되었다.  
 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⑥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항	① 본래의 목적대로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이다	② 작가들에게 미술계 진출의 기회	③ 청년작가들의 경향을 대표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④ 수상경력이 취업 등에 도움	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⑥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무응답	기타
1순위	34 11.26%	65 21.52%	40 13.25%	30 9.93%	77 25.5%	38 12.58%	16 5.3%	2 0.66%
2순위	21 6.95%	51 16.89%	41 13.58%	29 9.6%	40 13.25%	8 2.65%	107 35.43%	2 0.66%
3순위	33 10.93%	41 13.58%	41 13.58%	29 9.6%	22 7.28%	7 2.32%	127 42.05%	2 0.66%

※ 1~3순은 각 항목별 선택순위를 말함(윗 부분에 기록된 숫자는 선택된 숫자임.)

6. 회화의 경우 현재의 미술대전 구상, 비구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 ① 합당하다. (90/302, 29.8%)
  - ② 합당치 않다. (175/302, 57.95%)
  - ③ 기타 의견 (16/302, 5.3%)
    - 1. 구상·비구상 나누는 것이 문제
    - 2. 분야를 단적으로 규정지어져 있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
    - 3. 회화전공이 설치나 사진을 반영할 수도 있다
    - 4. 구분불가능
    - 5. 반구상은?
    - 6. 관심없다
    - 7. '형식'보다는 '매체'를 중심으로 표현되고 이해되는 동시대미술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미술대전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구분이다.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8. 기준은 유지하되 제3분야-자유형식-도 있으면 좋겠다.
    - 9. 모르겠다
    - 10. 회화는 그 작가의 세계관과 시각, 보편성과 독창성을 요구하는바, 장르를 구분하면 미술대전의 스타일에 맞추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다
- 무응답 (21/302, 6.95%)

**이유**

- 1. 구분모호(11)
- 2. 점점 다양해지는데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제한적으로 느껴진다.
- 3. 구분보단 회화로 묶자
- 4. 구상·비구상은 중요하지 않다. 주제, 컨셉이 중요(2)
- 5. 작품을 구상, 비구상으로 나누는 것은 적당치 않다. 나눌 필요없다(12)
- 6. 너무 제한적이다.(2)
- 7. 다양한 장르를 수용해야한다. 설치, 퍼포먼스
- 8. 미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 9. 시대에 흐름에 따라 미술의 범위도 광범위해짐으로써 제도도 변화를 가져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
- 10. 자유로운 작가의 창작능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 11. 예술의 분야는 비구상, 구상의 문제가 아닌 예술성의 가치문제(2)
- 12. 기준은 유지하되 제3분야-자유형식-도 있으면 좋겠다.

7. 각 미술대전의 형식과 내용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92/302, 30.47%)
- ② 공모형식이나 분야, 심사방법, 심지어는 주최단체까지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172/302, 56.95%)
- ③ 기타 의견은 서술형답변에서 기재 (25/302, 8.28%)

**서술형 답변**

- 1. 국내의 교수나 작가가 참여하는 공모전은 학연, 지연이 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관행이다. 누구도 그것을 깨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외의 작가를 초청 심사하는 것 또한 그내들이 반대할 것이니 또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이런 설문조사는 필요없다고 본다.
- 2. 심사에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공인된 인물을 선정해야, 미협이사장의 성향에 따라 너무 주관적 처리가 문제

3. 주체단체 순환
4. 창의적 작품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난해에 입선한 작품은 선별하여 제외시켜야
5. 공개적 심사 평가 발표
6. 심사시 학연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7. 공모방식은 취하면서 전체운영방법을 바꿔야 한다. 전시 기획의 성격도 분명하게 하면서 전시를 운영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을 다양한 학벌로 뽑는다. 외국인 심사위원을 두어 국제적 작가 양성
9.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대전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심사하도록
10. 체계를 그냥 두던 전면적으로 다 바꾸던 간에 실질적으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이 되어야 한다.
11. 미술협회에서 미술대전만을 전담하여 지속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모형식, 분야, 심사방법 등은 장기발전계획수립 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2.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가 최우선이다
13. 최근 미술의 흐름을 제대로 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마인드를 가진 미협이 주관하기보다는 평론가가 큐레이터들로 구성된 좀 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운영토록 하며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조정해야함
14.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 분야의 논문 형식도 공모전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품은 어디까지나 작품 그 자체로 평가하고 심사되어야 한다.
15. 특히 심사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책임 있는 심사제도 즉 특선이상의 작품에는 추천심사위원의 추천과 작품 밑에 추천배경을 명시함으로써 상까지 연결되는 특선 작품의 질을 높임으로 대전의 공신력 제고와 출품자들의 신뢰를 얻게 됨.

무응답(13/302, 4.3%)

#### 추가 답변(1번이나 2번 기입후 추가 서술)

1. 한미협 주최를 차라리 관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미협이 미술대전을 부패시켰다.
2. 위에 있는 사람이 피부로 문제를 못 느낀다.
3. 시간과 공간, 재료 등 분야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미술대전의 응모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4. 주체단체 변화 필요
5. 응모분야 세분화, 응모방법개선, 심사방법개선 등
6. 심사방법이 먼저 바뀌어야
7. 전형료 감면, 청년작가국전의 형태도 대안
8. 심사방식개선
9. 인맥이 배제된 투명한 심사, 공개심사 등
10. 평론가 위주 심사(다양한 종류)
11. 심사부조리만 없애자
12. 심사위원선정에 관한 문제점이 많다. 심사위원이 밝혀지면 서울의 작가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유출되어 외교가 이루어진다는 설까지 있다. 지방 작가들은 정보전달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한계성을 느낀다. 심사위원 발표시기와 선정 문제에 좀더 신중을 기하였으면 좋겠다.
13. 공모작의 양보다도 질이 우선이라고 본다. 질이 우선 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양심과 인격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심사방법이나 형식 등의 개선을 요하는 것이 우선이라 본다
14. 미술대전은 신예작가의 작품 판도를 알아보고 미술의 경향과 흐름을 보기 위한 것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시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
15. 별도 기구 설립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국에서 심사위원 초빙 등 방법 강구
16. 심사방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심사근거자료제시)
17. 심사위원의 편중을 감시하고 각 지역의 균형된 심사위원 필요
18. 좀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별도의 기구에서 주최할 필요가 있다. 심사나 운영이 미협과는 단절되어야 객관성을 담보하고, 미술인 및 애호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물론 주최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도나 시스템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

19. 거들 말하지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양식이 보다 중요하다. 제도를 아무리 개선한다해도 개선하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미리 생각한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실력 있고 양식 있는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미술평론가를 각 분야 30%정도 배정하는 의무조항을 두면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0. 차라리 관전으로 바꾸자

8. 현재의 공모제도에 대한 만족도조사입니다. 만일 현재와 같은 미술대전의 공모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좋을런지요?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도 가능합니다.

① 현재대로가 좋다. (19/302, 6.29%)

② 공모는 그대로 하고, 상이 너무나 많이 남발되기 때문에 소수만을 상으로 격려 하는 것이 좋다. (35/302, 11.59%)

③ 비엔날레 형식으로 매년 하되 커미셔너제도에 의하여 기획전형식으로 최소한 검증받은 신예작가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개최하고 1-3명 정도의 소수에게만 집중적으로 상을 준다. (88/302, 29.14%)

④ 기획의 균등을 위하여 1차 공모를 거쳐 검증된 작가들을 2차에서는 모두 전시토록 하고 소수에게만 상을 준다. (127/302, 42.05%)

무응답 (19/302, 6.29%)

기타 (14/302, 4.64%)

1. 공모한 사람들의 검증된 심사 통과한 그림을 보여주며 평가를 듣고 싶다

2. 다 똑같은데 돈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돈 있으면 다 되는데 좋은 공모전 나쁜 공모전 굳이 나누지 말자

3. 상을 줄이고, 작품과 함께 작가의 아트스테이트먼트, 포트폴리오 등의 심사가 있고, 상금을 분산보다 소수의 작가에게 집중지원을 하면 선의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4. 예산이 된다면 일년에 두 번 했음 합니다. 1차 개인적 작품(원래 형식대로)2차 기획전(기획전은 신예 작가발굴에 큰 힘이 되기 때문)두개로 나눈 이유는 꼭 기획전에 속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 대신 상을 남발하면 안되겠조, 그리고 상도 1등, 2등 가리지 말고

5. 커미셔너 제도가 지닌 독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의해 전시기획 안을 만들어야한다. 전시 기획 안은 전시주제 성격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작품을 공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6. 체계 부분 개선, 주최단체 전면개선

7. 선택할 것이 없음

8.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신인 등용문으로서의 권위가 지켜진다면 미술대전 등의 공모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만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상을 전제로 하는 공모전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9. 예산이 된다면 일년에 두 번 했음 한다. 1차 개인적 작품2차 기획전 구분 이유는 꼭 기획전에 속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위하여 상 남발하면 안된다.

10. 영국의 Turner Prize같이 처음과 마지막의 출품, 수상까지의 전과정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공개하여 각 지역에서 1차 공모 후 검증작가를 중앙에서 통합하여 2차 심사 중 통하여 소수에게 수상케 함

11. 보기 ②번과 ③번 항의 내용을 혼합. 즉 일부는 공모심사하고 일부는 지명 혹은 기획 초대한 뒤 무차별적으로 혼합 전시된 상태로 최종 심사를 해서 대상을 결정. 단 대상 이외에는 현재처럼 “입선”, “특선”, “우수상” ....식의 위계적 시상을 하지 말 것. 상이 더 필요하다면 예컨대 큐레이터들이 뽑은 상, 미술담당기자들이 뽑은 상, 관람객이 뽑은 상, 미술교육자들이 뽑은 상, 작가들이 뽑은 상, 평론가들이 뽑은 상과 같이 작품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지향할 수 있는 참신한 상을 제도화한다.

12. 2차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재평가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봄. 전시기간에 충분한 심사를 함으로 보다 객관성있는 작품과 심사위원 및 출품자, 향수자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킴

추가 서술형답변(보기 고른 후 추가로 서술형 답변)

1. 때로는 낙선작품 중 좋은 작품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심사위원변화(2명)

3.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4. 2차 심사에서 무기명으로 하되, 모든 심사위원에게 동등한 권한을 주어 투표실시, 심사위원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섭외-일부학교나 집단에게 편중된 심사 되지 않도록, 투표시간대 차별화-심사위원간 담합금지
5. 새로운 형식의 기획으로 권위적 공모체계를 깨뜨리고, 새롭고 창의적인 작가들을 발굴하며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말 소수의 작가들에게만 상을 주어서 확실한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7. 광고부족, 일반인이 즐기기 쉬운 축제식으로
8. 평가는 대중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9. 봄, 가을 미술대전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주최측을 투명하게 관전으로 실시한다.
10. 조금 상업적이고 인공적이라도 경쟁력 있는 작가를 발굴해 국가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11. 지역별 커미셔너제도로 추진하여 지역미술의 발전과 특화를 유도한다. 지역은 3~5구역 정도 나누고 각 지역 미술대전과 연계하여 수상자와 추천작가 등이 대한미국미술대전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커미셔너에 의해 지역 미술과 작가를 대변하는 세미나 개최 등도 고려한다.
12. 1차는 사진이나 슬라이드 심사로 하고 후 작품심사. 지방 작가를 운송에 해안 부담
13. 상을 없애고 입선이 상이 되도록 한다.
14. 학연, 지연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심사에 합당한 상벌제도가 우선
15. 좀 더 많은 작가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평가보다 절대적인 평가로 입상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대상자들 중에서 상을 정하여 수상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16. 포트폴리오 먼저 심사 후 검증된 작가에게 상을 주되 소수만 준다.
17. 1차 공모작을 슬라이드 심사도 고려 할 수 있다. 지방 작가들의 고충도 충분히 생각해주었으면...지방과 중앙의 평등함을 느끼게..
18. 1차 공모와 2차 공모로 나눈다고 해도 심사위원 소속부분 학교, 단체가 유리한 것 마찬가지
19. 개인적으로는 상 폐지가 좋음. 1차 공모에서 검증을 할 때 작품이 좋으면 많이 뽑고 작품이 안 좋으면 1명 뽑아도 좋고 올해에는 해당작이 없습니다라고 공고를 내어도 좋다
20. 공모전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작품을 가지고 함께 전시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
21. 학연, 지연, 성별 등에 의한 혹은 심사위원들의 취향이나 인맥구조에 의한 공모전 형태에서, 신진작가와 기획자의 등용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미술대전이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획자와 작가를 발굴해야 한다.

**9. ※기성작가나 교수, 평론가, 언론인, 미술경영(화랑, 큐레이터 등), 행정전문가 등에만 해당됩니다.-취업시(개인인력평가나 작품 가격산정, 교수채용, 대학원 입시, 기획, 초대 전시회 등의 경우 작가선별, 언론보도 등)나 개인자료 평가시 각 미술대전의 수상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시는지요?(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① 절대적으로 중요시하여 반영한다. (12/302, 3.97%)
  - ② 어느 정도만 반영한다. (72/302, 23.85%)
  - ③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16/302, 5.3%)
  - ④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1/302, 0.33%)
  - 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13/302, 4.3%)
- 무응답 (188/302, 62.25%)

#### 이유

- ① 절대적으로 중요시하여 반영한다.
  1. 가장 알려져 있는 평가
  2. 개인을 평가할때 그나마 믿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서 미술대전을 들 수 있다. 각개 개인을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응시자를 개별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 그나마 공인되어진 미술대전이 그나마 그 개인을 대변해줄 수 있다고 본다
  3. 작가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미술대전의 초대작가인지 아닌 지의 여부와 수상경력이다.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취업이나 진학 등에 큰 비중으로 평가 기준

② 어느 정도만 반영한다.

1. 성실성인정
2. 교수채용에 수상이 점수화되어 있다. 다만 전공연구실적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3. 미술대전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회적으로 반영할 만한 근거를 잃었음
4. 실력 뿐 아니라 인맥도 반영되니까
5. 취업에 작업이 좋다는 것이 채용사유가 되지 않음
6. 실력도 있지만 인맥이...
7. 대학에 입사할 경우에는 총장이나 그에 따른 인사위원들이 미술에 비전공자로서 보편 타당한 면에 적절하므로 아주 필요한 경우도 있다.
8. 그래도 미술대전에서의 특선 이상은 어느 정도 평가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9. 1차적으로 작품을 보고 평가하지만, 부분적으로 프로필을 참작한다. 공모전 경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현재의 작품 그 자체를 중시할 뿐이며, 과거의 작품 경향과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기도 한다.
10. 짧은 시간에 당사자의 능력을 간파해야 될 때를 생각하면 이 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함으로써 객관성을 엿볼 수 있다.
11. 미술대전을 거치지 않은 작가의 경우 소위 말하는 작품성(나는 개인적으로는 작품성이란 낭만주의적 언어를 부정하는 편이지만 대학생들은 이 체험이 필요한 학생이 아직은 대다수이다)이 떨어져 대학교수가 되고자하는 사람의 경우 학생. 지도에 난점이 많다. 물론 특정한 관(觀)이 확립된 작가는 예외다.
12. 수상작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다. 그렇다고 결코 객관성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상작이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반영된 것이나 결코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13. 활동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어느 정도는 반영합니다. 그러나 미술대전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작가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③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1. 수상자 너무 많고, 심사기준에 문제 있음
2. 중요하지 않음
3. 작품성과 무관함
4. 미술대전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차 떨어짐
5. 학교위주 반영(미술대학 서열차 유학생-서울대-홍대-기타)

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1. 어느 정도는 인정하나 중요한 것은 작품을 보고 결정한다.
2. 본인은 국전에는 출품하지 않고 각종 공모전에도 거의 출품하지 않는 편이지만 현실은 공모전의 수상 경력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경력이 있다면 경력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본인의 경우 입선이나 특선 같은 경력은 넣지 않는다. 가끔은 개인전 횟수도 줄일 때도 있으며 약식처리 하는 경우도 많다.

10. 기타 미술대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록해주셔도 좋습니다.)

1. 심사제는 매우 악용되고 있다. 미술대전 자체가 매우 전근대적 발상이며 요즘처럼 공모전 홍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은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매우 유익 하지 못한 정책이다. 공모전이 많아서 미술인들의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있다. 불필요한 공모전은 이번 기회에 없었으면 한다.
2. 미술대전이라는 행사자체가 미미하게 그 분야의 종사자들에게서만이 아닌 그 지역 의 행사가 되었으면..
3. 반관반민의 모호한 관제공모전보다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제도, 설비 제공-작가 스튜디오, 작품광고등/테마가 있는 예술가홀 조성:  
예) zkm/전시후 패키지형식으로 세계순회전/작가(수상)에 대한 사후관리-WEB MEDIA제작, 배포, 홍보, 해외화랑전시주선, GRANT, AWARD등 정보제공, 수혜 협조
4. 채점방식 완벽한 비공개, 심사위원선정 비공개 및 서로 모르게 선정

5. 미술대전(국전포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효과를 거둔 제도적 개선이나 방안은 극히 미비하다.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소극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한다면 결과는 비슷할거라 생각된다.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개선방향 및 찾는 밑거름이 되는 이러한 설문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반출의 번거러움을 해결해 달라
7. 인맥에 의해 대상이 결정되는 분위기를 없앴으면, 심사위원을 철저히 양심적인 사람의 심사로 투명화했으면
8. 좀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공모전이 되었으면
9.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설문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저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놔두는 것이 편하지 않나, 굵어 부스럼도 생기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고 본다.
10. 심사위원과 단체 순환
11. 심사위원이 좋아하는 품으로 뽑아지는 경향이 다수인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노력이나 심려들인 과정을 좀더 참작하여 평가했으면
12. 약 10억의 문예진흥기금 등의 후원금으로 미술가들을 위해 어떻게 쓸것인가-기금 차후 사용목적, 10억 기금을 받음에도 도록을 만원 받는 이유, 다음 24회부터는 협회가 발전될 수 있는 제안이 있었으면
13. 청년작가전 부각
14. 잘못된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자
15. 지방작가들을 위한 개선 필요-작품 운반, 포트폴리오로 1차 심사를 거치자
16. 권위적인 제도 지양, 다양한 계층 심사위원 위촉(각 대학교수, 미술이론가, 전시기획자, 문화예술인 등), 다른 시간대별 심사로 심사위원을 분산
17. 미협내에 대전 운영위원회를 구성, 연중활동을 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매해 공모전의 성격, 내용을 공표하고 작품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진작가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 필요
18. 문제 고치려는 노력부족, 좀더 깨끗하고 공정했으면
19. 편중된 양식적 기호가 심사의 우선 척도가 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 좀더 자유롭고 진보적인 심사방식과 젊은 심사위원의 등용도 개선방안의 한 방법
20. 미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해 작가들, 평론가들만의 행사가 아닌 좀더 다양한 연령층, 관객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1. 각 지방 미술대전 활성화와 지방작가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격려를 위해 예선성격의 공모를 지방미술대전에 부여해야 한다. 미술대전에서도 민간 공모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험미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22. 과거 권위적 틀 과감히 개선해야, 혁신적 제도 개선 필요
23. 좀더 신선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신선하고 역량 있는 작가가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24. 2 심제는 매우 악용되고 있다. 미술대전 자체가 매우 전근대적 발상이며 요즘처럼 공모전 홍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은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매우 유익 하지 못한 정책이다. 공모전이 많아서 미술인들의 사행심을 조장시킴. 불필요한 공모전은 이번 기회에 없애야
25. 세대와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각 지역 추천 받은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며 소수에게만 상을 수상하여 권위도 올리고 한국의 동 시대의 미술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
26. 심사의 투명성, 공정심사를 위해 공개, 예술과 정치의 문제 결탁
27. 상업적 공모전 너무 많음. 심사위원 분배, 학연, 지연, 정치색 타파하자
28. 쓸데없는 공모전이 너무 많다. 학연, 지연으로 각각 많은 공모전을 좀 정리하여 공모전 허가를 내어줬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때문에 너무 남발하고 부탁이 많이 들어와서 곤란하다. 정치예술가를 타파하자
29. 엄정한 규칙을 받은 작가님들께서 시야를 넓혀 공정한 심사기준을 해 주었으면
30. 작품응모시 성명과 작품만을 제출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31.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심사위원 양심상의 문제가 크다
32.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설문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놔두는 것이 편하다.

33. 미술대전의 횡수를 늘이고 신인들의 사기와 용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본질의 미술대전의 의도를 숙지해야하고, 아울러 절대적인 공정한 심사의 여부와 결과 등을 전시함에 부과하여 공개함을 바랍니다. 예술을 대표하는 미술대전에 수 많은 신인들의 발골에 대명사가 되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발전 부탁드립니다.
34. 작품 심사를 하면 출품작가 만큼 심사위원도 성의 있게 답변해야 한다. 한번 심사한 사람은 향후 5년 이내에는 심사를 하면 안된다. 입선이상 작품에 대해서 추천자가 실명으로 추천했음을 공고해서 몇 사람 문하가 모두 입, 특선하는 병폐를 막아야한다. 심사 전 작품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즉석 휘호가 중요하다고 본다.
35. 공정한 심사하자
36. 심사표 공개
37. 지연, 학연 등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대가 최우선이다.
38. 초대작가가 되면 국가나 특정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작가활동을 하계끔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39. 대상을 폐지하는 대신 여러 명을 우수상 자격으로 인정하면 신인등용에 더욱 유리함
40. 상은 매우 중요하고 권위를 갖기 때문에 해마다 대상, 특성, 입선, 장려 등으로 몇 십 명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해당작이 없는 해도 있고, 작품 한 두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올해에 1차 검증을 거쳤으면 다음해에 10점 정도 전시회를 갖게하여 비로써 상을 주는 제도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독창적인 작품을 하는 작가를 가려내어 키워야 하는 역할을 미술대전에서 해야한다.(지방이든 서울작가든)
41. 심사위원 제도 바뀌야(심사위원 수 대폭 늘리고, 외부유출이 안되어야) 또한 미술협회 이사들의 심사위원 선임은 하되 이사 본인은 빠져야 한다. 선거를 통한 선심성 이사들이기 때문에 무자격 이사가 많다. 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42. 좋은 취지의 설문인 것 같다. 중앙과 지역의 차별성을 없애고 공정한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제지간으로 얽힌 학연중심의 인맥,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상작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말 이번 설문조사로 조금이나마 새로운 공모전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43. 미술대전 별도의 기구 관리, 집행한다. 철저한 개인이력, 심사과정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송. 전장을 통합하여 대상을 1점 선정하며, 수상인원을 줄여 위상 되찾는다.
44. 미술대전을 한미협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봄, 가을 미술대전 하나로 통합, 운영위원, 심사위원 투명하게 선정, 심사방법 투명성, 미술대전 폐지

작성자 정보(필히 기재해 주세요)

총 응답자 302명

### 나이

연령	20~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5~60	61~65	65이상	무응답
명	97	55	25	19	28	29	13	11	9	6	10
%	32.13	18.21	8.28	6.29	9.27	9.6	4.3	3.64	2.98	1.99	3.31

### 성별

성 별	남	여	무응답
명	112	183	7
확률(%)	37.09	60.6	2.31

### 거주지

지역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제주	무응답
명	138	17	10	17	7	56	8	21	9	7	3	9
확률	45.7	5.63	3.31	5.63	2.32	18.54	2.65	6.95	2.98	2.32	0.99	2.98

전공분야 ① 한국화(동양화) ② 양화(서양화, 회화) ③ 조각 ④ 판화 ⑤ 영상설치 ⑥ 공예 ⑦ 서예 ⑧ 문인화 ⑨ 미술평론 ⑩ 미술사 ⑪ 미술경영(화랑, 컨설턴트 등 전반) ⑫ 큐레이터 ⑬ 언론(신문, 잡지 언론인, 기자 등) ⑭ 미술행정, 정책 ⑮ 미술교육관련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무답
명	56	91	16	6	7	16	35	15	7	6	5	5	10	6	14	7
확률	18.54	30.13	5.29	1.99	2.32	5.3	11.59	4.97	2.32	1.99	1.65	1.65	3.31	1.99	4.64	2.32

대한민국미술대전 출품경력 ①있음 ②없음

출품경력	유	무	무응답
명	85	193	24
확률	28.15	63.91	7.94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 심사경력(과거 1회 이상 경력) ①있음 ②없음

경력	유	무	무응답
명	16	221	65
확률	5.3	73.18	21.52

설문책임자/최병식(위원장), 이태호, 장석원, 강성원, 최석태

2003년 12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민국미술대전 평가위원회  
최병식(위원장), 이태호, 장석원, 강성원, 최석태

(붙임 2)

## 2. “서울공연예술제” 심층평가 결과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공연예술축제를 목표로 창설된 서울공연예술제는 2001년 이래 올해로 세 번 행사를 치렀다. 본 예술축제는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 공연예술에서 새로운 전기를 구축한다는 전략적 발상에서 출발하였다. 본 행사의 발의와 추진 과정에서 한국연극협회와 한국무용협회가 주축이 되었다. 그에 따라 2002년도까지 두 협회가 공동 주최해서 행사를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별도 구성된 서울공연예술제 집행위원회가 행사를 집행하였다.

서울공연예술제를 연극계와 무용계에서는 먼저 예산 규모 면에서, 그리고 문예진흥원·서울시·문화관광부 등 관련 당국의 지원 면에서 모처럼 주어진 호기로 받아들여 왔다. 단기적으로는 90년대 후반 이래 정체(停滯)된 상황에 직면해온 무대에서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말 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를 마련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여망이 서울공연예술제를 대하는 시선 속에 묻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서울공연예술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평점이 주어져 왔으며,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운영 상태라면 같은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극과 무용 사이의 화학적 융합 현상이 아직은 우리 문화계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법하겠으나, 그보다는 화학적 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서울공연예술제 운영 및 집행에서의 여러 과정에 도사리고 있다는 진단이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다.

서울공연예술제가 다소 성급하게 창설된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무용 및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계의 어려운 환경에 비추어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하며 내부 역량을 모은다면 점진적 발전을 이룩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공연예술계의 새 전기를 이룩하는 발판이 될 만하다는 관측도 드물지 않다. 요컨대 그간 몇해 개척되면서 서울공연예술제가 노정된 문제점들을 냉철히 반성하고 새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목표 및 운영 구조 구축에서 시급히 기울여져야 한다.

본 심층 평가서는 2003년 10월 1일 문예진흥원이 선임한 서울공연예술제 심층평가위원회(위원: 김승현 김채현 성기숙 오세곤 최준호, 평가대표위원 김채현)가 2003년도 행사 전반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평가위원들은 10월초 전체 회의에서 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 영역을 분담하였으며, 서울공연예술제 종료 후에 가진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집필 방향을 재확인한 후, 12월 초에 2003 서울공연예술제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수렴 내용과 평가위원별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 구성한 평가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동 검토하여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 1. 서울공연예술제의 정체성

### 1) 현실적 문제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한 서울공연예술제에서 연극과 무용, 나아가 음악, 비언어 예술까지 통합하는 세계적 추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두선에 그쳤으며, 서울공연예술제는 창설 전부터 한계를 보였다. 서울 공연예술제의 구성은 크게 보아 작품과 행사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작품은 다시 무용과 연극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다. 따로 있던 두 영역을 합쳤으니 완전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은 당연하지만, 한 지붕 두 살림으로 어정쩡할 뿐이다. 물론 연극과 무용을 무조건 섞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및 인력 배당, 작품 선정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엄격한 선을 그으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분리되어 서로 교류할 여지마저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연극협회와 무용협회 사이의 갈등, 그리고 공연예술 개념에서의 한계가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 두 예술제를 통합해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연예술제를 만들려는 원래의 목표를 실종시켰다. 더욱이 두 협회의 갈등을 조정할 현실적 수단이 없었으며, 월드컵을 앞둔 1, 2회 때는 서로가 양보하여 무용협회는 재정적 이익이라는 실리, 연극협회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위원장을 맡는 명분을 얻어 그런대로 진행했으나 현실적 이익이 달려있지 않은 3회에 와서 파행이 표출되었다. 무용협회 이사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해에 거부당해서인지 철저히 비협조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적으로만 확대되어 1, 2년 운영되다가 3년째는 양적으로도 위축되는 현상도 겹쳐졌다. 서로의 관점을 강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공동의 조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3회째 각자의 관점을 고수하는 상황 속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서울공연예술제는 표류를 거듭한 것으로 요약된다.

### 2)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서울공연예술제는 “21세기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공연예술제로 발돋움, 공연예술문화의 확대 보급 위한 정책적 축제”(2001, 2002년), “양 협회로부터 탈피, 독립적인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으로 “21세기 서울시민문화의 열린 마당, 무공해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국내 최대의 공연예술축제, 아시아의 중심 예술축제, 국제수준의 예술축제”(2003년)를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기획 방향으로는 “공연 예술인’과 ‘시민’의 흥겨운 한마당, 독자적인 이미지 자리매김과 대중적 인지도 증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부각”(2003년)을 내세웠다.

위에 예시된 목적과 기획 방향은 서울공연예술제가 존재해야 할 내적·예술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공연예술제의 정체성 부재라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공연예술제는 서울무용제와 서울

연극제를 일단 중단하고 두 행사를 통합한 공연예술제로 추진되었지만, 외형적 통합에 바탕을 두고 내적으로는 분리된 상태에는 그대로 둔 채 창설되었고 3년간 그렇게 무대화되었다. 팜플렛도 두 협회의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이 양분되어 제작되었고 실제 공연 현장도 그렇게 운용되었다.

여기서 서울공연예술제의 모든 작품이 연극+무용의 융합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연극, 무용의 고유성을 갖춘 작품 이외에 두 장르의 결합을 기한 작품들도 함께 무대화되고 아울러 무용과 연극 이외의 장르에도 주목하여 공연예술의 다양한 신규 장르들이 전진 배치되는 것이 서울공연예술제의 위상과 정체성을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일부 소수의 작품을 제외하고 해외 초청작을 포함한 전반적 수준이나, 예술제의 인지도를 반영하는 홍보 수준과 만족도, 관객 참여 프로그램의 빈약함, 작품선정의 첫째 기준으로 내세워진 개방성에 반하여 공식초청작들이 모두 극장 공연작이라는 모순된 운영과 비축제성 등은 국내 최대라는 점을 제외하면 서울공연예술제의 목표와 기획 방향이 실종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다시 말해 서울공연예술제가 연극 따로, 무용 따로 방식을 고수하는 한다면 두 장르는 물론 전체 공연예술인들 사이에서마저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동시에 한국의 대표성, 세계적 위상에는 더욱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 3) 과거로부터의 퇴행

서울연극제 및 서울무용제 같은 과거와의 차별성을 보면, 최근에 공연된 기존 작품이 공식 공연작으로 다수 초청되어 재공연됨으로써 오히려 공연예술제의 신선도가 저하되었으며, 주제와 작품의 선정 기준 또한 모호하였다. 선정 기준의 '보편성'과 '작품성', '다양성', '축제성'이 서울공연예술제의 무특성을 뒷받침한다. 공식초청작들을 두고 '다양'하고 '작품성'에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합평회나 관객 설문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거에 통상적으로 있던 일부 학술대회(세미나)와 워크숍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연극학회 주관의 국제심포지엄이 있었으나 형식적 행사였을 뿐 그 현장에선 서울공연예술제 집행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주제와의 연관도, 서울공연예술제 내에서의 홍보도 미약하여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하였다.

2004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서울공연예술제는 이 같은 점에 착안, 협회를 초월하여 예술적 역량 위주의 공연예술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다시 개최될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와는 달리 서울공연예술제는 공연예술이라는 장르 개념에 충실한 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운영 구조 부문

서울공연예술제는 운영 구조 면에서 슬한 문제점을 안아왔다. 무엇보다도 정체성 부재는 두 협회 사이의 이견을 해소할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장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여기서 기인하는 갈등은 운영 구조에서의 문제점을 확대시켰다.

### 1) 현실적 원인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하는 안은 전임 문예진흥원장의 발의로 전임 연극협회 이사장과 무용협회 이사장이 합의했다. 그러나 신임 연극협회 이사장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가 알려지기로는 신임 연극협회 이사장이 대세에 떠밀려 합의함으로써 다시 추진되어 창설되었다. 위원장은 두 협회가 한번씩 교대하기로 해서 처음에는 무용협회 이사장, 그리고 다음에는 연극협회이사장이 맡았다가 올해 무용협회 이사장 차례에서 예술감독 체제로 바뀌는 통에 난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규정이 바뀌고 예술감독이 임명되었다가 중간에 바뀌는 등 파행을 거듭해 결국 내년부터 무용협회와 연극협회가 서울공연예술제에서 손을 떼면서 동시에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부활키로 했다.

이와 같이 서울공연예술제에서 두 협회 사이의 물리적 공존만 있을 뿐 유기적 결합이 부재한 것이 서울공연예술제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올해 행사는 두 협회의 유기적 결합은 물론이고 물리적 공존마저 불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집행위원회는 양 협회의 이사장 및 문광부, 서울시, 문예진흥원 인사 및 공연예술 관련 인사로 구성되었고 일부에서는 양 협회의 규모와 재정 지원 기관들이 유효하게 배치된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일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열세인 무용협회가 자신들의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조직을 흔드는 방법을 택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무용협회가 스스로 양보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조절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무위에 그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술감독 선정이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의 관점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의사결정 방식과 함께 대의를 무시하는 소수의 이기적인 고집을 합리적으로 억제할 방안의 부재가 운영에서

의 근본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 2) 운영에서의 난맥상

서울공연예술제는 지난 3년간 해마다 예술감독이 교체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예술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뒤따름으로써 그 임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런 연유에서 예술감독에게 무게를 실어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3년도에는 우여곡절 끝에 현 집행부가 3월에야 구성을 시작하였고 다수의 공연예술인들이 제기한 상설 사무국의 설치에 요구 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서울공연예술제 측은 전문적, 체계적 조직 구성 및 독립 운영을 기조로 내세웠지만 서울공연예술제 집행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행사 종합실행계획서 어디를 보아도 그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나 설명, 실적 소개를 접할 수 없다.

조직 구성에서 먼저 집행위원장과 예술감독의 양립 체제가 효율적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양립 체제일 경우 역할 분담 내지 업무 분장에 대한 원칙이 확실해야 한다. 특히 예술감독의 경우 연극과 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좋겠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선임이 어렵다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하고 실제 현장 업무를 통해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조직구성에서는 과거의 불필요한 논의 구조의 확대와 사무 구조의 기능별 배치가 불충분하여 사무국의 각 역할이 기능과 사업 부문에서 서로 구분이 모호한 채 혼재하여 사무국장, 기획총괄팀장이 일당백의 업무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부터 쉽게 눈에 띈다.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문제로 손꼽힌다. 집행위원회가 전문 실무 인력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뒤섞인 데에다 예술감독이 작품선정위원과 집행위원에서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가 서울공연예술제의 실제 조직 내에서의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행사 전반의 세부 사항결정에까지 개입할 여지를 둔 것은 양 협회의 이해 관계를 서로 관철하려는 식의 자기 세력 보호 의도를 반영한 궁여지책으로 보이며 동시에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 3) 예산

상설 사무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안정된 가운데 일하도록, 또 상설 멤버가 아닌 경우에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해외작의 초청 예산만 있고 관련 자료 번역비나 심지어 관객들에게 결정적일 자막 번역비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아 자원봉사에 의존한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활용은 예산상의 이유가 아니라 참여 분위기 고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산집행에 있어 여전히 서울공연예술제에 출품하면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의식이 팽배한 점도 간과될 수 없는 문제점이다. 이런 의식은 공식초청작을 제외한 나머지 초대 행사에서 심하였는데, 젊은연극초대전의 경우, 지극히 미미하게 지급된 작품료는 구색 맞추기 용으로 집행된 인상이 농후하다.

예산집행의 불균형, 기타 자세한 운영 내용은 추후 결산서를 참조해야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 3. 공연 작품 선정 부문

2003 서울공연예술제 측은 국내작의 경우 대중성 50%, 예술성 50%를 기준으로 공식 초청한 것으로 밝힌 바 있으나, TV 드라마 류의 연극이 대중적 연극인지 의구심부터 들게 하였다. 이는 서울공연예술제의 간판이라 할 공식초청작에서 문제가 심각하였음을 의미할 뿐더러 선정 기준으로 내세울 수 없는 애매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희곡조차 수준 미만인 작품도 드물지 않은 데에다 공연의 수준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극히 혼란스러운바, 선정 기준의 명료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부터 필요했었다.

물론 2003 서울공연예술제에서 사무국이 3월에 구성된 탓에 해외 공연작을 4월에 선정하기 시작해서 8월에야 마무리하는 등 절대 시간이 부족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할 소지는 있다. 그리하여 2003 서울공연예술제가 열리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진단도 있었다.

연극은 공식초청 6개 단체, 새로운 공간을 찾는 젊은 연극초대전 8개 단체, 자유참가작 19개 단체가 선정되어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공식초청작과 젊은 연극초대전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세워졌다. 공식초청작이 대중성을, 젊은연극초대전이 실험성을 강조한 것은 좋은 접근으로 보이되,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한편 무용에서는 12개의 작품 가운데 이미 공연한 기존 작품이 10개였다. 공연작품을 직접 보고 선정하는 것 특히 실연심사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될 듯하다. 하지만 무용관객이 줄어드는 현실정에서 한번 본 공연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관객 호응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작이 과연 재공연에 초청될 만큼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았다. 결정적으로 공식초청 작품이 당초

예정된 10개 작품에서 갑자기 12개로 늘어난 사실은 선정 과정 자체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는데, 이는 작품 선정위원들이 인정과 민원에 편승한 인상이 짙다.

연극에서 해외 초청작을 생각하면 대중성을 갖춘 작품은 공식초청작에서 전무하였고, 예술성을 논할 만한 작품도 연극 분야에선 없다. 수준이하의 범작이거나(<갈매기>), 신선한 학생 작품 정도(<오이디푸스왕>)였다. 이는 예산에서 기인한 문제점이 아니라 집행위원회의 부족한 역량이 낳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Epizoo Afasia> 역시 전혀 새롭지 않은 실험 공연으로 어느 것을 보아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도 평가하기 어렵다. 해외공연작 초청 방법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엔 해외 유명작을 끌어들이는 것이 축제의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였지만 근래에 여러 국내 공연장들이 자본을 들여 해외작을 끌어들이는 현상에서 해외공연이 축제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동창작이나 실험극, 문화교류, 거리축제 등으로 방향을 바꿔 특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자막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이들이 낮은 번역 수준과 시각적 불편함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연극의 국내작은 작품 접수를 받아 이를 다수결로 거르고 또 걸러서 작품을 정하고, 논의에서 아쉽게 탈락된 작품을 모아 <젊은 연극초대전>을 만들었다. 이는 언뜻 민주적 절차로써 문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나, 작품선정위가 주도적으로 작품을 검토하고 찾아 나서는 적극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차선율' '무난하게' 또 '예상되는 잡음을 줄이면서' 처리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내작 가운데 <졸업>은 관객과 전문평론가 모두 호평하였고,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은 관객은 좋게, 평론가는 평범하게 평가하였으며, <서안화차>와 <늙은 부부 이야기>는 평론가는 좋게, 관객은 평범하게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3부작으로 공연된 <당신, 안녕>, <두 여자, 두 남자>, <이혼의 조건>은 관객과 평론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구사일생>은 관객과 평론가 모두 부정적인 가운데 평론가들의 평가는 도저히 선정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는 정도로 최악이었다.

젊은연출가 초대전은 전반적으로 관객과 평론가 양측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관객 모니터단의 평가만 봐도 공식초청작은 10점 만점에 4점대부터 8점대까지 편차가 심한데 비해 젊은연출가 초대전은 거의 7점대에서 8점대로 비교적 고른 수준이었다.

무용의 해외 초청작은 새로운 경향을 보여줄 정도가 아니었으며 '우리가 있던 그곳은'은 실망을 주기에 족하였다. 그나마 해외 초청작 나머지 2편은 진지함과 새 양식을 도출하려는 열기만은 인정할 수 있었다. 국내 초청작들은 대부분 평균작 또는 그에 못 미치는 작품도 상당수 있었다.

2003 서울공연예술제는 무대 공연 이외에 야외 공연, 광화문 댄스 페스티벌, 거리 공연, 실내 음악회 등 부대 행사들을 다수 열었으나 우선 영성찬 조립 무대에 작품과 행사를 올리는 조악한 의식이 시민들의 미의식부터 도리어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컸었다. 공연예술의 품격을 살리지 못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어떻게 생각할지 주춤했음은 조심스럽게 임해야 했을 것이다.

서울공연예술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 유일한 공연예술제이다. '축제'도 아니고 최고의 '예술제'도 아니고 '공연예술 마켓'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3년도 작품의 선정 및 행사 구성은 이 예술제가 전면 구조 조정될 것을 요구한다. 축제를 하기에는 쌀쌀한 10월에 그저 작품 수만 부풀려놓았을 뿐 내용상 어떤 싹을 예견해 볼 가능성은 없었다.

#### 4. 사업 성과

단적으로 2003 서울공연예술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연예술계 발전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사업의 성과가 무엇보다 작품성에 토대를 둔다고 한다면 예술적 파급 효과도 미미하였다. 우선 연극인과 무용인이 어울리지 않고 동상이몽이었던 상황 속에서 일부 연극·무용인들의 축제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매년 시스템이 바뀌면서 전문 공연예술인들의 관심부터 크게 준 것으로 관측된다.

공연예술계 내부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데도 공연예술계 전반에 끼친 자극은 고려할 수도 없다. 새 관객 개발에도 기여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작품 수준이 낮은 데에다 예술제의 홍보가 미미하고, 전반적인 안내와 공연의 진행상 불만요소도 많았던 것이다.

홍보 부족으로 극장을 찾기 어려웠다는 불만부터 한산한 객석, 자막처리 미숙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비롯하여 공연을 보러 와서도 서울공연예술제를 모르는 경우는 흔하였으며, 해외 초청 공연단체가 한국의 여타 공연을 둘러볼 기회마저 갖지 못하였다. 과거 서울연극제에서는 워크숍, 관객과의 만남, 토론회 등등을 통해 그들과 국내 전문가 간의 교류가 시도되고 우리를 해외에 알리는 장치라도 있었다.

우선 행사 시기 및 기간을 보자면, 물론 관객 평가단의 앙케이트는 30일간의 공연기간을 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일 뿐 일반인이라면 너무 길다고

판단할 것이고, 또 행사 시기도 너무 늦어 갈수록 쌀쌀한 날씨가 축제 분위기를 더 쌀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사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벌어지는 공연예술제는 서울이기에 전국을 대표하지만 서울이기에 축제성 확립이 어렵다는 불리함도 지니고 있다. 서울공연예술제는 수도 서울에서 열리기에 이것저것 모두 포함하느라 특성이 없는 행사가 되기 십상이고, 또 거대도시이기에 지역 구성원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행사의 주공간인 대학로나 장충동, 광화문 일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축제를 이루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 다양한 부대행사일 텐데 그 또한 아직까지는 충분히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다.

어쨌든 아직은 하는 이들은 극소수만이 초청받는 행사라며 불평하고 이내 무관심해버리고 보는 이들은 가난한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벌이는 초라한 잔치 정도로 여긴다.

## 5. 종합 평가 의견

### 1) 장르 개념과 새 장르 창출

연극과 무용을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연예술계의 흐름이다. 연극과 무용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예술들이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고 또 그러기를 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공연예술제로서 연극과 무용을 따로 하는 공연예술제는 보기 힘들다. 서울공연예술제처럼 명칭에는 아랑곳 없이 연극과 무용을 따로 선정해서 물리적으로 병행하는 축제는 이미 시대 추세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에든버러 축제, 아비뇽 축제도 연극과 무용은 물론 심지어 음악 등에도 문호를 이미 개방해왔다.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역량에 걸맞는 문화예술축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공연예술제에서 우리만이 연극 따로 무용 따로 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 공연예술의 위기가 공연예술인들의 위기인지 혹은 두 협회의 위기인지 냉철히 자문해야 할 것이다.

서울공연예술제는 두 협회에 의해 발의되고 창설되었다. 그러나 올해처럼 집행위원회가 장시일의 소모적 갈등 속에서 공백 상태를 빚은 것처럼 행사가 거의 파행 직전까지 이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두 협회가 서울공연예술제에 간여하는 것은 명분에서도 설득력이 없고, 실제로 올해의 지도부 공백처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가능성이 짙다. 물론 서울공연예술제에 두 협회가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서울공연예술제에 두 협회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대의에서 협력한다는 것과 서울공연예술제가 두 협회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협회는 회원들의 공익 단체이므로 후원의 차원을 넘어 참여하는 것은 서울공연예술제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짙다.

이에 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공연예술이 예술 존속에서 핵심인 공연 중심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해당 장르 교육을 통해 존재하는 비중이 더 큰 한국만의 비정상적 환경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표피적으로는 연극협회나 무용협회가 회원들의 자기 협회 중심주의에 집착한 점이 서울공연예술제의 파행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 2) 운영 주체의 혁파

근본적 원인이라면, 연극과 무용을 따로 생각하는 교육 및 무대 현실에서 추정되듯이 무용 또는 연극을 탈피하여 공연예술 전반을 생각하는 공연예술인들이 국내에서는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공연예술제가 여태까지의 양 협회 중심의 인적 구도로선 공연예술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서울공연예술제는 연극과 무용 외에 음악, 행위예술 등 외연을 넓히는 것은 물론 유연하게 새로운 양식까지도 수용할 것을 기대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공연예술제는 그에 고유한 공연예술의 개념부터 모색하고 이에 준해 운영 구조와 작품 선정 절차를 갖춰야 할 테지만 지난 3년간의 경험은 현재의 인적 구도가 혁파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므로 제3의 공정한 단체 또는 기관 또는 위원회 조직이 서울공연예술제의 근간이 되어 서울,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통합 공연예술제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몇 달 앞의 일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치루는 서울공연예술제는 참으로 무의미하다. 상설사무국을 조속히 구성해서 적어도 2-3년간 책임과 권한을 겸비하고 미리 준비하며 제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사무국의 각 단계별 실무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운영 관행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무용과 연극을 비롯 공연예술 전반을 아우를 능력있는 예술감독 중심의 독자적인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 3) 목표 조정

이러한 대수술을 전제로 서울공연예술제는 다음의 점을 목표 측면에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

울공연예술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연예술제를 목표로 삼는 의욕은 긍정시되지만, ‘세계적’이라는 타이틀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임을 내세우는 한국의 이벤트들은 시속어로 남 좋은 일 다해주고 실속 없이 끝나기 일쑤이다. 세계적 추세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이 타이틀에 연연하는 것은 1) 해외 단체 초청 위주의 실적주의를 조장하고 2) 국내의 자생적 공연예술 개발을 등한시하며 3) 국내 공연예술계의 내부 시너지 결집을 소홀히 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다시 말해 서울공연예술제를 비롯하여 국내의 공연예술계는 우선 공연 양식 개발과 개념 정립에서 사실상 과학적 축적이 부족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연하기에 급급하다보니 과학적 축적이란 인식부터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 만큼 열악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서울공연예술제처럼 안정된 기반을 갖춘 곳이라면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연극, 무용 등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며 새 장르를 개발하는 작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 작업을 둘러싸고 해외 유명작과 국내의 연극, 무용, 음악, 연행 등등의 개별 장르작들이 외연을 이룸으로써 서울공연예술제는 그나마 고유한 목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서울공연예술제는 목표(타겟)를 지나치게 국외에, 그리고 공연예술계 외부에 두기보다 우선 국내 공연예술인들의 시너지를 모아 공연예술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공연예술계 내부 관객에게도 호소력이 없는 공연예술제를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심이 선다면 서울공연예술제가 희망하는 대중적 확산, 해외에의 대표성 확보, 문화관광촉제로의 부각,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등은 보다 용이하게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작품 추천단 구성안

풍요 가운데 빈곤이랄까? 연극의 예만 보아도 몇몇 선정위원들이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희곡을 읽어야 하고 또 비슷한 수의 실연 심사 작품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마지막 선정 때는 마땅히 고를 작품이 없어서 난감해들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연예술제와 상관없이 평소 전체 작품 수준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다.

이에 대해 다수로 구성된 작품 추천단의 구성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전문 평론가, 학자 등을 50명이나 100명쯤 모아놓고 1년 내내 공연되는 개별 작품에 대해 5-10명이 심층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다면, 더불어 전공학생, 일반학생(‘연극의 이해’ ‘무용의 이해’ 수강생 등), 일반관객(관객 동호회 회원 등)을 500명이나 1,000명쯤 모아놓고 각 작품에 대해 50-100명으로부터 개괄적인 앙케이트를 받는다면, 적어도 객관성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최소 55명의 입장권이 필요하므로 평균 만원씩만 잡고 1년 대상 작품을 200작품만 예상해도 1억 원 이상 필요하다. 그리고 심층 평가에 사례를 5만원씩만 잡아도 최소 5천만원이 든다. 그러나 그 효과를 생각하면 결코 낭비적인 예산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만약 예산상 당장 시행이 어려우면 우선은 신청이 들어온 작품만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경우 초대권을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신작 희곡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가능하다. 즉 앞서의 전문가 그룹 중 작품 당 5-10명에게 희곡을 보내 심층 평가를 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후보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최종 결정이야 몇몇이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후보 작품을 압축해 놓고, 실연 작품은 비디오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신작 희곡의 경우 신청 단체가 준비한 독회를 통하여 최종 점검을 한다면, 불만이나 잡음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훌륭한 작품을 선정하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 5) 관객 평가단 운영

2003 서울공연예술제에서 시행한 관객 평가단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여 민폐를 끼쳐가며 억지로 초대권을 받아 운영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공정한 평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과 짝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있어 개괄 앙케이트를 하는 관객 평가단의 규모는 선정 때보다 훨씬 클 필요가 있다. 즉 전문 평가단은 50-100명으로 하여 작품당 5-10명의 평론 내지 심층 앙케이트를 받고, 관객 평가단은 2,500-10,000명으로 하여 작품당 500-1,000명의 개괄 앙케이트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예산에 대해 걱정을 하기 쉬운데 참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관객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 당 500명의 관객 평가단을 보낸다고 가정하고 작품 당 지원금이 3,000만원이라 할 때 2500만원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1인당 만원씩 500명의 약정 유료 관객을 보냄으로써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전문 평가단에게는 사례를 해야 할 것이므로 추가 예산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백서 발간을 위하여 일부 지급되고 있는 항목이므로 상승폭이 크지 않다.

- 6) 기타 주요 사업 방안
1. 서울의 조건 활용 축제: 옛 서울시가 내에서의 연행 개발 프로그램
  2. 집행위 내에서의 기획 연구 기능 강화
  3. 서울시 자매시와의 공동 제작 방안
  4. 대학로 카페마당 등: 좋은 효과를 가져왔음.
  5. 극장 활용도 제고하기: 더 콤팩트하고 임팩트를 주는 축제로 진행. 한달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보름 정도로 압축.
  6. 연극계, 무용계, 범공연예술계 축제: 예술적 역량을 응축, 폭발시키는 자유로운 분위기 필요.
  7. 내부 전공자 관객의 회복 프로그램
  8. 자유참가자를 위한 프린지 무대 양성과 확대
  9. 축제 분위기 고양을 위한 공연장과 공연 시간 개념 조정
  10. 해외 및 국내 초청작: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전 섭외

평가대표위원 김채현  
 평가위원 김승현  
 평가위원 성기숙  
 평가위원 오세곤  
 평가위원 최준호

2003.12.

## 2003년도 서울공연예술제 심층평가위원회

(붙임 3)

### 3. 서면평가, 현장평가, 국민모니터링 평가 양식

- 서면평가 양식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작성 사항)		배 점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22)	성과보고서 제출 여부	○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시기의 적정성	사업종료후 정상제출	3.0
			1개월이상~2개월이내	2.0
			2개월이상~	1.0
	일정	○ <지원신청서-교부신청서-성과보고서> 상 의 일정에 대 한 계획 대비 실적	지원신청=교부신청=실제	2.0
			지원신청≠교부신청=실제	1.5
			지원신청≠교부신청≠실제 또는 미기재	1.0
	장소	○ <지원신청서-교부신청서-성과보고서> 상 의 장소에 대 한 계획 대비 실적	지원신청=교부신청=실제	2.0
			지원신청≠교부신청=실제	1.5
			지원신청≠교부신청≠실제 또는 미기재	1.0
	사업 회수 · 규모	○ 행사(공연·전시·세미나·강좌 등), 또는 발간의 회 수·규모 계획 대비 실적 ☞ <성과보고서 D-1>	80% 이상	2.0
			80% 미만 ~ 60% 이상	1.5
			60% 미만 또는 미기재	1.0
독자 · 관객 수	○ 독자·관객(람) 수의 계획 대비 실적 ☞ <성과보고서 D-1>	80% 이상	2.0	
		60% 이상 ~ 80% 미만	1.5	
		60% 미만 또는 미기재	1.0	
예술인(단체) 참여도	○ 예술인(단체) 참여도의 계획 대비 실적 ☞ <성과보고서 D-1>	80% 이상	2.0	
		60% 이상 ~ 80% 미만	1.5	
		60% 미만 또는 미기재	1.0	
재원 운영	○ 총 소요예산에서 문예진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	30% 미만	3.0	
		30% 이상 ~ 70% 미만	2.0	
		70% 이상 또는 미기재	1.0	
예산 조달 계획	○ 예산 조달을 위한 당초 계획 추진 실적 ☞ <지원신청서 C-4>	80% 이상	3.0	
		60% 이상 ~ 80% 미만	2.0	
		60% 미만 또는 미기재	1.0	
사업추진력	○ 기획·구성·관객개발·마케팅·홍보 등 사업추진전략 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적 (구현도) 등 사업추진력 ☞ <성과보고서 D-2>	우수	3.0	
		당연히 기대(보통)	2.0	
		미흡 또는 미기재	1.0	
해당분야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0)	창작· 보존되는 작품 수	○ 창작·보존되는 작품 수의 계획 대비 실적 ☞ <성과보고서 D-1>	80% 이상	2.0
			60% 이상 ~ 80% 미만	1.5
			60% 미만 또는 미기재	1.0
	언론· 평론 계의 관심	○ 언론 및 평론계의 관심도 ☞ <성과보고서D-3>	80% 이상	2.0
60% 이상 ~ 80% 미만			1.5	
60% 미만 또는 미기재			1.0	
지역민과 지 역사회의 관 심유발도	○ 일반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도와 사업 후 파급효과 등에 대해 계량적, 비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기부, 자원봉사, 인터뷰, 후원자 등 사업지원의 다양성 등) ☞ <성과보고서D-4>	활 발	3.0	
		보 통	2.0	
		부 족 또는 미기재	1.0	
기금 지원 효과 의 지리적 범위	○ 기금지원 파급효과의 지리적 범위의 계획 대비 실적 ☞ <성과보고서 D-5>	활 발	3.0	
		보 통	2.0	
		부 족 또는 미기재	1.0	
종합평가 (8)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 로 한 우리원 담당자의 종합평가	탁 월	8.0	
		우 수	6.0	
		당연히 기대(보통)	4.0	
		미 흡	2.0	
		현저히 미흡	0.0	
계			40.0	
(평가의견란)				

- ※ 【유의사항】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평가 후에 그 결과를 비교·확인하면서 서면평가 추진
- ※ 사업수행자가 성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최하점 처리

○ 현장평가 양식

1.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착안 사항)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의견란	
A.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우수성	○ 사업의 예술(문화)적 우수성 * 사업내용의 질 등 가치(價値) 중심의 평가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완성도	○ 사업의 예술(문화)적 완성도 * 기획, 구성 등 형식(形式) 중심의 평가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B.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8)	수용자 만족도	○ 수용자(관람객 등)의 지리적 범위와 분포의 규모, 참여도, 호응도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해당 분야의 관심도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현장 등에서 해당 분야 관련 언론, 평론가, 전문가, 전공자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와 호응도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C.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12)		○ 해당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종합평가 및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필요성 정도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0	
			미 흡	6.0	
			현저히 미흡	4.0	
○ 현장평가일시(기간) : ○ 현장평가장소(지역) :					
계			60.0		

2.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착안 사항)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의견란	
A.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18)	우수성	○ 사업의 예술(문화)적 우수성 * 사업내용의 질 등 가치(價値) 중심의 평가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완성도	○ 사업의 예술(문화)적 완성도 * 기획, 구성 등 형식(形式) 중심의 평가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B.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수용자 만족도	○ 수용자(관람객, 전문가 등)의 지리적 범위와 분포의 규모, 참여도, 호응도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해당 지역(국가)의 문화예술적 파급효과	○ 해당 지역(국가)의 일반시민(국민)의 문화향수권(문화교류권)신장을 위한 문화예술적 파급효과(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현장 등에서 해당 분야 관련 언론, 평론가, 전문가, 일반인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와 호응도 고려)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C.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12)	○ 해당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종합평가 및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필요성 정도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0		
		미 흡	6.0		
		현저히 미흡	4.0		
○ 현장평가일시(기간) : ○ 현장평가장소(지역) :					
계			60.0		

3. 예술의 보존과 계승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착안 사항)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의견란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보존가치와 우수성, 완성도 (24)	문화예술적 보존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예술(문화)적 보존가치 중요성 및 독창성</li> <li>- 해당 사업의 문화예술적 보존가치</li> <li>- 문화(예술)적 가치의 발전적 보존 및 계승의 독창성</li> <li>* 내용의 질 등 가치(價値) 중심의 평가</li> </ul>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예술(문화)적 완성도</li> <li>* 기획·구성 등 형식(形式) 중심의 평가</li> </ul>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4)	수용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관람객 등)의 지리적 범위와 분포의 규모, 참여도, 호응도</li> </ul>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해당분야의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현장 등에서 해당 분야 관련 언론, 평론가, 전문가, 전공자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와 호응도</li> </ul>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종합 평가 및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필요성 정도</li> </ul>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0		
		미 흡	6.0		
		현저히 미흡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평가일시(기간) :</li> <li>○ 현장평가장소(지역) :</li> </ul>					
계			60.0		

○ 국민모니터링평가 양식

1.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평가항목	평가 지표 (착안사항)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의견란	
A.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예술(문화)적 우수성	○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준이 뛰어난가? - 기획·연출·구성·내용 등 프로그램이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그 내용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가?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예술(문화)적 완성도	○ 사업이 예술(문화)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완성도가 높은가? - 프로그램의 예술적 형식을 갖추거나 형식에 있어 독창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B.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8)	수용자 만족도	○ 사업에 참여(관람)하는 일반 시민(관객)의 수는 많은가? - 사업에 대한 이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해당 분야의 관심도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현장 등에서 해당 분야 관련 언론, 평론가, 전문가, 전공자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와 호응도는 높은가?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C. 해당 성과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만족도 (12)		○ 사업의 지원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사업이었던가? ○ 이 사업의 결과에 만족하는가? ○ 또한 이 사업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가? ○ 기타 이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만족도 평가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0	
			미 흡	6.0	
			현저히 미흡	4.0	
○ 현장평가일시(기간) : ○ 현장평가장소(지역) :					
계			60.0		

2.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착안 사항)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의견란	
A.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18)	예술(문화)적 우수성	○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준이 뛰어난가? - 기획·연출·구성·내용 등 프로그램이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그 내용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가?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예술(문화)적 완성도	○ 사업이 예술(문화)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완성도가 높은가? - 프로그램의 예술적 형식을 갖추거나 형식에 있어 독창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탁 월	9.0	
			우 수	7.5	
			당연히 기대(보통)	6.0	
			미 흡	4.5	
			현저히 미흡	3.0	
B.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수용자 만족도	○ 사업에 참여(관람)하는 일반 시민(관객)의 수는 많은가? - 사업에 대한 이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해당 지역(국가)의 문화예술적 파급효과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현장 등에서 해당 분야 관련 언론, 평론가, 전문가, 전공자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와 호응도는 높은편인가?	탁 월	15.0	
			우 수	13.0	
			당연히 기대(보통)	11.0	
			미 흡	9.0	
			현저히 미흡	7.0	
C. 해당 성과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만족도 (12)	○ 사업의 지원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사업이었던가? ○ 이 사업의 결과에 만족하는가? ○ 또한 이 사업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가? ○ 기타 이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만족도 평가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0		
		미 흡	6.0		
		현저히 미흡	4.0		
○ 현장평가일시(기간) : ○ 현장평가장소(지역) :					
계			60.0		

3. 예술의 보존과 계승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착안 사항)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의견란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보존가치 우수성과 완성도 (24)	문화예술적 보존가치와 우수성	○ 사업이 예술(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많으며 수준이 높은가? - 전통적 가치를 예술(문화)적으로 독창적이며,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가?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예술(문화)적 완성도	○ 사업이 예술(문화)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완성도가 높은가? - 프로그램의 예술적 형식을 갖추거나 형식에 있어 독창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4)	수용자 만족도	○ 사업에 참여(관람)하는 일반 시민(관객)의 수는 많은가? - 사업에 대한 이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해당분야의 관심도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현장 등에서 해당 분야 관련 언론, 평론가, 전문가, 전공자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와 호응도는 높은편인가?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5	
			미 흡	7.0	
			현저히 미흡	5.0	
C. 해당 성과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만족도 (12)	○ 사업의 지원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사업이었는가? ○ 이 사업의 결과에 만족하는가? ○ 또한 이 사업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가? ○ 기타 이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만족도 평가	탁 월	12.0		
		우 수	10.0		
		당연히 기대(보통)	8.0		
		미 흡	6.0		
		현저히 미흡	4.0		
○ 현장평가일시(기간) : ○ 현장평가장소(지역) :					
계			60.0		